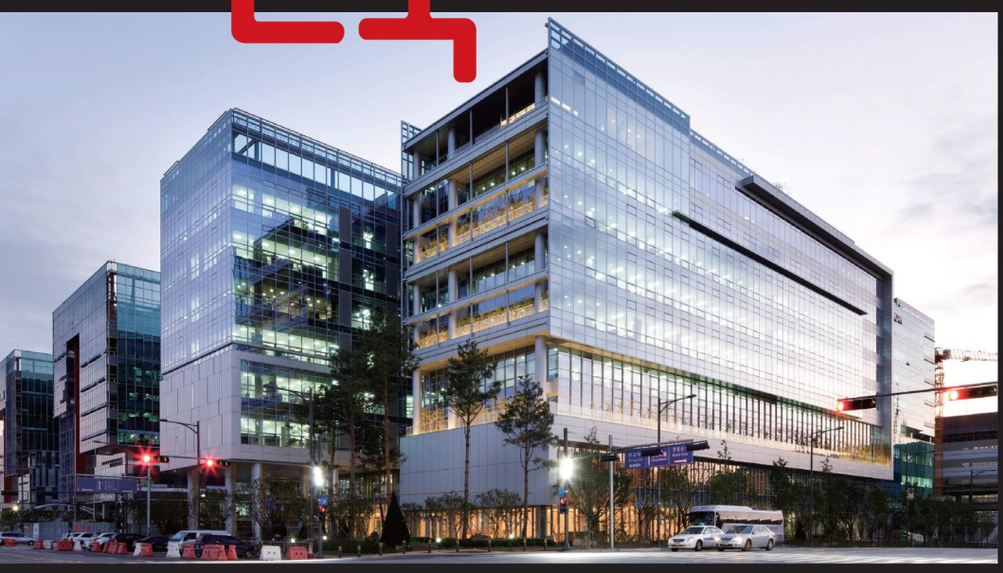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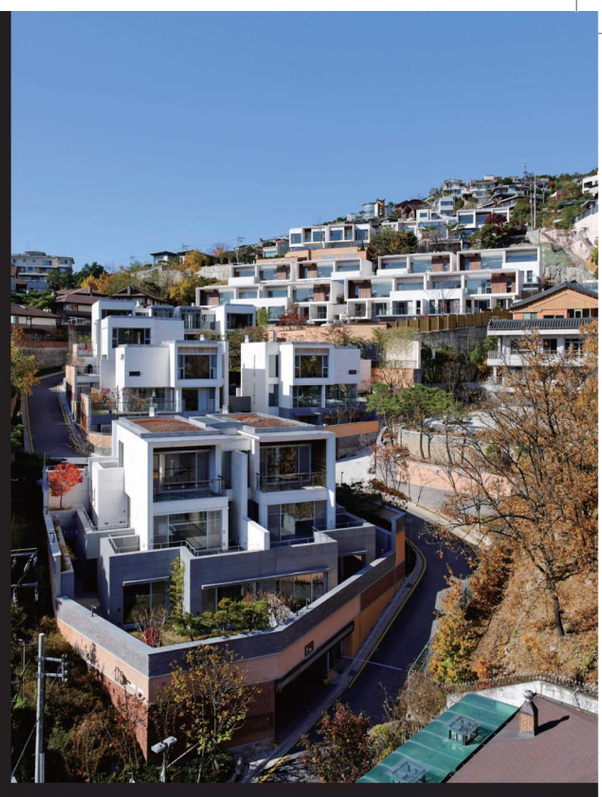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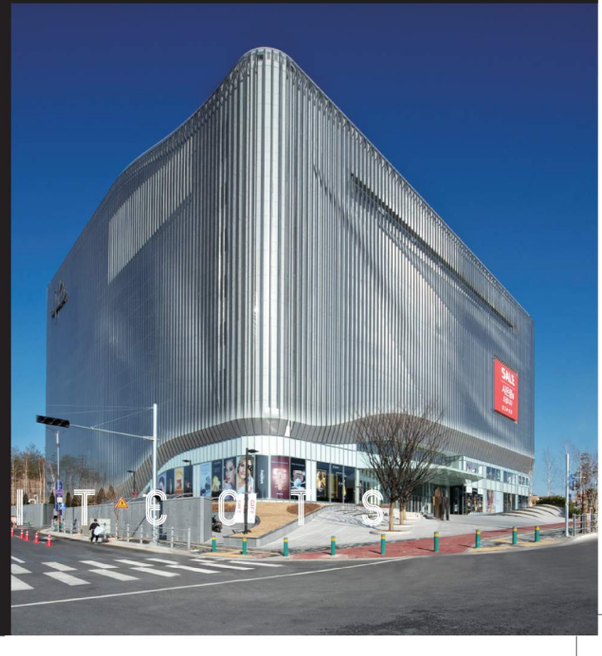
건축사



KIRA 2011 10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www.KIRA.or.kr

칼 럼 지방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비명소리…
시 론 받는 것이 더 큰 재능기부
건축, 사람과 자연을 향하다
특 집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beyond the best

금호석유화학

지키는 것이 **기술**이다

흑연으로 가장 쾌적한 온도를 지키는 신개념 비드법 2종 단열재 **에너포르**

흑연 테크놀로지 | 에너포르는 열을 흡수하고 보존하는 흑연을 첨가한 첨단소재로 기존 단열재에 비해 20% 이상 높은 단열성능을 발휘합니다

슬림 이노베이션 | 뛰어난 단열성능 덕분에 기존 단열재보다 얇게 시공할 수 있어 공간은 더 넓게, 에너지 효율은 더 높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웰빙 신소재 | 내부 구조가 기존 단열재보다 훨씬 미세한 기포구조로 되어있어 습기, 세균, 곰팡이로부터 더욱 안전한 친환경 웰빙 소재입니다

건축법상 [가] 등급 단열재

에너포르는 기존 발포폴리스티렌에 흑연을 첨가, 결정구조상 복사열 흡수기능이 적용되어
동일비중의 기존 단열재에 비해 열전도율이 최대 약 10~20%까지 향상된 신기술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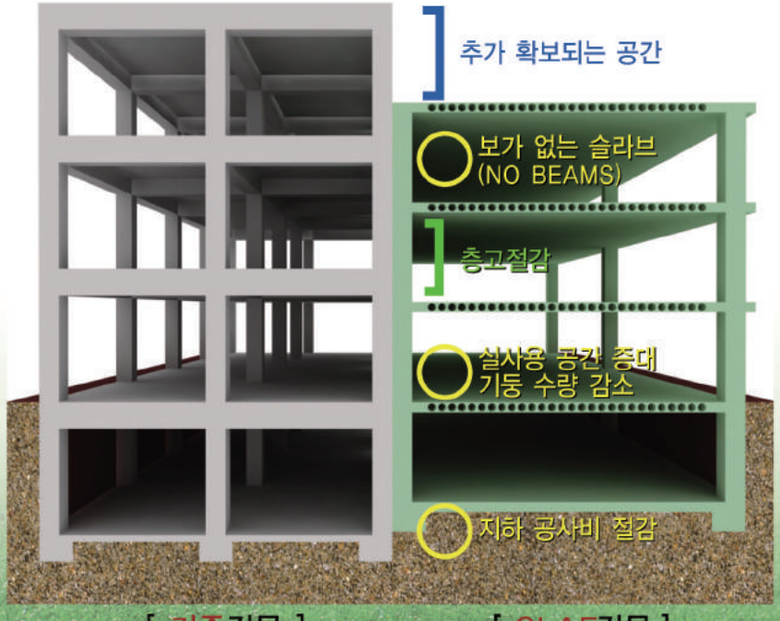
에너포르

www.kkp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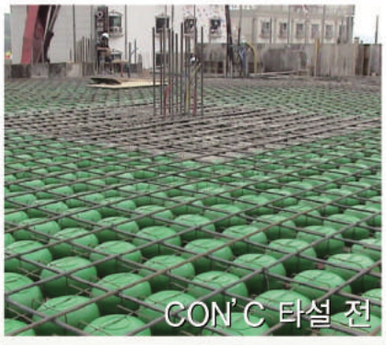
건축주가 원하는 바를
신공법 SLAF 가
초경량 중공형 무량판 바닥구조
간단히 해결해 드립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공법

- 공사비 절감 / 최소 15% 이상
- 공사기간 단축 / 최소 10% 이상
- 가용 공간 증대 / 기둥 수량 감소
- 소음 · 진동 · 보온 · 단열 · 내진 성능 우수
- 구조용역비 SAVE / 초기 구조 디자인 지원



[기존건물] [SLAF건물]



[주]신화엔지니어링
구조기술사사무소/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www.sh911.co.kr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20번지
TEL. (02)3481-3885(代) FAX.(02)3476-3888

[주]제일테크노스
SLAF데크시공사/데크플레이트전문기업
www.jeil21c.co.kr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50번지
TEL. (054)278-2841(代) FAX.(054)287-2883
TEL. (02)555-2055(代) FAX.(02)554-1476

미니로타리식 주차장치의

絶·對·强·者 창공 스카이파크

연속시장점유율 1위 누적설치실적 1위

www.juchagi.com

전국 1544-3335

PL법 영업배상 책임보험 8억 창공주차산업

창공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스카이파크

New Trend-Successful Business Power!

구동모터 2개로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구동력을 갖춤

적용 : **중형급 16대형 / 대형급(RV 수용형) 12대형**

대형(RV급 수용형) 주차기 판매실시

2010년 신개발품! **수용대수 : 5대형~12대형**

일반형, 턴테이블 내장형까지

16대 수용형 및 대형(RV급 수용형)까지

절찬리 판매중!

아주 특별한 주차기 회사

주식회사 창공주차산업

CHANG GONG PARKING INDUSTRY CO.,LTD.

■ 서울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망원1동 385-2 1층 A/S : 02)333-4448

■ 본사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 E-mail : cgp210@kornet.net ■ FAX : 054)973-0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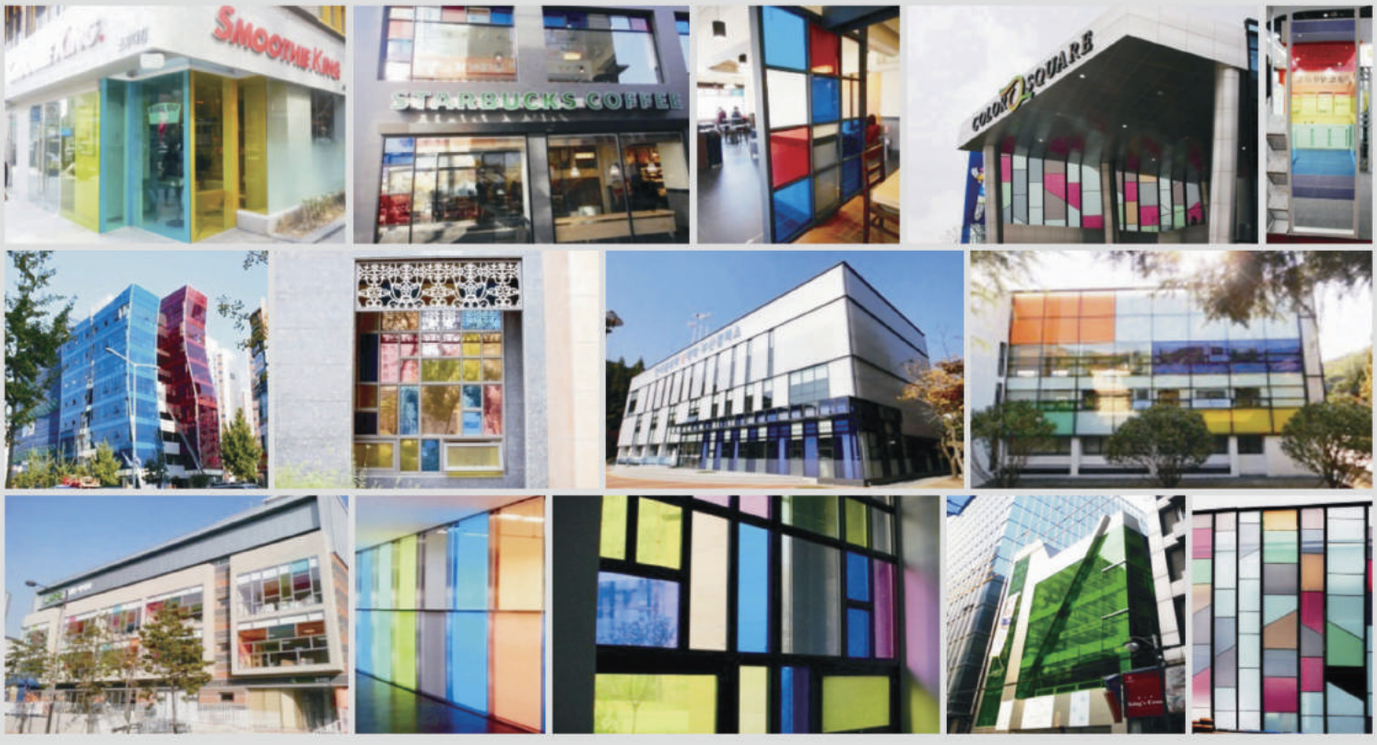
기술로 앞서가는

nepes
NEPES RIGMAH

Functional Color Glass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합니다

- 투명 칼라 유리
- 열차단 칼라 유리
- 안전 접합 유리
- 비반사 유리
- 자정 유리
- 칼라 디자인 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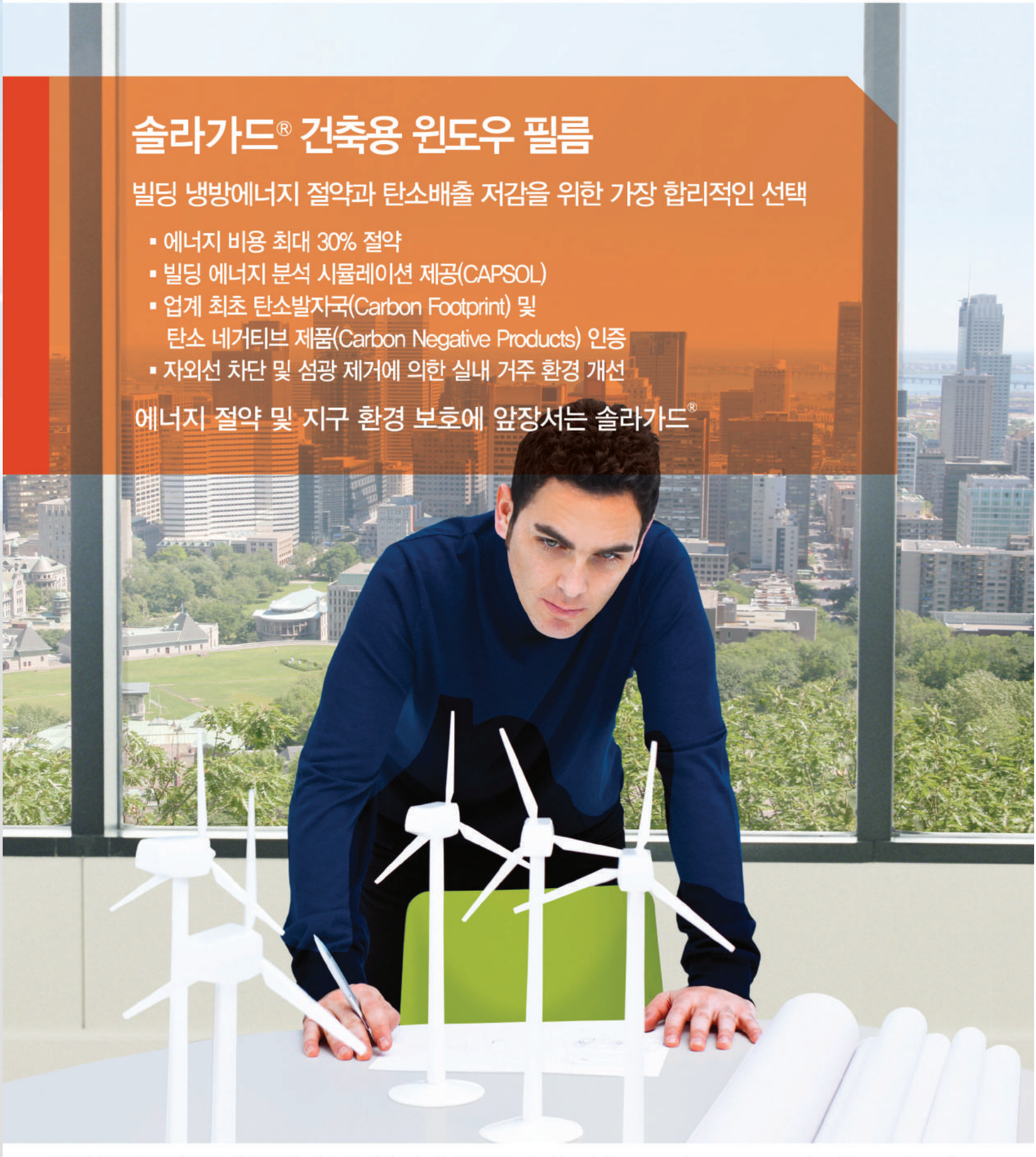
더 많은 시공사진을 보시려면 NAVER 리그마 검색 를 치세요.



nepes NEPES RIGMAH (주) 네패스 리그마 | 본사/공장 :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 644-4
Tel. 043-240-0927 Fax. 043-217-0599

A better environment inside and out.™

SolarGard® WINDOW FILMS



솔라가드® 건축용 윈도우 필름

빌딩 냉방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

- 에너지 비용 최대 30% 절약
- 빌딩 에너지 분석 시뮬레이션 제공(CAPSOL)
- 업계 최초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및 탄소 네거티브 제품(Carbon Negative Products) 인증
- 자외선 차단 및 섬광 제거에 의한 실내 거주 환경 개선

에너지 절약 및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솔라가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53 창우빌딩 3층 베카르트코리아 Tel 02 539 8761 · Email js.park@bekaert.co.kr

http://www.solargard.com

KOREAN ARCHITECTS

10
칼럼

지방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비명소리…

_황정복

11
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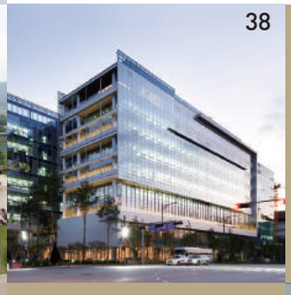
받는 것이 더 큰 재능기부
_장양순

건축, 사람과 자연을 향하다
_금동선

18
만평

_곽희수

36


38

14 **특집**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35 **특집**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_대상

44 **특집**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_본상

52 **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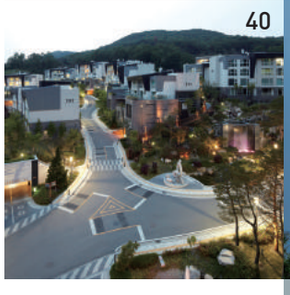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_우수상

95 **특집**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_수상작


40

42

108 **인터뷰**

건축초대석
_김성곤 국회의원

인터뷰_박찬정

114 **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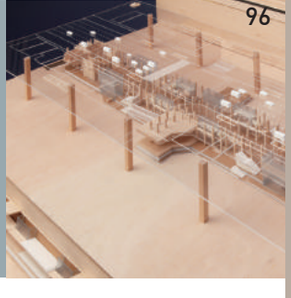
변화하는 건축

_윤기병

118 **연재**

문화마케팅과 조명의 역할

_김국선


96

124 **건축기행**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下)

_정병협

132 **건축마당**

보고서
_제16차 아시아건축사협의회 포럼 참가보고서

협회소식 / 건축계소식

해외건축 동향 _김은미

통계

발 행 인 강성익
담당이사 정익현
위 원 장 박찬정
위 원 구만열 · 김희곤 · 송호섭 · 이동우 · 정병협 · 최동호
취재 · 편집 최락청 팀장
발 행 처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 – 55 건축사회관
우편번호 137–877
전 화 대표 (02)3415–6800
팩시밀리 (02)3415–6898~9
인 터 넷 http://www.kira.or.kr
인 쇄 (주)화신문화사 Tel : (02)2277–0624
광고문의 홍보편찬팀 (02)3415–6862~4

■ 월간 "건축사"는 한국건행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Vol. 510 October 2011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11년 10월호 통권 51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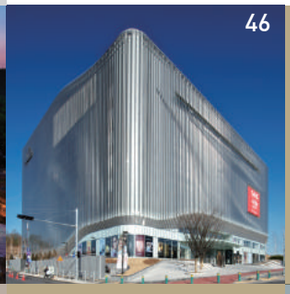
Contents

10
COLUMN
Regional small scale architect's scream
_Hwang, Jeong-bok

11
FOCUS
Public Opinion
Talent Donation is Rewarded
_Chang, Yang-soon
Architecture for humans and nature
_Keum, Dong-sun

18
CARTOON
_Kawk, Hee-soo

44


46

14 Special_Issue
Korean Architecture Award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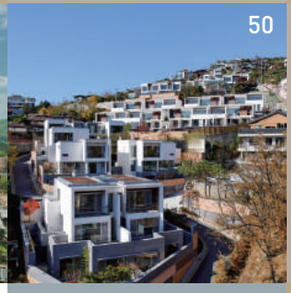
35 Special_Issue
Korean Architecture Award 2011
_Professional Part grand prize

44 Special_Issue
Korean Architecture Award 2011
_Professional Part Superior prize

52 Special_Issue
Korean Architecture Award 2011
_Professional Part Winning prize

95 Special_Issue
Korean Architecture Award 2011
_The Submitted Part Prize works

48


50

108 INTERVIEW
Invitation to Achitecture
_Kim, Seong-kon
Congressperson
Interview_Park, Chan-jung

114 SERIAL
Changes in Architectural
_Yoon, Ki-byung

118 SERIAL
The cultural marketing and role of lighting
_Kim. Kook-sun

124 ARCHITECTURE TRAVEL
Dreaming that my life is free
_Chung, Byung-hyup

132 ARCHITECTS' PLAZA
REPORT
_The 16th ARCASIA FOROM
Kira News
Archi-Net
Overseas News Review
_Kim, Eunmee
Statistics

Publisher	Kang, Sung Ik
Director	Jeong, Ik-hyun
Committee Chairman	Park, Chan-jung
Committee	Ku, Man-yeol & Kim, Hee-gon & Song, Ho-seob & Lee, Dong-woo & Chung, Byung-hyup & Choi, Dong-ho
Editor	Choi, Rak-chung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 1-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Tel	(02)3415-6800
Fax	(02)3415-6898~9

지방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비명소리…

Regional small scale architect's scream

황정복 | Hwang, Jeong-bok, KIRA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약력
-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경기도 건축위원회 위원
- 경기도건축사회 수원지역 건축사회 회장
- 수원시 건축위원회 위원
- 수원과학대 건축과 겸임교수
- 예문 건축사사무소 대표

대한건축사협회에 시도건축사회가 생긴 1965년 이래 50년에 가까운 역사 속에서 여성이 최초로 지역건축사회장 직임을 맡아 2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소규모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를 대신해서 소리를 크게 한번 질러보고 싶다. 만약 누구라도 이 비명소리를 들어준다면 그들과 친구 하겠다.

나는 요즘 슈퍼슈퍼마켓(SSM)의 문제가 자주 거론되면서 아주 관심있게, 중요한 이슈로 지켜보고 있다. 이것은 단지 슈퍼마켓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소규모 건축사사무소가 당면한 선결과제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요즘 지방의 도시들은 용어는 조금씩 달라도 뉴타운이니 재개발이니 하며 모두 건축규제로 묶어 대규모 도시개발방식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무소에서 수주할 수 있는 일은 말할 수 없이 빈약하다. 우리들 건축사 스스로 "뽑기 형태의 운찰"이라 비아냥거리며 우습게 생각하면서도 모두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기대하는, 국가와 공공기관의 설계발주제도인 입찰제도 마저도 이제 소규모사무소에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해 진입자체가 배제되고 있다.

얼마 전 3년 만에 1순위에 낙찰되어 들뜬 마음으로 좋아하던 건축사가 기업신용평가등급 때문에 낙찰이 취소되어 황당해 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는데 기업신용평가등급이 무슨 중요한 요소이냐고 발을 동동 구르며 분노하는 그 건축사를 차마 바라 볼 수 없었다.

대규모 프로젝트는 꿈도 못 꾸고, 몇 년 동안 작은 규모의 현상설계에 수십 번 도전 끝에 겨우 당선 되어도 당선작 발표 날 딱 하루, 나를 아는 지인들로부터 축하전화를 받는 것이 건축사로서의 행복 끝이고, 그 다음 날부터 각종 협의 · 심의 · 심사 · 인증제도에 치이고, 몇 푼 되지 않는 설계용역비를 쪼개서 여기저기 각종 외주비를 나누어 주는 고통스러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나면 건축사에게 현실적으로 남는 게 없다.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경우 설계감리 이행보증보험 보증서를 제출 해야만 한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일부 건축사는 설계감리비에 보증서 관련비용은 건축주에게 말도 못하고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한 채 보증서를 끊는다. 소규모 사무소의 선량한 건축사들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피 같은 돈으로 건축사회비를 내고 직원들의 4대 보험과 밀린 세금을 낸다. 어떤 건축사는 세금을 못 내서 통장을 압류당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보증보험 증권도 끊을 수 없는 상황이 간간이 발생하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

일명 "핸드폰건축사"사무실을 홀로 운영하는 건축사를 감히 누가 비난할 것인가? 지방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서 유능한 직원을 구하기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되었다. 여태껏 공업고등학교나 전문대를 나온 직원들을 데리고 불평 없이 일을 해왔다. 이들도 건축사사무소에서 경력이 쌓이면 건축사보도 되고 건축사도 되는 꿈이 있었으니까. 경력이 몇 십 년이 되어도 기사자격증이나 예비건축사 합격증이 없으면 건축사보의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상주감리인원으로 공사현장에 배치 할 수도 없다. 솔직히 말하면, 건축사사무소에서 일하는 데 기사자격증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 있다 해도 자격증이 있는 직원은 날마다 좋은 직장을 갈망하며 이직을 생각한다. 건축사사무소의 경력만으로 건축사보의 등록이 그리 어려운가? 건축사자격증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건축사를 보조하는 '건축사보'로서 '상주감리원'의 역할이라도 충실히 하겠다는 것이기에 현실을 무시한 잘못된 건축사법과 제도만 바꿔주면 되는 일인데….

건축설계를 열심히 잘해서 유명한 작품을 남기고 건축사로서 우리 지역에 유명인사로 성공하는 것은 이미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었다. 사람들은 랜드마크적 대규모 건축물만 기억하지 주변의 평범한 건물들은 기억에서 지워버린다. 그렇듯 지방의 평범한 건축사들도 얼마가지 않아 기억 속에서 지워져버리겠지만, 주변의 평범한 건축물들이 도시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듯, 대다수의 민생형 건축사, 그들이 지역의 역사를 만들고 있다. 지방의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도 어깨를 펴고 한국의 건축문화를 이끈다는 자부심으로 살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받는 것이 더 큰 재능기부

Public Opinion Talent Donation is Rewarded

장양순 | Chang, Yang-soon, KIRA
건축사사무소 창건축

약력
- 전 본지 편찬위원장 및 담당이사
- 전 건축문화신문 편집인 겸 편집국장
- 한서대학교 건축과 겸임교수

작년부터 모 교회 공사 자문을 해주고 있었는데, 터파기 공사 중 시공사는 부도가 나고 감리자도 중도 사퇴하게 되었다. 교회는 건축내용을 잘 안다는 이유로 필자에게 감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런 경우 직원을 내보내도 감리 외적인 수많은 문제는 직접 관여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보수가 부족했다. 또한 5년간 협회이사와 신문편집국장직의 바쁜 일정에서 막 벗어난 터라 등산, 박물관 순례, 음악공부 등으로 오랜만의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다. 고민하다 돌아보니 60 이후에는 '재능기부로 살자'던 생각이 떠올랐다.

필자는 50 들어 돋보기를 쓰던 날, 60이 되면 막내가 대학과 군복무를 마치게 되니 결혼 시킨 후 귀향하기로 계획표를 짰다. 주중 3일은 건축사 업무를, 나머지 4일 중 하루는 후학을 위한 강의, 하루는 교회, 하루는 취미생활 그리고 나머지 하루는 고향을 위해 봉사 할 계획이었다. 30년 전 5명의 동지와 함께 창립한 당진지역사회연구소에도 들르고, 고향에 없는 박물관 건립을 위해 약속했던 동지들과 힘을 합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식은 장가 대신 유학가고, 아내는 귀향을 망설였다. 60들어 5년간 한 일은 협회의 이사로써 건축문화신문을 창간하고 키워온, 나만의 문학적 재능기부였던 셈인데, 이제는 나에게 직업적 재능을 주신 분께 그 키를 돌리기로 하였다.

사무소를 개업한지 37년 만인 5월1일, 처음으로 상주감리자가 되었다. 컨테이너 하우스 반 칸의 비좁고 열악한 내 방. 그곳은 공사대금을 유용한 건설사 때문에 월말 기성금 청구서 검토와 배분으로 고민을 하게하고, 정상적이라면 무관한 하도자의 자재 발주 확인까지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러나 집과 현장이 700여m이다 보니 강의 등으로 종일 있지 못해도 조석으로 체크할 수 있고, 밤 늦게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할 때도 지켜볼 수 있어 좋다. 교회가 건축주라 토, 일요일에 미팅이 많아 뺏기는 시간도 많지만, 신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는다는 기쁨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 바뀐 것도 많아 책을 보며 공부하는 재미도 쏠쏠하고 포스트텐션공법 등 처음 접하는 분야도 신선하다. 게다가 9월부터는 퇴근길이나 여유시간을 택해 석촌호수를 돌아 집까지 4.2km를 걷는다.

안나푸르나봉의 눈바라기

소음 가득 찬 현장을 이용해 클라리넷을 독학한지도 두 달이 넘었다. 틈을 내어 골프연습장도 들리다 보니 70대 싱글을 하는 기쁨도 맛보았다. 오페라, 음악회, 연극 감상은 물론 작곡공부까지 계획했던 것들이 감리업무와 무관하게 잘 이뤄지고 있다. 그뿐이랴! 종강과 함께 신문편집국장 시절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계획했던 네팔의 안나푸르나봉 눈바라기도 하였다. 그것도 예정에 없던 시애틀의 절친한 친구와 함께.

한 평생 꿈꾸던 일 / 눈 바라기 하고픈 곳
구만리 멀고 먼 길 / 영혼 함께 달려왔네
새벽빛 구름 뚫고 / 마주쳐 오시는 이
장엄한 만년백의(萬年白衣) / 안나푸르나여
홍진세상 쌓아 온 / 미움과 서러움
설산(雪山)에 모두 묻고 / 누리리 참 평화를.

하산 중 쓴 시를 인도로 가는 길에 곡을 붙여 일행과 합창했다. 오늘도 나는 망치소리 요란한 현장사무실에서 물질 외에도 받는 것이 더 큰 재능기부에 대한 감사기도로 업무를 시작한다. 그리곤 찬송가와 함께 자작곡 '안나푸르나봉의 눈바라기'를 클라리넷으로 연주한다.

–도 레–파, 미 레미 파 – …

건축, 사람과 자연을 향하다

Architecture for humans and nature

금동선 | Keum, Dong-sun
법무부 운영지원과장

약력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법무부 시설관리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역임

유럽 여행을 하다보면 그 도시에서 풍기는 멋과 향기에 감탄하게 되는데, 그 멋과 향기의 원천은 노트르담 성당, 루브르 박물관 등 유럽풍의 건축물입니다. 그만큼 건축은 도시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도 궁궐, 전통사찰 등 훌륭한 고건축(古建築)을 가지고 있으며, 찾아오는 외국 관광객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사찰의 단아하고 섬세한 처마에 마음을 빼앗기고 토담 길을 따라 거닐며 사색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통 건축물을 제외하면 우리만의 특징적인 건축물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고민을 반영한 건축물이 나타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한때 법무부의 법무시설조성사업을 총괄하는 시설과장으로 근무한 경험에 비추어 우리 건축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 사람의 삶과 밀접한 건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공간을 구획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까지도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건축이라 생각합니다. 건축물을 부수고 세우는 단순한 작업으로 보기보다는 전체를 보고 인간 삶의 동선을 파악해야 사람이 살기 좋은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구,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등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여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은 인간 중심 건축의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둘째, 주변 환경과 끊임없는 교감이 이루어지는 건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건축물의 나열은 시선을 어지럽게 할 뿐입니다. 만약 유럽의 도시가 자연과 어울리는 풍광을 갖지 않고 아파트와 고층건물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뉴욕과 홍콩의 고층건물이 천편일률적인 모습이었다면 여행자를 불러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자연과 도시에 어울리는 건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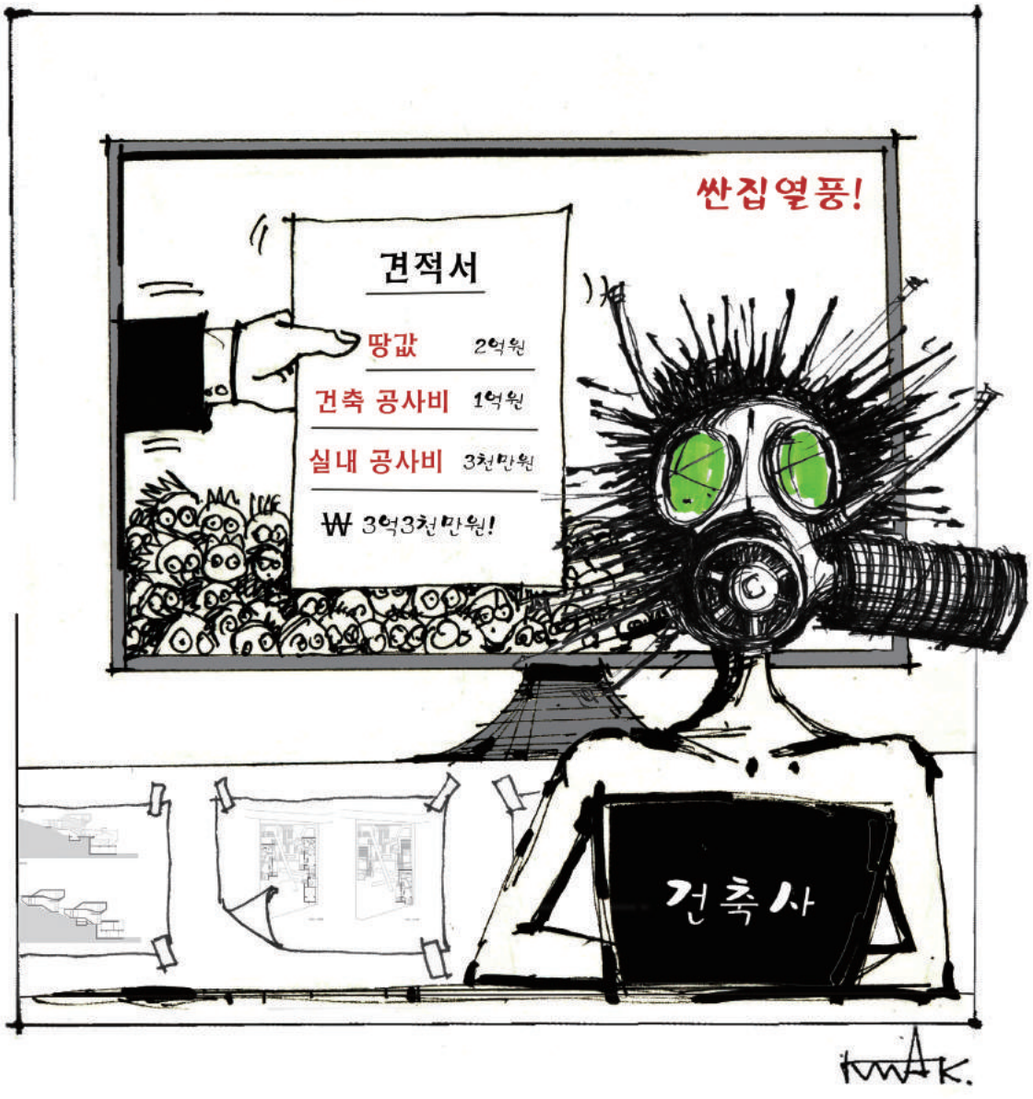
특히 공공건축에서는 주민과 소통하는 건축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공공기관은 입지선정 단계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난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수용시설인 교정기관과 보호기관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국민의 이용 편리성을 우선 고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공간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정기관 청사의 미관을 개선하고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주민들과 공유하는 등 일련의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법무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고 있습니다.

셋째, 친환경적인 건축이 필요합니다. 옥상녹화는 친환경 건축의 대표적인 예인데, 이를 통해서 도심 속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여름에는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줄이며 겨울에는 보온효과도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건축이 결국은 탄소배출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도 탄소발생 억제 시공법 마련, 태양열 · 태양광이라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등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듯이 건축물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을 때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문화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건축물을 지을 때 우리가 유럽의 건축물, 심지어 거리의 벤치 등에서 느끼는 특별한 분위기를 외국인도 우리 도시, 우리 거리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개개의 건축물을 만들고 도시 전체의 디자인을 설계하는 건축사, 협력 설계자, 건축 관련 공직자 등 전문가에게 필요한 것은 건축을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공간, 문화와 예술로 보는 통섭의 안목입니다. 따라서 최고의 건축 전문가들은 사람을 생각하는 인문학자도 되어야 하고, 과학자와 예술가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이나 권유가 없어도 건축물을 바라보며 편안하고 심오한 향기에 젖어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자취로 남아 회자(膾炙)될 수 있는 건축물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하여 봅니다.

설계비...??



곽희수 | twitter@idmmA

약력
- 홍익대학교 졸업
- 이뎀도시건축 대표
- 홍익대학교 튜터
- 경원대학교 겸임교수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위원회

KAA
Korean Architecture Awards

한국건축문화대상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공모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우리 건축의 본질과 이 시대의 정서 그리고 기능성이 구현된 역작 건축물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새로운 한국 건축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마련된 건축제전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인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신인등용의 장으로서 한국 건축의 정통성과 맥을 이어가고 있는 「2011한국건축문화대상」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작품접수기간

준공건축물부문 참가신청 2011년 3월 2일 ~ 6월 7일
계획건축물부문 참가신청 2011년 5월 30일 ~ 6월 3일
*자세한 공모관련 내용은 한국건축문화대상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aa.kira.or.kr

주최 | 국토해양부, 대한건축사협회, (주)서울경제신문
주관 | 대한건축사협회
후원 | LH, 대한주택보증(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건축문화대상展

Korean Architecture Awards 2011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2011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이 발표됐다.

영예의 대통령상에는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 「SK케미칼 연구소」, 「레티스 하우스」설계자와 「성남 판교 산운마을 7단지」시공자가 선정됐다.
국무총리상에는 「인천 어린이과학관」, 「한화갤러리아 센터시티점」, 「쌍용건설 평창동 타운하우스 오보에힐스」설계자와 「삼성 래미안 이스트팰리스」시공자가 선정됐다.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으로 선정된 작품의 건축주에게는 국토해양부장관상이 수여됐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건축에 대한 문화적 토대가 부족한 1992년에 제정돼 「건축은 문화다」임을 표방하며 이 땅에 우수한 건축물이 탄생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고 건축인의 창작의욕을 북돋워왔다.

올해에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는 21세기에 걸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해 가는 건축을 기준으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했다.
특히 사회공공부문의 대통령상 수상작인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은 마을 전체의 산세와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전시실을 지하에 배치하면서도 지형을 활용하여 외부의 자연을 실내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유입한 것이 돋보이며, 자칫 거대해질 수 있는 전시관을 적합한 규모로 분절시켜 전통 마을의 스케일을 지키려 한 것이 높이 평가 됐다. 민간부문의 대통령상 수상작인 「SK케미칼 연구소」는 건축사, 건축주, 시공자가 끊임없이 소통하며 삼위일체가 되어 이루어 낸 수작으로 평가 되었다. 또 건축주의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와 친환경건축 도입의 열정이 과감한 투자와 함께 높은 완성도에 다가갈 수 있게 한 건축물로 평가 받았다.

이 밖에도 건축, 도시에 관심 있는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계획건축물부문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가장 아날로그적인 정보의 수집을 통해, 정보로부터의 소외와 사회로부터의 소외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건축적으로 제안한 문제의식이 예리하게 우리 사회의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완성도 높은 건축작업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함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은 「아날로그 칩」의 김태선, 우원석, 허은영 씨가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를 대상으로 1인에 한해 시상하는 「올해의 건축문화인상」에는 박길룡 국민대학교 명예교수를 선정해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아울러 공로상은 황일인 (주)일건 건축사사무소 대표와 박경립 강원대학교 교수가 수상했다.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는 준공건축물부문 91점, 계획건축물부문 575점 등 총 666점이 응모됐으며, 시상식은 10월 27일(목) 코엑스 4층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고, 수상작은 1층 Hall A에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전시됐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부터 건축문화 창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인간중심의 건축물, 환경과의 조화 및 또 건축계에 유능한 후진 발굴 및 창작의욕의 고취를 목적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상의 제정 배경 및 목적

제정배경

–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건축은 문화」라는 대명제 아래 '건축의 대중화'를 추구함으로써 우수한 건축물이 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 건축의 정통성과 현대성이 구현된 역작을 발굴, 이 시대 건축문화의 표상으로 삼아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기본취지로 지난 92년 건설부와 (주)서울경제신문이 공동 제정함.

– 제3회('94) 행사부터는 지난 1971년부터 대한건축사협회가 단독 개최해오던 「한국건축전」과 통합을 이뤄 민 · 관 · 언론이 공동 시행주체가 되는 건축 분야의 대표적 전시 · 시상행사로 발전.

목 적

▶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우리 건축물의 인간중시, 환경과의 조화 구현
▶ 건축계의 유능한 후진 발굴 및 창작의욕 고취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지난 96년 제5회 때부터 본상이상 수상자중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해 대통령상 등 정부포상을 수여함으로써 명실 공히 국내 건축상 제도 중 가장 권위 있는 행사로 발돋움함.

역대 주요 수상작(준공건축물부문)

	대 상	본 상	우수상
제1회 (1992년)	한샘 시화공장	삼성종합연수원 창조관 호텔 현대 분당시범아파트단지 현대아파트 연남동주택	–
제2회 (1993년)	헌법재판소	국립부여박물관 이화여대 공관 학동수졸당 부산서대신동주택	–
제3회 (1994년)	민정학원	아주대병원 예닮교회 SBS 등촌동 스튜디오 포이탑빌라	엑스포아파트 전쟁기념관
제4회 (1995년)	포스코센터	경희분당차병원 쌍용투자증권 사옥 홍천휴게소 팜파스 삼성국제경영연구소	수원선경도서관 토월대동아파트 삼성동 현대빌라
제5회 (1996년)	대법원 청사	분당 주공아파트 태평양파크빌라트 신내지구 9단지 아파트 수원야외음악당 진로쿠어스 공장 용문청소년수련원	–
제6회 (1997년)	LG화학 기술연구소	삼청동주택, 분당 집합주거 웨스틴조선호텔 빌라 코오롱타워, 블루힐백화점 국민생명미래연수원	–
제7회 (1998년)	울산 현대예술관	고려포리머 사옥 김옥길기념관, 오크밸리 리조트 씨네플러스, 이태원 다가구주택 백남학술정보관	–
제8회 (1999년)	(해당작 없음)	양산 컨트리클럽하우스 두산타워, 구산타워 국민의료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민대학교 국제교육관 부산 당감지구 주공아파트 임거당	–
제9회 (2000년)	교원그룹연수원 – 게스트하우스	성동구노인종합복지관 웰콤시티, 동아미디어센터 미제루, 영동군보건소 서미갤러리	–
제10회 (2001년)	의재미술관	가나안 교회 천주교인보성체수도회 전주성당 용인 삼성생명 노블카운티 대구달성 명곡 주공아파트 은평구립도서관 서울예술대학 안산캠퍼스	–
제11회 (2002년)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수원시연화장 코리아디자인센터 부산아시아드경기대회 선수 · 기자촌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기흥상갈 금화마을, 원당성당 중부대학교 건원관	–
제12회 (2003년)	시몬느 사옥	분당 C–11–4–12 광명철산지구 주공아파트 춘천두미르 군인아파트 동부금융센터 매스메스에이지 포스코역사관	–
제13회 (2004년)	광주광역 시청사, 아이파크 삼성동	KT 여의도 빌딩 한성대학교 도서관 현대해상화재보험 광화문사옥 용인신갈 새천년 주거단지 연하당 광장 11차 현대홈타운	–
제14회 (2005년)	달성군청사 타워팰리스 III	대치 동부센트레빌, 배재대학교 예술관	A House With Three Courts 수입777 보현빌딩 옥계 휴게소
제15회 (2006년)	청계천 문화관 해송원 솔빛머금은 남쪽마을... 오름–묵방리 주택	전라북도 도청 및 의회청사, (주)하이마트사옥, 노은 리슈빌 II , 동신대학교 기숙사	–

제16회 (2007년)	덕평자연휴게소, 파주웅진 씽크빅 사옥, The # 스타시티, 배재대학교 국제언어생활관	대룡중학교, 논현동 의화빌딩, 용산 파크자이, 양익재	완도군 수협활어 종합유통센터 외 12작품
제17회 (2008년)	숭실대학교 조만식기념관& 웨스트민스터홀, 아임삭 오창공장, 김포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동백 아펠바움	백남준 아트센터 워커힐호텔 '아카디아', 관악산 휴먼시아, 루트 하우스	단원어린이 도서관 외 13개 작품
제18회 (2009년)	서울남 산국악당, 부띠크 모나코, 반포 577, 은평 뉴타운 현대 I PARK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복합단지, 금호아시아나 본관, 집운헌, 의정부 녹양 휴먼시아	제주특별자치 도립미술관 BTL 외 10개 작품
제19회 (2010년)	도시축전기념관 (트라이-볼), 탄허대종사 기념박물관, 성남판교 대림 휴먼시아(A27-1), 동탄 솔리움 타운하우스	을지로 119안전센터, 명지대학교 방목학술정보관, 파주 교하 한빛마을 한라비발디 센트럴파크, 그린투모로우	성북 더 게이트 힐즈 외 14개 작품

준공건축물부문

□ 행사일정

- ▶ 작품공모공고 : 2011. 3. 2 ~ 6. 6
- ▶ 참가신청(인터넷 신청) : 6. 7 (kaa.kira.or.kr)
- ▶ 접수 : 6. 8 ~ 6. 9 / 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중회의실
- ▶ 심사 :
  - 1차 사진첩심사 : 6. 17
  - 준공건축물부문 2차 현장심사 – 6. 29~7. 1(지방), 7. 12~7. 15(수도권)
  - 준공건축물부문 최종심사 : 7. 15
- ▶ 시상식 : 10. 27 10 : 00 / 코엑스 4층 그랜드컨퍼런스룸
- ▶ 수상작 전시 : 10. 27~30 / 장소 : 코엑스 1층 Hall A

□ 주요 공모요강

가. 응모작품 및 자격

- ▶ 응모작품 : 2009년 5월 1일부터 2011년 5월 2일 사이에 국내에 준공 완료된 건축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에 기 출품한 사실이 없는 작품. 단, 리모델링 건축물은 증축 · 개축 · 대수선에 한하여 응모할 수 있으며, 임시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응모 불가함.
- ▶ 응모자격 : 출품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각 1인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대표 설계자 · 시공자 · 건축주 각 1인에 한해 시상

나. 주요 출품규정

- ▶ A4규격의 포트폴리오 1부(Korean Architecture 2010 작품집 참조)
  포트폴리오는 출품자(설계자, 시공자, 건축주)를 확인할 수 없도록 제작해야 하며, 표지에 작품명, 접수번호 표기
- ▶ 작품사진, 기본도면, 작품개요 · 설명 등이 수록된 DVD 1매
- ▶ 건축물대장(표제부, 현황도 포함) 1부

※ 공동설계 작품인 경우 공동설계자의 출품동의서(명의 동의) 반드시 제출

□ 심 사

가. 심사방법

- ▶ 1차심사 (사진첩심사) : 현장심사 대상작 선정
- ▶ 2차심사 (현장심사) : 현장 대상작 심사
- ▶ 최종심사 : 입상작(대상 · 본상 · 우수상) 선정

나. 심사위원

박 경 립 강원대학교 교수 – 심사위원장
신 춘 규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대표
이 창 율 (주)지에이 건축사사무소 대표
정 태 복 (주)부산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제 해 성 아주대학교 교수
황 정 복 예문 건축사사무소 대표
권 연 하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위원장

□ 시상내용

– 대표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각 1인에 한해 시상 –

상명 \ 시상내용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대 상 (4점)	사회 · 공공부문	대통령상	국토해양부장관상	국토해양부 장관상
	민간부문	대통령상	국토해양부장관상	
	공동주거부문	국토해양부장관상	대통령상	
	일반주거부문	대통령상	국토해양부장관상	
본 상 (4점)	사회 · 공공부문	국무총리상	국토해양부장관상	국토해양부 장관상
	민간부문	국무총리상	국토해양부장관상	
	공동주거부문	국토해양부장관상	국무총리상	
	일반주거부문	국무총리상	국토해양부장관상	
우수상(다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서울경제신문사장 공동명의 시상		

※ 수상자 트로피(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및 건축물부착용 명판(건축주) 수여
※ 대상, 본상 작품별 대표 설계자, 시공자에 한해 해외건축탐방 특전부여

수상자명단

□ 준공건축물부문

大 賞

- 사회공공부문(설계자–대통령상, 시공자 · 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 김상식(주.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 / (유)유심종합건설 / 해남군청
- 민간부문(설계자–대통령상, 시공자 · 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SK케미칼 연구소 정영균(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 에스케이건설(주) / 에스케이케미칼(주)
- 공동주거부문(시공자–대통령상, 설계자 · 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성남 판교 산운마을 7단지 김회훈(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 계룡건설산업(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일반주거부문(설계자–대통령상, 시공자 · 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레티스 하우스 인의식(주.종합건축사사무소 연미건축) / (주)제효 / 최두환

本 賞

- 사회공공부문(설계자–국무총리상, 시공자 · 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인천 어린이과학관 윤세한(주.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 동부건설(주) / 인천광역시청
- 민간부문(설계자–국무총리상, 시공자 · 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한화갤러리아 센터시티점 김태집(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한화건설 / (주)한화갤러리아
- 공동주거부문(시공자–국무총리상, 설계자 · 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삼성 래미안 이스트팰리스 김관중(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삼성물산(주) / (주)코레드하우징
- 일반주거부문(설계자–국무총리상, 시공자 · 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쌍용건설 평창동 타운하우스 오보에힐스 윤영건(주.푸름에이앤디 건축사사무소) / 쌍용건설(주) / (주)서림에프씨

優秀賞(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주.서울경제신문 사장 공동명의 시상)

- **울산박물관** 김태집(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한화건설 / 울산광역시 울산박물관
- **강동아트센터** 변 용(주.원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 / (주)한진중공업 건설부문 / 강동구청
- **강원애니고등학교** 김명홍(주.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 / 인텔폴리스 종합건설주식회사 / 강원도 교육청
- **서울대학교 국제교육관** 안우성(주.종합건축사사무소 온고당) / 롯데건설(주) / 서울대학교
- **레드스쿨** 최삼영(주.가와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스튜가이엔씨 / 장길섭
- **배재대학교 하워드기념관** 김정임(주.아이아크 건축사사무소) / (주)금성백조주택 / (학)배재학당
- **DMZ박물관** 이상림(주.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 현대건설(주) / 강원도청
- **경주예술의전당** 고광석(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 경주문예회관운영주식회사
- **부여리조트 백상원** 강원필(주.경영위치 건축사사무소) / 롯데건설(주) / 롯데부여리조트(주)
-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기숙사** 이관표(주.엄앤드이 종합건축사사무소) / 현대건설(주) / (학)연세대학교
- **페럼타워** 김태집(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지에스건설(주) / 동국제강(주)
- **Fort Hill** 박주환(주.건축사사무소 사이건축) / 스프링하우징 주식회사 / NISCO(주)
- **NHN 그린팩토리** 김관중(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현대건설(주) / 엔에이치엔(주)
- **라꾸보** 이필훈(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남강건설(주) / 노현태
- **신촌성결교회** 최동규(주.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 보아스건설(주) / (재)기독교 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 신촌교회지회
- **Yellow Diamond** 신창훈(운생동 건축사사무소) / 상지건설(주) / (주)상지건설(주)
- **미래에셋 센터원** 부대진(주.진아건축도시 건축사사무소) / 금호산업(주) / 미래에셋맵스 자산운용 주식회사
- **양평 패시브하우스** 윤태권(엔진포스 건축사사무소) / 양현수 / 양현수
- **포레스트 퀸텟** 조항만(주.건축사사무소 키아즈머스파트너스) / 신원철 / 신원철
- **송현리 안나의 집** 민승열(주.한빛 종합건축사사무소) / 민혜령/ 민혜령
- **화선대** 고광석(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식회사 마루종합건설 / 윤주화

※ 작품명 양평패시브하우스, 포레스트 퀸텟, 송현리 안나의 집은 시공자와 건축주가 동일인이므로 건축주만 시상하며, Yellow Diamond는 시공자만 시상

심사총평

20회를 맞이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 부분은 디자인의 수준뿐만 아니라 시공의 완성도에서도 훌륭한 성취도를 이룬 좋은 작품들이 어느 때 보다도 많이 출품되었습니다. 출품된 작품 수는 지난해와 비슷하였지만 우수한 작품이 많아 심사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에서 경쟁이 치열하여 좋은 프로젝트들이 적절한 수준의 수상을 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심사에 임하며 심사위원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는 21세기에 걸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해 가는 건축을 찾기 위하여 심사숙고 하였으며, 논의된 사항을 간략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대의 화두인 친환경성, 에너지 절약, 지속가능성 등을 선언적 의미를 넘어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건축.

둘째, 건축의 사회적 공공적 역할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공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 건축.

셋째, 건축문화대상의 취지에 맞게 건축사와 건축주, 시공자 삼자가 잘 소통하고 협력하여 조화된 결과물을 도출한 건축.

넷째, 전통의 계승과 지역적 정체성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깃든 건축과 새로운 가능성을 과감히 시도하여 한국건축문화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건축.

다섯째, 어려운 건축 환경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역의 건축사와 중소규모의 건축사사무소나 젊은 건축사들의 창작의지와 열정에 대한 주목.

심사위원은 2차 심사인 현지 실사 대상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현지 방문을 통해 보다 좋은 건축을 가리자는데 동의하였습니다. 유난히도 집중 호우와 더위가 함께한 한 여름의 실사는 쉽지 않았지만 심사위원 모두 좋은 건축을 현장에서 훌륭한 건축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임하였습니다. 예상한대로 우열을 가리기 매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마지막 심사는 매우 진지한 토론이 장시간 이어지고 결정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하여 우수상이 많아진 것은 이런 오랫동안의 토론의 결과임을 첨언합니다.

이렇듯 심사위원 모두는 심사에 임하며 최선을 다한 건축사의 노력과, 건축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건축사와 소통한 건축주, 설계를 완성도 높게 시공한 건설회사 등의 합치된 노력에 주목하고 심사에 임하였으며 때로는 그들의 이해와 노력에 감동하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건축물을 현장에서 보며 건축사와 건축주, 시공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완성된 프로젝트가 역시 좋은 결과를 낳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건축주가 행복해하며 건축사의 열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볼 때는 심사위원 모두가 참으로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습니다. 다양한 규모의 건축사사무소가 수상하고 지역적 분포도 더 다양하였으면 하던 바람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축적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았던 공동주거 부분의 경우 제출된 프로젝트의 수도 적어, 공동주거에 대한 보다 참신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기임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해외건축사가 국내 건축사와의 협업으로 설계했을 경우 국내 건축사의 실질적 역할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심사가 쉽지 않으며 이에 대한 보다 정리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올해에도 건축적으로 매우 우수한 작품으로 판단하였으나 한국건축사의 역할이 모호하거나 건축주가 실사를 거부한 경우는 수상심사에서 제외하였음을 첨언합니다. 기나긴 심사 기간 동안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웃는 얼굴로 함께 하신 심사위원 모두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협회관계자 및 담당실무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위원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듯 각 지역이 갖는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에 큰 관심을 갖고 심사에 임하셨고 각기 다른 지역의 정서와 가치에 대하여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어 더욱 보람 있는 심사였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좋은 작품이 출품되어 대한민국 건축의 수월성과 가치를 세상에 알리기를 기원합니다.

심사위원장 **박 경 립**

준공건축물부문 大賞

사회공공부문_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

전통한옥의 가치를 현대건축에 창의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노력은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항상 쉽지 않은 일로, 섣부른 한옥의 차용은 다양한 시도를 가로막기도 한다. 전통 마을의 기존 질서를 최대한 존중하며 한옥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 작품은 그런 의미에서 가치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다. 마을 주산인 덕음산으로부터 녹우당, 연지, 송림, 안산으로 이어지는 마을 축을 방해하지 않고 조금 벗어난 곳에 입지하여 마을 초입으로부터 기존의 경관을 존중하고 드러내고 싶은 전시관을 적절히 절제하며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귀중히 여기고 있음을 알게 한다. 이 전시관은 전시관이 필요로 하는 공간과 기능을 지형의 형태와 조화시키며 요구된 프로그램을 잘 담아내고 있다.

특히 마을 전체의 산세와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전시실을 지하에 배치하면서도 지형을 활용하여 외부의 자연을 실내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유입한 것이 돋보이며, 자칫 거대해질 수 있는 전시관을 적합한 규모로 분절시켜 전통 마을의 스케일을 지키려 한 것도 높이 평가되었다. 부속 건축물들도 적절히 분절되고 거리가 설정되어 전체적으로 한옥과 한옥 마을의 질서를 따르고 있다. 그다지 넓지 않은 공간 내에서 선큰, 아트리움, 내부계단 등 요소가 많아 건축디자인 면에서 제약요소가 많았음에도 이를 훌륭히 풀어냈다고 보았으며, 녹우당의 처마 및 지붕의 통풍구 등 기존의 다양한 건축적 요소를 응용하고 아트리움 상부에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여 아트리움 내의 간접채광을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한 것 등도 긍정적으로 논의되었다. 실내 전시실에 사용된 일부 재료의 이질감과 다소 거친 사용과 건축과 합일되지 못한 전시가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전통한옥언어와 첨단 기술의 적절한 결합을 시도한 전통한옥을 살아있는 현재의 언어로 번안해 내려는 노력이, 전통을 다룬 출품작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희소성과 함께 높이 평가되었다.

민간부문_SK케미칼 연구소

건축사, 건축주, 시공자가 끊임없이 소통하며 삼위일체가 되어 이루어 낸 수작으로 평가 되었다. 특히 건축주의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와 친환경건축 도입의 열정이 과감한 투자와 함께 높은 완성도에 다가갈 수 있게 한 건축물로 평가되었다. 성격이 다르지만 업무의 연계성이 필요한 연구동과 사무동을 두 개의 매스와 아트리움을 이용하여 적절히 연결하고 도시의 한 부분으로서 절제된 모습으로 자리 잡은 것도 의미 있게 평가 되었다. 아울러 연구기관으로서의 독특한 아이덴티티와 상징성, 최첨단 연구시설로서의 최적의 연구 환경 제고,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교류공간 도입을 시도하였으며, 기능과 설비의 전문화, 집적화를 통한 효율성을 고려하여 연구실험동과 행정지원동으로 분리하고, 연구실험동은 최적의 표준모듈 구성 시스템을 도입하여 내부 변경, 확장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 돋보였다. 친환경설계가 이 시대의 주요이슈가 되고, 많은 건축이 친환경을 표방하지만 실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 설계를 위해서는 디자인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환경적요소의 위계를 설정하고 그의 맞는 친환경적 설계요소와 기술을 적절히 적용하여야 한다. 이 건축의 경우 친환경 인증을 목표로 초기부터 건축 전체를 친환경건물로 디자인 하려는 시도가 일관성 있게 진행 된 것이 높이 평가되었다. 아트리움의 자연광 유입과 벽천의 자연친화형 설계, 기밀성, 3중 유리의 단열성 등 친환경설계기법을 도입하며 100여 가지가 넘는 친환경요소를 실제적으로 적용한 노력이 돋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에너지의 사용에 대한 설계적 고려가 아트리움에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과 사무실 레이아웃의 유연성이 보다 확보 되었으면 하는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1층 로비를 개방 하고 지하 일층에 공연장을 마련하여 사회적 소통을 하려는 노력도 보이나 한정된 공개공지와 폐쇄적인 조경 등 공공에 대한 다소 소극적인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완성도에서 높은 성취를 이룬 수작임에 심사위원 모두 동의하였다.

공동주거부문_성남 판교 산운마을 7단지

구릉지 지형의 원형을 잘 보존하면서 각 영역특성에 적합한 주거유형을 다양하게 계획한 것은 천편일률적이던 공동주거 문화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특히 중 · 저 밀도의 저층 공동주거를 실현하여 고층 · 고밀도의 공동주거에서 탈피한 좋은 선례로 논의 되었다. 완성도 높은 마감과 지형과 함께 한 주동계획, 주민을 위한 공공 공간의 효율적인 도입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 대지의 자연지형을 거스르지 않은 경사지를 활용한 배치계획은 각 주호별 평면 계획과 적절히 구성되어 주민의 프라이버시의 확보와 공공영역의 확보로 이어지고 있다. 다양하게 구성된 벽체와 창호계획은 획일적일 수 있는 경관을 다양하게 하며 자칫 폐쇄적이 될 수 있는 공동주거의 단점을 줄이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아파트 단지에서 전통마을에서의 공동체 인식을 회복하려는 최근의 노력을 반영하여 단지 내 공공 공간을 곳곳에 확보하고 새로운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노력도 평가 되었으며, 기존 지형에서 흐르는 2개의 실개천을 단지 내 비오톱(Biotope)으로 연결하여 단지 환경을 유연하게 한 것과 뒷산의 스카이라인과 조화로운 매스계획과 스킨 디자인, 절제된 색채계획 등도 높이 평가 되었다.

일반주거부문_레티스 하우스

'가족의 생활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집'의 의미를 넘어 '삶의 행복을 담아주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서의 집'을 추구한 수작으로 평가 되었다. 살아오며 틈틈이 모아온 귀중한 예술품과 가구를 실제 일상의 삶 속에서 음미하며 함께 하려는 건축주의 요구와 그를 건축적으로 승화시켜 담아내려 한 건축사의 열정이 어우러져 나온 수작이다. 주어진 과제를 수학 문제 풀듯이 접근하여 각 부분에서 전체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건축언어를 질서정연하게 적용하며 가옥의 하모니를 이루어 내려 한 건축사의 내공이 엿 보인다. 절제된 매스와 사려 깊게 안배된 창호의 위치와 크기는 내 · 외부 공간의 즐거운 대화의 반영이며, 전시될 작품과 그 배경이 될 벽면의 크기 또한 퍼즐을 맞추듯이 정리되어 자연의 빛과 소리가 함께 한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대지에서 조경, 방의 설계에 이르기까지 그리드 패턴을 사용하여 통일감을 성취하려는 설계자의 건축적 철학이 좀 더 유연하여야 할 집이라는 공간을 딱딱하게 만들 수도 있었으나 레벨의 적절한 활용과 각 공간의 높낮이 조정을 통해 지루함을 없애고 있다. 거주 후 매우 만족스러운 건축주의 평가는 이미 초기 설계과정의 소통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준공건축물부문 本賞

사회공공부문_인천 어린이과학관

어린이과학관으로서 기능을 창의적인 형태와 공간으로 실현한 수작으로 평가되었다. 유연한 외부 형태와 걸 맞는 적절한 재료와 색상의 조화는 산만 해질 수 있는 공간을 차분하면서도 활력 있게 해 주고 있다.
10세 이하 어린이들의 꿈과 비전을 받아주려는 다양한 콘텐츠는 적절한 치수가 반영된 내부 공간계획과 어우러져 어린이들을 미래와 꿈의 세계로 인도한다. 내부공간의 흐름이 전시계획과 함께 잘 조화롭게 완성되어 있다.

민간부문_한화갤러리아 센터시티점

매장의 고밀화와 부분적인 상품 진열에 집중하여 전체의 조화를 흩트리기 쉬운 상업건축물에 과감하게 고객들을 위한 쾌적한 공간을 도입하고 일관성 있는 디자인으로 차별화된 공간을 조성한 것이 높이 평가되었다.
내부 아트리움의 건축적 해석과 더불어 변화하는 색상의 더블스킨을 도입한 적극적 외관, 공공에 대한 배려가 자연스럽게 상업공간으로의 유입과 유연하게 이어지게 한 것 등 전반적으로 역동적이면서 정리가 잘 된 수작이다.

공동주거부문_삼성 래미안 이스트팰리스

20m가 넘는 경사진 부지의 어려움을 적절한 레벨 활용을 통하여 극복한 배치 계획과 우수한 시공완성도와 수준 높은 조경공사,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는 주민편의시설이 긍정적으로 평가 되었다.
입체적 보차분리 및 지하주차장 내 보행자통로는 거주자에게 안정성 및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동별·각 세대별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있으나 세대 간 소통을 위한 공간 배려의 아쉬움이 논의되었다.

일반주거부문_쌍용건설 평창동 타운하우스 오보에힐스

경관이 수려한 매우 가파른 경사지에 입지하여 적절한 밀도를 찾기 쉽지 않았음에도 주변과의 조화를 잃지 않으려는 건축사의 노력이 돋보이는 수작이다. 단독 주택 같은 집합주택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엿 보이는 이 타운 하우스는 기존 주거지와의 조화를 염두에 둔 배치계획, 절개지의 경사도와 매스의 일체화, 절제된 마감 재료와 색채계획이 두드러지며 각 가구별로 주변의 경관을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며 향유할 수 있게 한 계획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준공건축물부문 優秀賞

울산박물관

장구한 울산 지역의 역사 문화뿐 아니라 한국의 부흥을 이끈 울산시 산업의 역량을 함께 담으려는 이 박물관 건축은 건축사와 열정적인 건축주가 함께 만들어 나간 수작이다.
입지한 지형에 대한 독특한 해석과 역사의 자산을 미래로 연결하려는 박물관 측의 의도를 건축적으로 적절히 전환하려한 노력이 평가 되었다.
명쾌한 평면과 중정을 이용한 공간연계, 박물관 운영 자립을 위한 적절한 상업공간의 도입 등 신선한 시도가 돋보인다.

강동아트센터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담아내는 다목적 공연 문화공간으로 계획된 '강동아트센터'는 장소적 컨텍스트에 동화되면서도 주변에 존재하는 건축물과 다른 공간적, 형태적 해석이 돋보이는 수작으로 평가 되었다.
외부에 부착된 패널의 형태적 특성, 건물 진입동선 체계, 용도에 따라 개방된 공간과 폐쇄된 공간을 조합한 내부공간의 구성, 내부의 채색 등은 기능성과 공간적 감각을 동시에 고려한 건축사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강원애니고등학교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기관인 이 건축은 일반, 특별교실의 적절한 기능성 확보와 진취적인 색채계획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교사, 사무동, 기숙사동, 식당, 실험 실습동의 4개의 영역을 조화롭게 배치하였고, 학교에 맞는 친환경적인 요소를 적재적소에 잘 반영하고 있다. 설계의 완성도에 비해 시공의 완성도는 다소 부족한 것이 논의 되었다.

서울대학교 국제교육관

외부의 지형차를 적절히 활용하며, 자연광 가득한 중앙 아트리움과 이어진 다양한 모습의 계단이 인상적인 이 건축은 천편일률적이 되기 쉬운 보수적인 우리 대학 건축의 진부함을 벗어나려는 건축사의 노력이 엿 보인다.
주변의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은은히 건축의 특색을 드러내려는 틈의 기법을 이용한 더블 스킨 디자인 등이 시선하나 마감공사의 시공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레드스쿨

도시를 떠난 농촌 지역에 자리 잡은 대안학교의 개념을 잘 살리고 있으며, 색채계획, 공간계획, 자재사용 등이 잘 어우러진 작품이다.
건축주의 열려진 사고와 그에 적절히 대응한 건축사의 노력이 대안을 찾고 있는 학생들을 잘 담아내고 있다.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적은 비용으로 가능한 적절한 재료의 발굴과 그에 걸맞는 디테일을 축한 건축사의 노력이 돋보인다.

배재대학교 하워드기념관

도로에 접하는 긴 선형과 협소한 대지 폭의 한계를 적절한 기능 배분과 레벨 활용으로 조화 시킨 수작이다.
유아원과 대학 관련 학과의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도 적절히 분리시키며 환경적 고려를 단면과 입면 계획에 일치 시키려한 노력이 돋보인다. 적벽돌과 노출콘크리트, 곡선의 조합으로 주변과의 조화를 이뤄내고 있다.

DMZ박물관

분단의 아픔을 넘어 미래의 희망을 담으려는 지역의 염원이 담긴 건축으로 다양한 내부 전시가 시도 되고 있다.
지역의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DMZ의 살아있는 자연요소들을 건축에 이입하고자 하였던 건축사의 의도가 충분히 살아나지 못해 아쉬움이 있으나 20세기 중반의 민족의 비극을 다양한 기법으로 담아내고 있다.

경주예술의전당

형태의 두드러짐과 마감의 완성도, 중앙 공간의 극적 구성, 주변의 경관을 드라마틱하게 담아내려는 노력이 상당히 인상적이다.
제한만 받아온 경주 지역에도 상징적인 큰 규모의 건축물이 있어야 한다는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지역의 전통적 경관을 압도하는 큰 스케일과 상징물의 직설적 도입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의 필요성이 길게 논의되었다.

부여리조트 백상원

고도 부여의 백제재현단지 건너편에 지어진 이 건축은 전통의 창조적 변주라는 주제에 과감히 다가가고 있음에 높이 평가 되었다.
역사문화 환경이이라는 매우 어려운 주변 환경의 제약과 요구되는 부담스러운 매스의 크기를 말발굽형의 길고 유연한 선적 요소의 도입으로 중화시키고 과감한 재료와 색채의 도입으로 무거움을 지우고 있다.
진입공간과 건물 상층부에 상징적으로 도입한 한옥의 구성, 효율적인 재료와 구법의 도입 등으로 저비용으로 완성도를 높인 좋은 건축으로 우수상을 넘는 평가를 받은 수작이다.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기숙사

간척지의 건축물 한계를 극복한 배치계획 및 높낮이 계획, 인상적인 장스팬의 브리지 도입 등 지루해질 수 있는 규격이 주어진 마스터플랜 속에서도 내부적으로 다양한 공간과 형태를 시도한 수작이다.

국제 캠퍼스답게 기숙사의 새로운 운영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숙학교의 나누어진 답답할 수 있는 공간을 레벨을 활용한 넓은 공간을 다이내믹하게 설정하여 효율적으로 해소하며 학생들의 휴식과 활력을 도모하고 있다.

페럼타워

동서를 잇는 아트리움과 공개공지를 소통과 순환의 길로 오픈하고 건물 깊숙이 끌어드려 가장 번화한 지역에 과감히 공공적 공간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 되었다.

수정체를 모티브로 한 철강회사의 사옥으로 내부 디자인과 시공의 완성도가 매우 우수한 작품으로 건축주의 건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돋보이는 수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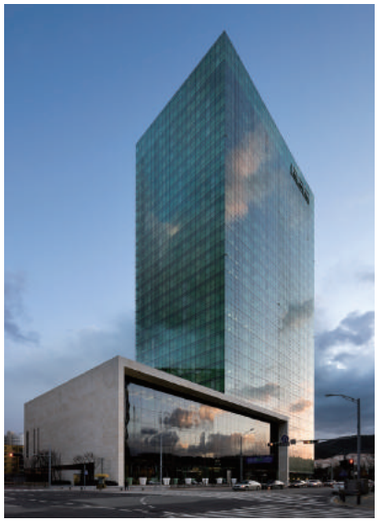
업무공간의 구성과 배치, 임원공간의 내외부의 연계성이 탁월하다.

Fort Hill

도시의 발전과정에서 생겨난 비정형의 자투리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한 건축사의 노력이 돋보이는 건축이다.

최대의 용적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건축주의 의향을 건축적으로 잘 풀어 낸 프로젝트이다. 전면도로에 6m 접한 협소한 대지사이에 끼어 넣은 우수한 작품으로 건축설계에 대한 작가의 의욕과 열정이 시공성에 반영된 작품이라 말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로서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공간을 독창적으로 풀어냈다.



NHN 그린팩토리

저층부의 공용공간을 과감히 이웃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애하여 성공을 거둔 건축으로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구현의 한 모델이 되고 있다.

철저한 보안을 필요로 하는 건축임에도 공공성 구현을 위한 다양한 건축계획을 시도하였고 다양한 친환경 요소의 도입과 독특한 구성으로 개성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

근무자의 창의성 진작을 위하여 사용자 위주의 독창적인 실내 공간 구성, 수직 루버에 의한 빛 조절과 친환경 스킨 디자인, 내부마감 재료의 절제로 인한 경제적인 시공, 많은 자전거이용자를 배려한 공간계획 등 건축적 시도가 어우러진 수작이다.

라꾸보

천안 외곽의 리조트 단지 주변 생태연못을 연접하여 자리 잡은 레스토랑으로 주변의 경관을 실내에서 소통하며 감상할 수 있게 투명성을 극대화한 건축이다. 땅의 흐름을 잃지 않게 자리 잡고 징크, 유리, 노출콘크리트가 잘 어우러진 조형이 돋보이는 젊은 건축사의 열정과 의욕이 담긴 건축이다.

신촌성결교회

교회의 일상적인 모습을 과감히 탈피하여 도심 교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한 뛰어난 작품으로 대상작 선정에 끝까지 논의되었던 수작이다. 엄숙하고 어두운 공간을 탈피하여 밝고 친밀한 공간을 만들고 폐쇄적인 공간성을 벗어나 주변 환경과의 소통을 시도한 이 건축은 적절한 재료의 선정과 디테일을 구사하여 비교적 저렴한 공사비로 완성도 높은 건축에 이르고 있다.

밝고 투명하며 가벼운 진입부와 열려진 사회적 공간은 현대교회가 추구하는 사회적 역할과 소통을 보여준다. 그러나 적절한 깊이와 높이로 잘 짜여진 중심의 부채꼴 형태의 주 예배당은 적절한 조명을 활용하여 빛의 새로운 도입으로 깊이 있는 종교적 공간성을 체험하게 한다.

Yellow Diamond

홍대 앞 특성에 맞는 새로운 조형의 가능성을 시도한 건축으로 주변과 대비되는 건축이다. 지하에는 난타공연장이 있으며 상층부는 상업시설과 오피스가 복합적 구성된 복합건축물로 개성적인 형태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기능의 수용과 유리 된 듯한 자유로운 평면과 입면 속에서도 건축적 가능성과 어휘를 구사하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미래에셋 센터원

을지로 도시환경재개발사업의 일환답게 대형 도심건물의 공공에 대한 배려가 높이 평가된 건축이다.

저층부의 로비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청계천변의 변화에 발맞추어 과감히 전면 광장을 개방하여 수동적인 공개공지조성을 넘어 적극적인 광장 조성을 통해 도시에 기여하는 건축의 공공적 역할을 구현하고 있다.

2개의 매스로 구성하여 거대한 매스감을 줄이고 다리를 놓아 기능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친환경 건축을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적절한 커튼월 구조의 사용으로 잘 정돈된 외관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평 패시브하우스

노출콘크리트, 징크판넬, IPE목 등을 적절히 사용하며 에너지 절약형 주거를 추구한 실험정신이 배인 작품이다. 친환경제로하우스 인증을 목표로 한 구성에도 건축주의 생활을 잘 받아 담으려는 시도가 돋보인 수작이다.
건축주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완성도를 높였으며 주변 지형을 잘 활용하고 주인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상당히 높은 주거이다.

포레스트 퀸텟

양구 깊은 산간 언덕위의 동호인 모임을 위한 전원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새로운 형태의 주거이다. 침엽수에 둘러싸인 깊은 산속에 주변을 경관을 모두 담으려는 듯 개방적인 구성으로, 외장 IPE목이 외부 침엽수들과 잘 조화를 이룬다.
지형에 각기 순응하며 자리 잡은 각 주거는 자연을 향하여 개방되어 있으면서도 적절한 배치의 묘를 살려 각 가구의 프라이버시를 획득하고 있다. 주변의 환경과 어우러진 형태와 그 형태 속의 공간의 섬세함이 어우러진다.

송현리 안나의 집

건축적 언어의 독창성이나 진취성이 엷어 보이나 삶의 오랜 연륜이 배어있으며 가족의 안정과 삶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집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주거이다.
전원에 자리 잡은 이 가옥은 주변의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 전통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으며 땅의 모습을 잘 살리며 자리 잡고 있다. 조금 어색한 비례감도 있으나 농촌생활의 유형을 잘 담아낸 따뜻한 주거이다.

화선대

2세대가 사는 규모가 큰 고급주거로 라임스톤과 IPE목의 적절한 구성, 내 · 외부 재료의 적절한 선택과 컬러의 조화, 간결한 선, 내부 평면의 정갈함과 잘 정리된 중정, 시공의 정밀도 등 완성도가 매우 높은 주거 건축이다.
레벨을 잘 활용한 마당의 구성과 잘 가꾸어진 조경은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잘 펼쳐진 정원을 감상하게 한다. 안식처이자 휴식의 원천인 집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수작이다.

계획건축물부문

□ 행사일정표

▶ 작품공모공고 : 2011. 3.16 ~ 6. 3
▶ 참가신청(인터넷 신청) : 5.50 ~ 6. 3 (kaa.kira.or.kr)
▶ 접수
• 1차 작품계획(안)접수
– 1차 작품접수 : 2011. 6. 7 ~ 6. 8
– 접수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중회의실
• 2차 패널 및 모형접수 : 7. 12
– 접수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 심사 :
• 1차 작품계획안 심사 : 6.14
• 2차 패널 및 모형심사 : 7.20
• 3차 작품설명 프레젠테이션 심사: 7.22
▶ 시상식 : 10. 20. 10:00 / 코엑스 1층 A홀
▶ 수상작 전시 : 10. 27~30 / 장소: 킨텍스 3층 그랜드볼룸

□ 주요 공모요강

가. 응모 작품 및 자격

▶ 응모작품 :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 작품
▶ 작품주제 : **"Social Interface – 사회적 결합"**
– Transcendence between convene and intervene –단절과 연결, 그 경계를 초월하다
▶ 주제설명 :

배경 21세기는 비약적인 IT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많은 교류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핸드폰을 통해 지구 반대편의 친구와 서로 안부를 전할 수 있고, 태블릿 크기의 전자 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서로 교류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은 핸드폰을 통해 서로 대화할 수 있다. 그들은 이제 직접 만나서 소통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직장인들은 모두 사무실 혹은 집에서 컴퓨터와 소통할 뿐 사람들과의 대화는 태블릿 장치들이 모두 이를 대체하고 있다. 노년 계층의 사람들은 그런 그들과 더 이상 소통하지 못하고, 도심 밖으로 점차 벗어나고 있다. 같은 사회에 몸 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소외된 채로 남아있다. 같은 목적을 위해 만난 이해집단 속 사람들도 이제는 직접적인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 자신과 연결된 핸드폰 혹은 태블릿 크기의 전자매체만을 가지고 말과 행동이 아닌, 손가락을 이용하여 서로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 가상(온라인) 공간 속의 나에게 말을 거는 사람과 대화한다. 이것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폭발적인 증가와 사용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그들은 SNS의 사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한 서비스에 심취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소외 계층의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에 편승하지 못하고, 한없이 사회로부터 고립 되어 간다. 그러하기에 건축과 도시는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나 만남의 장소가 아닌, 그들의 설비와 기술을 제공하는 거대하고 단순한 매스로만 인식되며,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적 의미보다, 마치 원시시대의 동굴처럼 무언가로부터 도피하거나 단순한 기능적 제공만을 위 한 장소로 전락하게 되었다.

정의 'Interface'란 다이얼이나, 조이스틱, 컴퓨터나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운영체계의 명령어, 그래픽 표현형식 기타 다른 장치들과 같이, 사용자가 컴퓨터나 프로그램과 의사소통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뜻한다. 동사로 사용될 때, 다른 사람이나 객체와 의사소통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건축 혹은 도시에서는 특별한 정의가 아직 없지만, 이러한 일련의 도시와 도시, 건축과 건축, 혹은 사람과 사람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을 모두 포함한다 할 수 있겠다.

전개 비단, 이러한 단절의 문제는 현재 세대간의 단절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에는 도시의 단위 계획 혹은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 서로 분리되어 있다. 무장애 공간(Barrier free)은 있지만, 하나되어 연결되지 못한 채, 장소와 장소를 이어주지 못한다. 같은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한 장소도 없다. 청소년들끼리 모일 수 있는 장소도 不在하며, 전체 인구의 분포는 장년층이 많아 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노년 계층을 위한 사회적 건축적인 변화와 결합은 없다.

제언 사회적 소외계층과 지배계층 간의 단절을 이어주는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노년계층과 유년 계층의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같은 세대간의 연결도 필요하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소통하며, 서로 돕고 협력하여 공생하는 사회가 되어야만 한다. 건축은 더 이상 매스 혹은 오브제로서의 의미에 치중하기보다 사람들간의 혹은 건축간의, 이 도시는 이제 하나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사회적 약자 혹은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단순한 1차적 대안이 아닌, 그들이 사회와 더불어 함께 공유하고 순환하며 결합하는 다차원적인 대안을 기대해 본다. 이로써, 대상지의 제약도 프로그램 및 볼륨의 제약도 없다. 노년층을 위한 실버 타운도 하나의 제안이 될 수 있으며, 소외계층간의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주거 형태도 가능하다.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 분리된 공간을 이어주는 가로변 가구계획안(Street Furniture)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 구하고자 하는 해답이 아님을 알아주기 바란다. 대상지의 분석은 지역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한 설득력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소통의 의미를 올바르게 정의하고, 단절의 문제를 건축적으로 혹은 도시적으로 타당한 논리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아이디어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제출자의 다양하고도 설득력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요구된다. 일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지속 가능하며, 점진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형태면 더욱 좋은 제안이 될 것이다. 디지털과의 조우였던 Interface의 의미를 좀 더 건축적, 도시적의 관점에서 바라본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한다.

Tags: 결합(Interface), 동화(Integration), 공생(Symbiosis), 하나됨(Harmony), 점진(Progressiveness), 조우 (Encounter)

▶ 출품자격 : 건축, 도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나. 주요 출품규정

– 1차 작품접수
▶ 작품계획안 A2(가로42.0㎝×세로59.4㎝ – 종방향으로 구성) 1부 – 아이디어 위주의 전개과정, 설계개념 등을 표현(패널 축소판이 아님.)
• 작품계획안은 전면 우측상단에 아래 예시와 같이 접수번호표를 부착하여 제출 (작품계획안 폼보드 · 우드락 부착 불가)
▶ 작품설명서 1부(A4 1매)
• 작품설명서 전면 우측상단에 접수번호를 필히 기재해야 하며, 참가신청 작품명 · 작품계획안 · 작품설명서 제목이 동일해야 함.
※ 상기 제출내용은 접수번호의 출품자 관련정보(학교, 이름)을 확인할 수 없

도록 제작해야 함.

– 2차 작품접수

▶ 패널 A0(가로84.1㎝×세로118.9㎝ – 종방향으로 구성) 1매

– 작품계획안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주제를 발전시켜 표현

• 패널 두께는 100mm를 초과할 수 없으며, 폼보드 및 우드락 부착하여 제출

• 패널 전면 우측상단에 1차와 같은 양식으로 접수번호표를 부착하여 제출

▶ 모형

(가로×세로 80㎝×80㎝, 높이 50㎝ 이내 – 모형대 제출 및 외부전원장치 지원 불가) • 모형접수번호는 접수현장에서 부착함.

※ 상기 제출내용은 접수번호외 출품자 관련정보(학교, 이름)를 확인할 수 없도록 제작해야 함

※ 상기 제출내용은 접수번호의 출품자 관련정보(학교, 이름)을 확인할 수 없도록 제작해야 함.

– 3차 작품설명 프리젠테이션 심사일은 추후 공지

□ 심 사

가. 심사방법 : 패널 및 모형 심사

나. 심사위원 :

인 의 식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연미건축 대표 – 심사위원장
김 상 길 (주)에이텍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김 형 수 씨디에스 건축사사무소 대표
박 순 란 for you 건축사사무소 대표
정 재 욱 단국대학교 교수
조 정 철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탑 대표
이 각 표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위원

□ 시상내용

▶ 대 상(1점) : 상금 500만원, 국토해양부장관상, 해외건축탐방
▶ 우수상(5점) : 상금 20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해외건축탐방
▶ 특 선(6점) : 상금 10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입 선(20점 내외) : 상금 3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우수상 이상 수상자(대학 재학생에 한함)중 영어 인터뷰 심사를 거쳐 ARCASIA 학생잼버리대회 파견 특전

수상자명단

□ 계획건축물부문

大賞(국토해양부장관상)

• **아날로그 칩** / 김태선, 우원석, 허은영(단국대학교 건축학과)

優秀賞(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도시에 살 자격을 얻는다는 것** / 박시몬, 김성수(홍익대학교 건축학과)
• **노마디즘과 도시의 재생** / 김가영(단국대학교 건축학과)
• **걸으며 만나는 삶의 이야기** / 김현주(영남대학교 건축디자인전공)
• **단지 비워져 있는 것은 열린 것이 아니다** / 김진표, 이용훈(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
• **유동적 커뮤니티, 재래시장의 가치를 잇다** / 주연홍, 김두리, 강준성(전남대학교 건축학과)

特選(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너에게 접속하다** / 김영인, 방성윤, 이민기 (경원대학교 건축학과)
• **그 씨앗들은 며칠 있으면 발아할 것이다** / 이종상, 현지연, 윤소라(수원대학교 건축공학과)
• **폐역사 부지를 활용한 사회적 소통의 제안** / 서규석(부경대학교 건축학과)
• **도시 내 소외된 공간의 환원** / 안재현, 한준희, 최홍석(중앙대학교 건축학부)
• **은둔자를 위한 도시 회로** / 임현택(단국대학교 건축학과)
• **벌집사이–노동자주거, 사이공간을 통한 커뮤니티제안** / 이다영, 이슬기, 김현진(목원대학교 건축학과)

入選(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대학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도심 순환체 가로공간 계획** / 고우현, 박은지, 신동우(수원대학교 건축공학과)
•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농업** / 허지훈(단국대학교 건축학과)

- **도시와 땅의 경계에서…** / 허성훈, 김재영, 이지현(계명대학교 건축학과)
- **유토피아의 반(反)이상향** / 서두원(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 **사회적시간의 공존** / 이숙민, 신영빈, 송 일(서울예술대학 실내디자인과)
- **노유자와의 교감을 커뮤니티로 답하다** / 최병원, 김여진, 김기웅(울산대학교 건축학 전공)
- **사회적 클러스터–통합을 위한 플랫폼** / 김성희(단국대학교 건축학과)
- **회색빛 위에 색깔을 입히자** / 신수정(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 **새로운 환승개념을 이용한 소통의 신도림역사** / 김찬우, 강호영, 최용기(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 **서촌 갤러리마을 안내도** / 김 민, 손상은(숭실대학교 건축학과)
- **돈의동, 도태된 도심 속 자기 역할 찾기** / 최은영(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 **도시 안에서 삶을 찾다** / 정상우, 배혜림(홍익대학교 건축학과)
- **기억의 공유를 통한 치유** / 김민혜, 김용균, 이윤희(전남대학교 건축학과)
- **빛과 공간의 풍경** / 김용섭, 홍기준(전남대학교 건축학과)
- **경계 위의 유희** / 윤진용, 남윤정(충북대학교 건축학과)
- **공생을 위한 유전구조** / 김응철, 강봉성, 최종욱(남서울대학교 건축학과)
- **사이공간으로서 부산역 철도부지의 북항연계 재개발계획안** / 이희련, 정희경(부경대학교 건축학과)
- **잠재적 경계공간을 통한 소생** / 김남현, 이진호(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 **커뮤니티 코어** / 이재형(인하대학교 건축학과)
- **종로 가로구조 변화 분석을 통한 역사박물관 계획** / 곽성주(숭실대학교 건축학과)
- **더 이상 이방인이 없는 이태원** / 유 청(아주대학교 건축학부)

□ 올해의 건축문화인상(국토해양부장관상)

박 길 룡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 공로상

황 일 인 (주)일건 건축사사무소 대표 / **박 경 립** 강원대학교 교수

심 사 평

인 의 식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연미건축 / 심사위원장

요즘 IT와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수많은 기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들의 삶 자체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그동안 세대간, 계층 간의 갈등을 넘어 또 하나의 단절의 벽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디지털그룹은 태블릿 PC, 핸드폰을 통하여 말과 행동이 아닌 손가락으로, 또한 이들 간의 언어로, 가상의 공간 속에서 대부분의 만남이 이루어지며 미래에 보다 빠른 환경 또는 새로운 성능의 완벽한 기계적 환경을 꿈꾸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힘든 아날로그 그룹은 구석기 시대 DNA로 작동되는 우리 몸의 구조와 신체리듬으로 이러한 현실과 많은 충돌을 겪으면서 어렵게 적응해 나가고 있으며, 자연을 닮은 생태환경 속에서의 원초적인 삶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수만 년간 천천히 진화하며 살아왔던 인류의 삶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요즈음의 모습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시대의 젊은 건축 학생들은 이러한 변화의 물결의 중심에서서 양측의 속성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이 시대의 문제점을 건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신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하며 학생부분 계획 건축물 주제로 Interface(소통)로 설정되었습니다.

입상작품 선정 기준으로 주제에 적합성 여부와 진행과정에서의 프로그램 전개방식, 사이트와의 연계성, 형태를 만들기 위한 내적 논리 등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하여 심사되었으며, 역량 있는 심사위원님들 덕분으로 작품선정에 있어 이견 없이 쉽게 입상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도 수많은 작품을 제출한 학생들의 열의를 보면서 한국건축이 밝은 미래를 보았으며, 한편으로는 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미래 한국건축의 주역이 되도록 이끌어 주어야겠다는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번에 출품된 작품 모두 수많은 시간을 밤새우며 자신의 혼을 심어놓은 열정을 느낄 수 있었으며, 비록 입상되지 못하였어도 좌절하지 말고 자신의 꿈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면 건축에 입문하면서 꿈꾸어왔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가까이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김 상 길 / (주) 에이텍 종합건축사사무소

2011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공모전의 주제는 '우리사회의 마이너리티를 위한 건축사의 시선에 관한 것이었다. 건축사는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 우리 사회에서 건축사의 위상은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진정 건축사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공헌한다면 어떠한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제기로부터 이 공모전의 주제가 주어졌으며, 특히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의 그러한 의식의 중심에서 가장 첨예하게 사회에 맞닿아 있는 입장에서 차세대 건축사들이 그러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고민하고 정교하게 준비해 주기를 바라는 바람이 담겨있다.
학생 공모전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한한 상상력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상력이 공공과 사회를 향하지 않고 지극히 개인적인 혹은 자본에 봉사하는 한계 안에 머물러 있다면 사회에서는 그 상상력에 대해서 어떠한 소중함을 부여할 수 있겠는가? 건축에 있어서 상상력은 물리적 실체로서 늘 개인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의 거대한 체계 안에서 작동하게 되며 그러므로 당연히 그 배경이 되는 사회를 바라보며 사회와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 공모전을 통해서 학생들이 무한한 상상력을 통해서 바라보고 키워나가야 할 대상은 결국 우리 사회인 것이다.
마이너리티는 바로 학생공모전이기 때문에 전면에 설 수 있다. 그 어떠한 사회에서도 지금까지는 사회적 마이너리티에게 건축적 풍족함을 선사하지는 못해온 것이 현실이었다. 그렇지만 지어지지 않을 건축을 제안하는 학생 공모전이야 말로 현실화 되지 않는 상상력을 한껏 드러내 표현하고 그 의식을 선언하는 하는 자리이고, 이것이 바로 학생 공모전의 로망이다. 우리사회의 마이너리티는 누구인가? 빈민, 탈북정착민인 새터민, 다문화가정, 소년 소녀가장과 그들 가족, 노인 특히 독거노인과 농촌의 자족노인,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실업자, 노숙자, 여성 특히 상처받고 학대의 대상이 되었던 여성, 미혼모, 버려진 아이들 특히 영아원이나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새싹들, 주류 사회에 진입하고 못하고 떠도는 젊은이들, 노동과 착취에 시달리는 노동자,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하층 노동자들, 이들이 바로 우리 시회의 약자이자 소수자이다. 또한 새로운 사회적 현상으로서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소회되는 계층도 있다. 그렇지만 이들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들이 불행한 사회라면 우리사회 역시 불행한 사회이며, 이들을 배려하는 사회는 그 만큼 성숙한 사회이다. 과연 이들이 기대서 잘 살 수 있는 사회는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번에 출품된 작품들은 이러한 의식을 여러 가지 상상력으로 풀어내었다. 직접적으로 마이너리티를 위한 건축을 제안하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보부재와 같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또 다른 소외의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소외와 소통의 부재를 주제로 한 작업도 이러한 주제에서 맥을 같이하며 또 다른 상상력을 드러내 보여 주었다. 대상을 수상한 작품은 디지털의 시대에 가장 아날로그적인 정보의 수집을 통해서 정보로부터의 소외와 사회로부터의 소외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건축적으로 제안한 문제의식이 예리하게 우리 사회의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완성도 높은 건축작업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함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살만한 작품이다. 이외에도 전통시장이 대형 마트와 SSP와 같은 새로운 상업공간에 밀려나가는 현실에서 그 공간을 어떻게 지키고 결국 우리의 소중한 민중의 장소로 다시 설 수 있는지를 실험적으로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주제에 대한 해석과 이를 녹아낸 건축 작업은 정말 소중한 작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열심히 참여한 모든 지원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김 형 수 / 씨디에스 건축사사무소

올해는 예년에 비하여 아주 많은 수의 작품이 응모하였다. 건축 경기가 어렵고, 그리 밝지 않은 소식들이 언론과 방송에서 주로 전해지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생들이 더욱 더 건축에 열정을 가지고 자기 계발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다.
올해는 출품작이 너무 많아서 1차 심사 때부터 수상작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거의 10대 1이 넘는 경쟁 속에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어떠한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1차 심사에 통과하는 작품이 변경이 될 수 있었다. 심사위원들을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선정하였지만, 우수한 작품이 아깝게 선정되지 못한 예도 많았다.
2차 심사에서는 매우 출중한 수작들이 많아서 더욱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 심사위원들은 기본원칙에 충실하고, 협회에서 제시한 작품의 주제를 잘 해석한 작품을 선정하였다. 그러므로 이번 경기설계에서 수상권에 진입한 작품들은 주제에 충실한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이번 심사에서 또한 중점적으로 심사한 사항은 작품 속에 숨어있는 번뜩이는 건축적인 상상력이다. 평소 주의 깊게 보아왔던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예리한 분석력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풀어낸 작품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진부한 해결책이 아닌 남들의 생각과 상상력을 뛰어넘는 치열한 사고의 결과가 높이 평가되었다.
앞으로의 세계는 하드웨어의 세계에서 소프트웨어의 세계로 급격하게 재편될 것이다. 전자회사가 아닌 소프트웨어회사가 급부상을 하고 있다. 건축분야에서도 소프트웨어인 건축설계가 하드웨어인 건설에 우위를 점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될 것이다. 이때 스티브잡스와 같은 새로운 상상력으로 무장한 우리 젊은 예비 건축사들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새로이 사회적 조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치열하게 삶을 개척해가는 수상자들과 비록 수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같은 열정을 가진 모든 참가자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미래는 여러분의 것이다!

박 순 란 / fory ou 건축사사무소

우리의 건축 미래를 책임질 전국학생들의 작품을 감상(?) 하면서 우리 건축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다양하고 독특한 색깔과 성향이 돋보이는 작품도 다수 보였고 전문가다운 노련함이 내재된 작품도 간혹 눈에 들어온 반면 아직은 서툴고 표현기술이 부족하여 작품에 그만의 생각을 전달하지 못한 아쉬운 작품도 있어서 못내 안타까웠지만 우리의 건축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 이었다고 나름 정리해 보았다.
몇 차례의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이 작품에 나타내고자 했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자 500점이 훌쩍 넘는 작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나름대로 그 주제에 녹아들어 학생과 함께 호흡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행여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 아쉬운 마음과 함께 안타까움이 앞선다.
심사의 기준은, 제시한 주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작품에 표현 하였는지….
작품표현의 노련함 보다는 의도하고자 하는 생각과 독특하고 창의적이며 현실에 접목이 가능한 작품에 많은 점수를 주고자 하였고 건축인 으로써 건축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작품에 임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보았다.
제출된 작품들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진보 되었고 전문가 이상의 생각을 갖고 있는 몇 작품도 눈에 띈 반면 다소 격차가 느껴지는 작품 역시 상당수 보였으나 지금은 미흡했지만 발전가능성이 충분하기에 전문가를 양성하는 각 대학교의 열정과 배려 기존 건축사들의 사회적기반과 지지 등이 이들의 미래와 건축문화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다시 한 번 나를 뒤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심사평을 마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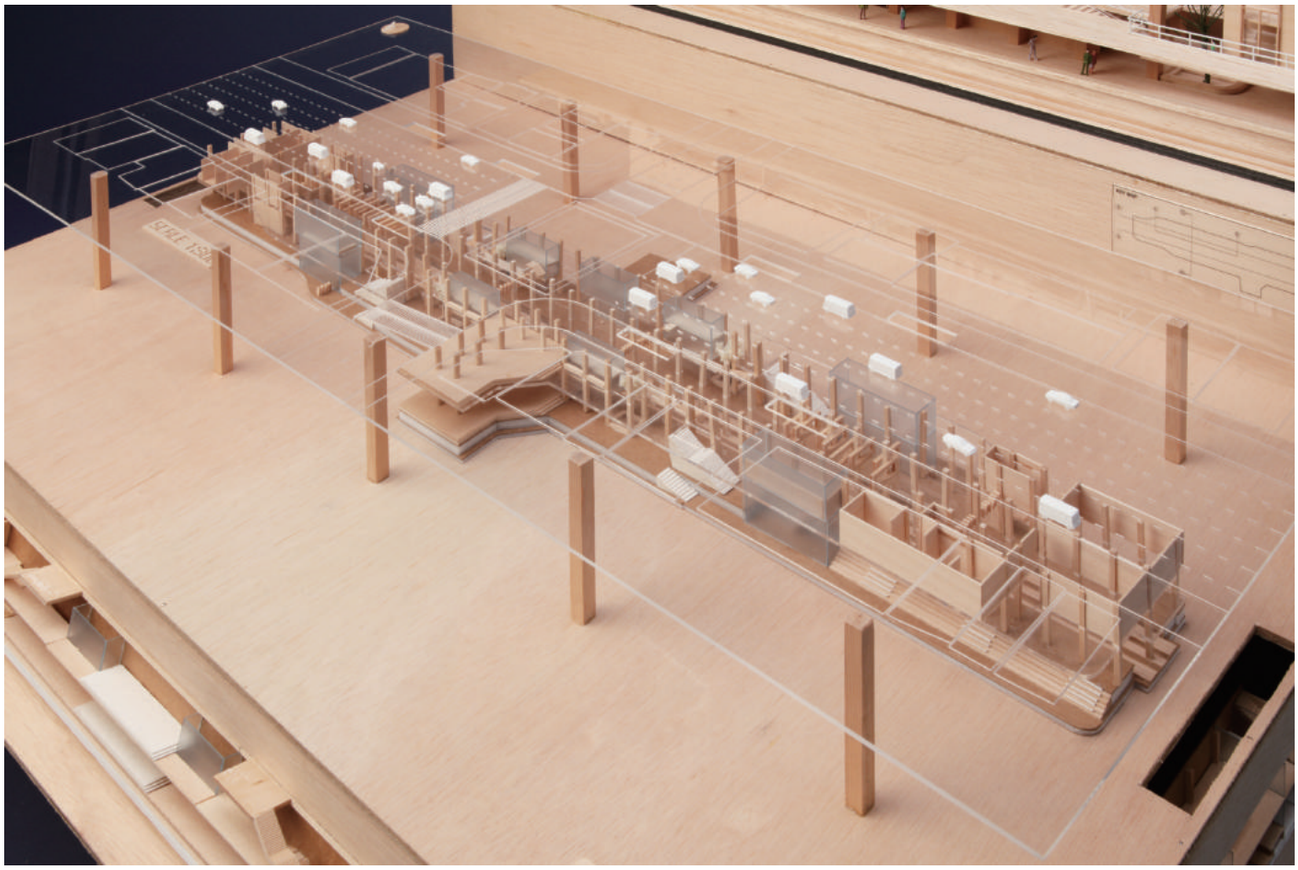
정 재 욱 / 단국대학교 교수

고도로 발전하는 사회에서는 과학 기술과 첨단 산업 개발에 의한 인간의 물리적 욕구가 충족되어 간다고 믿고 있지만 그 배면에는 항상 또 다른 경계가 생성된다.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찬미하는 시대적 패러다임 속에는 자의든 타의든 인간적 소통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쉽고 편리하게 소통될 수 있다는 믿음과 더불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로부터의 고립이라는 이중성의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변화에 편승하지 못하는 사회계층이나 같은 목적의 이해집단 속 사람들도 직접적인 소통보다는 공간의 경계에서 분주히 방황하는 현실이 오늘날 디지털 사회의 실상이다. 건축의 기능만이 인간의 목적이 아닌 만큼 첨단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또 다른 인간(인간성)의 모습을 건축과 도시에 담아야 한다. 'Social–Interface – 사회적 결합' 단절과 연결, 그 경계를 초월하다 라는 이번 주제는 이러한 시대적 문제점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건축, 도시적 제안을 요구하였다. 제출된 작품들에서 매우 다양한 문제의식과 테마를 가지고 고민한 흔적들을 볼 수 있었다. 그 속에는 매우 직설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 계획안부터 도시의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제시하는 계획안까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주제를 해석하였다. 어떠한 관점으로 문제를 해석하느냐는 개인의 주관적 가치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주제로 인식될 수도 있다고 보여 진다. 많은 작품들은 건축 프로그램(용도)을 단순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아쉬웠으며 이것은 주제를 너무 표면적으로만 인식한 오류가 아닌가 싶다. 건축의 문제를 건축의 언어로 시작하기 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 인문학적 관점으로 시작하여 새로운 건축의 언어를 재발견하려는 노력과 실험이 요구되는 주제라고 해석하였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는다. 이번에 뽑힌 입상작 중에서도 대상 '아날로그 칩(Analog Chip)'은 Interface의 인자를 '아날로그 칩(Analog Chip)'으로 해석하여 기존의 도시 지하철공간에 새로운 공간을 삽입하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도 창의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아날로그의 인간적 감성이 빠르게 움직이는 디지털 사회에서 접촉을 유발하고 도시의 인자를 새롭게 잉태한다는 해석은 매우 창의성이 돋보이는 계획안이었으며 분석의 과정과 결과의 내용이 충실한 실험적인 건축 설계안으로 사료된다. 대상 이외에도 우수상과 특선으로 뽑힌 입상작들 모두 주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나름의 분석과 실험을 통하여 건축의 창의적 방법을 제시한 우수한 작품들이라고 생각한다.

조 정 철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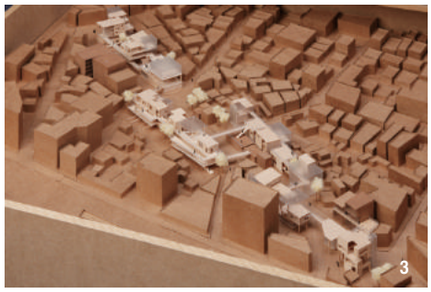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현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에 힘들어 하는가? 통신과 인터넷의 발달로 변화의 사이클이 어지럽게 빨라진 우리 사회의 세상읽기도 무척 복잡해졌습니다. 자기시대 읽기는 시세에 대한 야합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시대정신이라 보여 집니다. 이러한 정확한 인식의 토대 없이는 그 어떠한 사유도, 건축적 대안도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계획건축물 부문의 주제는 참으로 시의적절한 주제였다고 생각됩니다. 건축은 그 시작과 함께 기술, 기능 ,예술, 공간, 사회, 문화, 도시, 역사 등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함께 각 분야의 변화속도가 상상을 초월한 만큼 빨라져, 그 변화를 담고 결합해야 할 건축은 그 변화의 중심에서 한참을 뒤져있습니다. 이러한 단절의 문제로 세대, 계층, 지역, 인종, 정보, 민족, 종교, 이념, 문화 등 각 분야에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사회적 약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사회적 약자에게로 따뜻한 시선을 돌려 결합과 통합을 통해 공생할 수 있는 건축적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공모주제가 지닌 매력 때문인지 평소보다 많은 작품이 응모하였으며, 주제에 대한 참신한 문제제기와 완성도 있는 대안을 제시한 응모자 및 수상자 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건축의 의미를 탐구하는 이번 공모전의 모든 참가 학생들에게 사회적 결합(Transcendence between convene and intervene /단절과 연결, 그 경계를 초월하다)의 주제가 그동안 미뤄 두었던 단절의 문제를 다시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한편으론 지금 건축계는 대, 내외적으로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에 당면해있습니다. 젊음의 한 시기를 건축의 의미를 탐구하며 열정적으로 미래를 꿈꾸는 많은 건축학도들이 졸업과 함께 또 다른 의미의 사회적 약자가 되진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모전에서 보여준 참가자들의 열정과 잠재력으로 보아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우리 한국 건축문화가 세계로 발돋움 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大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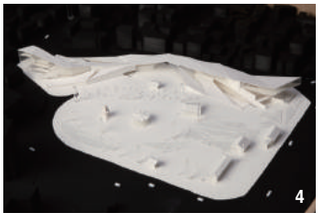
아날로그 칩 _ 김태선, 우원석, 허은영 /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優秀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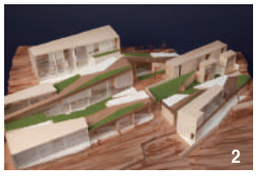
1. **도시에 살 자격을 얻는다는 것** _ 박시몬, 김성수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2. **노마디즘과 도시의 재생** _ 김가영 /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3. **걸으며 만나는 삶의 이야기** _ 김현주 / 영남대학교 건축디자인전공
4. **단지 비워져 있는 것은 열린 것이 아니다**_ 김진표, 이용훈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5. **유동적 커뮤니티, 재래시장의 가치를 잇다** _ 주연홍, 김두리, 강준성 /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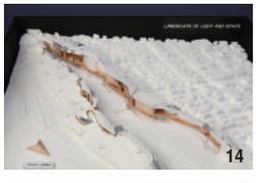
特選



1. **너에게 접속하다** _ 김영인, 방성윤, 이민기 / 경원대학교 건축학과
2. **그 씨앗들은 며칠 있으면 발아할 것이다** _ 이종상, 현지연, 윤소라 / 수원대학교 건축공학과
3. **폐역사 부지를 활용한 사회적 소통의 제안** _ 서규석 /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4. **도시 내 소외된 공간의 환원** _ 안재현, 한준희, 최홍석 /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5. **은둔자를 위한 도시 회로** _ 임현택 /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6. **벌집사이-노동자주거, 사이공간을 통한 커뮤니티제안** _ 이다영, 이슬기, 김현진 /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入選





01. **대학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도심 순환체 가로공간 계획** _ 고우현, 박은지, 신동우 / 수원대학교 건축공학과
02.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농업** _ 허지훈 /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03. **도시와 땅의 경계에서…** _ 허성훈, 김재영, 이지현 / 계명대학교 건축학과
04. **유토피아의 반(反)이상향** _ 서두원 /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05. **사회적시간의 공존**_ 이숙민, 신영빈, 송 일 / 서울예술대학 실내디자인과
06. **노유자와의 교감을 커뮤니티로 답하다** _ 최병원, 김여진, 김기웅 / 울산대학교 건축학 전공
07. **사회적 클러스터-통합을 위한 플랫폼** _ 김성희 /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08. **회색빛 위에 색깔을 입히자** _ 신수정 /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09. **새로운 환승개념을 이용한 소통의 신도림역사** _ 김찬우, 강호영, 최용기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10. **서촌 갤러리마을 안내** _ 김 민, 손상은 / 숭실대학교 건축학과
11. **돈의동, 도태된 도심 속 자기 역할 찾기** _ 최은영 /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12. **도시 안에서 삶을 찾다** _ 정상우, 배혜림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13. **기억의 공유를 통한 치유** _ 김민혜, 김용균, 이윤희 /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14. **빛과 공간의 풍경** _ 김용섭, 홍기준 /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15. **경계 위의 유희** _ 윤진용, 남윤정 /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16. **공생을 위한 유전구조** _ 김응철, 강봉성, 최종욱 / 남서울대학교 건축학과
17. **사이공간으로서 부산역 철도부지의 북항연계 재개발계획안** _ 이희련, 정희경 /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18. **잠재적 경계공간을 통한 소생** _ 김남현, 이진호 /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19. **커뮤니티 코어** _ 이재형 /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20. **종로 가로구조 변화 분석을 통한 역사박물관 계획** _ 곽성주 / 숭실대학교 건축학과
21. **더 이상 이방인이 없는 이태원** _ 유 청 /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KAA
Korean Architecture Awards

한국건축문화대상展

2011한국건축문화대상展

kaa.kira.or.kr

2011. 10. 27 ~ 10. 30
COEX 1층 Hall A

시상식 10월 27일 10:00
리셉션 10월 27일 11:30

주최 _ 국토해양부,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경제신문　주관 _ 대한건축사협회　후원 _ LH, 대한주택보증(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건축문화대상

Korean Architecture Awards 2011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대 상

-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
- SK케미칼 연구소
- 성남 판교 산운마을 7단지
- 레티스 하우스

본 상

- 인천 어린이과학관
- 한화갤러리아 센터시티점
- 삼성 래미안 이스트팰리스
- 쌍용건설 평창동 타운하우스 오보에힐스

우 수 상

- 울산박물관
- 강동아트센터
- 강원애니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국제교육관
- 레드스쿨
- 배재대학교 하워드기념관
- DMZ박물관
- 경주예술의전당
- 부여리조트 백상원
-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기숙사
- 페럼타워
- Fort Hill
- NHN 그린팩토리
- 라꾸보
- 신촌성결교회
- Yellow Diamond
- 미래에셋 센터원
- 양평 패시브하우스
- 포레스트 퀀텟
- 송현리 안나의 집
- 화선대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
Gosan Yun Seon-do Relic Museum

• 설계자 : 김상식(주.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유)유심종합건설 • 건축주 : 해남군청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은 해남윤씨종가에서 보관하고 있던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해남윤씨가와 관련된 인물의 위치 재조명 및 해남지역 사대부가에 대한 이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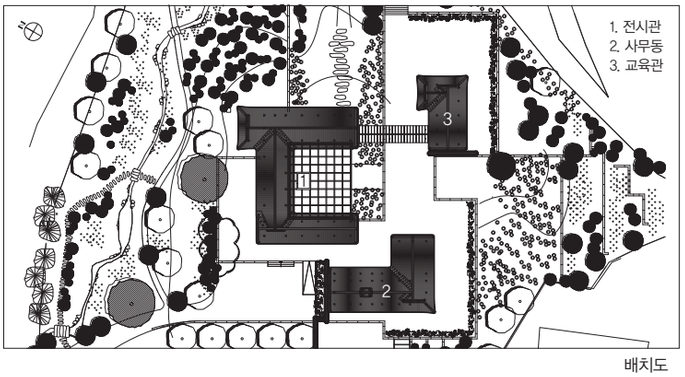
계획부지는 주산에 해당하는 덕음산과 안산인 벼루봉을 잇는 상징축 위인 연동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연동마을은 역사성을 지니는 장소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말무덤, 연지 등 우리나라 농촌 전통마을의 구성요소가 마을의 경관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단순히 전시관 신축이 아니라 연동마을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설계를 진행하였다.

기존에 존재하는 '주산–녹우당–연지–송림–안산'의 기존축을 계획대지에 도입하여 '주산–계획대지–연지–송림–안산'의 건물 배치축을 설정하였다. 또한 계획대지 내에서도 전시관 건물의 위치를 남쪽으로 치우치도록 계획하여 연동마을의 주진입로 초입에 위치한 연지에서 녹우당으로 향하는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였다. 진입마당–전시관–문학정원–앞뜰–녹우당의 시퀀스를 갖도록 각 동을 배치하였고, 후원을 계획함으로써 교육관(별서)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정원, 사무동과 서비스 동선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선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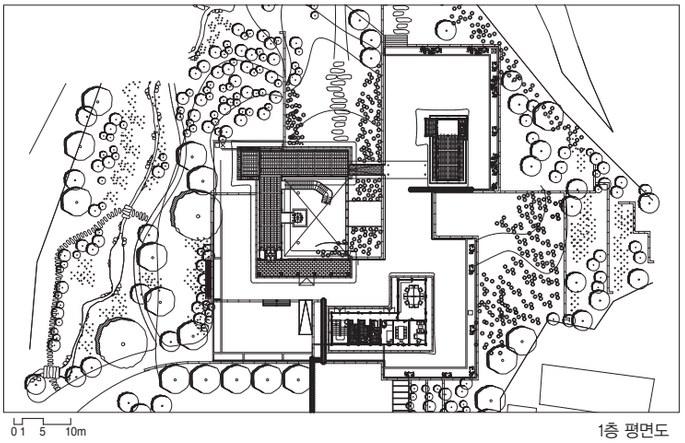
녹우당이 자리하고 있는 전통마을의 맥락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상층을 전통한옥으로 구성하여 지역적 맥락성 표현하고, 녹우당의 처마 및 지붕의 통풍구등 다양한 요소를 응용하였다. 또한 예학자의 삶과 문화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 구성마련을 위해 지하의 전시관과 지상의 전통한옥을 이어주는 매개공간으로서의 아트리움을 도입하였다.

내부공간은 하나의 연속된 시퀀스 속에 존재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열림과 닫힘의 적절한 구성을 통해서 다양한 내부공간을 계획하였다. 지상에는 지하의 전시관으로 관람객을 이끌 수 있는 요소들을 배치함과 동시에 관람동선으로부터 벗어난 곳에 사무동을 두어 관리의

대지위치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102-1	연면적 1,830.68㎡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7.11%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용적률 3.98%
대지면적 ㎡	규모 지하 1층, 지상 1층
건축면적 611.89㎡	구조 전통한식목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배치도



1층 평면도

효율성을 높였다. 지하의 전시관은 지하라는 불리한 조건에 대해서 외부로 열린 공간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지상과 다름없는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러한 공간을 통해서 관람객은 전통마을의 흐름을 통해 정점의 녹우당으로 자연스럽게 향할 수 있다.

진입은 진입회랑을 거쳐서 진입홀로 들어서게 된다. 진입홀 한 쪽 벽면은 지하와 지상을 매개하는 아트리움 홀로 열림으로써 시선의 확장을 유도한다. 지상 1층의 별서 공간으로 계획된 교육관에서는 다도 등과 같은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전시관과 교육관은 회랑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홀 계단을 통해 아트리움으로 내려서면 외부로부터 연속된 자연을 느끼게 된다. 연결복도는 외부로 열린 공간으로써, 외부의 대숲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현재와 과거의 시점을 분리하는 전이공간으로 기능한다.

SK케미칼 연구소
SK Chemicals R&D Center

• 설계자 : 정영균(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에스케이건설(주) • 건축주 : 에스케이케미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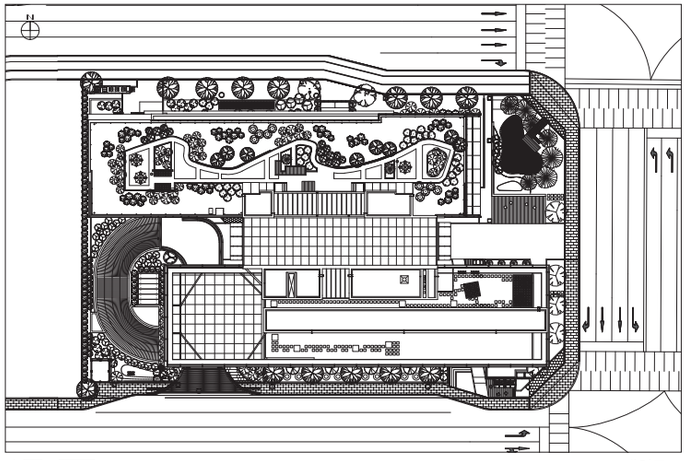
SK케미칼연구소는 경기도 성남시의 판교테크노밸리 내의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연구센터로 SK케미칼의 미래 친환경 추구의 표본으로 인간과 자연의 지속 가능한 공간 구현을 목표로 건설되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GBCC)에서 제도 실시 이후 사상 최고 점수로 최우수등급을 획득했고, 현재 미국녹색건축위원회(USGBC) 주관 하에 친환경 건축물에 수여하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LEED)의 인증 과정에 있으며, 금년 7월 최고등급인 Platinum 등급을 취득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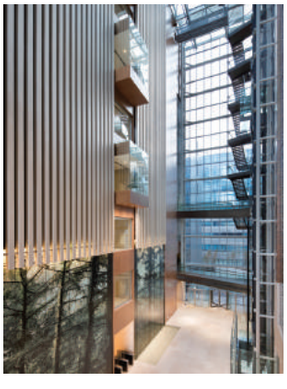
디자인 발전과정에서 친환경 이미지 구현을 목표로 자연의 유입을 극대화 한 대공간 아트리움을 계획하고 마이크로 루버, BIPV, 옥상녹화, 우수 및 중수 활용 등 100여 가지 최첨단, 친환경, 에너지, IT기술 적용을 통해 약 40%의 종합적인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 적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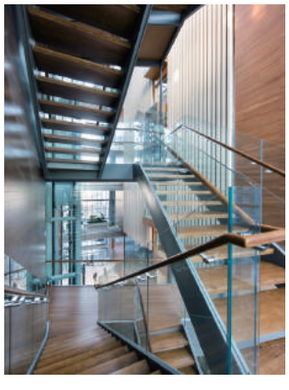
사람과 자연, 기업과 도시의 엮어진 관계 속에 공존, 유화를 통해 조화로움의 상징되는 공간인 SK케미칼연구소는 판교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친환경 건축물이 될 것이다.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6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택지개발지구
용도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대지면적 6,231.30㎡
건축면적 3,734.83㎡
연면적 47,512.91㎡
건폐율 59.94%
용적률 404.18%
규모 지하 5층, 지상 9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배치도





성남 판교 산운마을 7단지
Pangyo Sanun Maeul 7-Danji

• 설계자 : 김회훈(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 시공자 : 계룡건설산업(주) • 건축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 준공건축물부문 | 공동주거부문 _ 대상

판교신도시 끝자락 고요한 삼림 구릉지에 중대형 테라스 하우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욕구는 독립적인 단독주택 또는 전원주택으로의 조밀한 커뮤니티 또는 안정성이라는 개념의 아파트 단지 사이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부지는 성남 판교신도시 서쪽의 끝부분으로 택지가 숲과 잇닿아 있다. 수도권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는 산지가 평지와 만나는 부분이다. 격자형 도시 그리드를 가진 신시가지의 택지지역과 산지 사이에 위치한 경사진 기슭을 따라 세 개의 빌리지를 가진 206호 규모의 주택단지를 조성하였다.

Symbiosis between the Nature and the Built _ 자연과 건축이 어울려 삶

단지를 조성하는 건축개념은 자연과 인공물의 공생에 두었다. 따라서 경사지를 절토하여 넓은 평면을 만든 다음 건물을 앉히는 방식은 지양되었다. 대신 지형을 따라 접힘(folding) 또는 기대기(leaning) 같은 개념으로 주택을 경사지에 얹는 시도를 하였고, 숲과 녹지를 이른바 '까서' 그 밀어낸 자리만큼을 건축물로 건폐(coverage)하는 개념 대신 숲과 숲 사이에 주택을 짜 넣는 이른바 짜깁기(interweave)라는 개념으로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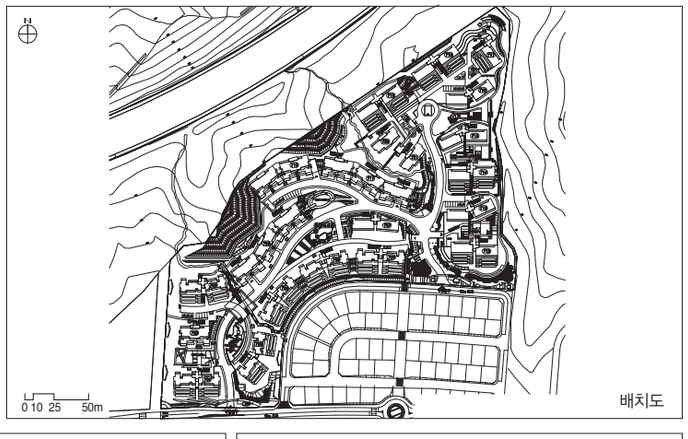
또한, 물길과 계곡 등 원래의 자연이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 내었을 지형을 재해석하여 인공그리드를 가하지 않고 물길을 따라 그에 부합(coincidence)되도록 수체계와 가로를 조성했다. 그리고 차량의 진출입과 주차공간을 지하에 두어 지상을 보행공간화 함으로써 이러한 콘셉을 극대화 할 수 있었다.

Symbiosis between the Community and th Privacy _ 공동체와 개인이 더불어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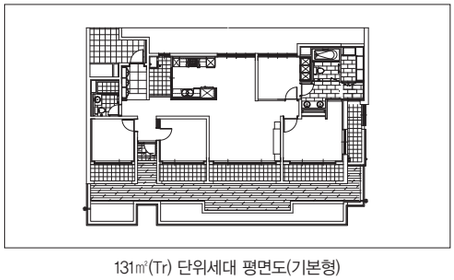
외형면에서 자연과 인공의 공생에 주력했든 단지 내부의 구성 개념은 공동체의식과 사생활의 공생에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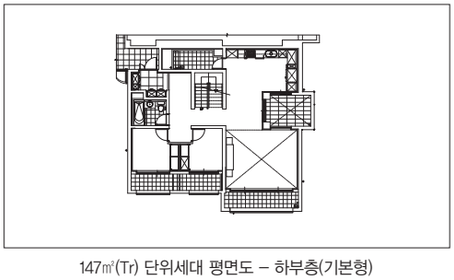
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의 고형적 마을 개념과 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사생활의 유동적 주택개념을 액상적(liquid)으로 공생시킴으로써 이른바 광장→안뜰→주택거실의 맥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였고, 전통마을의 망상(mesh)구조와 사적생활의 나뭇가지형 위계구조를 반격자형(semi-lattice)으로 공생시킴으로써 마을길→골목길→대문앞이 혼합된 생활가로를 갖게 되었다. 공동체의 집중기능과 개인의 분산성향을 배합하여 이른바 마을-클러스터-단위주택이 포도송이처럼 엮이게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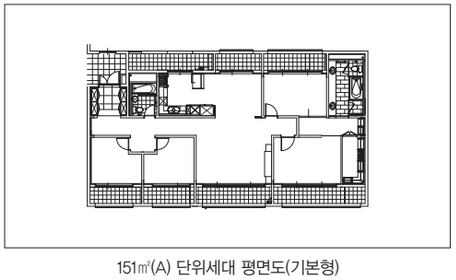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87번지 (산운마을7단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택지개발지구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대지면적 59,882.90㎡
건축면적 15,078.53㎡
연면적 55,323.20㎡
건폐율 25.18%
용적률 64.98%
규모 공동주택 206세대 (지하 1층~지상 4층), 부대복리시설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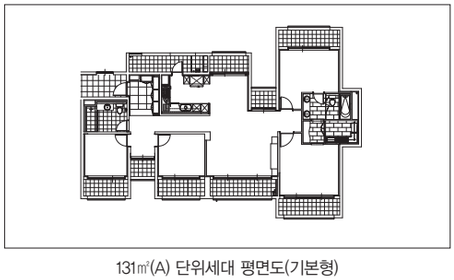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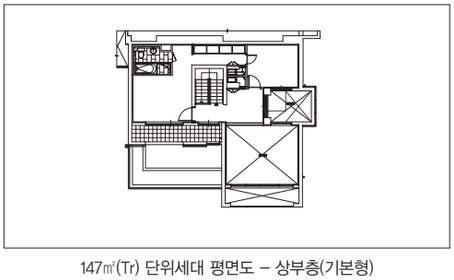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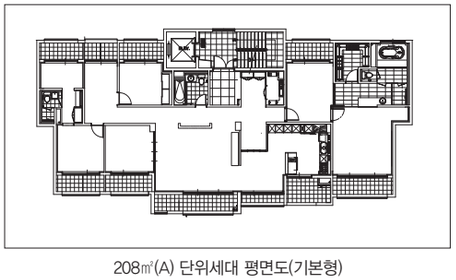

131㎡(Tr) 단위세대 평면도(기본형)


147㎡(Tr) 단위세대 평면도 – 하부층(기본형)


151㎡(A) 단위세대 평면도(기본형)


131㎡(A) 단위세대 평면도(기본형)


147㎡(Tr) 단위세대 평면도 – 상부층(기본형)


208㎡(A) 단위세대 평면도(기본형)

레티스 하우스
LATTICE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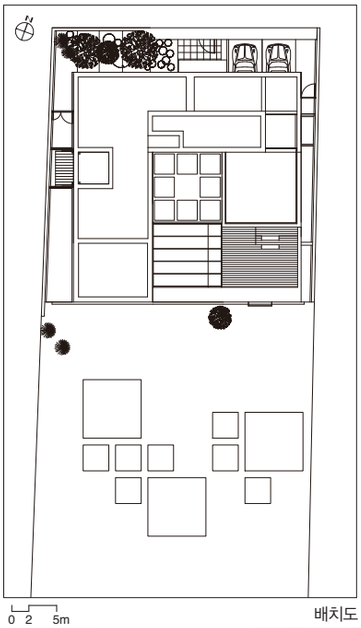
• 설계자 : 인의식(주.종합건축사사무소 연미건축)
• 시공자 : (주)제효 • 건축주 : 최두환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 **준공건축물부문 | 일반주거부문 _ 대상**

주택의 부지는 도심과 자연의 경계에 위치한다.
북측으로 빌딩의 실루엣과 남측으로 숲의 경관, 회색과 녹색, 긴장과 이완의 경계에 위치한 주택은 대립이 아닌 소통의 이야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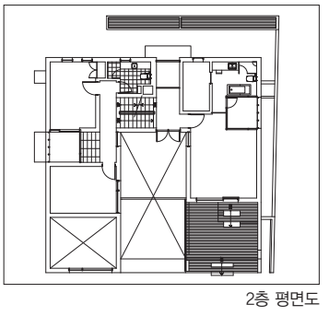
주택은 주인의 문화와 감정을 담는 그릇이다.
주인이 소유하고 있던 가구들은 한국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절제되고 긴장된 비례미와 장인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가구이다.
이들 가구에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격자 모습이 디자인의 출발이었다.
평면은 5.1X5.1 모듈 집합체에서 중앙에 자연을 끼워넣고 다시 작은 모듈로 분해된 자연을 관입시켜 집안 구석구석에서 자연과 소통하도록 하였다.
이들 격자는 평면, 창호, 조경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되며 하나의 음악으로 연주된다.
주택은 흐르는 자연을 머물게 하고 거주자와 오감으로 대화하게 하는 장치이다.
진입로 중정, 앞마당, 앞산으로 이어지는 자연은 건물을 관통한다.
중정의 폭포는 자연의 소리를 실내로 스며들게 하고 물에 반사된 햇빛과 폭포물결의 그림자가 건물 내부에 자연의 흔적을 남긴다.
주택내부에 관입되어 부유하는 중정들은 가까이에서 눈 오는 모습과 빗소리를 들려준다.
앞마당의 LATTICE 채소밭은 자연의 맛을 제공하고 사계절 다양한 모습으로 대지에 그림을 그린다.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지역지구 1종 전용주거지역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368㎡
건축면적 156.82㎡
연면적 295.51㎡
건폐율 42.61%
용적률 71.88%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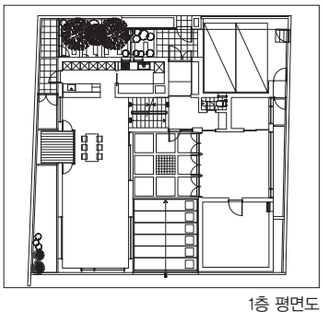


0 2 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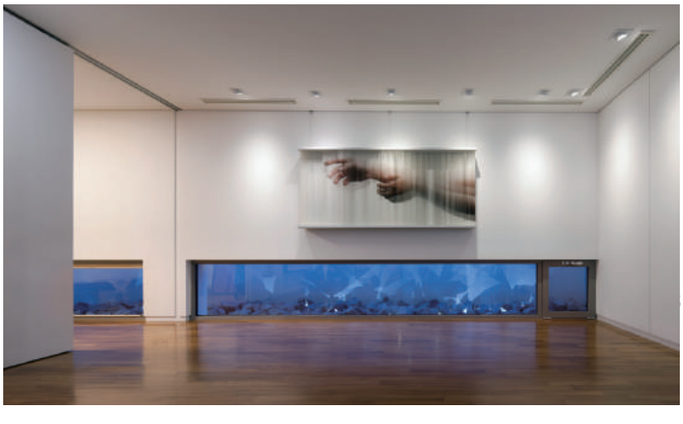
배치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인천 어린이 과학관
Incheon Children Science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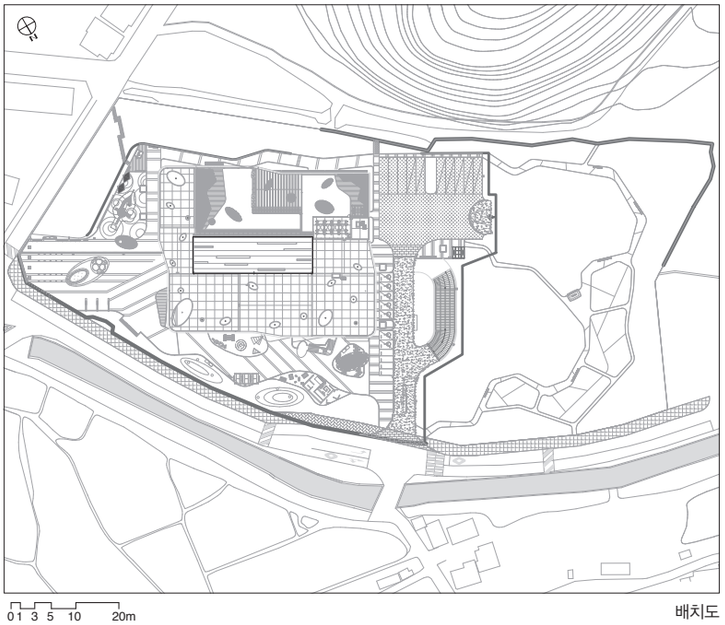
• 설계자 : 윤세한(주.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동부건설(주) • 건축주 : 인천광역시청

인천 어린이 과학관은 자연과 도시가 만나는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의 계양산 초입에 위치해 있으며, 국내 최초의 전문 어린이 과학관을 표방하며 10여 년간 인천시가 노력해 온 숙원사업이었다. 따라서 도시와 자연의 접점에 위치한 대지적 맥락과 어린이와 과학 전시라는 주사용자와 프로그램적인 맥락에 착안하여 '어린이의 꿈을 담은 스펀지'라는 개념을 설정하였다. '스펀지'라는 개념은 건축, 전시, 조경, 인테리어 등 통합적인 환경을 만드는 키워드로서 모든 디자인의 분야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작용하였다.

'스펀지'의 개념적 전개는 Dream Icon, Eco Icon, Community Icon 그리고 Funny Icon의 네 가지 Icon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스펀지'의 구현을 위해 어린아이들에게 친근하고 말랑말랑한 건물 형태와 불규칙적이고 독특한 타공 입면(Dream Icon)을 구성하였으며, 건물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와 소통을 하기 위해 입체적 경험이 가능한 다양한 옥외 공간(Eco Icon)을 조성하였다.

또한 대지의 흐름이 건물의 내외부를 자연스럽게 넘나들도록(Community Icon)하였고, 어린이들이 과학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전시관을 매개하는 중앙홀에 다양한 조형물과 이벤트, 볼거리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Funny Icon)을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즐기며 체험하는 전시과학관으로서 인천을 인식하는 랜드마크(Landmark) 중 하나가 되도록 의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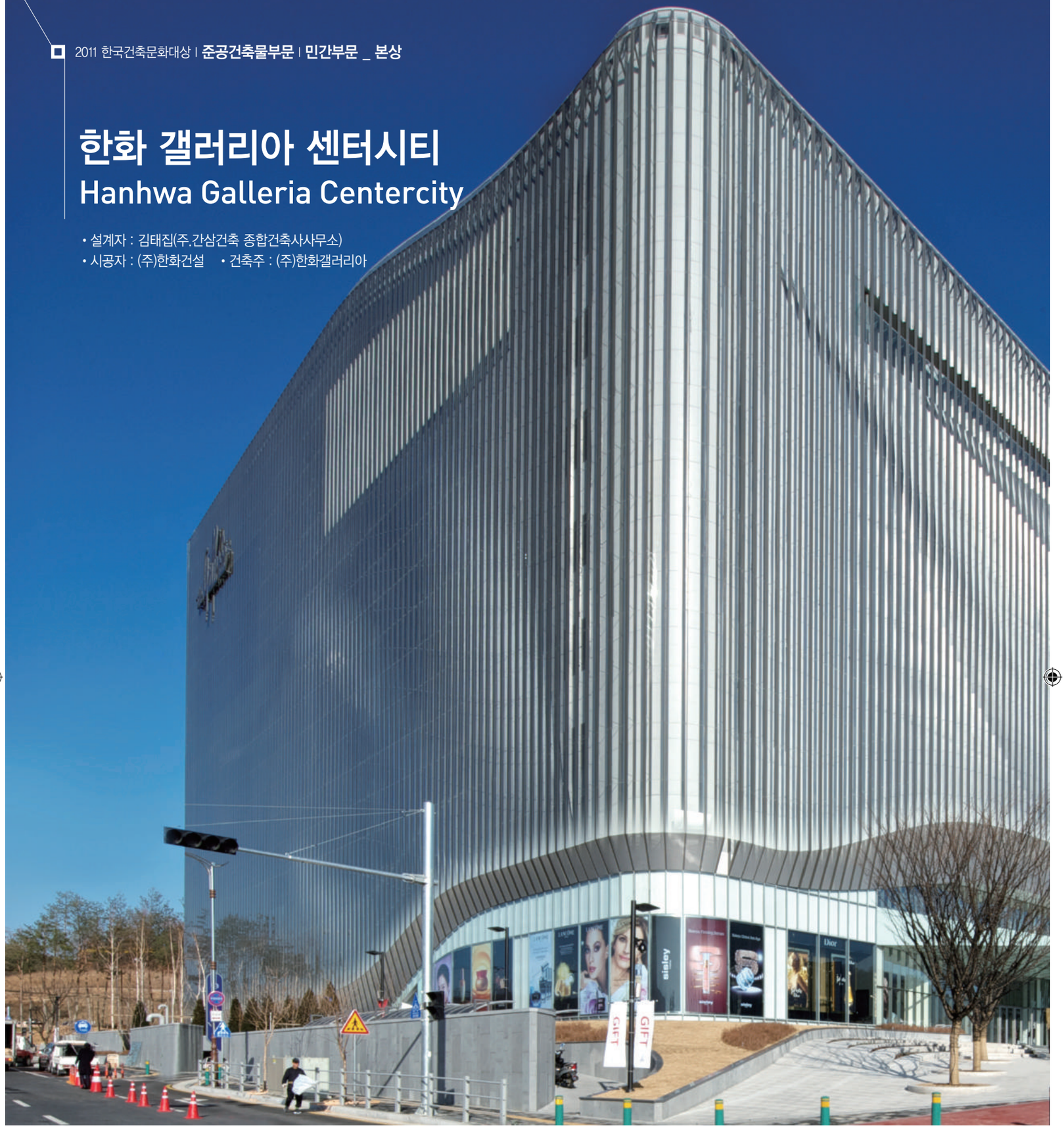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축동 108-1번지 외 9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공항시설보호지구,
최고고도지구, 개발제한구역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과학관)
대지면적 21,688㎡(형질변경면적 : 11,982㎡ ,
형질변경외면적 : 9,706㎡)
건축면적 4,287.39㎡
연면적 14,998.06㎡
건폐율 19.77% (형질변경면적 적용 : 19.77%)
용적률 44.15% (형질변경면적 적용 : 79.91%)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R.C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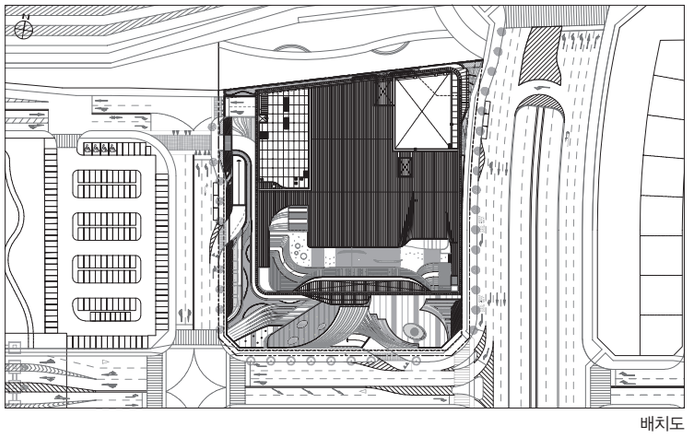
한화 갤러리아 센터시티
Hanhwa Galleria Centercity

• 설계자 : 김태집(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주)한화건설 • 건축주 : (주)한화갤러리아



갤러리아 센터시티의 중요한 건축 테마는 역동적 흐름으로 건물 내외부 모두에서 드러난다. 물결무늬 효과, 특수 조명 및 애니메이션을 이용해 백화점 외관이 지속적으로 변하게 함으로써 전면이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게 했다. 각기 다른 테마를 가진 4개의 내부 클러스터는 외부로 투영되어 백화점 내외부 공간의 조화를 보여준다. 건물 외관은 착시현상을 일으키도록 디자인됐다. 알루미늄 복합 패널 위에 삼각 형태의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사용해 2개의 레이어를 갖는 더블 스킨 파사드를 만들었다. 외측 프로파일과 비스듬히 기울어진 내측 알루미늄 프로파일이 겹쳐 물결무늬가 형성되는데, 이로 인해 파사드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외관은 낮에는 단색 반사체지만 밤에는 다채로운 색의 빛의 물결이 파사드 전체를 덮는다. 조명은 더블 스킨의 파사드가 부각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최소한의 조명기구로 최상의 미디어 파사드를 연출하고자 했다. 특수 설계해 맞춤 제작한 조명기구는 외측 파사드의 수직 프로파일 안쪽에 설치했다.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 조명기구는 내측 파사드 표면의 수직 프로파일 사이에 빛을 투영시키며, 파사드의 물결 위치에 따라 RGB 또는 백

대지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불당동 52103일원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 판매시설(백화점)
대지면적 11,235.00㎡
건축면적 6,918.36㎡
연면적 110,122.70㎡
건폐율 61.58%
용적률 496.26%
규모 지하 6층, 지상 10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



배치도

색광을 낸다.

백화점 내부는 긴 기둥에 원형의 플라토(plateau)를 적층시킨 것이 특징이다. 2~3개 층이 묶여 형성된 클러스터가 적층되며, 휴게 공간인 플라토를 만든다. 플라토는 프로펠러가 공간 안에서 회전하는 형상으로 지상 아트리움부터 옥상 테라스까지 건물 내부 전체에 걸쳐지며 자연스럽게 고객들의 흐름을 만든다. 또한 중심부의 아트리움과 함께 내부 공간에 빛을 유입시키고 조망의 기회를 제공한다. 백화점 내부 공간이 공간적 • 시각적으로 연결되고, 진열 상품이 아닌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각 층은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공공 영역은 중앙 보이드 쪽으로, 주변 영역은 매장 쪽으로 집중되도록 계획했다. 중앙 보이드에 가까워질수록 천장의 조명 스트립이 넓어지면서 곡선 구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천장, 레일 디자인과 함께 중앙의 보이드 공간은 빛을 발하며 건물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삼성 래미안 이스트팰리스
Samsung Raemian Eastpalace

• 설계자 : 김관중(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삼성물산(주)
• 건축주 : (주)코레드하우징

삼성 래미안 이스트팰리스는 기존 노후화된 가구 단지를 새로운 도시 환경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도시 개발사업으로서 현상설계를 통해 당선된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의 출발점은 집합주택 계획의 기본이 되는 밀도성을 유지하면서도 반복성과 획일성을 어떻게 탈피하느냐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배치, 평면, 입면 구성 방식에서 벗어나 최적의 주거 환경을 유지하면서 다양하고 차별화된 주거 단지를 추구했다.
주변 광교산의 자연을 최대한 유입하고 총 5개 블록으로 나누어진 대지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문화의 중심을 계획했다. 이는 생활, 문화, 교육,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중심 커뮤니티 시설로, 오픈 스페이스를 통해 각 블록의 마을마당과 연계된다. 단지는 입지와 전망 등 각 대지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주동 형식을 개발하여 배치했다. 테마별로 구성된 타워형, 일반형, 전원형 주동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주거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용인 동천지구는 새로운 배치, 다양한 평면, 차별화된 입면 및 커뮤니티 계획을 통해 국내 최고의 명품 단지를 조성하고자 했다.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택지개발지구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연면적 587,894㎡
규모 지하 2층, 지상 30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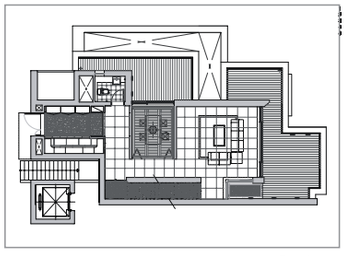
배치도

쌍용건설 평창동 타운하우스 오보에힐스
Oboehil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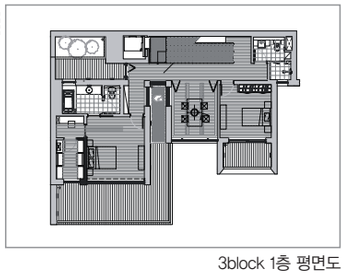
• 설계자 : 윤영건(주.푸름에이앤디 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쌍용건설(주) • 건축주 : (주)서림에프씨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361-1번지 일대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 1종 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용도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규모 지하 1~2층, 지상 2층, 총 4개 블럭, 18세대
구조 철근콘크리트/일부철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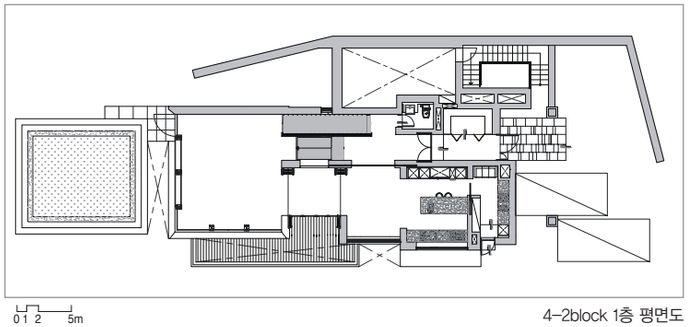
	1블럭	2블럭	3블럭	4-2블럭	4-2블럭
대지면적	647.00㎡	1,971.00㎡	3,289.00㎡	1,222.50㎡	624.50㎡
건축면적	190.93㎡	548.66㎡	985.14㎡	363.15㎡	187.19㎡
연면적	936.13㎡	2,329.64㎡	3,769.80㎡	957.09㎡	326.64㎡
건폐율	29.51%	29.66%	29.95%	29.71%	29.97%
용적률	49.44%	44.97%	41.36%	46.85%	29.21%



1block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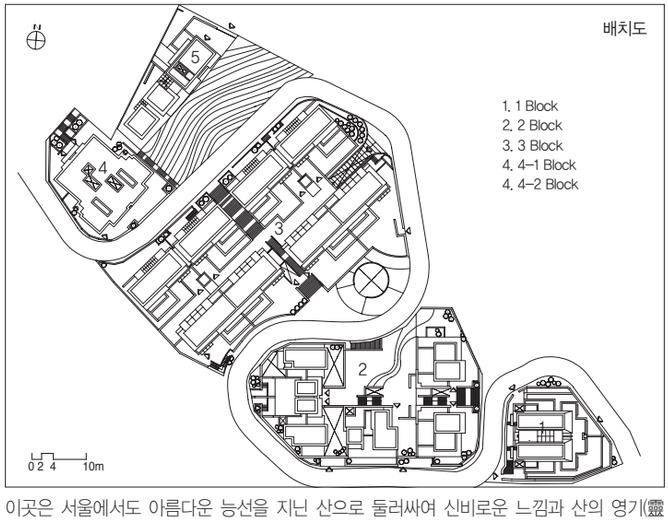


3block 1층 평면도



0 1 2 5m

4-2block 1층 평면도



이곳은 서울에서도 아름다운 능선을 지닌 산으로 둘러싸여 신비로운 느낌과 산의 영기(靈氣)때문인지 공기마저 무척 상쾌하게 느껴지는 곳 이기도하다. 현장에 서서 매우 가파른 경사지를 봤을 때, 나의 첫 인상은 솔직히 당혹스러웠다. 이러한 주위지형으로 내가 생각하는 자유로운 조형의 저층 공동주택을 탄생시킬 수 있을까 하는 당혹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 경사지를 역으로 활용해 여러 층으로 연속되는 건축을 생각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이 공동주택지에 개개의 차고를 마련하는 일이였는데, 우선 설계적인 접근에서 얼마나 기능적으로 차와 사람을 위한 길을 고려할까하는 것부터 설계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됐다. 실로 「길의 건축」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선 당연히 지면에 절개 면들이 만들어지고 사람과 차를 위한 길이 생긴다. 그리고 지층에 단차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길의 높은 단차로 인해 생긴 옹벽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표현할지가 가장 큰 고민 이였고 이렇게 하여 새롭게 만든 지모(地貌)에 어떤 저층의 건축을 만들지가 과제였다.

주위환경과 땅의 영기(地靈)를 대변하는 하얀 상자형태가 중첩되는 건축, 앞집의 옥상정원이 마치 나의 정원처럼 펼쳐질 수 있겠다는 계산 하에 옥상에 녹지를 계획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자연과 건축의 일체화를 도모하고 단지 전체의 여백을 살리려는 의도도 있었다. 각각의 대지가 처해있는 다양한 환경 때문에 획일화된 평면구성 자체가 불가능한 작업이였지만 이러한 전제가 있었기에 더욱 주어진 환경에 녹을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할 수 있었다.

밖으로는 전체 단지의 조화를 꾀함과 동시에 각 세대 내부에서는 펼쳐진 주변 지형을 새로운 자연으로 끌어안기 위한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각 세대가 제 각기 다른 곳에 개구부들이 생길수 밖에 없고 공간 구성도 각기 상이하다. 오보에힐스는 자연과 건축을 융화시키고, 새로운 환경과 사람의 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한 큰 과제를 안겨주었던 프로젝트라 하겠다.

완성된 건축을 보면 불만도 없진 않지만 이 건축도 십년 후에는 조금은 세월을 입고, 자연에 물들어 투박스러움과 섬세함이 어우러지며 좋은 맛을 낼 것이라고 상상할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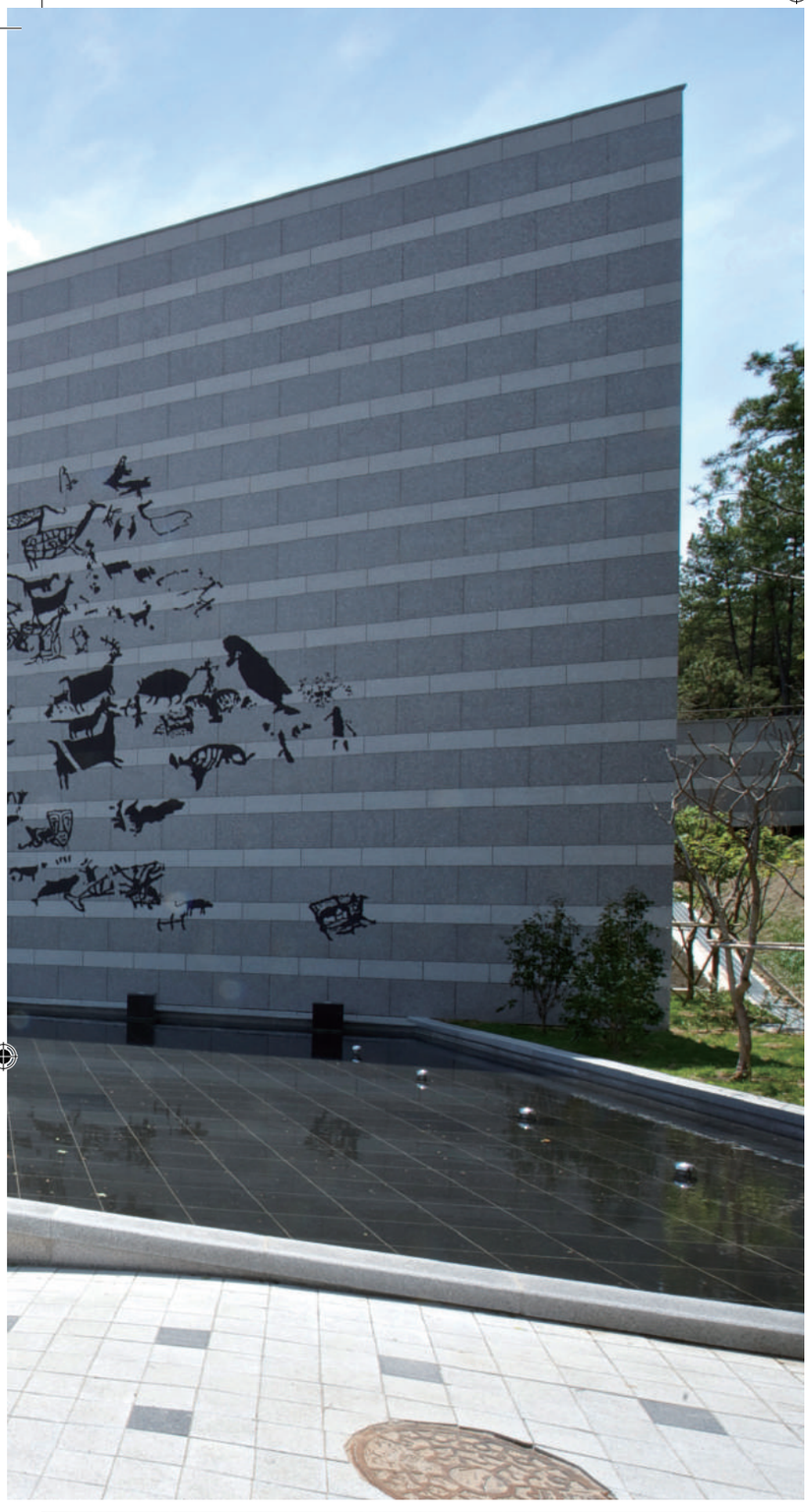
울산박물관
Ulsan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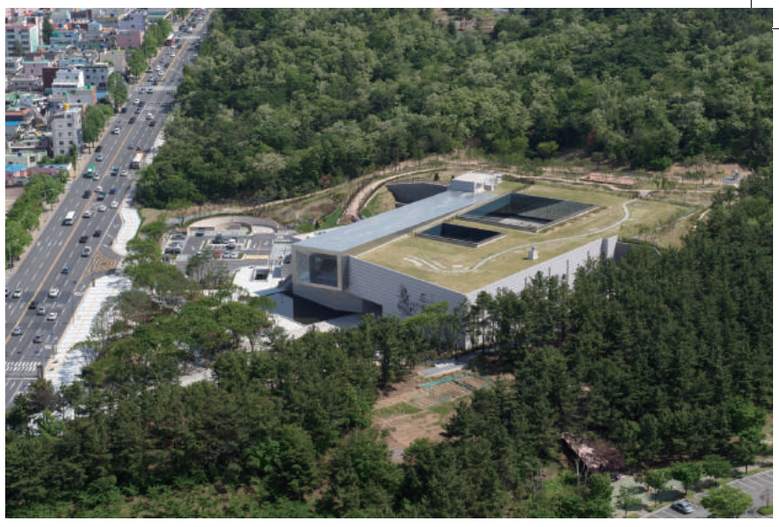
• 설계자 : 김태집(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주)한화건설 • 건축주 : 울산광역시 울산박물관

산업수도로서의 독보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울산은 반면 공해도시 등의 산업화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으로 110만 울산 시민들의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염원을 모아 광역시 승격이 이후 2004년 5월에 자연과 인간, 환경과 산업이 공존 · 상생하는 '생태도시 울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그해 6월9일 '에코폴리스 울산'을 선언한 이래 생태도시 구축을 위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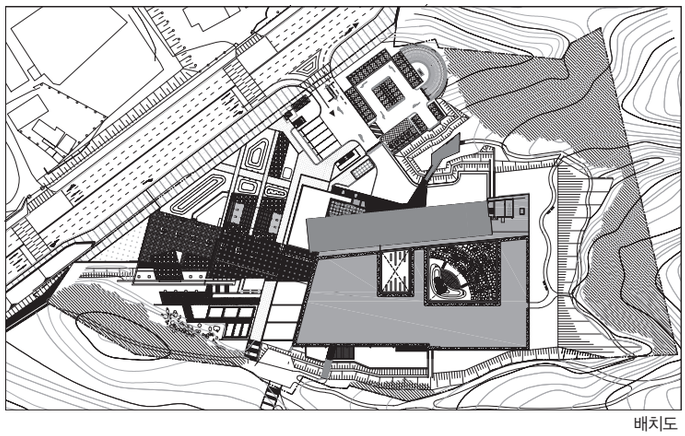
울산박물관 건립부지는 이러한 울산시의 에코폴리스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명실상부한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된 울산대공원 내 동측부지에 위치하고 있다. 울산박물관은 박물관 내 · 외부에 울산대공원 자연 흐름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에코폴리스 울산'이 자랑할 수 있는 자연과 일체화된 친환경박물관으로 조성되었다. 주변환경과 조화된 친환경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기존 지형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지형흐름과 하나되도록 계획하여 울산대공원의 생태계 흐름이 원활히 이어지도록 하였으며, 울산대공원의 자연의 흐름이 박물관 옥상정원과 시설내부의 중정에 스며들고, 박물관 전면의 시민문화공원을 통해 산업도시 울산의 도심으로 확산되어 나가게 된다.

박물관 전면에 넓게 펼쳐진 시민문화공원은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하도록 이벤트마당, 놀이마당, 유물체험 학습장, 암석원, 야외조각마당, 야외무대 등의 다양한 시설을 계획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기 가득한 편안한 휴식처이자 누구나 친근하게 즐겨찾는 시민문화공원으로 조성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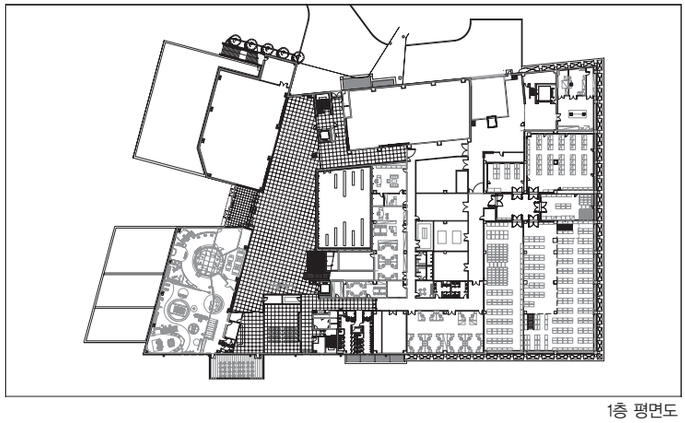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060번지 일원
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구역내 자연녹지 지역
용도 박물관
대지면적 33,058㎡
건축면적 4,180.93㎡
연면적 14,382.38㎡
건폐율 12.65%(법정 : 20% 이하)
용적률 34.20%(법정 : 100% 이하)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



배치도



1층 평면도

강동아트센터
Gangdong Art Center

• 설계자 : 변 용(주.원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주)한진중공업 건설부문 • 건축주 : 강동구청

site, 공원+도시

우리가 2006년 대지를 처음 방문했을 때 느끼는 첫 인상은 대지주변의 어수선한 환경이었다. 산자락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무허가 판자촌은 대지 답사의 설렘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기에 충분했다. 새로운 것의 탄생에는 어쩔 수 없이 많은 희생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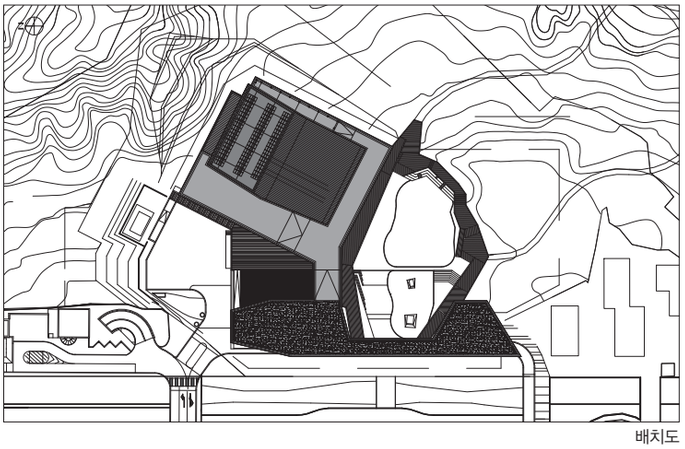
계획대지는 명일근린공원의 일부에 위치하고 있다. 약 650,000㎡의 면적으로 서울시에는 보기 드문 규모의 공원으로 강동구의 여러 공원 중에 산세가 비교적 험준한 공원이다. 공원 내부의 시설들은 아직 개발되지 않아, 공원의 향후 모습이 강동아트센타의 계획 방향에 따라 전개될 것 같은 직감이 들었다. 도시의 긍정적 가치와 공원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접목시키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상정해 보았다.
명일공원의 주변의 도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많은 보행자들이 공원을 가로질러 주변 대중교통과 연결시키는 장소로 공원 산책로를 연결통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공원의 주인인 자연에 의지해야 함을 느끼며, 공연장은 대지가 가지고 있는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배치하였다. 극장이 있어야 할 자리에 길과 마당이 있고, 극장을 대신하여 공원의 일부인 산책로가 가운데에 놓여 있다. 극장은 장소를 점유하지만 지배하지는 않는다. 비워있지만 고립됨이 아닌 소통과 새로운 연결의 고리인 것이다.

co-work, 공연장 건축의 특성으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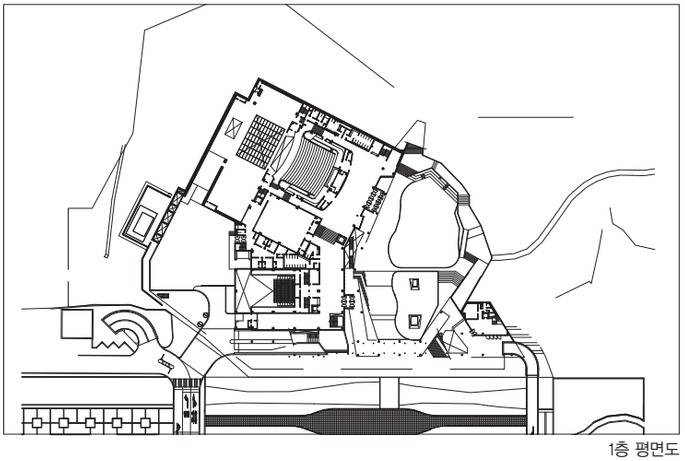
건축사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 기술진과 공연무대 컨설턴트와의 협업은 공연장 건축의 특징을 이해한다면 필수 불가결한 진행방법이라 생각한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며 각기 동일 목표를 향하여 노력할 때만 창조적인 결과물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또한 그 과정이 일회성이 아닌 설계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시공 중이나 그 이후의 과정 속에서도 지속적이고 이루어져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공연장이 일반 상업건축물과 다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 태생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감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전문가의 지속적인 손길이 필요한 것이다. 2006년부터 시작된 일련의 노력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 오롯이 극장 건축을 향한 각계의 열정의 산물인 것이다. 향후 유사하게 진행될 지자체의 극장 건축에서도 우리가 진행해 왔던 열정들이 합쳐져 소기의 결과물이 잉태되기를 기대해 본다.

대지위치 서울 강동구 상일동 동남로 870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 공원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649,709㎡(전체 공원 면적)
부지면적 20,25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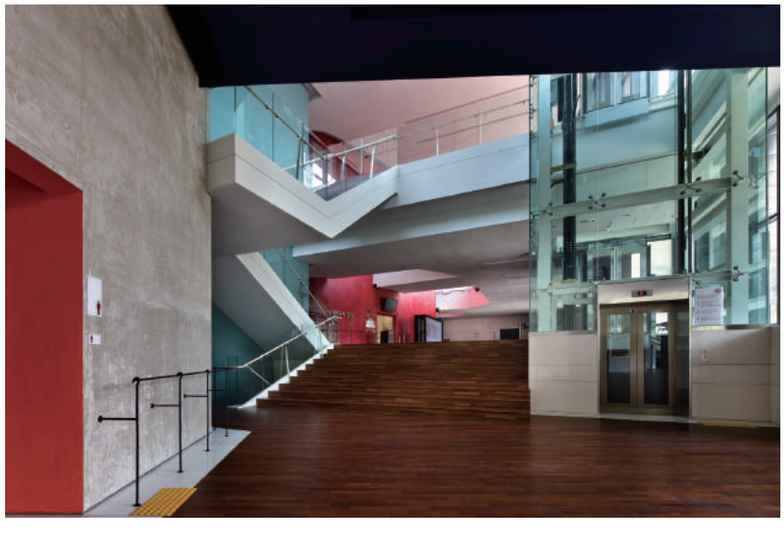
건축면적 6,210.91㎡
연면적 18,050.88㎡
건폐율 0.96%
용적률 0.97%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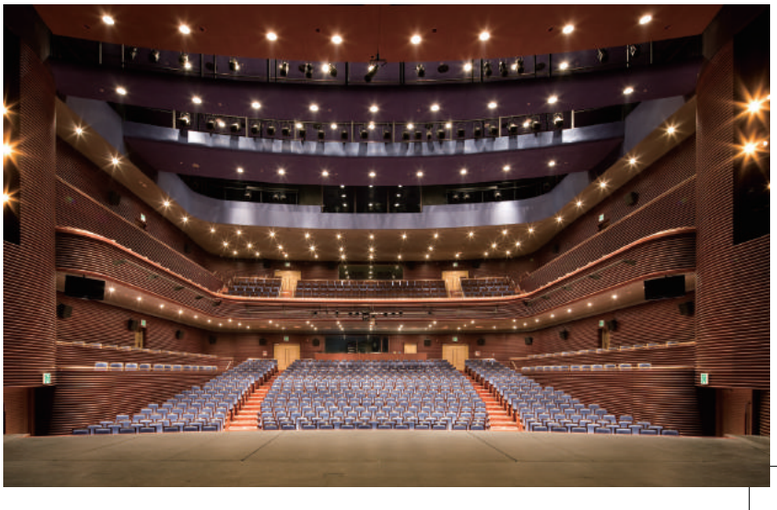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강원애니고등학교
Gangwon Ani-high school

• 설계자 : 김명홍(주.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인텔폴리스 종합건설주식회사 • 건축주 : 강원도 교육청

강원애니고등학교는 열린 교육을 위한 제7차 교육과정 및 방송영상 교육의 특성화 목적을 수용함과 동시에 자연을 배경으로 조성되었다. 또한 인접한 강서중학교와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서로 연계하여 조화로운 배치를 만들어내고 지역 커뮤니티 중심시설로의 열린 학교 건축을 완성한다.

배치 및 공간, 동선

강원애니고등학교는 교사동, 실습동, 다목적동, 그리고 기숙사동으로 구성되었다.
긴밀한 동선체계가 필요한 주요 기능군을 브릿지로 연결하였으며, 건물군 사이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중정을 중심에 배치하고 각기 다른 교육기능을 연속성 있고 통합된 프로그램으로 완성하도록 하였다.
중정으로 열린 교사동의 휴게 홀과 실습동의 로비공간은 내외부의 교육활동을 시각적, 공간적으로 연결해주며, 수평 연결부와 수직 동선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휴식과 정보교류를 위한 공간 또한 풍성하게 제공하여 창작활동에 시너지 효과로 작용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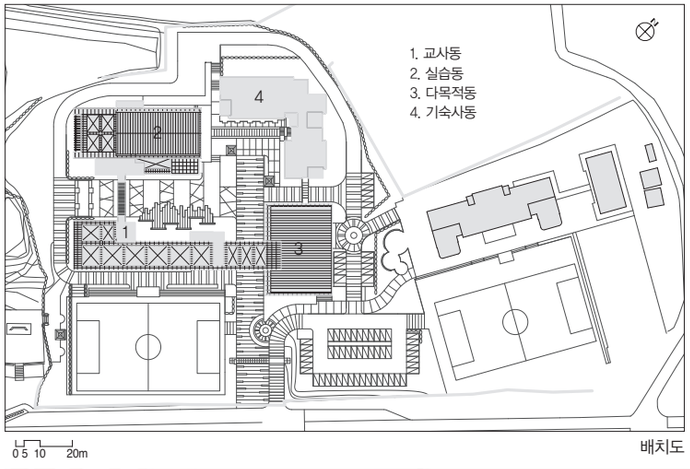
입면

건축물 외관은 영상제작의 상징성인 필름의 이미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부드러운 금속 곡면이 전체 건물에 통합된 이미지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각 동은 프로그램 별로 개성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학교시설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를 제안하고 있다.

내부기능

내부 실습공간은 방송 영상 산업 현장과 동일한 수준의 설비와 기자재를 갖추어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을 담당하며 일반 교실동과는 분리되어있지만 열린 브릿지로 연결하여 통합된 교육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다.

대지위치 강원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583번지
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
용도 교육연구시설(고등학교)
대지면적 21,673.00㎡
건축면적 3,895.71㎡
연면적 12,344.06㎡
건폐율 17.97%
용적률 54.56%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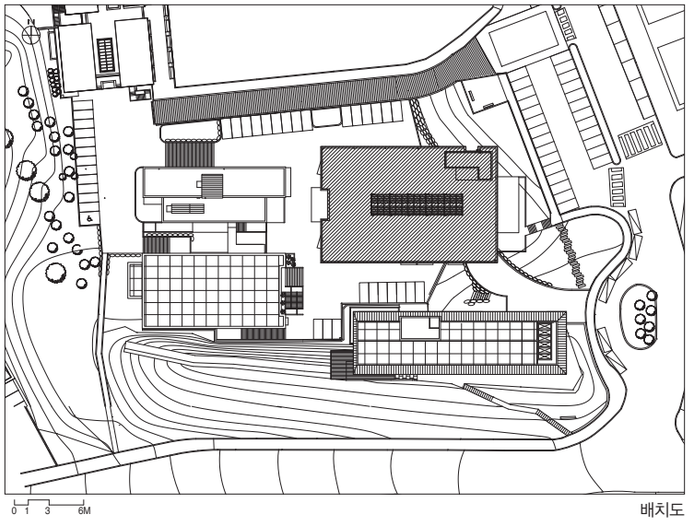
배치도

서울대학교 국제교육관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Education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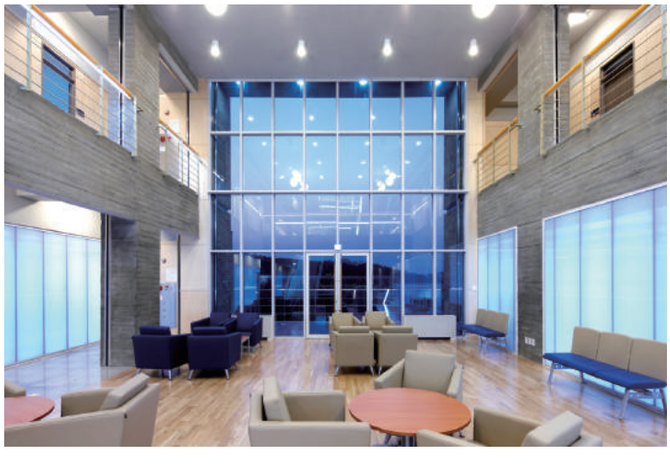
• 설계자 : 안우성(주.종합건축사사무소 온고당)
• 시공자 : 롯데건설(주)　• 건축주 : 서울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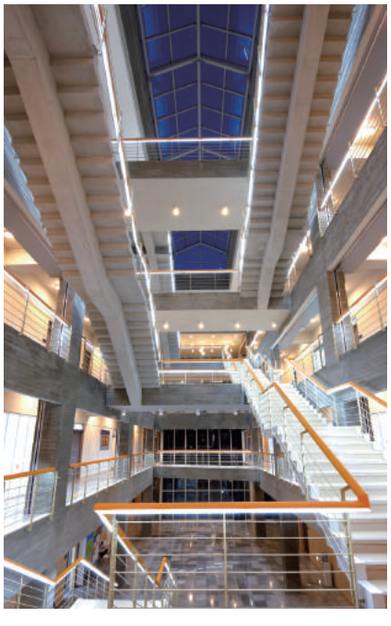
서울대학교는 10여 년 전부터 국제교류를 통하여 해외 석학과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구성원 간의 교류를 통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서울대학교 내의 국제협력부가 사용하는 CJ인터내셔널 건물이 협소하여 롯데장학재단의 출연금으로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건축물을 세우게 되었다. 국제협력부에서는 외국인 교수의 유치, 생활정착, 우수해외인재 발굴, 유학생 유치, 해외파견 학생의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입학관리처, 평생교육센터, 글로벌 커리어관리센터, 국제학회 사무실 등 관련 부서들이 입주하게 되었다. 국제교육관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어나는 무형의 행위들과 유사하다. 교육의 본질은 지식과 정보의 교류, 학생과 교수 간의 교류, 또는 학생들 간의 소통이다. 교류를 통하여 지식이 전달되고 학문이 발전되는 것이다. 건축 내부의 동선은 교류를 건축화하고 구성원의 동선이 나타나는 복도, 계단, 홀 등을 내부 어는 곳에서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하여 교류를 가시화하였다. 동선이 곧 교류이고 교류가 곧 교육행위인 것이다. 이것은 건물을 구성하는 모든 개체간의 교류를 의미한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정보, 프로그램과 건축의 교류와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공간을 목표하였다.

대지위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교육연구지구
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3,895.659㎡
건축면적 1,345.19㎡
연면적 5,280.27㎡
건폐율 0.03%
용적률 0.13%
규모 지상 6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배치도





레드스쿨
Red school

• 설계자 : 최삼영(주.가와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주)스튜가이엔씨 • 건축주 : 장길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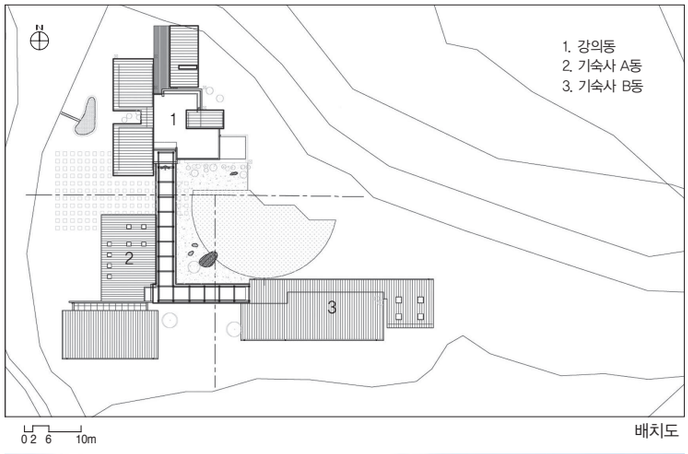
개념 _ 아이들이 오감으로 느끼며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사고와 행동을 묶어두지 않으며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아이들에게 친절한 공간이 바로 이 학교 설계의 화두였다. 아이들이 보기에 좋고, 사용하기 좋으며,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공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맺어주기 위한 고민으로 설계가 시작되었다.

배치 _ 대지는 개천이 흐르는 중앙에 섬과 같이 위치하고 있다. 서쪽으로 주 진입으로 사용될 다리, 녹지공간이 접해있으며, 동쪽과 남쪽의 자연은 부지와 멀리 이격되어 있다. 자연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고, 세 동간의 관계를 맺어주기 위하여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ㄴ자로 배치하여 서쪽의 녹지공간과 인접하고 중앙광장에서 동쪽의 원경과 남쪽의 장군봉을 담아 볼 수 있도록 사이를 열어주며 배치를 구성하였다.

매스 _ 아이들의 휴식공간인 기숙사는 간결한 매스에 자연이 관입하는 형태로써 구성을 하여 편안하고 차분한 가운데 문득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다. 강의동은 아이들이 자연을 바라보고 느끼며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각동들의 사이공간을 통해 자연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매스는 그 공간들에 반응하고 관계한다. 자연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도록 방향성을 부여하여 주었으며 그 사이에 자연이 관입할 수 있는 틈을 마련하고, 그 매스들을 하나로 잡아주는 형태로 매스를 계획하게 되었다.

공간 _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내부는 목재를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차분하게 구성을 하였으며, 창을 이용하여 사이사이를 열어주고 그 공간들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순간순간 자연을 느끼게 된다. 언제나 자연을 바라보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공간에 칼라를 이용하여 포인트를 줌으로써 부분적으로 공간감을 변화시켜주며 이용하는 사용자가 다양한 느낌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였다.

대지위치 충남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174-1외 2필지
지역지구 농림지역
용도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2,980㎡
건축면적 590.42㎡
연면적 1,144.8㎡
건폐율 19.81%
용적률 38.42%
규모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일반목구조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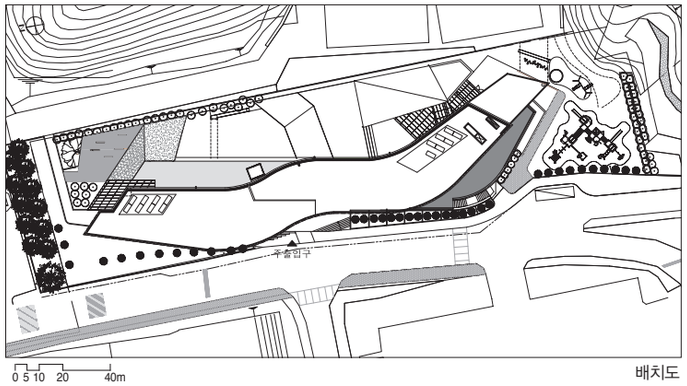
배재대학교 하워드기념관
Paichai University Howard Center

• 설계자 : 김정임(주.아이아크 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주)금성백조주택 • 건축주 : (학)배재학당

대지는 캠퍼스의 동측 경계에 위치한 폭이 좁고 긴 땅으로 유아교육센터가 들어섬으로써 기존의 21세기관, 우남관, 아펜젤러관, 국제교류관으로 에워싸인 캠퍼스 중심공간의 영역화가 완성된다. 대지의 형상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선형의 매스를 도로측에 배치, 유아들이 쓰는 후면의 외부공간이 대학 캠퍼스로부터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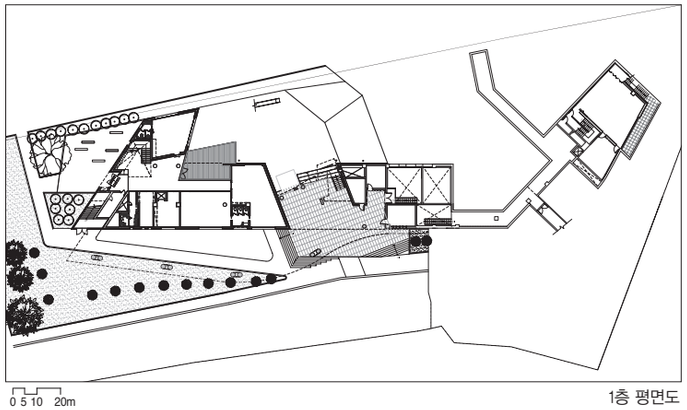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39-6번지외 31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20m)
용도 교육 및 연구시설
대지면적 214,138.10㎡
건축면적 1,868.71㎡
연면적 4,997.86㎡
건폐율 0.89%
용적률 2.29%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유아교육센터는 유아교육학과에서 파생된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원 그리고 유아교육학과 이렇게 4개의 기관이 같이 사용하게 될 건물이다. 현황 레벨을 이용하여 4개 프로그램별로 다양한 진입레벨을 설정하고, 주 진입공간에 레벨차를 이용한 외부 모임 공간(Gathering Space)를 조성,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옥외공간이 연결될 수 있게 했다.
프로그램 사이의 긴밀하거나 느슨한 관계들을 반영한 단면상의 배치와 내부동선의 연결은 투명한 외피를 통해 외부로 표출되며, 이는 서측의 일사차단을 위한 수직루버를 통해 극대화된다.



배치도

이탈리아의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에서는 교육적이고 보호적인 공간 구성을 강조하며 학교 전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를 권장하고 있다. 문화를 반영하여 설계된 공간, 여백을 활용한 공간, 연령 발달 수준을 고려한 공간, 기록하거나 작품을 만들고 전시하는 공간 등의 배려를 특징으로 하는 레지오 에밀리아적 공간의 실현이 이번 설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다.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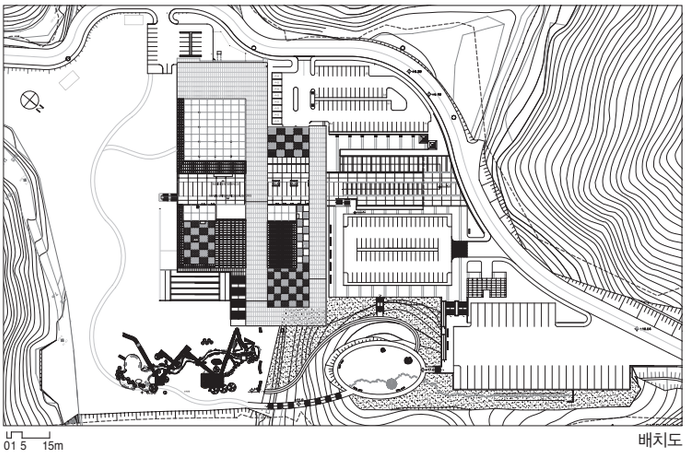
남측의 작은 동산에서 시작된 지형을 부드럽게 복원하면서 생겨난 마당을 지나 건물의 본 매스와 후면의 독립적 매스의 사이 공간으로 진입이 이루어진다. 이 사이공간은 폴리카보네이트와 유리로 이루어진 밝고 투명한 외부 공간적 성격으로 유치원과 놀이마당, 어린이집을 시각적으로 연결,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6개 교실의 중심공간으로 도시의 광장과 같은 공적인 성격으로 계획되어 어린이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서로 바라보고, 어울리고, 소통하면서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DMZ박물관
DMZ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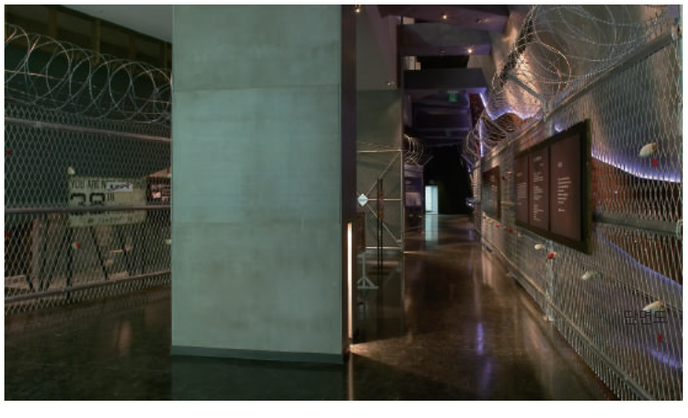
• 설계자 : 이상림(주.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현대건설(주)　• 건축주 : 강원도청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 **준공건축물부문 _ 우수상**

대지위치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174-1 외 60필지
지역지구 관광휴양지역 / 특별관리지구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 제 2종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139,114㎡
건축면적 9,506.3㎡
연면적 10,759.98㎡
건폐율 6.83%
용적률 7.72%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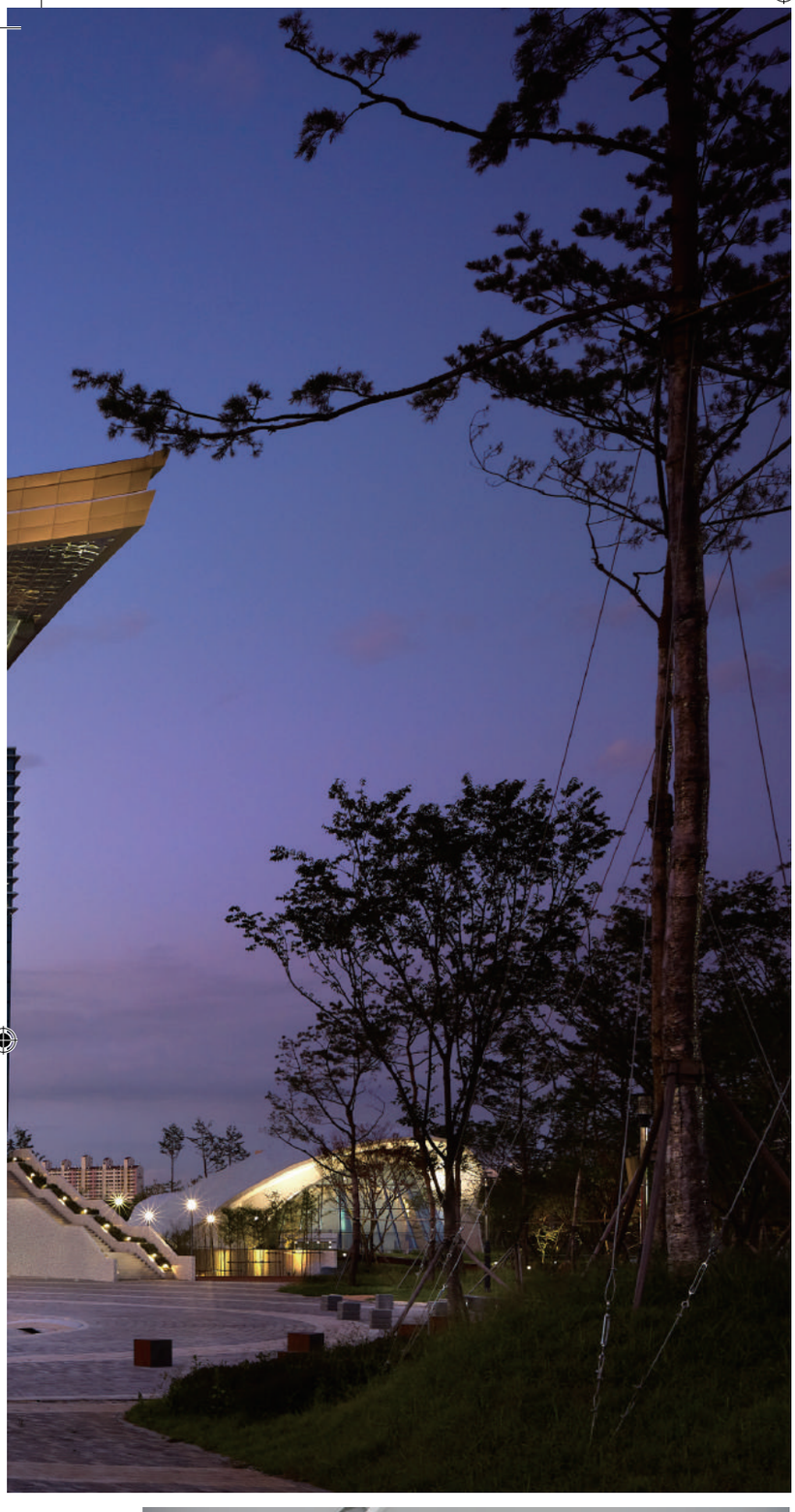


분단 상황의 인식_우리나라는 분단된 국가이다. 이러한 명확한 사실이지만 특히 전후세대에 있어서는 너무나 인식이 안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후 반세기가 지나며 서서히 잊어가고 있으며, 우리 땅의 북쪽을 언젠간 합쳐야 할 하나의 민족보다는 체제가 다른 집단으로, 그것도 매우 적대적인 집단으로 교육 받았고, 그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CONCEPT (두개와 하나의 사이)_이러한 분단 상황에 대한 인식을 기본으로 시작된 DMZ 박물관의 부지는 남과 북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 강원도 고성의 바닷가이면서 민통선 내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기본조형의 콘셉트는 단일 민족의 분단이라는 상황과 교류를 통한 상황의 극복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건축계획의 주 테마로 설정하고 두 개가 역인 듯 보이지만 풀어지면 하나인 '매듭' 의 이미지로 해석 하였다.
그 결과 건축물은 두 개로 나누어진 거대한 매스를 기본으로 나뉘어 진듯하면서도 하나로 연결된, 둘도 아니지만 아직은 하나도 아닌 분단된 우리민족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두 건물을 하나로 관통하는 거대한 연결복도를 두어 상징적이면서도 대규모 인원의 이동에 효율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동선 계획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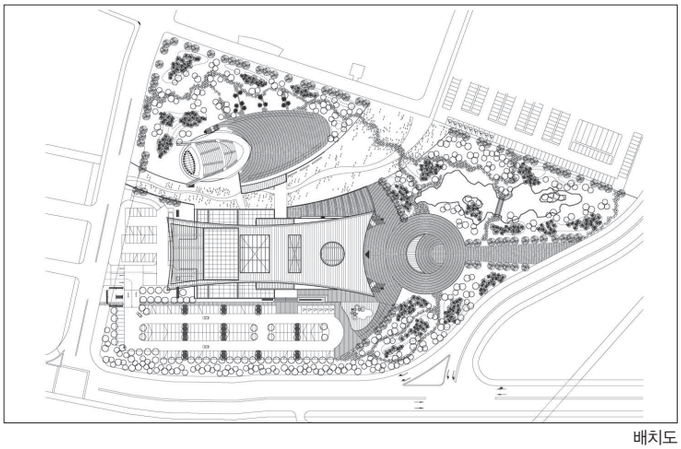
VISION_이 프로젝트의 첫 이름은 남북교류센터였다. 세상은 나 자신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 타인과 부대껴가며 알아가듯이, 언젠가는 이루어야할 통일을 위해서 가정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분단 상황의 인식이면 그 첫걸음은 바로 남과 북의 교류가 아닐까 한다. 이 프로젝트가 비록 당시의 남북화해무드에 현승했을지라도 또한 그 주도권을 DMZ에 인접한 지자체들끼리 먼저 가지려 하는 상황 속에서 진행 됐을지라도 약간은 구차해 보이는 그런 이유들은 통일이라는 명제 앞에서는 모주 부차적인 상황들일 것이다.
어쨌든 지난 50년간 우리 모두의 소원은 통일이었고, 이 건물은 통일을 염원하는 건물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건물이 아닌가 싶다.

경주예술의전당
Gyeongju Arts Center

- 설계자 : 고광석(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 건축주 : 경주문예회관운영 주식회사



대지위치 경주시 황성동 987-3외 46필지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면적 6,163.98㎡
연면적 21,086.28㎡
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배치도

천년의 '빛'…서라벌 천년의 '선' 부드러운 선의 단아함과 힘.

건축은 그 시대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의 산물이다. 파리는 에펠탑, 시드니는 오페라하우스,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등은 세계의 선진도시와 각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들이다. 각 도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그 지역의 문화 및 지역성을 대표하거나 만들어내기도 한다. 경주예술의전당은 천년의 고도 경주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강력한 이미지를 창출하고 천년의 역사 위에 또 하나의 문화재를 만든다는 각오로 출발했다.

경주예술의전당은 간결한 전통미와 미래로 도약하는 강렬한 에너지를 시각화함으로써 천년고도 경주를 상징하는 역동적인 아이콘이 될 것이다. 한편, 날아갈 듯 경쾌한 지붕선, 대칭성을 강조한 전시실의 곡면 매스는 한옥의 처마나 능원 등 전통 문화유산에 드러나는 부드러운 선의 단아함과 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백색 타일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소전시실의 독특한 재질감 역시 전통 도자기의 빙열 문양을 모티브로 했다. 투명한 유리 커튼월과 대비되어 빛나는 유려한 조형미 가운데 경주예술의전당은 전통미와 현대성이 조화되는 강렬한 이미지를 제안하고 있다.

건물의 전체적인 조닝은 전시공연 기능과 학습체험 및 복지 기능을 각각 상층부와 하층부로 나 누어, 동선의 불필요한 집중을 막고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상층부의 예술전용 공간인 전시실과 극장은 평면상 앞뒤로 명확히 분리하여 계획하되, 3층부터 연계시킴으로써 공간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했다. 전시 공간 상부의 천창을 통해 유입되는 빛이 1층까지 흘러내리며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각 실별 층고 계획은 충분한 개방성 및 쾌적성을 확보한다. 또한 최상층 전망대에서는 경주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파노라마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부여리조트 백상원
Buyeo Resort Baeksang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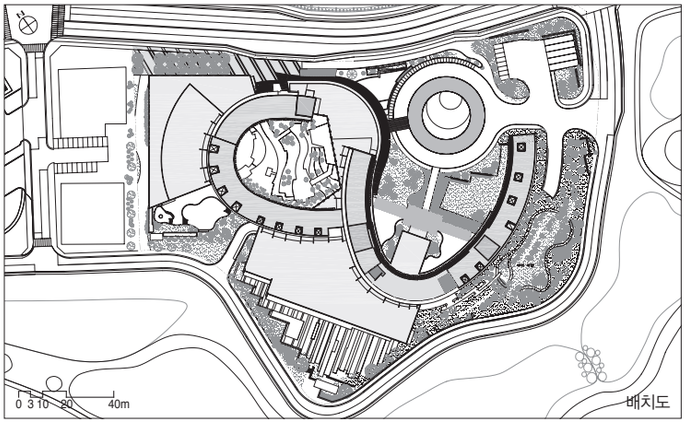
• 설계자 : 강원필(주.경영위치 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롯데건설(주) • 건축주 : 롯데부여리조트(주)

백상원은 롯데 부여리조트 100만 평 부지에 지은 첫 번째 시설로 콘도 300유닛과 컨벤션홀, 물놀이 시설, 식당 등의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라는 위치, 더구나 정부에서 야심차게 만든 백제문화재현단지와 마주하고 있어 전통 건축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콘도의 유형을 제시하고픈 목표도 있었다. 또한 부여리조트 전체의 시작점으로서 어떻게 미래의 경관과 전체 체계에 적응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관점이었다.

부여리조트의 전체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상원의 설계가 시작되었다. 미래를 예감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두 가지 원칙을 세웠다. 그것은 집이 전체 경관을 압도하지 않으면서 대지의 형상에 맞는 집이 되어야겠다는 것, 부여리조트가 앞으로 어떻게 개발되든 백상원의 공간과 잘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1만 5,000평이라는 거대한 스케일이 주는 부담은 전체 건물을 높이가 다른 2개의 곡선 매스로 나누면서 한결 줄어들었다. 백제문화단지와 간선 도로로부터 최대한 물러선 방향으로 곡면을 형성한 것도 매스가 주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대지의 윤곽을 형성하는 건물의 배치는 부여리조트의 경계를 분명히 정의하는 한편 콘도의 개별 유닛에 골프코스를 향한 좋은 전망을 제공한다.
전체 리조트의 한 부분을 설계하는 건축가의 입장에서는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진행하는 일이 다소 곤혹스러웠다. 그렇지만 유연한 공간 조직의 제안을 통해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저층부의 시설을 몇 개의영역으로 나누고 그 사이를 필로티로 열거나 빈 공간을 두어 앞으로 지을 부여리조트 시설과 여러 위치에서 연결점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했다. 모든 연결점은 백상원 내부 공간의 입구를 겸하기 때문에 그곳은 현재도 작동하는 동시에 미래의 가능성을 담은 공간이다.

백상원은 상상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이곳은 편안한 휴식, 즐거운 놀이, 그리고 진지한 회의와 중요한 모임이 열리는 곳이다. 이 시설은 필요한 기능이 작동하는 공간으로, 그리고 대지 주변의 상황을 고려한 장소로 설계되었다. 이곳이 '백상원(百想園)'인 이유는 백제를 향해 상상하는 계기를 선사하기 때문일 것이다. 때론 건축이 상상을 위한 촉매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기쁘다.

대지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578 외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대지면적 31,710.1㎡
건축면적 12,413.34㎡
연면적 57,497.84㎡
건폐율 39.15%
용적률 114.22%
규모 지하 1층, 지상 10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철골조



배치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기숙사
Yonsei University International Campus Dormitory

• 설계자 : 이관표(주.엄앤드이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현대건설(주) • 건축주 : (학)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는 입지적 특성과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Residential College로 기획되었다. Residential College의 개념은 대학생활의 목표를 학습에만 두지 않고 기숙사에 학생과 교수가 함께 거주하며 멘토링을 통해 생활지도까지 하는 전인교육 시스템을 말한다. 과거 우리의 성균관과 서원에서도 시행되었던 제도인데 타의에 의한 근대화로 과거와 단절된 우리에게는 생소한 개념이 되고 말았다.

수차례에 걸친 해외 대학답사와 실제 경험자들의 체험을 통한 간접경험을 토대로 Residential College의 핵심시설인 기숙사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었다.

5층의 저층형 기숙사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파일 공사를 마무리할 쯤 기숙사 수용인원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2배 늘려달라는 설계변경 요구가 있었다.

새로운 안을 만들어 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기존 설계안의 큰 틀을 유지하며 변경된 프로그램을 수용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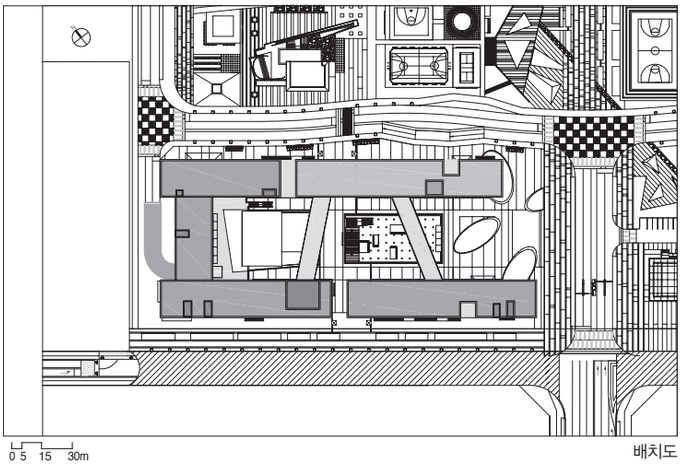
2배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커지고 높아진 매스의 중압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매스를 분절하고 서로를 관입시켰고 층수도 변화감 있게 구성했다. 솔리드와 보이드의 대비와 매스 돌출을 통해 적벽돌 건물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현대적 감각을 심으려 했다.

중정 부분 지하와 1층 사이에 위치한 식당은 기둥이 없는 대공간으로 만들고 지하층과 1층 연결부분을 객석형태로 처리해 식사뿐이 아니라 공연과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매립지 송도의 단조로운 지형에 변화를 주고 싶어 식당의 상부는 입체적으로 처리해 레벨 변화 있는 인공지형을 만들었다.

또한 각 동을 연결하는 2개의 브릿지는 동간 연결 기능뿐만 아니라 세미나룸이나 클럽룸 등의 공용시설이 배치돼 학생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브릿지의 Mass는 중정의 장소성과 공간감을 강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했다.

중정 중심에 위치한 선큰은 지하 부대시설에 자연채광과 환기를 제공할뿐더러 새롭게 구성되는 지형을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완공까지 어려움이 여러 번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장해 세워진 이곳이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0 5 15 30m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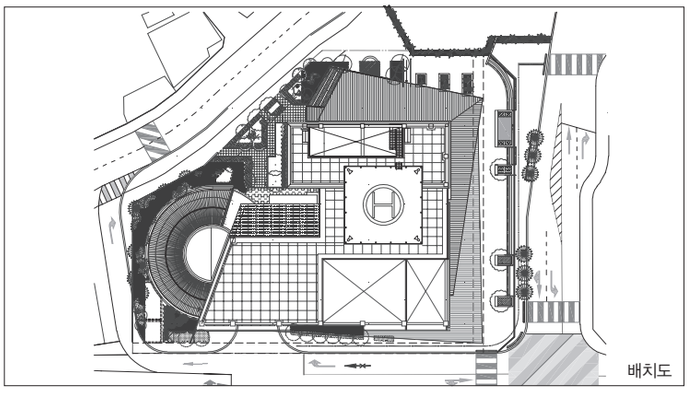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62-1
대지면적 614,594.9㎡
건축면적 7,525.32㎡
연면적 57,771.63㎡
규모 지하 1층, 지상 10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

패럼타워
FERRUM TOWER

• 설계자 : 김태집(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지에스건설(주) • 건축주 : 동국제강(주)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 **준공건축물부문 _ 우수상**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수하동 50번지(을지로 2가구역 12지구)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용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3,761.50㎡
건축면적 2,057.39㎡
연면적 55,718.39㎡
건폐율 54.70%
용적률 999.18%
규모 지하 6층, 지상 28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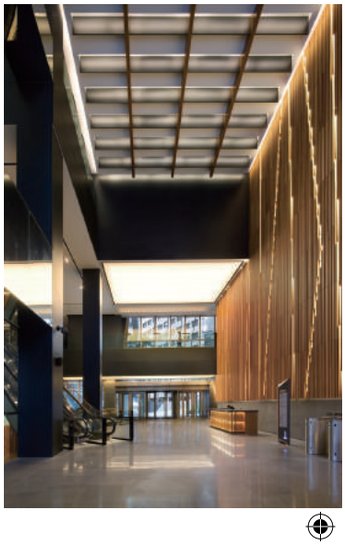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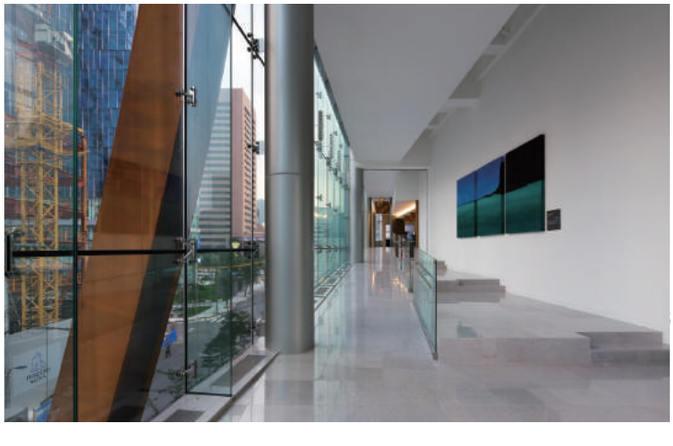
배치도

동국제강의 신사옥인 '페럼타워(Ferrum Tower)'가 3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준공됐다. 라틴어로 철(Ferro)이라는 의미를 지닌 페럼타워는 1천 400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상 28층, 지하 6층 구모로 세워진 첨단빌딩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 변화와 성장을 상징하는 수정체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항 디자인됐다. 건물의 외형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각기 다른 형상을 가짐으로써 다양하고 역동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형태를 통해 나타냈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오피스 빌딩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쾌적하고 자연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건물 설계에 있어 많은 요소들이 고려됐다. 페럼타워는 일반적으로 2.7m인 천정고를 2.8m로 높이고, 전 층에 빛차단을 위해 전동 롤 스크린을 설치하여 직사광선의 차단뿐만 아니라 직원의 프라이버시도 보호하고자 했다. 또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사람들이 좀 더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층부에는 2개층마다 외부의 조망이 가능한 쉼터를 설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빼어난 북한산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하 2층~3층을 공용공간으로 개방하고 건물 진입통로를 4곳으로 설계해 다양한 진입 동선과 소통이 원활하도록 내부 공간을 구성했다. 또한 지하 1~2층에 고급화, 차별화된 전문식당가를 배치하고, 직원이 외부인을 접견할 경우에는 2층에 마련된 별도의 비즈니스센터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270석 규모에 동시통역 시스템, 수납식 전동의자 등이 구비된 3층 강당은 국제회의가 가능하게 계획됐다. 또한 페럼타워는 2호선 을지로입구 지하철역에서 지하 연결통로로 연결되며, 계열사 직원은 물론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자전거 보관소와 샤워 시설을 지하2층에 설치하여 자전거로 출, 퇴근하는 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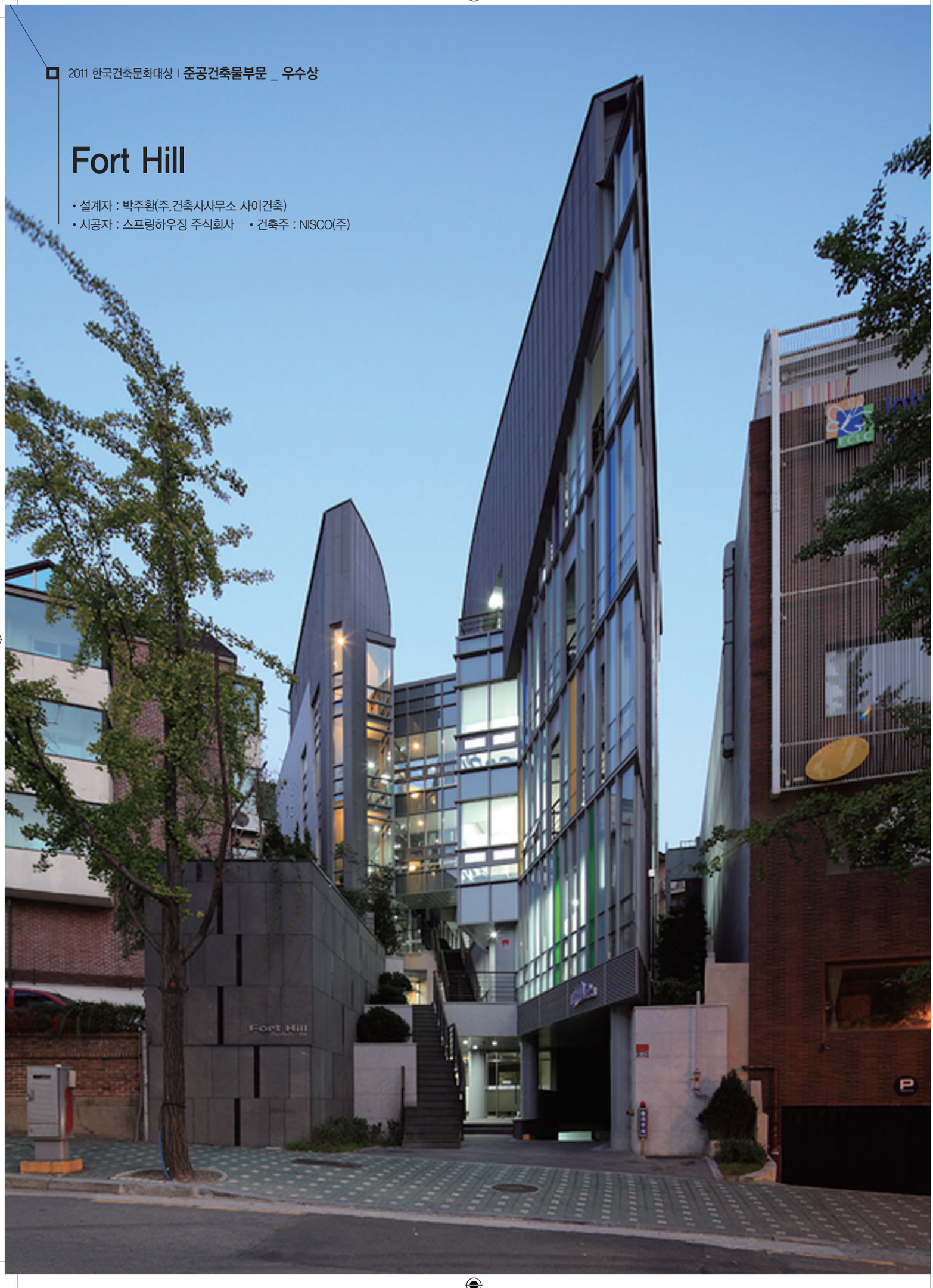
페럼타워의 진입구에는 세계적인 조형작가 '베르나를 브네'의 '37.5도 아크'라 명명된 조형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코르텐스틸로 만들어졌으며 무게 20t, 높이 38m에 달하는 원호의 모습으로 페럼타워의 규모와 역동성, 우아함을 담아냈으며, 빌딩에 기댄 형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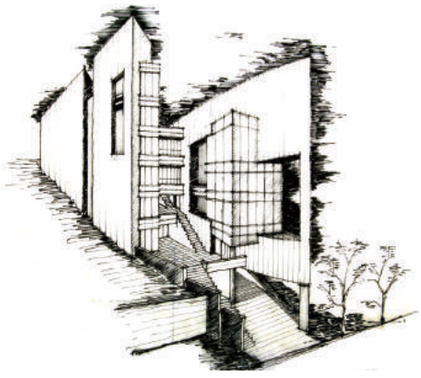




Fort H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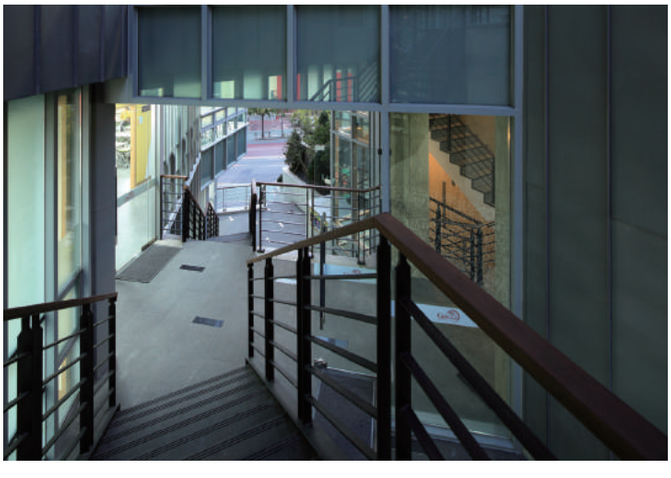
• 설계자 : 박주환(주.건축사사무소 사이건축)
• 시공자 : 스프링하우징 주식회사 • 건축주 : NISCO(주)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1-90	연면적 2,294.66㎡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조망가로미관지구	건폐율 58.99%
용도 업무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적률 149.68%
대지면적 592.00㎡	규모 지하 4층, 지상 3층
건축면적 349.22㎡	구조 철근콘크리트

배치도



틈, 원래의 땅을 기억한다.

대지는 행위를 규정한다. 물론 건물의 용도와 그 대지를 바라보는 건축사의 해석여하에 따라 행위를 규정하는 대지에 대한 시각은 다를 수 있다. 이점이 건축사마다 각기 다른 공간을 연출하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Project에 접하면서 대지의 틈에 대해서 주목한다. 전면도로에 접하는 길이가 너무 작아 도로 전면으로 간신히 고개를 내밀고 있는 형상이다. 게다가 대지 앞쪽(도로쪽)과 뒤쪽 대지의 레벨차이는 10m 이상의 고저차를 가지고 있고, 그로부터 뒤쪽 인접대지와는 5~6m 높이의 옹벽으로 경계하고 있어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대지의 조건은 최악이다.

그러나 이를 또 다른 틈으로 보면 이러한 대지와 목적하는 건물과의 관계, 대지와 인근 가로와의 관계에서 또다른 접근의 시도를 유도한다. 대지를 도로에 맞는 레벨로 하기에도, 뒤쪽 높은 레벨로 조성하기에도 무리하여 땅의 모습을 거역하지 않고 원래의 땅을 기억하기로 한다. 원래의 땅 모양새를 유지한 채 점진적 레벨 상승을 유지하고 매스와 매스사이에 이 변화하는 레벨을 느낄 수 있도록 틈 속에 길을 계획한다.

틈 속의 길(틈)은 우리의 옛 산동네의 친근한 골목을 기억하게 하고 길을 지나는 곳곳에 건물의 서로 다른 층으로의 진입을 이웃집 들르듯이 유도하여 땅과 사람과 건물을 가깝게 유지한다. 이를 통해 행위가 관계(Rlation)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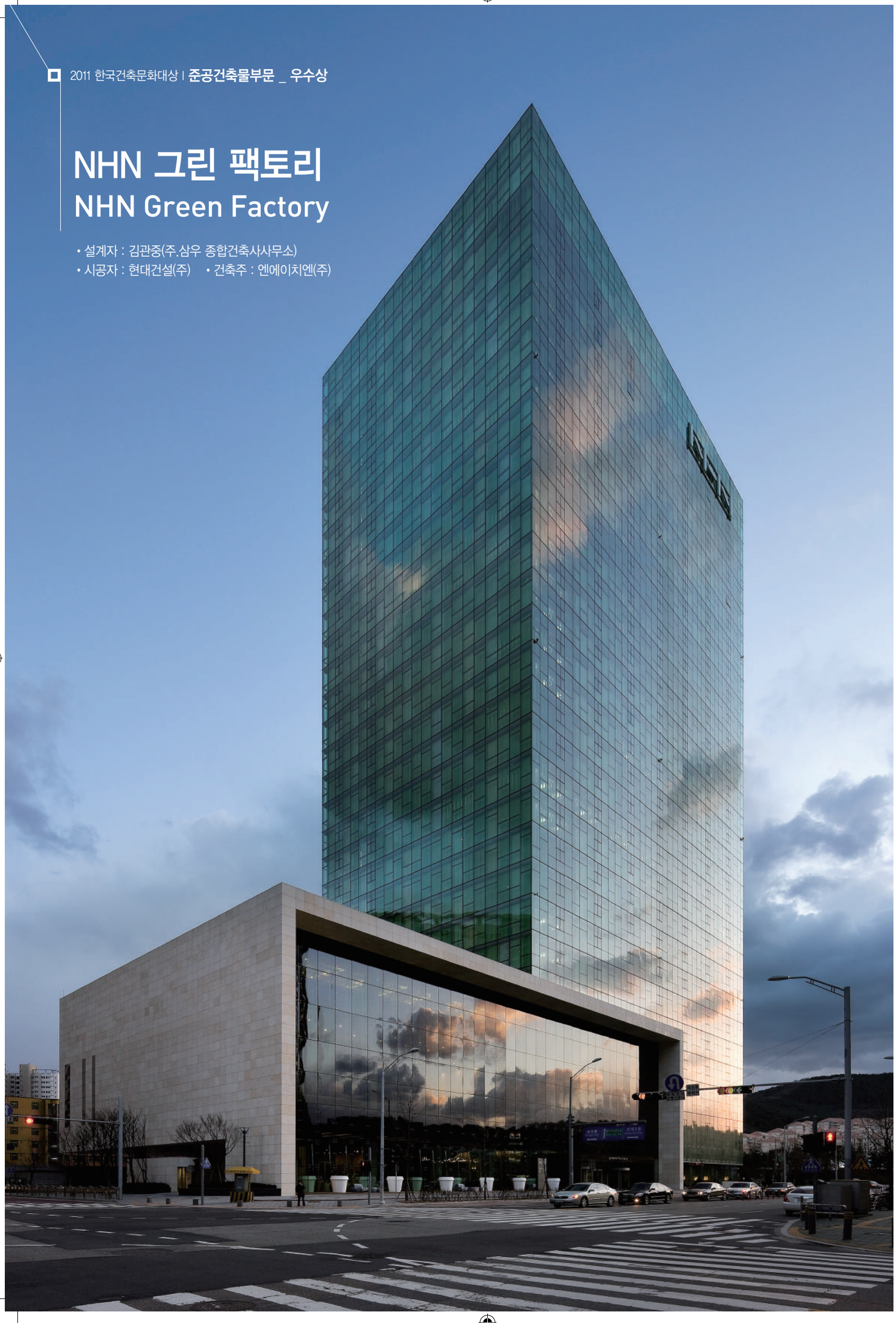
또한 외부에서 건축물로 접근할 때만 건축물을 느끼고 마는 것에서 벗어나 대지내로 길을 끌어들여 이미 진입한 대지 내에서도 건축물을 느끼게 하는 시도를 꾀한다.

본능적으로 나를 보이고 싶어 하는 속성 때문에 적은 폭(도로에 접한 길이)이지만, 다소 무리해 보일만큼 대지 앞쪽으로 내부공간상의 활용도를 조금 양보하고 예각으로 어렵사리 고개를 내밀어 본다; 무리들 속에서 손을 들어 나의 존재를 알리듯이…. 모자란 존재의 알림을 대지내로 들어가 보고 싶은 궁금증을 유발하여 시선을 모으는 것으로 보충하고 대지내의 조금씩 열려있는 공간으로 또 다른 공간을 여유롭게 하며 사람과 서로 다른 공간사이의 관계를 편안하게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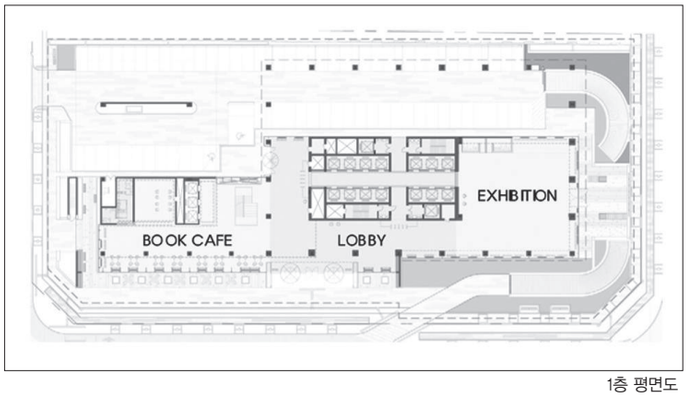
법적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가 제한되어 있어 건축주가 더 이상 규모에서 욕심을 부릴 수 없다는 것이 도리어 건축사의 계획을 자유롭게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지의 형태가 전해주는 대로 충실히 공간을 구성한다. 시작부터 끝까지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준 건축주 덕분에 틈 속에 또 다른 틈(길)을 열어주어 원래의 땅을 기억하려 한 본래의 의도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어서 다행이다.

NHN 그린 팩토리
NHN Green Factory

- 설계자 : 김관중(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현대건설(주) • 건축주 : 엔에이치엔(주)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8-1
지역지구 중심상업지역
용도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6,600㎡
건축면적 4,138.79㎡
연면적 101,661.51㎡
건폐율 62.71%
용적률 981.35%
규모 지하 7층, 지상 28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1층 평면도

NHN 그린 팩토리는 포털업체인 NHN이 소유하는 최초의 사옥으로 온라인상에서만 인지되었던 회사의 존재를 오프라인에서 드러내는 중요한 건물이다. 따라서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아이덴티티, 이미지 그리고 변화와 소통이 키워드가 되었다.

입면에 NHN을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를 투영하여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와 맞닿아 있는 대지 조건을 이용한 홍보 효과를 얻고자 했다. 건축주는 입주 예상 인원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층수와 직사각형의 평면 형태를 원했다. 따라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형태적 유희와 과도한 장식을 배제하고, 수직적인 육면체로 구성하여 단순한 외관에서 오는 기능적인 아름다움을 살렸다. 저층부 역시 사각형의 액자 형태로 구성하되 수평성을 강조했으며, 라임스톤류의 석재를 적용하여 안정감 있도록 설계했다. 변화와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각도 조절에 따라 시시각각 건물의 이미지가 변하는 수직 루버를 활용했다. 또한 이미지를 다양화하기 위해 불규칙한 격자를 커튼월에 적용했다. 루버에는 'NAVER'의 그린 컬러를 다섯 가지로 세분하여 적용했으며, 이를 통해 NHN 사옥임을 알리고자 했다.

라꾸보
La-cubo

• 설계자 : 이필훈(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남강건설(주)　• 건축주 : 노현태

라꾸보(La-cubo)가 위치하고 있는 천안종합휴양지는 천안시에서 목천읍 운전리와 성남면 용원리 일대 75만㎡를 조성, 중부권 최대의 온천휴양지로 개발 중인 곳이다. 또한 이와 함께 주변 시가화예정지 434만㎡를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 종합 휴양지와 연계한 '게임 레저 문화타운' 으로 조성을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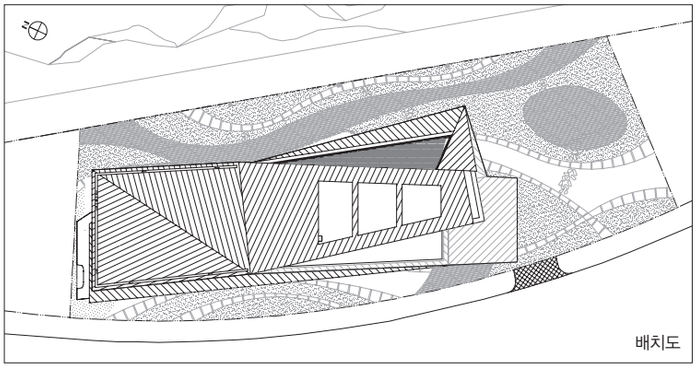
휴양지 조성 사업비 9천억 원을 포함 모두 2조2천755억 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은 전액 민자 유치사업으로 추진되며 천안종합휴양지 개발사업을 시행중인 고려개발㈜이 주관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곳의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올 7월에 오픈한 중부권 최대의 워터파크와 콘도미니엄, 내년 완공 예정인 천안시최대 규모의 천안종합문화예술회관 외에 첨단시설의 게임테마파크, 18홀 규모의 골프장, 특급호텔, 미니어처 파크 등 종합 게임레저시설 등이다.

지금까지 천안종합휴양지가 조성되기까지는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1997년에 착공하였으나 중간 진행과정에서 많은 난항이 있었다. 그러던 중 11년에 걸쳐 지난 해 2009년 6월 기반조성 공사가 완료되었다. 이후 탄력을 받아 현재는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천안종합휴양지 마스터플랜 계획은 미국의 THE JERDE PARTNERSHIP에서 진행하였고, 형태는 중앙에 3만7,200㎡규모의 중앙호수공원을 중심으로 방사형의 모습으로 펼쳐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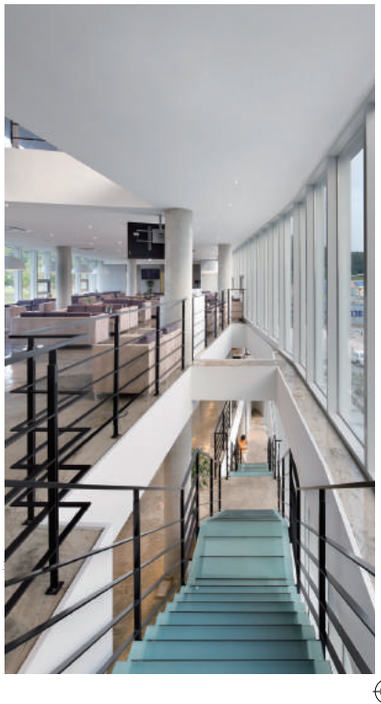
라꾸보(La-cubo)는 단지 중앙에 위치한 호수공원 부지 내에 유일하게 위치하는 상업시설이다. 호수와 야외무대를 배경으로 워터파크, 천안종합문화예술회관과 마주보고 있는 상업시설로서는 단지 내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단지 내 대형 시설물 틈바구니에서 자신만의 몸짓을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꾸보(La-cubo)라는 말은 이탈리아 합성어로 입방체(Cube)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뜻으로 "어떤 재료를 네모 썰기 한 것"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아마도 건축물의 기이한 형태에서 비롯된 듯하다.

건축물은 상업시설이 가지는 요건과 입지조건, 또 주변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다양한 배경을 보여줄 수 있는 많은 뷰(View)와 시설이용객들을 많이 집객할 수 있는 실내.외 공간 창출을 중점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두 개의 'ㄷ'자 형태의 단순한 선형의 판들이 서로 엇갈리면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실내.외 공간들은 외부와 내부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다양한 뷰(View)를 보여준다. 작은 덩치이지만 향 후 단지 내 중심적 위치로서 색다른 "문화 Icon"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이 건축물이 위치한 호수공원은 천안시에서 지난 2009년 1월 22일 천안시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선정한 "천안12경" 중 제 팔경에 선정되어 남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대지위치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671번지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1,000.1㎡
건축면적 394.59㎡
연면적 998.50㎡
건폐율 39.46%
용적률 99.84%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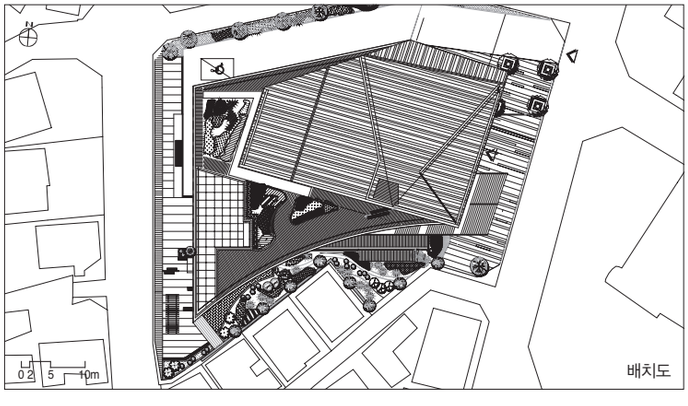


신촌성결교회
Shinchon Sungkyul Church

• 설계자 : 최동규(주.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보아스건설(주)
• 건축주 : (재)기독교 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 신촌교회지회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 **준공건축물부문 _ 우수상**

대지위치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86-43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 종교시설
대지면적 2,646.84㎡
건축면적 1,322.35㎡
연면적 11,997.12㎡
건폐율 49.96%
용적률 170.12%
규모 지하 4층, 지상 6층
구조 철골철근 콘크리트



배치도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사도행전 7장48절~50절)

오늘날의 교회를 신전 또는 성전, 즉 신의 집으로 인식하는 한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담아낼 수 없을 것이다. 신을 위한 건물에서 교회 공동체를 위한 건물로 미학적 개념의 전환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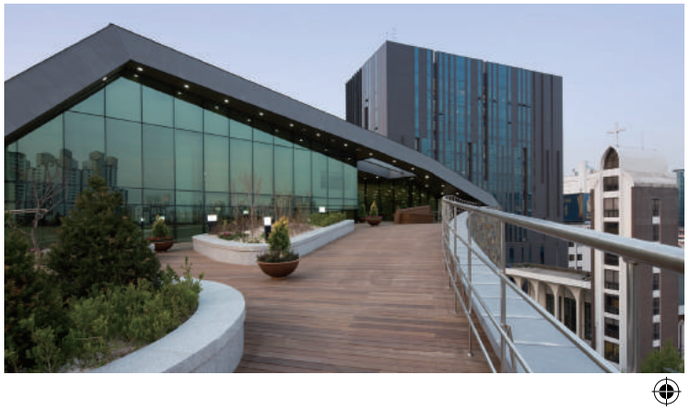
교회의 외형은 과도한 장식을 배제한 단정하고 검소한 재료를 이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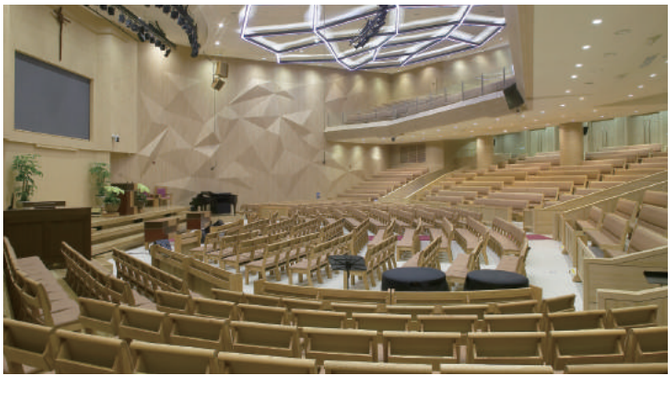
기본교회의 벽돌모습과 조화되도록 검붉은 벽돌타일로 본당을 감싸고 전면 및 저층부는 열린 교회 이미지를 담을 수 있도록 유리재료를 사용하여 신구의 조화뿐만 아니라 무겁고 장중한 교회이미지에서 벗어나 현대적의미로 재해석하고자 했다.

장축의 대예배당 평면에서 설교자와 신자들이 근접하게 자리 잡는 단축의 대예배당 평면(부채꼴형)을 구성한다. 대지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부채꼴형의 대예배당은 최다의 회중석(2,000석 규모)과 건축음향을 고려한 스탠드형(극장식)과 중층형의 혼합형으로 구성된다. 대예배당은 전면도로에서 직접 연결되는 대형외부계단(폭 8m)을 통해 진입하고 스탠드형의 본당하부를 본당로비로 활용함으로서 본당의 회중석이 차지하는 비중을 극대화 하면서도 열린 친교의 장으로 대형 로비를 제공한다. 각 층 공용공간(로비)은 전면 유리창을 통해 자연채광이 직접 전달되어 밝고 쾌적한 열린 공간을 제공함으로 교회 공동체적 의미를 제안한다.

필로티 구성의 지상 1층 전면엔 작고 아담한 독립된 친교공간(북카페)를 두어 인근 주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최소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지하 주차장 출입구는 건물의 전면보다 후면에 배치하여 사람과 자동차 동선을 분리시켜 1층 마당의 활용도를 자동차가 아닌 사람에게 두고자 한다. 최상층엔 복잡한 일상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당회장실 및 목회자실을 배치하여 업무에서 발생한 피로감을 덜어줌과 동시에 옥상휴게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신교적 윤리의식 속에서 요구되는 오늘날의 교회의 기능을 담을 수 있는 도시형 대형교회를 제안한다. 신자의 삶을 담는 그릇으로서 교회구성원의 영적 삶과 신앙의 윤리적 철학적수준의 척도가 될 수 있으며 이시대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는 신촌성결교회가 되고자 한다.





Yellow diam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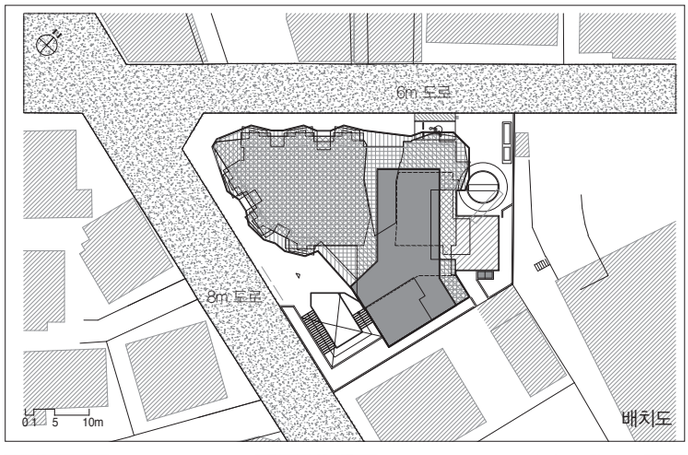
• 설계자 : 신창훈(운생동 건축사사무소.주)
• 시공자 : 상지건설(주) • 건축주 : 상지건설(주)

홍대도시문화 뒷골목의 다이나믹한 욕망속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율적이며, 무겁지 않는 건축을 실현을 제안한다. 홍대 문화의 최전선이라 불리는 '걷고 싶은길'에서 25m정도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대지는 먹자골목의 문화의 틈새에 존재하는 특징을 가진다. 대지는 '걷고 싶은길'에서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기보다는 조금 숨어 있는 대지다.
이 프로젝트는 근본적으로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상업시설의 새로운 전형으로서의 건축을 실현하는 방식과 홍대라는 거리문화의 연속으로서 공공성의 공간을 건축에 어떻게 끌어드리는가의 큰 두가지 이슈를 실현하기위해 설정되었다.

홍대의 거리문화의 연장으로 지상의 그라운드레벨에서는 공공성과 상업성의 두가지 목적을 실현 할 수 있는 '소통의 길'이 중요 컨셉으로 설정되었다. 일반적인 근린생활시설의 획일화된 구성을 길이라는 요소를 저층부에 구성하여 다양한 공방과 상점이 만들어내는 거리공간을 건축적인 어휘로 실현하려 하였다. 좁은 도로와 부정형의 대지, 홍대거리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대지 주변의 변화하는 레벨 등의 연쇄적인 조건의 작동이 이루어졌다.
지하3층에는 200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을 배치하였고, 지상층에는 각기 다른 공방 형식의 소규모 아틀리에를 계획하였다. 지상층 레벨에서는 공공성과상업성의두가지목적을실현할수있는 '소통의길'을 주요 콘셉트로 설정하였다.

부정형의 평면을 가진 내부공간은 노랑빛깔 커튼월에 의해 구획된다. 각층의 내부입면은 바닥에서 직각방향의 단순한 커튼월 입면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와 형태의 연결체를 통해 만들어진다. 빛의세기, 빛의방향, 하늘의 색깔에 따라 노랑빛깔 몽타쥬는 시각적 반응체가 된다. 같은 밀도의 노랑패턴이지만 빛이 들어오는 방향, 빛이나가는 방향, 시간의 변화, 그림자가 생기는 영역의 변화에 따라 패턴의 밀도와 농도는 다르게 인식된다.
노랑 몽타쥬의 공간은 젊은 예술가와 작업자들에게 보다 젊고 신선한 창작의 공간이 되기 위한 새로운 상상력의 공간으로 자라기를 꿈꾸고 있다.

대지위치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7-4,5필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대지면적 971.60㎡
건축면적 568.89㎡
연면적 4,316.91㎡
건폐율 58.55%
용적률 193.04%
규모 지하 4층, 지상 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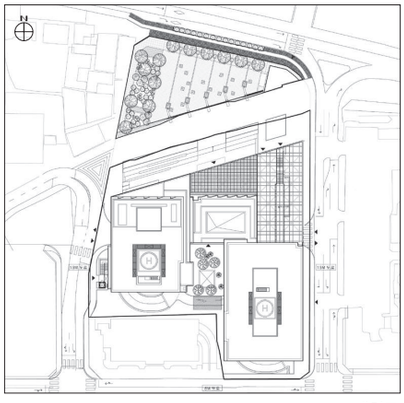
배치도

미래에셋 센터원
Mirae Asset Center 1

• 설계자 : 부대진(주.진아건축도시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금호산업(주)
• 건축주 : 미래에셋맵스 자산운용 주식회사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 준공건축물부문 _ 우수상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수하동 67번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주차장 설치제한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용도 업무시설, 판매시설
대지면적 9,097.30㎡
건축면적 5,094.78㎡
연면적 168,050.01㎡
건폐율 56.00%
용적률 1,182.11%
규모 지하 8층, 지상 32층
구조 철골,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배치도

미래에셋 센터원은 오피스로서 1977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답보상태로 진행해오다 2005년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심재개발)으로 계획이 진행되었다. 이 사업의 특징은 거대자본을 투자한 금융사의 사업성과 임대오피스가 가지는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공공의 공익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4대문 내 최대 규모 건축물을 국내 건축사로서 수행한 자부심 또한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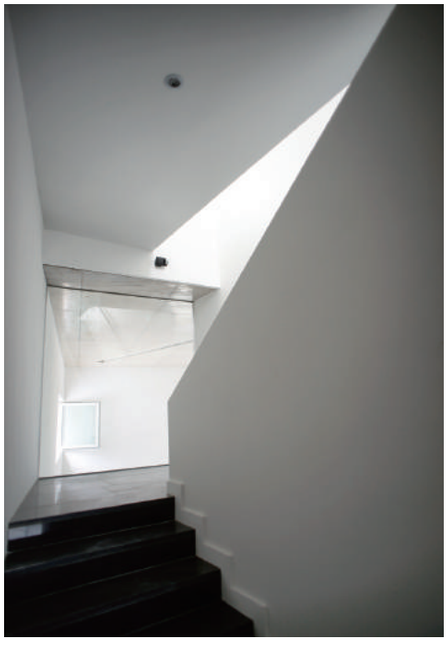
전통과 영속성 청계천 변에 한빛미디어 공원을 두고, 3면의 도로에 접해있는 대지의 미래에셋 센터원은 진보한 기술력에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디자인이 영속적인 디자인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계획하였다. 이는 지역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동양의 전통사항인 음양의 모티브를 이용한 매스계획을 통해 가장 한국적인 사상의 틀 속에 가장 세계적인 시설을 담고자 한 것이다.

하나의 매스에서 두 개의 매스로 분리되어 나오는 형태로 마주보는 두 동은 서로 대화하듯, 음각과 양각의 형태로 이뤄져 있다. 분리된 두 동의 음각과 양각의 형태의 높이는 주변의 건물의 컨텍스트에 맞춰 결정되었고 전면 West Center 의 예각의 매스는 삼각천의 형태에 따라 결정되었다. 특히 커튼월 외피의 화이트 파이프는 건물의 아이덴티티를 구현하면서 두 건물이 원래 하나의 매스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알루미늄 환기창은 외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도 환기창의 개폐로 인해 외관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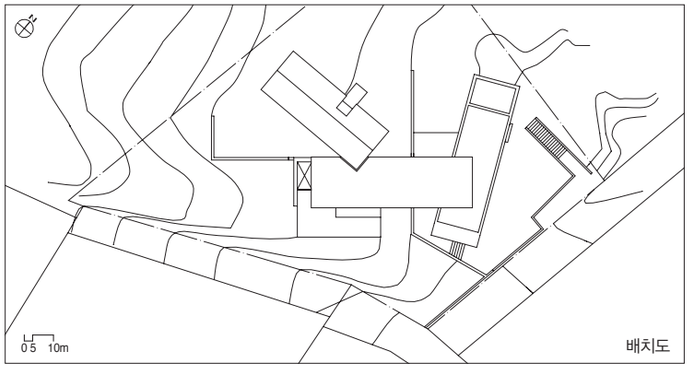
Urban Room, 아뜨리움 도심지의 오피스는 단지 건물 이용자만의 것이 아닌 도심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해야한다는 철학으로 오피스 로비를 지상 2층으로 올리고, 1층 아뜨리움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위해 아뜨리움은 외부와 시각적인 연결을 위해 전면은 물론 천장까지도 투명한 유리로 계획하였다. 봄, 가을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더위와 추위로 인해 외부활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뜨리움은 전면의 한빛미디어 공원과 청계천의 공공성이 확장된 퍼블릭룸으로서 건물이 대중에게 친숙하게 느껴지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친숙함은 건물에 입주된 회사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뜨리움은 이와 같은 Urban Room 역할을 통해 공공성을 부여하여 일반적인 도심지의 오피스와 구별되는 특징적이 공간을 창출하며, 이러한 공공성이 부여된 공간으로 종로와 명동사이의 끊어진 상권을 연결하는 역할도 가능하게 되었다.

양평 패시브하우스
Yangpyeong passive house

• 설계자 : 윤태권(엔진포스 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양현수 • 건축주 : 양현수



대지위치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용도 주거시설
대지면적 1,555㎡
건축면적 254.05㎡
연면적 393.68㎡
건폐율 16.33%
용적률 20.88%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지붕 : 철근콘크리트지붕 + 목구조)



배치도

대지는 양평군 신복리에 위치하며, 남향을 바라보고 경사져 있는 대지로 비교적 지형의 형태가 인위적 개발 없이 원형에 가까이 보존되어있는 상태였다. 주변엔 일상적인 모습의 전원주택들이 최근에 조금씩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수년 전 부터 패시브하우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건축주가 그에 맞는 설계와 시공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들을 찾아서 팀을 이루게 되면서 양평 패시브하우스 프로젝트는 시작되었다.

건축주 가족은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50대 부부와, 해외유학중에 잠시 귀국하여 함께 머무르게 된 20대 자녀 한명으로, 주거공간은 각자의 영역으로 어느 정도 분리되어짐을 원했다. 이를 위해 건물은 지형의 흐름을 따르며 세 개의 매스로 나뉘어 7미터 경사지를 따라 놓여지는 개념으로 계획 되었고,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작업실, AV룸, 운동공간 등의 부가 프로그램이 주거공간과 입체적으로 맞물리면서 이 또한 각각의 독립된 공간들로 만들어 지게 되었다.

각각의 매스는 경사진 지형 위에서 향과 조망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각도를 갖고 틀어져 배치되었는데, 그로인하여 독립된 각각의 공간들은 다양한 성격의 외부의 마당을 가지며 각자만의 원경을 끌어들이게 된다. 또한 각기 다른 지붕 형태의 메스들이 만나는 접점에서 저절로 발생되어지는 독특한 형태의 개구부들은 공간과 공간이 나뉘면서도 연결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양한 각도로 틀어져 있는 창들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들은 같은 시간대에서도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내부로 스며들음으로써 질감이 각기 다른 공간을 느낄 수 있게 한다.

패시브하우스라는 큰 바탕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였지만, 디자인의 과정은 여느 프로젝트와 크게 다른 점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복잡하고 거창해보였던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기존 프로젝트들의 개념과는 달리, 독일에서 발전된 패시브하우스라는 이론은 단열과 기밀성 그리고 열교환기를 이용한 공조장치, 이 세 가지를 통해 일반 건물의 십분의 일의 에너지만으로도 쾌적한 실내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비교적 단순명료한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므로 디자이너의 입장에서는 설계 프로세스 상에 어떤 제약을 느낄 수 없었으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늘 고려해 왔던 요소들 가령 남향, 통풍, 기후에 따른 단열 강화 등의 요소들 하나하나가 패시브하우스 플래닝 팩키지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에너지 절감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계산되어져 예측될 수 있다는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다.

건축사로서 늘 건물 사용자의 관점에서 건물을 바라보고 디자인한다는 것, 특히 주거시설의 경우는 더욱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일 것이다. 미적인 요소와 기능적인 요소의 충족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쾌적한 실내환경에 대한 고려까지 모두 동시에 계획되고 만족되어질 수 있었다는 점이 양평 패시브 하우스를 마치며 얻은 큰 수확이었다.

포레스트 퀸텟
Forest's quintet

• 설계자 : 조항만(주.건축사사무소 키아즈머스파트너스)
• 시공자 : 신원철　• 건축주 : 신원철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 **준공건축물부문 _ 우수상**

대지위치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397번지 외
지역지구 관리지역
주요용도 단독주택(다섯 채)

	1번집	2번집	3번집	4번집	5번집
대지면적	660㎡	660㎡	660㎡	660㎡	660㎡
건축면적	131.7㎡	132.56㎡	181.02㎡	161.58㎡	143.14㎡
연면적	144.94㎡	147.04㎡	142.56㎡	146.62㎡	144.89㎡
건폐율	20%	20.08%	27.43%	24.48%	21.69%
용적률	21.95%	22.28%	21.6%	22.22%	21.95%

규모 지상 2층
구조 경량철골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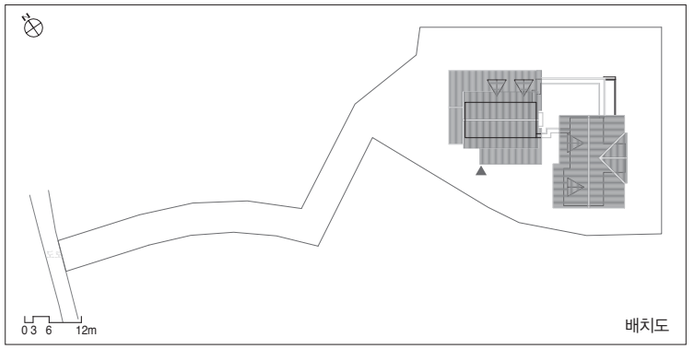
배치도

Forest's quintet 은 도시 주거의 대안으로서 구상되었다. 강원도 양구의 한 아름다운 산 중턱에 위치하고, 개별 주택들이 한데 모여 하나의 이상적인 별장 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60,000 평방미터 대지에 배치된 건물들 사이의 관계는 건축주들 사이의 관계들을 반영한다. 그들은 서로 친척이거나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며, 함께 그들의 꿈을 짓고, 함께 은퇴 후 아름다운 시골에 모여서 살기를 약속하면서 생긴 마을이다. 건축적인 언어와 주재료는 각 집들 사이에서 매우 비슷하게 사용되었다. 하지만 각 집이 앉게 된 지형들이 각기 다른 특징들을 내포하고 있고, 거기에 살게 될 각 가족들의 상이한 삶의 방식 또한 각 주택의 형태를 독특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공간계획에서, 각 집들은 동양의 정자건축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정자들은, 특히 정원이나 자연 속에 위치한 정자들은 원하는 조망을 향하여 각기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럼에도 함께 모여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공간과 조망의 차이는 조밀하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집들의 가까운 배치를 가능하게 하였다.
동양의 전통적인 정자로부터 받은 두 번째 영감은 그들이 언제나 자연을 향해 열려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 주택들은 자연 속에 삽입한 오브제들이 아니라, 자연이 지나가도록 놓아두는 둘레를 친 것과 같은 방식이며, 대부분의 주택들이 다수의 조망을 향해 여러 개의 각도로 열려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기 주택들에는 빛과 바람, 그리고 조망이 공간을 가로질러 갈수 있는 사이 공간들이 존재한다.
우리가 고른 재료들은 매우 자연에 순응하면서도 실용적이다. 이뻬 나무의 사용은 부식과 마모에 강하여 외관을 오랜 시간동안 유지시켜줌과 동시에 시간의 흐름에 순응하여 천천히 은회색으로 변해 간다. 실내 공간은 재료와 컬러 팔레트에 있어서 집안의 다양한 공간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적 경험으로 인하여, 매우 심플하지만 분명히 풍부하게 하였다.
디자인 과정에 있어서, 끊임없는 대화를 진행하였고, 각 가족들의 수많은 디자인 요청사항들이 대화 속에 진행이 되었다. 이 집들은 그들의 꿈이다. 우리는 공사가 마무리 되어 입주를 하게 되면서, 각 주택들의 건축주들이 이웃한 서로의 집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각 가족이 자신들의 집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최고의 주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맞는 주택이 있을 뿐이다.

송현리 안나의 집
Songhyun-ri Anna house

• 설계자 : 민승열(주.한빛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민혜령 • 건축주 : 민혜령

대지위치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송현리 383-2	연면적 287.85㎡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21.97%
용도 단독주택	용적률 29.22%
대지면적 985㎡	규모 지상 2층
건축면적 216.39㎡	구조 철근콘크리트



배치도

위치 _ 중부고속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중간쯤 곤지암으로 빠지는 길이 있다. 그곳에서 동쪽으로 약 10km쯤 들어가면 산새들이 지저귀는 작은 오솔길이 나온다. 하늘과 숲만이 존재한 그곳에는 자연의 흔적들과 하늘의 향기가 가득하다. 오솔길의 끝에서 만나는 이 건축물은 자연의 바닥과 하늘의 천정, 그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다.

사계 _ 건축 계획 초기부터 고려되어 온 것은, 자연과 닮은, 자연과 어울리는, 자연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것이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건축물도 그렇게 자연과 하나가 되어 가고 있다.

단풍으로 붉게 물드는 가을, 안나의 집은 하나의 단풍으로 변한다.

얼굴을 붉힌 듯 빨갛게 수줍어하는 뒷산을 닮은 붉은 지붕은 높고 파란 하늘과 이제는 지쳐서 쉬려하는 땅의 중간에서 서로를 달래주려 하고 있다. 겹겹이 쌓인 지붕의 모양은 산과 하나가 되어 대지를 감싸 안으며 그렇게 편안함을 주고 있다.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이면, 안나의 집은 하나의 눈송이가 된다.

삼각의 지붕에 내려앉은 하얀 눈과, 자연에 내려앉은 하얀 눈이 딱 그 정도만 하얀 벽과 함께 하나가 된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눈이 창을 통해 보이면 눈꽃의 따스함이 전해져 온다.

꽃이 만개하는 봄이 오면 안나의 집은 하나의 꽃으로 변한다.

하얀 벚꽃의 잎과 어울리는 하얀 벽, 산수유의 붉은 잎과 어울리는 붉은 지붕, 주변의 나무를 연계하는 목재 띠의 흐름은 봄, 그 자체를 표현하고 있다.

생활 _ 남측의 따스한 볕을 받을 수 있는 그 곳에 거실과 안방을 계획하였다.

안방은 거실과 적정하게 분리되어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나란히 위치하여 데크로 연계하였다.

안방과의 반대쪽에는 사랑방을 형성하여 전원의 아름다움을 가까운 이웃과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거실의 전 후면에 놓여진 데크는 뒷산과 앞마당을 연계하는 중간에서, 거실을 또 하나의 자연이 되게 하였다. 겨울이면 잔잔하게 타오르는 벽난로의 모닥불이 그곳을 따스하게 비출 것이다. 계단을 따라 올라간 거실상부의 작은 방은 건축주의 예술적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작업실로 계획하면서 측면 데크를 통한 이용성을 최대화 하였다. 삼각형의 천장을 가진 그곳에는 수평으로 긴 창이 있고, 이 창을 통해 바라보는 자연은 한 폭의 수묵화와 같은 느낌이다.

측면 데크를 따라 이어지는 다락은 천장이 낮은 삼각형의 공간으로 이루어지면서, 흡사 뻐꾸기 집 모양의 창을 통하여 들어오는 한줄기 빛이 소중하게 느껴진다.

마당과 연계되어 집주위로 형성된 디딤돌을 따라 건물을 돌아보면, 아무렇게나 쌓은 듯한 낮은 담장과 그 위의 기와, 그 앞으로 펼쳐진 자연, 또 지금은 창고로 쓰이는 농군의 집과 연못, 그리고 중간중간 놓여진 장독과 맷돌 은 한(韓)의 정취를 느껴지게 하고 있다.

화선대

• 설계자 : 고광석(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주식회사 마루종합건설 • 건축주 : 윤주화

건축하기/공간과 겹을 만들기/분절과 자연을 담기

공간을 만드는 것은 양을 담는 의미도 있지만 삶을 담고 삶속의 질을 담기도 한다. 대지 내에 건축을 하고 공간을 만들어 연결하고, 이 공간은 겹을 만들어 겹 사이에는 자연을 담고자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항상 교류를 시키고자 한다.
겹 사이 공간은 내부와 외부의 공간을 끊임없이 교류시켜 내외공간의 연결성을 느끼고 시각적 변화감을 느끼게 하여 삶의 질과 대지의 새로움을 느낄 것이다.

부지와의 첫 대면

서울을 벗어나 분당에 이르기 전 그리 멀지 않은 근교의 조용한 전원주택 단지이다. 서울과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자연과 면한 주거단지가 있을까 싶은 곳이다. 남향이 트여있는 경사지는 주변이 산들로 둘러싸여 포근함이 느껴진다.
멀리보이는 철탑이 시선에 거슬려 아쉽기는 하지만 서울과의 거리와 접근성 그리고 향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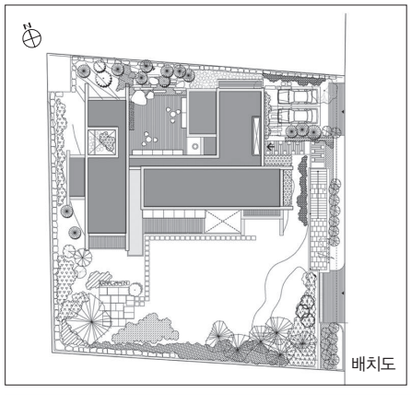
프로그램과 콘셉트

건축주 부부와 장성한 두 아들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노모께서 오시면 머무를 수 있는 방이 요구된다. 거실과 별도로 음악 감상이나 취미생활을 영위하는 별도로 다목적공간이 추가로 필요하다. 각층의 공간분배는 지하 1층에 다목적 공간과 화실, 주차장 그리고 1층에 주인 부부공간, 거실, 노모방, 식당과 주방, 2층에 자제분들을 위한 방들과 가족실을 요구되었다. 요구된 규모에 비해 제한된 건폐율과 건축 콘셉트는 서로 다투었고, 이 다툼 속에서 각각의 공간Zone들 사이에 가능한 한 자연(외부)을 많이 접하고자 하였다.
도심의 답답함을 벗어나 근거리에서 자연을 벗 삼아 살고자 하는 마음은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옮기고자 하는 모든 이의 바램이기도하고 건축주와 설계자의 공통된 의도이기도 하다.

현관을 들어오면 뜻밖의 중정외부 공간이 맞이한다. 내부의 이동공간은 공간 겹 사이에 창을 두어 본래의 이동이라는 목적 이외에 이동의 즐거움을 주도록 되었다.
지하층의 조그마한 중정은 지하공간에 빛을 받아들여 낮에는 밖에서 일어나는 비와 눈을 보여주어 자연의 변화감을 느끼게 하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어 자연을 느끼는 인간의 감성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

1층의 앞마당은 앞에 넓게 펼쳐진 전경과 어울려 비워놓고, 후면의 둘러 싸여진 중정은 앉아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연면적 682.29㎡
지역지구 보전녹지지역	건폐율 19.64%
용도 단독주택	용적률 32.02%
대지면적 1,230㎡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면적 241.58㎡	구조 철근콘크리트


배치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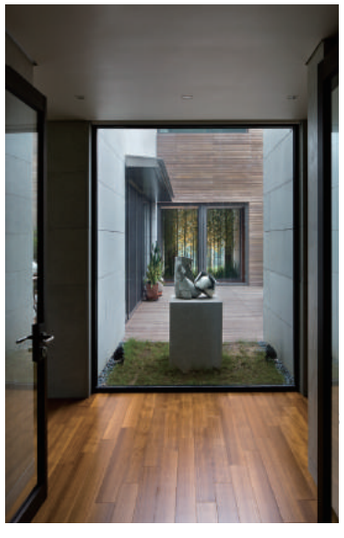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서 같이하고 싶은 사람과 포근한 정과 편안하게 자연을 느끼게 하는 앞마당의 정원과는 다른 분위기이다. 공간 사이사이에 소정원을 두어 다양성을 경험하게 하고자 한다.
구축된 건축물은 건축주의 마음을 담고, 설계자의 의도를 담는가보다. 과하지도 않은 정돈된 형태 속에 주어진 대지에 소박한 공간의 변화감과 다양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편안함과 아쉬움

대지을 접하고 공간을 만드는 작업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다. 한편으론 이러한 설렘은 대지를 처음 대했을 때의 마음과는 달리, 설계진행시 규정짓고 완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 두려움도 있고 갈등이 오기도 한다.

많은 용도의 건축물 가운데, 다중이 사용하는 공간은 나름대로의 기준도 있어 스스로 위안을 삼을 핑계거리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주택의 설계는 개인(건축주)의 요구기준에 맞추고 설계자의 생각도 반영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프로젝트의 작업은 무엇보다도 건축주께서 설계자의 의도를 인정해줌으로써 편안한 작업이었으나, 한편으론 이러한 편안한 안도감 속에 스스로 나태함이 있지 않았나하는 자책감에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다. 같이 작업한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campaign

*.dwg 납품!
하지 맙시다!

국내의 건축설계 및 각종 설계에 중요한 수단인 CAD 프로그램은 그 결과물을 주로 *.dwg로 생산하게 됩니다. 그간 인허가, 심의 등 대관업무나 납품 등 건축주 관련업무, 또한 시공사와의 업무에서 *.dwg파일을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스(source)파일 형태로서 변경과 재생산이 용이하여 인허가상 기록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파일의 용량이 매우 커서 관리측면에서도, 또 업로드에 많은 시간을 요하고, 저장장치의 용량도 매우 많은 크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건축주나, 시공사에 납품하는 경우 계약에 관련한 자료로 활용되는 도서류에 있어서도 기록의 의미가 크므로 dwg 포멧의 파일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만일 현장에서 도면의 치수 등을 알기위해 dwg파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dwf파일로 제공하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서의 치수를 알고 싶다면, 설계자나 감리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도면을 납품하시거나, 업로드 하실 때는 *.dwg파일 대신에 pdf파일이나 jpg파일로 도면의 크기대로 만드셔서 납품 하시면 건축의 의미가 더 살아나게 되고, 편리한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건축사님들의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민원신청 내용과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699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건축문화대상展

Korean Architecture Awards 2011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대 상

• 아날로그 칩

우 수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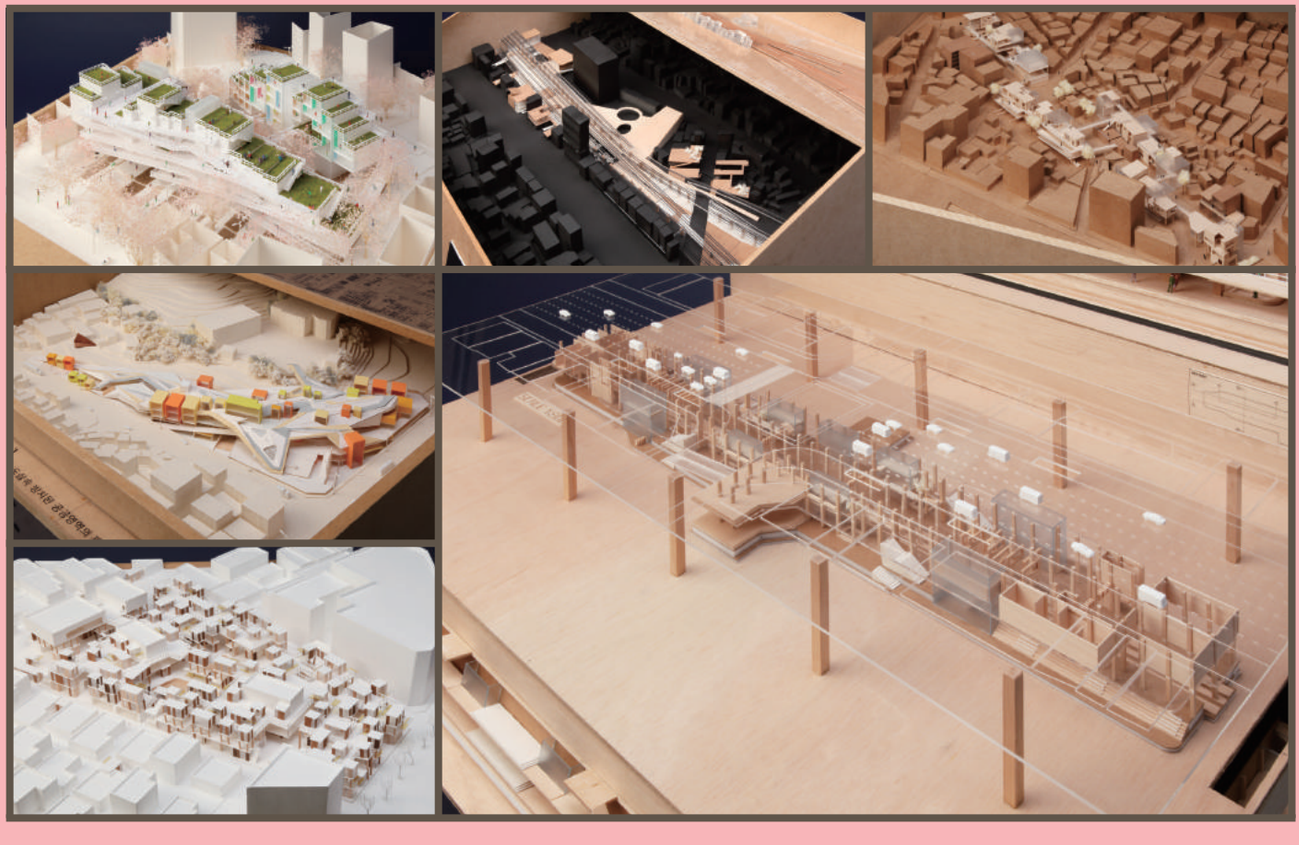
• 도시에 살 자격을 얻는다는 것 • 노마디즘과 도시의 재생
• 걸으며 만나는 삶의 이야기 • 단지 비워져 있는 것은 열린 것이 아니다
• 유동적 커뮤니티, 재래시장의 가치를 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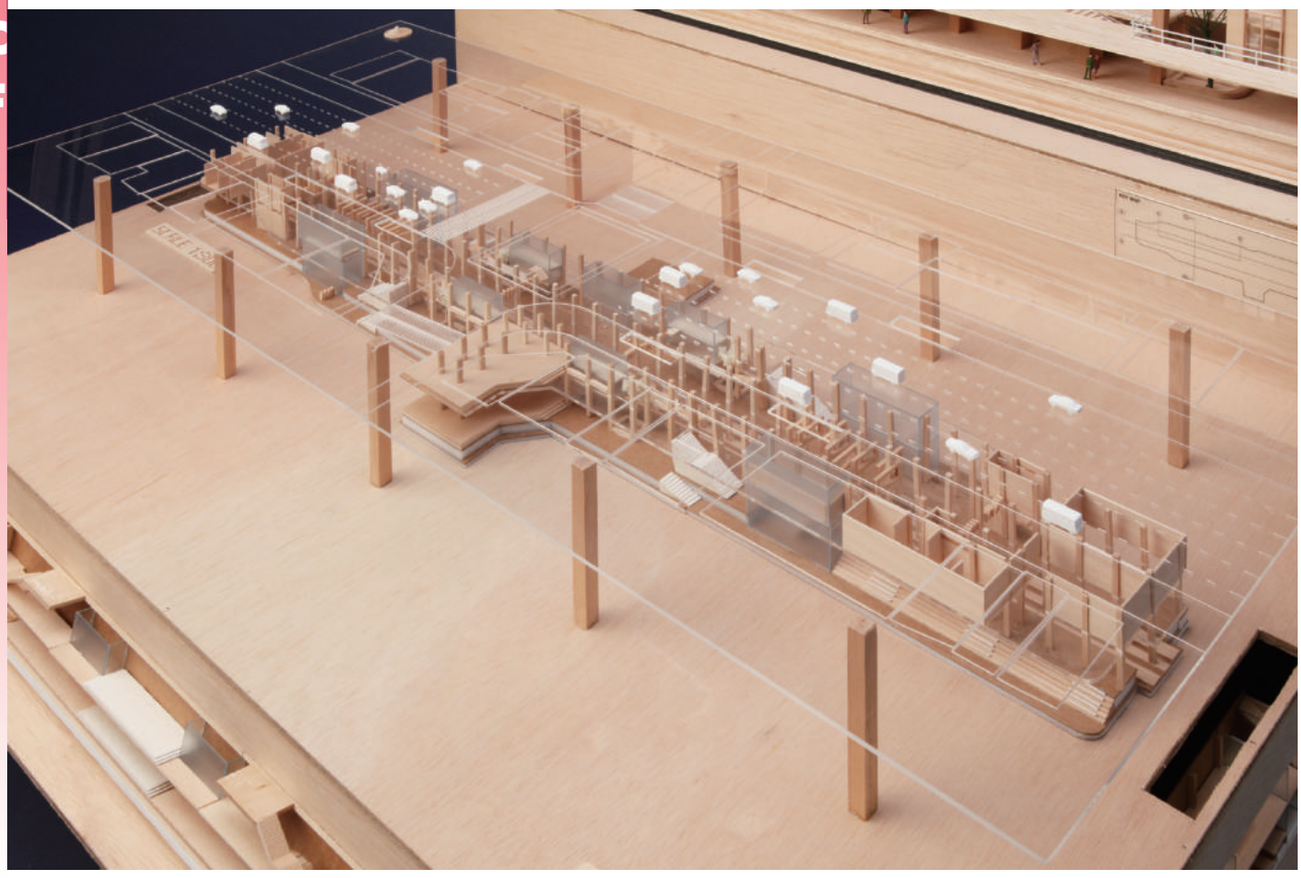
특 선

• 너에게 접속하다 • 그 씨앗들은 며칠 있으면 발아할 것이다
• 폐역사 부지를 활용한 사회적 소통의 제안
• 도시 내 소외된 공간의 환원 • 은둔자를 위한 도시 회로
• 벌집사이–노동자주거, 사이공간을 통한 커뮤니티제안

입 선

• 대학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도심 순환체 가로공간 계획
•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농업 • 도시와 땅의 경계에서…
• 유토피아의 반(反)이상향 • 사회적시간의 공존
• 노유자와의 교감을 커뮤니티로 답하다 • 사회적 클러스터–통합을 위한 플랫폼
• 회색빛 위에 색깔을 입히자 • 새로운 환승개념을 이용한 소통의 신도림역사
• 서촌 갤러리마을 안내도 • 돈의동, 도태된 도심 속 자기 역할 찾기
• 도시 안에서 삶을 찾다 • 기억의 공유를 통한 치유
• 빛과 공간의 풍경다 • 경계 위의 유희 • 공생을 위한 유전구조
• 사이공간으로서 부산역 철도부지의 북항연계 재개발계획안
• 잠재적 경계공간을 통한 소생 • 커뮤니티 코어
• 종로 가로구조 변화 분석을 통한 역사박물관 계획
• 더 이상 이방인이 없는 이태원 만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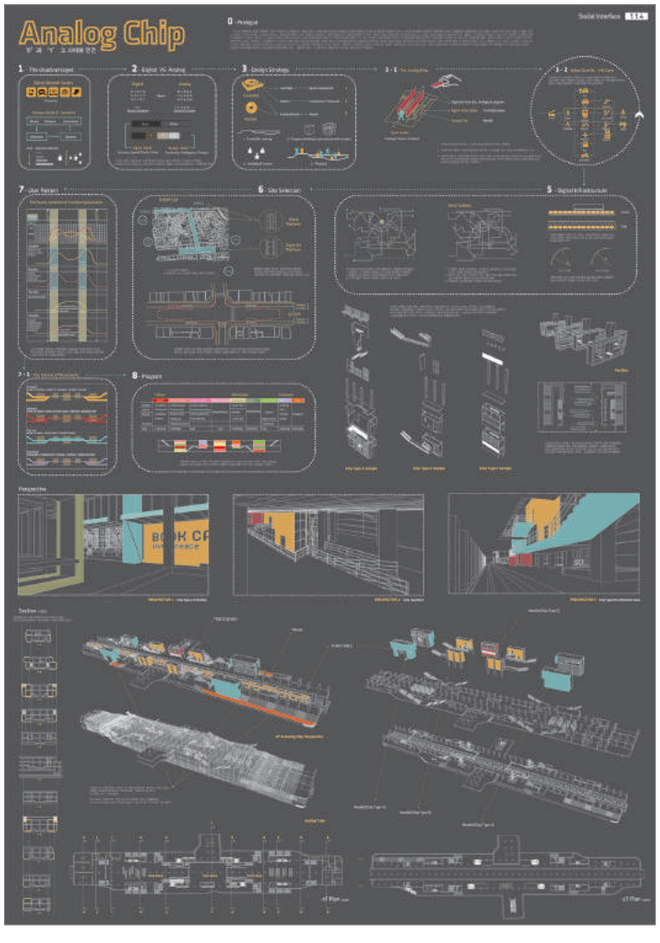


아날로그 칩

김태선, 우원석, 허은영 _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우리에게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느리게 만드는 아날로그한 공간이 필요하다. 정형화된 지하철의 유휴공간을 찾아 일부분을 잘라내고 덧붙이는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턴테이블과 프로그램 박스는 도시전반에 끼어들어 갈 수 있도록 디지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기능은 지극히 아날로그하다.

아날로그 칩은 인간에게 아날로그적인 행위를 유도하여, 도시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굳어진 공간을 긁어내며 사회적 소통을 위한 이벤트를 제공하게 해주는 장치다. 다시 말해 아날로그 칩의 삽입은 단순한 과거로의 후퇴, 불편함의 고통을 추구함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의 회유이며,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사회소통의 단절 속에서 인터페이스 장치의 역할과 더불어 도시전반에 걸쳐 적용이 용이한 프로토타입의 제안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신호와 다른 0과 1사이의 '여백과 공간'이 소통과 각각의 공간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무한한 가능성과 '다름'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도시에 살 자격을 얻는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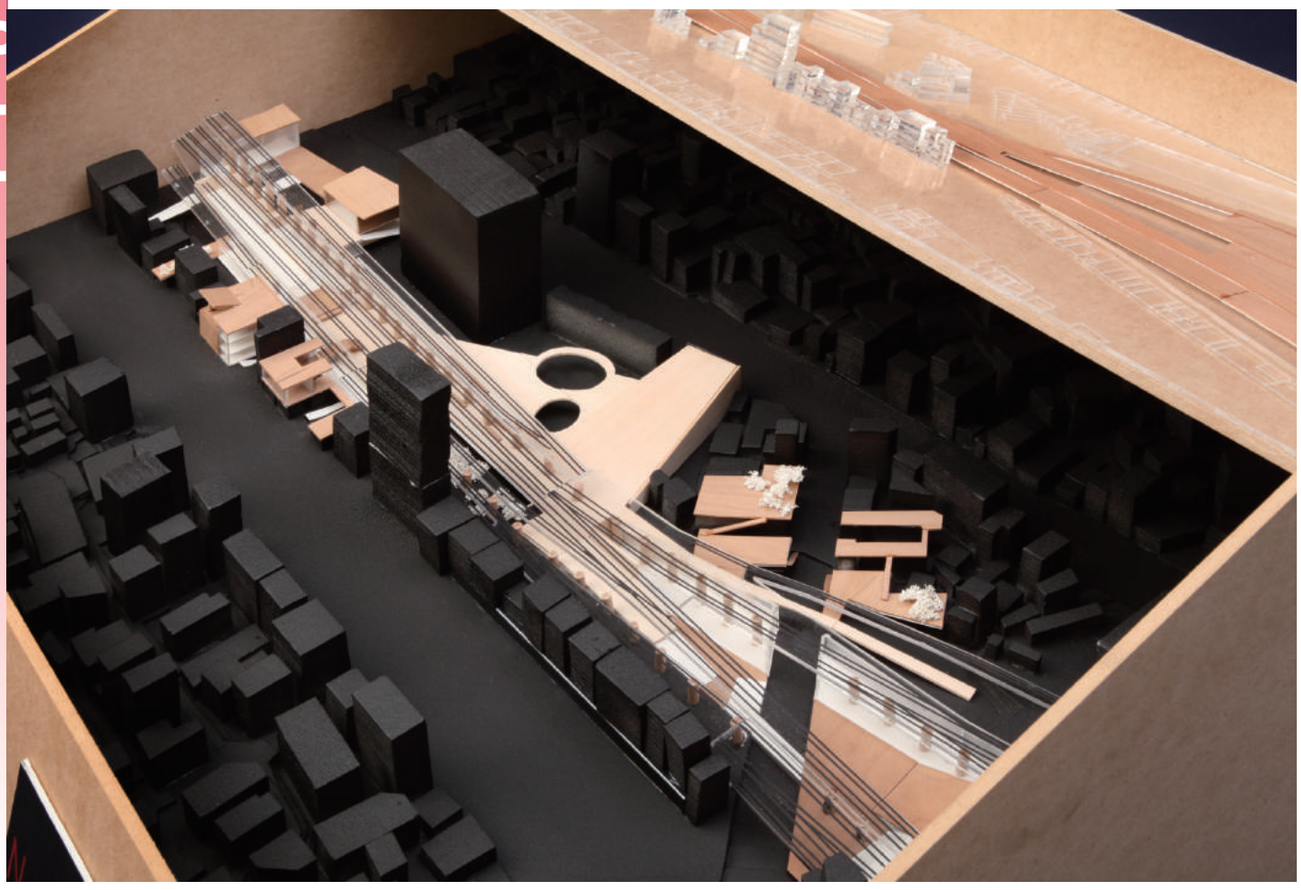
박시몬, 김성수 _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이 프로젝트는 늘어나는 1인 가구와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나의 집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의 제안이다. 건물의 유닛의 크기와 입면의 형태 요소들은 이미 주변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밀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곳 서대문 지역은 현재 다양한 뉴타운 개발 정책으로 낙후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재도약을 하기위해 고밀도 정책들이 앞 다투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편리성과 고밀화의 이면에는 아파트로 대체되는 이질적인 풍경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의 규칙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징을 끌어낸다. 다시 말해 건물을 정면, 배면, 중간으로 관통하고 있는 동선을 따라 건물 매스의 중간 중간에 녹지 공간들과 양쪽 건물을 연결해주는 소통의 공간을 두게 된다.

이는 긴 동선을 따라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거주자와 주변 사회계층 간에 사회적인 소통과 시각적인 소통을 이루는 동시에 대지에서부터 시작해 지붕까지 연결되어 있는 녹지의 확장을 통해 도시적 연계를 이루게 된다.

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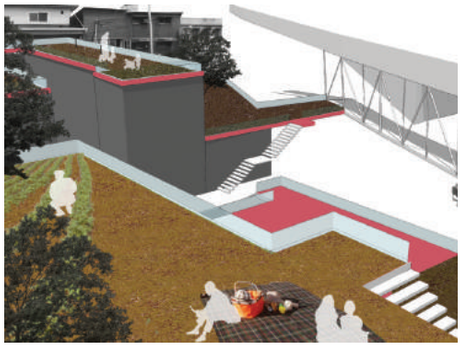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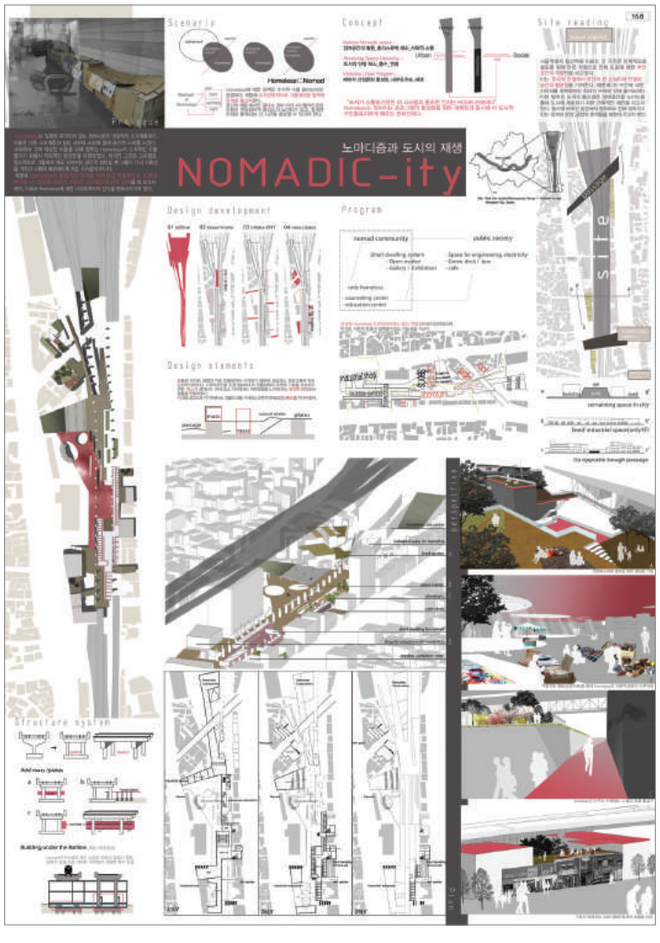
노마디즘과 도시의 재생

김가영 _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대표적인 소외계층 Homeless. 정부는 그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일시적인 공간적 쉼터만 제공할 뿐 사회성을 가지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지 못한다. 때문에 Homeless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자발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의 사회적 시스템으로서의 건축을 하고, 이로써 Homeless에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서울역은 많은 사람이 오고가는 장소로 화려하지만 이면에는 Homeless가 가장 많은 곳으로 그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효과적이다. 서울역에서 용산역에 이르는 긴 구간은 인위적으로 성토를 하여 레일을 깔았다. 때문에 레일 아래의 공간은 인식 되지 않고 있으며, 몇몇의 지하차도에 의해 통로공간으로만 쓰인다. 이렇게 도시적으로 감춰진 틈과 같은 공간을 사용하여 도시잉여공간을 활성화하며, 그와 함께 단절되어있던 레일 양 옆의 도시 공간도 연결한다. 레일 옆에는 과거 산업화의 잔재인 공업사 · 기계사가 줄지어 있는데 사라져가고 있다. 그 흔적들을 되찾고 현재의 사회적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우수상

걸으며 만나는 삶의 이야기

김현주 _ 영남대학교 건축디자인전공

디지털 매체의 등장으로 전 세계가 네트워크화 되고 익명의 다수와 소통하게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에 대한 무관심의 증가와 정서적 교류의 결핍을 낳고 있다. 현대인의 강한 개인적 성격과 더불어 개방된 도시공간의 부족은 개인과 다수간의 단절을 심화시키고 있다. 아무리 디지털을 좇는 세상이라도 우리 인간은 아날로그이며 아날로그의 장소 속에 살아가고 있다. 더 이상 '장소'에 근거하지 않는 모바일 적인 현대인의 삶속에 기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라져가는 오프라인의 공유공간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고 도시민의 일상적 삶의 모습이 묻어나고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한다.

대구의 중심 번화가인 동성로로 인구가 유입되고 빠져나가는 입구 성을 가진 통신골목은 약 400m의 거리이다. 이곳 상업시설이 점유한, 직선의 이동만이 존재하는 생활가로에서 한 발짝 물러나있는 사람들에게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지역 문화 콘텐츠 요소들을 삽입하고 그 요소들을 공유 공간을 통하여 깍지를 끼듯 엮음으로써 하나의 의미 있는 '장소'를 만들어 내며, 오프라인 커뮤니티 공간을 유도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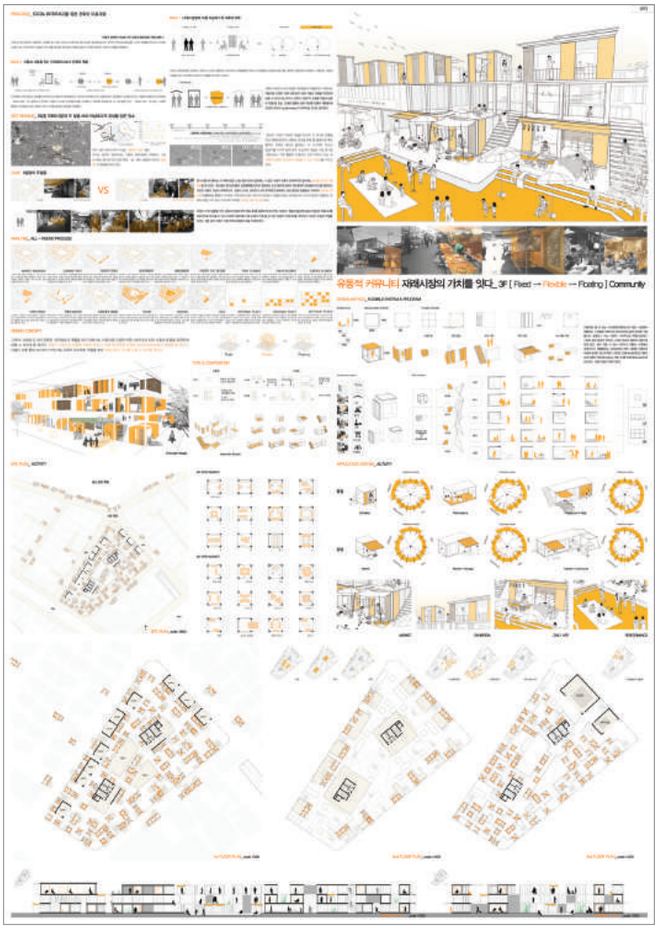
단지 비워졌다고 하여 열린 것은 아니다

김진표, 이용훈 _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공공 영역은 개인과 사회가 요구하는 삶의 조건들을 향상시켜주고 관계 맺어 주도록 하기위한 다양하고 적정한 환경의 틀을 제공하는 일종의 건축적 장치이다. 더불어 이 장치속의 변수들은 독립적 오브제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일정한 체계를 형성 하면서 공존해야한다. 그리하여 대지적 형상 차원에서의 주변 구조간의 관계와 변화되어가는 도시적 기능의 형상을 파악하는 것이 구상을 제시하는 기초가 되어 영역이 구축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공영역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보다는 단순히 도시 공간 속에 천편일률적인 보이드(OPEN SAPCE)만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공공 영역은 양적 측면에 비해 질적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한 현실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급변하는 현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공성을 이전과 같은 건축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연결시킬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공공영역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와 성격에 대한 고민을 기반으로 이에 따른 적절한 구축방식에 대한 탐구가 요구된다.

우수상



유동적 커뮤니티, 재래시장의 가치를 잇다

주연홍, 김두리, 강준성 _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인터페이스란 대상과 대상을 이어주는 시스템이자 매개체이다.

애석하게도 현재의 시대적, 도시적 상황에서 지어지는 건축물들은 매스의 거대함과 고정된 프로그램, 화려한 입면으로 치장하기 바쁠 뿐,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인터페이스로서의 역할을 망각한지 오래다. 건축이 사회와 도시의 진정한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 이들의 흐름을 유연하게 담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건축이 이용자의 흐름을 적절히 담을 수 있을 때 또는 그러한 흐름이 보여 지도록 건축이 계획될 때 진정한 의미의 Social Interface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이용자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인터페이스)을 제안한다. 시장에서 연출되는 스케일을 기준으로 2400x2400x2400 공간을 기본 틀으로 설정하고 이는 수평적, 수직적으로 확장가능하다. 시장의 중요 풍경인 천막과 스킨은 장날과 평일의 이용자에 맞게 접고, 갈아 끼울 수 있는 구조이고 재료는 시장에서 버려지거나 재활용되는 상과상자와 천막 시트를 이용하여 자체의 풍경이 되고자 했다.

너에게 접속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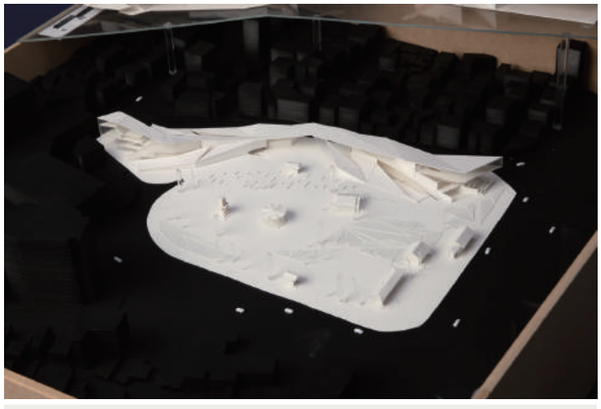
| 김영인, 방성윤, 이민기 _ 경원대학교 건축학과

그 씨앗들은 며칠 있으면 발아할 것이다

| 이종상, 현지연, 윤소라 _ 수원대학교 건축공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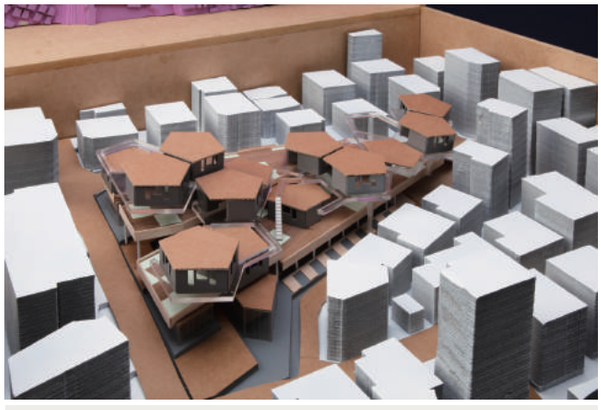
폐역사 부지를 활용한 사회적 소통의 제안

| 서규석 _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도시 내 소외된 공간의 환원

| 안재현, 한준희, 최홍석 _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은둔자를 위한 도시 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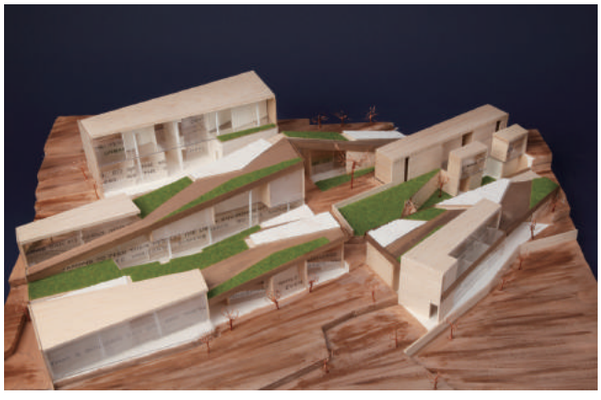
| 임현택 _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벌집사이-노동자주거, 사이공간을 통한 커뮤니티 제안

| 이다영, 이슬기, 김현진 _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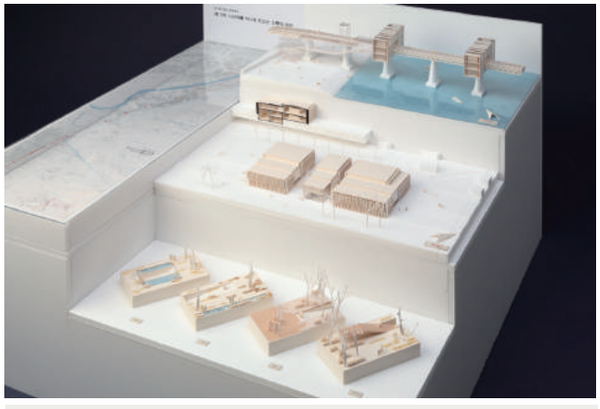
대학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도심 순환체 가로공간 계획

| 고우현, 박은지, 신동우 _ 수원대학교 건축공학과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농업

| 허지훈 _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도시와 땅의 경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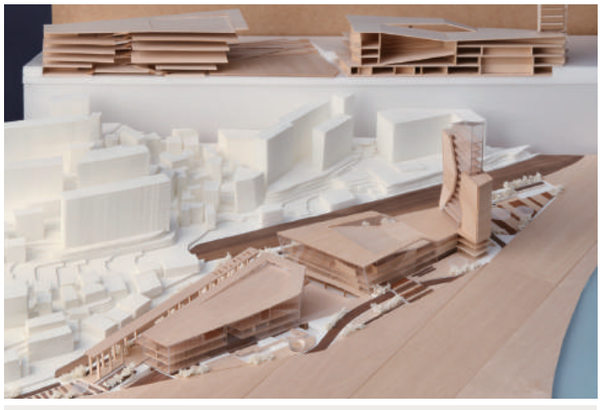
| 허성훈, 김재영, 이지현 _ 계명대학교 건축학과

유토피아의 반(反)이상향

| 서두원 _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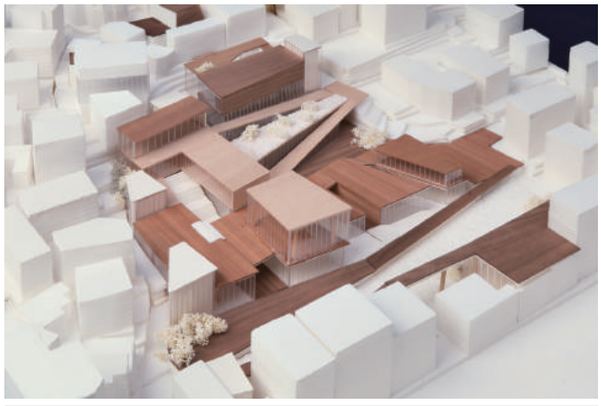
사회적시간의 공존

| 이숙민, 신영빈, 송 일 _ 서울예술대학 실내디자인과



노유자와의 교감을 커뮤니티로 답하다

| 최병원, 김여진, 김기웅 _ 울산대학교 건축학 전공



사회적 클러스터–통합을 위한 플랫폼

| 김성희 _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회색빛 위에 색깔을 입히자!

| 신수정 _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새로운 환승개념을 이용한 소통의 신도림역사

| 김찬우, 강호영, 최용기 _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서촌 갤러리마을 안내도

| 김 민, 손상은 _ 숭실대학교 건축학과

돈의동, 도태된 도심 속 자기 역할 찾기

| 최은영 _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도시 안에서 삶을 찾다

| 정상우, 배혜림 _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입선

기억의 공유를 통한 치유

| 김민혜, 김용균, 이윤희 _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빛과 공간의 풍경

| 김용섭, 홍기준 _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경계 위의 유희

| 윤진용, 남윤정 _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공생을 위한 유전구조

| 김응철, 강봉성, 최종욱 _ 남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사이공간으로서 부산역 철도부지의 북항연계 재개발계획안

| 이희련, 정희경 _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잠재적 경계공간을 통한 소생

| 김남현, 이진호 _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커뮤니티 코어

| 이재형 _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종로 가로구조 변화 분석을 통한 역사박물관 계획

| 곽성주 _ 숭실대학교 건축학과

더 이상 이방인이 없는 이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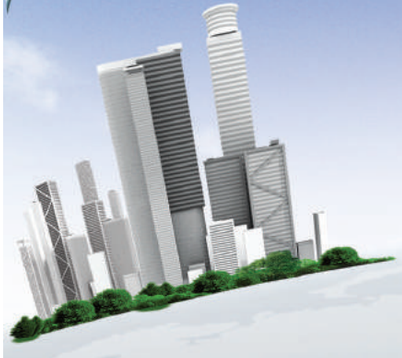
| 유 청 _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심사 이모저모

협회의 상징!

휘장의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간혹 공적 혹은 사적으로 협회의 휘장을 사용할 때
협회의 상징인 '휘장'의 모양이 올바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휘장은 우리나라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의 상징이므로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휘장은 협회의 상징(Symbol mark)으로서,
도안에 응용된 「ㄷ, ㄱ, ㅎ」은 대한건축사협회를 뜻하며
전체적인 모양은 건축적 분위기가 짙은
한국의 고유한 완자무늬로부터 착상되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건축 초대석

Invitation to Achitecture

김 성 곤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여수갑)
고려대학교 사학과 / 미국 템플대 대학원졸(철학박사) / 제15대, 17대, 18대 국회의원(3선)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장 /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사무총장 / 제17대 국회 국방위원장 / 현 국회 기획재정위원,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 주요 저서– 도(道)의 정치

건축의 사회적 지평확장을 위해

이제 우리 자동차나 휴대폰, 조선 등의 세계적 진출, 동, 하계 올림픽 및 월드컵 유치, G20 주관, 최근의 k-pop.열기 등은 바로 한국인의 힘의 결과이며, 수많은 국제적 인사들의 잦은 한국 방문은 곧 국력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건축 또한 기술이나 건축 자체만이 아니라 도시, 길, 환경과 녹지, landscape, 지속가능성 등 포괄적 이슈를 떠날 수 없다. 건축 체계에서도 강제적 규제에서 재량적이고 창의적인 틀을 수용하고, 각 지역민의 삶을 기준으로 그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에 발맞추어 건축사들도 그 책임과 관리, 선도 할 역량은 물론 의식적 유연성과 함께 보다 큰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협회 및 건축사지는,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바람직한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먼저 사회 지도층, 저명인, 나아가 일반인에게까지 적극적 소통을 도모하여 그들과의 공유공간을 넓히며 개별을 넘어 공론적 건축 담론의 場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작은 파장이 큰 울림이 되도록 기원 드린다.

요즈음 정치권 전체에 대한 냉소적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고, 중요한 역할에 따른 역설적인 현상일 게다. 어쨌든 국회는 여전히 입법의 중추로써 현실적 권력이다! 법, 제도적 관계가 어느 분야보다 깊은 건축사들로서는 그 동안 그들과 는 제법 멀리 떨어져(?) 있었고, 가까이 소통할 노력도 또한 미흡한 게 아니었나 싶다.
평창의 환호 뒤로 곧 이어 여수 국제박람회의 성공은 당장의 국가적 과제이며, 그를 주제로 먼저 그 지역의 국회의원 면담을 추진하였다.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하기 어렵다. 가까이 들여다보면, 혼란스러운 가운데 가치 있는 노력과 업적, 훌륭한 인품과 관록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도 그렇게 보였다.

그와의 만남은 마치 확률 낮은 복권 당첨 같이 이루어졌다.
해외 출장, 지역구 방문,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정개특위 참석 등 꽉 짜인 일정 속에서 그 분으로서는 생소(?)하달 수 있는 '건축문화'에 대한 면담 요청은 당장의 탐탁한 사항은 분명 아니었으리라!
그러나 건축/도시/환경의 가치, 문화시대로의 흐름… 등이 작용하였는지 모르겠으나 번개미팅은 수용되었다. 사무적, 공적인 법안 검토나 설명의 자리가 아닌 보다 자유롭고, 인간적(?)인 분위기로.
다소 권위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거친 분위기와는 다르게 첫 인상은 유연함과 선함이 묻어났다. 마음의 창이 눈이라거나, 얼굴이라거나, 혹은 몸 전체의 분위기라고도 한다면, 이제 그 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다.
간단한 수인사를 거치는 짧은 동안에도 국감이 끝난 직후라 언뜻 일에 지친 피곤함이 없진 않았으나, 이내 밝고 카랑카랑한 음성과 대화의 자세는 첫 만남의 어색함과 생경한 주제를 넘어 여유롭기까지 하였다. 지역구에 대한 것이나 의원 활동에 대한 얘기에서는 저절로 활기가 생겨나는 듯 하였다. 길지는 않았으나 헤어질 때에는 처음에 가졌던 다소 사무적인 느낌과는 사뭇 다른 따뜻함과 흐뭇함을 안고 돌아 올 수 있었다. 그것이 그 동안의 작은 노력의 보람이라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 더 큰 성과, 훌륭한 의정 활동과 함께 국가와 건축의 발전, 바람직한 건축정책의 선도자 되기를 기원 드려 본다.

박찬정 : 반갑습니다. 국감 수행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또 한 업무를 추가시켜 드린 것 같아 송구합니다.

김성곤 : 반갑습니다. 괜찮습니다! 익숙지 못한 분야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자유롭게 얘기해 봅시다.

박 : 감사합니다. 그럼 우선 가볍게 개별적인 것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선 의원이신데, 먼저 국회의원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김 : 대학시절 아버님(故 김상영-8,9대 국회의원)의 영향으로 정치에 흥미를 보이긴 했지만, 이후 미국 유학생활을 하면서는 종교와 철학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회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길은 신앙과 교육'이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고 이후 현실정치에 참여하기보다는 교육과 종교를 통한 사회개혁의 길을 택하게 되었지요. 대학 강의, 종교평화운동(KCRP사무총장, 서울평화교육센터 기획실장)에 헌신하다 선배의원의 불출마선언으로 갑작스럽게 15대 총선 여수(구,여천시 군) 지역구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못 다 이룬 정치적 꿈을 이루고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고자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 KCRP(Korea Conference of Religion for Peace) =
한국종교인평화회의 – 현 대표회장 김희중 대주교/종교간 대화협력, 남북 및 국제 교류

박 : 그야말로 '소명'이란 느낌이 듭니다. 중요한 직무 활동을 위해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김 :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하여 5시부터 맑은 기운으로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우리 몸에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여 정신과 기운을 맑게 하여 심신을 단련시키는데 최고의 운동이지요.
특별히 하는 운동은 없지만 체력단련을 위해 국회건강관리실을 종종 이용하기도 하고 젊은 시절부터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도 심신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 : 젊게 보이신 이유가 다 있네요. 현대 생활에서는 동, 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선 수행이나 명상 등에 큰 관심과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종교와 철학의 관심이 결국 수행자적 생활로 이어졌네요.

김 : 박 선생께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박 : 빡빡한 일정 중에도 그런 좋은 습관을 지니신 게 부럽습니다. 현 의원 활동 중 제일의 관심 사항은 무엇인지요?

김 : 무엇보다 저희 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여수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수세계박람회는 내년 5.12~8.12일까지 개최되며 약 12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5조 7천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등 88올림픽, 2002월드컵과 함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대규모 국제행사입니다. 이 엄청난 사업을 저희 지역구 여수에서 개최하게 되어 최선을 다해 지역구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아울러서 재외동포정책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00만 재외동포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향후 남북이 통일된다면 우리 한민족은 그 부지런함과 우수성을 바탕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민족으로 화려하게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외동포를 보호하고 권익을 신장시키며 우수한 한민족의 문화를 계승발전 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의 재외동포정책 자문기구인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 : 장차 선진국이란 문화강국을 말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저희 모두가 기대하고, 또 지나 온 역사를 볼 때 이젠 그럴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건축의 중요함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변함없는 역사적 사실인데 그런 활동 가운데 꼭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 :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 주요 직책을 볼 때 제1의 가치를 '평화'에 두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 모든 길은 서로 통하게 되어 있고 통하지 않는 길은 道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개인 간, 집단 간, 국가 간 갈등과 충돌이 만연하고 있고 같은 한민족이면서도 남과 북이 대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남한사람이면서도 영호남, 보수와 진보, 정치권에서도 여와 야가 심각하게 갈등을 계속하고 있지요.
제가 늘 '도의 정치'를 주창하는 것도 무릇 '도의 정치'란 이러한 갈등을 종식시키고 모든 생명, 인간, 환경을 평화롭게 하고 모든 가정, 모든 민족, 모든 국가가 화합하여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최고의 보편적 가치는 사랑이라고 하지요. 우리 국회에 '정치는 사랑중의 사랑'이라는 모토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작은 운동이 있습니다.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이 그것인데요.
정당과 종교의 벽을 넘어 참된 정치의 본질을 구현하고자, 당론과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우선하여 인간이 지닌 보편적인 가치들을 보호하고, 상대방 정당을 자신의 정당처럼 존중하며, '정치는 사랑 중의 사랑'이라는 이 운동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여야 의원들이 함께하는 연구모임입니다.
그동안의 제 삶을 돌아다보더라도 종교인으로서, 양심을 가진 철학자로서, 또한 정치인으로서 이러한 작은 운동을 통해 온 세계, 인류의 평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박 : 각 의원님들마다 나름의 의원 활동의 목표나 기치가 있으시겠지만, 참 특별하신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면 각자 자기 삶의 목표, 혹은 신념 등을 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유념하고 있거나 실천에 옮기기는 쉽지 않은데... 저도 반성이 됩니다. 그럼 존경하시는 분이나 롤 모델은?

김 : 원불교 좌산(법호, 左山) 이광정 상사님이십니다.
원불교 최고지도자이신 종법사를 지내시고 상사로 추대된 분으로 법호에 左자가 붙어서인지 대단히 현실적인 분이십니다. 부처가 절에 앉아만 있어서는 안되고 살아서 움직이는 활불(活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정치 입문을 권해 주신 참 스승님이십니다.

메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 (2010. 4)

生活是佛法 佛法是生活(생활이 바로 불법이고, 불법이 바로 생활)이라며 불법을 공부한다고 평생 절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불법으로 정치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교육도 살려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참된 불법이라며 출가하는 심정으로 출마를 하라고 하신 분이죠.

박 : 종교나 비종교적으로도 이 시대에 참 스승님을 모시는 것은 참 큰 복이라 여겨집니다. 진리적 본질을 보지 않고 종교적 분별을 먼저 내세우는 행태가 갈등을 유발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수행이나 생활하시는 기준이 이젠 이해가 됩니다.
언젠가 국회 폭력에 대해 동료 의원님들 모두를 대신하여 국민에게 홀로 참회의 3,000배를 하시는 것을 보고 제 나름의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의 평화적 신념의 표출이신지요?

김 :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 국회가 또 한번 국민들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실력행위에 대해 부족하나마 저라도 사과드려야 했기에 3,000배로 사과의 절을 올렸던 것 이구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간절한 염원이자 오랜 바람인 국회 평화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었지요.

박 : 나중엔 부인까지 함께 하시던데 사과의 자리라지만,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 부부 관계(?)가 더 좋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김 : (웃으시며) 늘 좋습니다! 공직을 맡은 이후로는 부부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사회를 위한 공적인 일이라 서로 위안을 하곤 하지요.

박 : 가장 영광스런 수상으로 여기시는 것은?

김 : 가장 영광스러운 수상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18대 국회 들어와서 2년 연속으로 '메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매우 뜻 깊은 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민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약했던 사업들에 대한 약속이행 평가를 받은 것이고 평가결과 우수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직하고 신뢰받는 정치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박 : 그런 '신뢰'에 대한 상이라면, 더군다나 2년 연속의 수상이면 정말 영광스럽게 여기실 만합니다. 의원 활동 자료를 보니 본회의나 상임위 출석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더군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김 : 감사합니다.

박 : 건축적인 논의 전에, 혹시 '건축사'나 '건축가'란 용어에 대해 알고계신지요?

김 : 글쎄요. 죄송합니다만,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변호사나 약사 등에 비춰 보면, 국가자격을 갖춘 분들을 건축사라 하고, 건축가는 보다 일반적, 관용적인 용어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박 : 역시 의원활동을 하시니…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공익성을 위해 국가가 인정하는 여러 '전문자격인'들의 사회적 책임과 권한 등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명칭의 사용부터 정리해 보자는 취지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를 평가하신다면?

김 : 우리나라는 너무 아파트 위주로 보입니다. 도시 성장이나 산업화를 통한 급성장의 결과겠지요. 그나마 최근 서울시를 비롯하여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은 다행으로 보입니다. 아마 앞서신 건축 전문인들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으리라 생각 됩니다.
주거가 건축 행위 중 제일 기본이고 시대적, 의식적 변화로 볼 때 다양하고 실험적, 창의적 제안이 풍부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옥 보존에 대한 논의도 제법 활발한 것 같고… 전통 주거의 계승이나 진화랄까, 적절한 용어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구요. 이젠 노약자나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나 맞춤식 형태도 나왔으면 하구요. 아무튼 소외되지 않고 다 함께 어느 정도 이상의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박 : 거의 전문적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외국의 주거, 혹은 건축적 형태와 비교하신다면?

김 : 전문적인 비교야 전문가들께서 잘 하실 일이죠!
그래도 질문을 하시니… 그냥 제 느낌입니다만, 어떤 형태적, 주관적 느낌보다는 대체로 환경적인 요인에 따르는 것 같아요. 아열대나 열대 지방에서 높은데 집을 짓는다거나 수상가옥 형태가 나타나고, 석재가 많이 나는 지역은 아무래도 석조집이 많고… 눈이나 비가 많은 지역에서는 뾰족 지붕이거나 경사 형태의 집을 짓더군요. 물론 해설을 듣고서 이해한 경우가 많았지만요.
다른 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박 : 그래도 핵심적인 것을 파악하고 계시네요.
몇 년 전, 국토해양위 국감에서 서울시의 '서민주거대책'을 추궁하시면서 뉴타운정책의 문제점과 함께 거주민의 주거 환경과 질적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지금 그런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지금의 생각은 어떠신지?

김 :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까지의 성장이나 외형 위주가 아닌 진정한 삶의 질, 모든 시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의 안정적 삶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공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 하죠. 살아 온 과정이 녹아 있는 지역에서 결국 자꾸 쫓겨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뉴타운 등 주거 개발의 결과로 나타난 아파트 위주의 주거 형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씩이나마 그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다행이구요. 여러 가지 난제가 있음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의 공동체성을 살려 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건축사 같은 전문가 분들의 '창의적 노력'이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박 : 참,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늘 저희들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삶의 환경을 다루는 만큼 특히 국회와의 공조나 소통이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또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반기문 UN사무총장과 함께

김 : 잘 알겠습니다.

박 : 담당하고 계신 상임위중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특위' 업무에 대해 잠깐 소개해 주십시오.

김 : 국회 기후변화특위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깊어가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이를 입법으로 풀어내기 위하여 구성된 특별위원회입니다.
현재 제2기 기후변화특위가 구성되어 활동 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후변화특위 위원이기도 하지만 (사)국회기후변화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는 17대부터 관심을 가져왔던 분야이기도 했고 여수세계박람회와의 연계성, 그리고 공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단체 였기에 오랫동안 관여해오고 있습니다.

박 : 특이한 활동 중 '남해안 시대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이 있으시던데, 어떤 활동이며, 왜 남해안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김 : 남해안시대연구모임은 국회에 등록된 국회의원 연구모임입니다. 국회부의장이신 정 의화의원님과 이 주영의원님, 저 이렇게 3인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남해안시대는 경제적 개념이 좀 더 강한 용어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대별되는 경제권역으로 남해안만이 아닌 사회 통합적 개념으로서 남해안시대의 뜻도 있습니다.
특히 호남과 영남이라는 지역적 기반이 남해안이라는 개념 하에서 하나로 통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연구단체 결성의 주요한 동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전남과 경남을 번갈아 가며 연구모임을 개최함으로써 영호남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박 : 저희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도 그렇게 당을 넘어 국가와 지역 발전, 화합을 도모하는 일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건축문화 행사(전시회, 영화 등)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지, 있으셨다면 그 느낌은 어떠셨는지요?

김 : 따로 건축문화 박람회 등을 찾아볼 기회는 없었구요. 근데 며칠 전에 국회에서 '땅콩집'에 관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서 관심 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내 집 마련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전세값도 많이 오르고, 이 땅콩집이 그러한 문제들의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건축사 분들께서 계속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셨으면 좋겠네요.

박 : 올해도 서울국제건축영화제를 10월 20일부터 2년째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부러 기회를 만드시어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에 대해 진정한 깊은 이해는 필히 큰 보람과 가치가 있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이런 자리를 흔쾌히 마련해 주시니 충분히 그러하리라 생각됩니다.

김 : 잘 알겠습니다.

박 : 인간관계, 혹은 업무, 사업 등의 직, 간접적 건축 관련 경험이 있으신지?

김 : 18대 전반기에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건설산업의 이모저모에 대해 파악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조만간 '해비타트' 운동 등에 참여해서 무주택자들을 위한 집을 직접 지어보고, 도움을 드리고 싶네요.

박 : 감사합니다. 점차 그런 나눔의 사회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지리라 예상되는데, 아마 저희들과의 만남도 곧 더 생길 것 같네요!
'건설산업'은 이제 세계적이라 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고, 그 이면에는 국가적으로 제도, 정책적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건축설계업계는 상대적으로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장차 서비스 및 컨텐츠 산업의 증진, 혹은 소프트웨어 위주의 '창의 산업'에 대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 : 우리나라, 우리사회는 특히 변화가 심한 시대를 거쳐 왔고 지금도 그 과정에 있지요. 외형 뿐 만 아니라 의식이나 가치관 등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나, 건설, 건축 쪽의 성과나 외형 위주의 인식 구조가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무형의 의식이나 마음에서 유형적 결과가 나타나듯이 소위 '소프트웨어'를 앞세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나라는 그 동안 여러 산업의 진흥이나 촉진이 법령, 제도적인 힘을 입어 왔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건축설계분야의 법/제도적, 정책적 지원 등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래는 그야말로 꿈과 상상력의 시대라고 하는 만큼 그 무형의 힘을 키워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도 또한 나름의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박 : 그에 따른 건축설계분야에 충고나 제안을 하신다면?

김 : 건축설계분야도 얼마나 신속하고 바람직하게 변화해가는 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선 자신, 자체에 대한 냉철한 성찰이 필요하겠지요. 법, 제도적, 사회적 환경의 영향이 지대함은 사실이나 그래도 시대를 읽는 힘과 함께 업무적 기본을 지키고 가꾸며 자력, 혹은 대응력을 키우는 게 먼저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 꾸준한 노력이 있고, 또한 주변에서도 그를 인정할 때 주변의 지원이나 격려가 함께 할 것으로 봅니다.

박 : 우리 사회나 여러 산업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만연하고 중소 규모 업체의 어려움은 건축설계업체에서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언급하신다면?

김 : 현 자유 시장 경쟁체계 하의 문제점이죠.
우리 사회 모두가 각기 역할에 맞는 최대한의 노력과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제가 건축설계분야에 대해선 아직 일천하여 적절한 언급은 어렵구요. 중소업체 등 약자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나 정부까지 공적 지원이나 정책적 배려 등 나름의 노력을 경주하고는 있으나 국민들의 느낌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업종도 대체로 그러하겠지만, 지금은 중간 규모의 건설업체들조차 사업의 다각화나 기술개발 등을 위한 여러 시도나 시스템 구축에 힘쓰는 것 같아요. 설계분야에서도 분명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스템과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형님 로버트 김과 함께(※로버트 김 : 미 국가정보의 한국 유출 협의를 개인적 희생으로 수용, 극복함)

박 : 해외 건설 산업 진출과 더불어 최근의 K-Pop, 드라마나 영화 등 문화적 한류까지 세계화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 설계 분야도 멋진 건축한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건축한류'를 위한 지원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 : 저도 그럴 기회가 되면 당연히 해야지요.
저도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요 건축물 설계를 종종 외국인에게 의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이유들이 있을 것이고, 경험과 앞선 기술을 가진 세계적 건축가에게 맡길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최빈국에서 지금까지의 성장을 이루려면 어쩔 수 없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젠 우리의 경험과 축적된 기술, 잠재된 능력, 열정과 의지로 볼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개도국에의 지원은 물론, 일부 분야에선 기 선진국에도 뒤지지 않을 성취가 있지요.
미래에는 문화적 역량이 국가나 국민의 '선진성'을 가름하는 잣대가 된다고 하니 전자에 논의된 소위 소프트웨어, 우리의 건축설계를 통한 '한류'를 기대하고 힘자라는 데까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박 : 말씀만으로도 큰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정보나 자료 등 국가 사회적 지원에 힘써 주시면 충분히 가능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문화의식'이란 측면에서는 아직 우리나라가 참 미흡하다는 느낌을 저희 건축계에서는 지울 수가 없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 : 글쎄요. 전문가들이 그리 느끼신다면 그렇겠지요.
그러나 문화의식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그 전문인들의 사회적 노력이나 역할도 되돌아 봐야 합니다. 어떻든 도시와 건축이 발달하면서 그런 의식도 깨어나리라 여기지만 그래도 다방면으로 전문인들이 앞장서서 계도도 하시고 홍보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젠 순수 예술 분야에서의 문화적 의식은 제법 올라 왔다는 느낌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그분들의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겠지요!
마치 자기의 권리 찾기나, 자기의 위치 만들기처럼...

박 : 앞으로 저희들도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런 자리도 그런 일환이라 여기고 이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들의 느낌과 의원님께서 느끼시는 것과는 차이가 많겠지요.

김 : 그렇지요. 시대적 상황과 어울려 여러모로 좀 시끄럽고,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아무튼 저는 우리 국가, 국민들의 저력을 믿고 있습니다.

박 : 얼마 전, 천호동(419-1)에서 건축사나 전문기술인이 없는 수선공사, 리모델링 현장이 무너져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큰 규모나 공공건물 등은 그래도 관리 전문인들을 활용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공공관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 안전을 위해 법적, 제도적 차원의 조치가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김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직도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그런 사각 지대나 취약한 영역이 있으면 서로 적극적으로 논의, 협조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생명과 재산에 관한 안전 확보는 국가나 정부의 책임이고 의무니까요.
건축전문인들, 특히 건축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안과 선도를 기대합니다.

박 : 장차 그에 따른 올바른 조치와 함께 그를 실천할 실효적 방안이 중요한데, 그런 건축, 환경을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은 무엇인지요?

김 : 저는 무엇보다 좋은 건축과 환경을 만들어 가려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의지나 의식이 중요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나 기술이 있어도 그를 활용할 마음이나 함께 할 공감대가 바탕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없으니까요.
정책이나 상황에 따라 그 공감대가 형성되면 우리 국민은 무서운 결집력을 보여 왔어요. 그래서 요즈음 '소통'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박 : 이렇게 의원님과 귀한 시간 함께 하는 것도 소통을 위한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입법의 주체이시고 조만간 그와 관련된 논의가 있으리라 예상도 되니 큰 힘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 그와 연관해서, 건축사 단체에서는 앞으로 건축의 전 생애관리, 혹은 생태적 관리라는 차원에서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입법화를 제안하려 합니

다. 혹시 그런 논의에 대해 알고 계시거나 의견이 있으신지요?

김 : 제안됨 법안들이 무척 많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성은 이해되고, 인정됩니다. 다만, 그와 함께 현실적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면밀히 되어야겠지요. 보다 정리된 자료를 보았으면 합니다.

박 : 곧 정리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장차 국가 사회의 공공재 관리라는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서 '관광, 레저선 산업진흥책'의 필요성을 역설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분야에서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탁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 기회를 빌어 다시금 지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 : 아까도 언급 되었지만, 앞으론 '문화'가 국력인 시대가 아닙니까!
앞에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건축'이 문화적 총아라는 말을 듣고 저도 공감한 바 있습니다.
건축이 우리 삶의 환경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인데, 그 발전을 위한 정당한 법안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지요. 아직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접하지 못했으나 때가 되면 보다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군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 문화적 선진국을 이뤄야지요.
좋은 기획 기대하겠습니다.

박 : 감사합니다.
실행적 검토 과정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그 기대효과에 대한 자료가 만들어 질 것으로 봅니다만, '업역'이란 관점을 떠나 국가, 사회에 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의원이시기 때문에 결국 법적 얘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 : 괜찮습니다. 좋지요 뭐!

박 : 건축계, 혹은 건축사에게 바라시는 게 있으시면?

김 : 방금 전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땅콩집, 듀플렉스 홈이라던가요? 신혼부부용, 혹은 전세난, 무주택자들의 좋은 대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계에서 고급 주택, 대단지 주택을 짓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사람들의 보금자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하해 보지요.
추도(섬)의 천연기념물인 공룡발자국 화석, 등록문화재인 옛 담장 외 여수의 대표적 자랑거리나 홍보사항은?

김 : 여수의 자랑은 역시 다도해의 보물인 섬입니다. 이순신장군의 얼이 서린 진남관도 있고 여러 가지 전설을 품고 있는 오동도와 원효대사가 도를 닦았던 향일암이 대표적인 관광명소입니다.
그러나 여수는 317개의 유·무인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공룡발자국도 사도섬에 있고 대통령이 추천했던 비렁길(벼랑길)은 거문도에 있습니다. 섬 자체가 천연기념물인 백도도 있습니다.
해양시대에 걸 맞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깊고 아늑한 휴식을 위해서는 여수로 오십시오.

박 : 저도 개인적으론 오래 전에 가본 후 근자에는 들리질 못 했는데, 오늘의 인연으로라도 좀 시간을 내야겠네요.
여수가 지역구이신만큼 2012년(5.12~8.12)의 '여수 엑스포'를 빼놓을 수 없는데, 그 가운데에서 의원님으로서 제일 관심을 두고 계신 것은 무엇인지요?

김 : 여수세계박람회는 우리지역 최대현안입니다.
내년 5월에 개최되어 3개월 동안 국내외의 관람객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박람회 사이트 조성을 위하여 2조 1천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개선을 위하여 철도와 도로를 개선시켜서 올해 하반기에는 3시간 중반에 여수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2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정부를 상대로 고속화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 여수세계박람회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사후 활용이 가능한 모멘텀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사후활용과 관련된 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수의 변화를 지켜봐 주시고 해양중심도시로 거듭나는 여수를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 건축/도시적 입장에서는 저희들의 일인 만큼 이미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큰 성공해야 할 사업이니 어떤 힘이라도 모아야지요.
(끝으로)국제적 행사와 사업을 통해 이룩한 접근성 개선 등 도시적 인프라의 구축만으로도 큰 업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정적인 사항이겠습니다만, 지속적 도시 발전을 위한 시설 및 환경적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 : 여수는 친환경생태도시와 해양관광중심도시를 동시에 지향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천국가산단의 공해로 인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최악이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알기에 여수시민들은 친환경에 대한 개념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도시교통체계에 IT를 접목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여 공해유발을 최소화하고 박람회장 내 일부시설에 대하여는 에너지 절약형 그린빌딩을 설립하는 등 도시전반에 대하여 선진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더 섬세한 도시디자인 개념을 접목시켜 친환경해양관광중심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전략으로 내세운 친환경, 유비쿼터스, 디자인, 문화 박람회란 취지로 보면 건축분야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차 범 건축계와의 상생적 프로그램을 위해 저희들도 적극적 모색을 해 보고픈 마음입니다. 적극적 후원을 기대하며 의원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 주시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및 정리 / 박찬정

변화하는 건축

Changes in Architecture

필자 : 윤기병, 원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by Yoon, Ki-byung

고려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아리조나대학과 호주 시드니대학을 졸업하였다. 삼희도시건축과 주택공사 주택연구소에 근무하였다. 현재 건축계 동향을 전하는 블로그 ABRIEF (http://www.abrief.net)와 지속가능한 사회에서의 공간환경 문제를 다루는 블로그 SUSTAIN(http://www.sustain.or.kr)을 운영하고 있다.

목 차

1. 변화하는 건축 실무 환경
Changes in Architectural Practice

2. 지속가능성에 따른 건축의 변화
Sustainability and Changes in Architecture

3. 기술에 따른 건축의 변화
Technology and Changes in Architecture

4. 새로이 출현하는 아이디어 들
Emerging Ideas in Architecture

변화한다는 사실 이외에는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는 세상이다. 우리 건축사들의 어려움은 여느 때 보다 그 정도가 심하다. 전 세계적 공통의 현실이다. 이는 건축사들이 처한 외적 시장 상황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불황이 아닌 환경의 변화이다. 세계화에 따른 국제 시장 진출이 모색되고 있으며, 국제 시장 진출을 위한 사무소 규모의 경제가 주목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특화의 필요성과 브랜드 확보가 절실해지고 있다. 또한 건축설계 이외의 디자인 시장으로의 진출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지속적 건축사의 영역에 대한 잠식과 함께 건축사 능력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고 있다. 젊은 건축사들은 건축사의 핵심 능력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미래 시장개척에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하에서 생존을 위한 건축계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 나고 있으며, 어떠한 대응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3. 기술에 따른 건축의 변화

3. Technology and Changes in Architecture

기술과 변화

건축과 건축사 역할 또한 변화한다. 과거 건축사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것이다. 산업 혁명 이후 건축사는 스스로 기술적 분야로부터 멀리 하여 왔다. 미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심으로 건축사 자신의 역할을 정립하여 왔다. 의학 분야의 경우 반대의 전략을 구사하여 왔다. 의학은 기술이 발달에 따라 자신의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분야를 만드는 방식으로 수용하였다. 반면, 건축사는 기술적 분야를 엔지니어에게 이양하는 방식을 취하여 왔다. 건축사 최고의 전문성은 비전과 종합성이며, 자신의 생각을 엔지니어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신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기술에 대한 더욱 더 커다란 의존이자 수용 능력 부재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술 중 디지털 기술은 이 시대의 핵심적 도구이다. 모든 변화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건축사의 저항은 수준 이상이다. 현실적으로 이제 디지털 도구 없이는 건축의 실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건축에서는 디지털의 사용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논의가 상존하고 있다. Peter Eisenman은 디지털을 이용한 현재 건축의 교육과 실무를 매우 위험스럽게 평가하고 있다. 그는 이를 마치 원숭이에게 타자기를 앞에다 놓고 시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혹평을 하고 있다. 지난 6월에 스페인의 IE School of Architecture가 주관한 전 세계 건축대학장이 만난 국제 건축교육의 미래에 관한 회의에서도 디지털 도구의 사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다. 디지털 미디어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부작용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 지속되었다. 이는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도구를 어떻게 경쟁적 우위의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는 사뭇 다른 태도이다.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열린 INTERNATIONAL ARCHITECTURAL EDUCATION SUMMIT 2011

디지털 기술 수용의 필요성

디지털 기술은 다른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다. 즉, 건축사의 능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도구이다. 건축사의 비정형적 사유와 컴퓨터의 잘 구성된 문제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이 결합될 때 건축사의 능력은 배가 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건축사가 디지털 기술을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사회와의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축사의 작업은 다양한 전문 분야와 소통을 필요로 한다. 다양한 전문가들과 의견과 자료를 교환하여야 한다. 건축사를 둘러 싸고 있는 업무 환경은 이미 모두 디지털화 되어 있다. 이에 따른 건축사 업무 방식의 변화는 불가피한 현실이다. 디지털화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미 의미 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진정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은 어떻게 디지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도구는 새로운 가능성과 시장을 의미한다. 미술계에서 백남준이 인정 받는 이유는 디지털 기술을 예술과 결합한 디지털 비디오 예술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였기 때문이다. 디지털을 이용한 다양한 건축 설계의 가능성을 탐구하여야 한다. 도구의 다름에 따른 새로운 스타일의 건축이 가능하다. 대표적 예로 Greg Lynn 등은 디지털 도구를 이용하여 전통적 형태를 넘는 설계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다. 도구의 능력에 따른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BIM을 이용한 친환경 설계가 주목 받고 있다. 파라메트릭 디자인 도구는 새로운 형태와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파라메트릭 도구의 개발이 설계의 기술력이자 경쟁을 위한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 기존 건축적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 개척이 가능하다. 디지털은 사이버 공간, 가상공간 등 새로운 공간을 창조 하였다. 새로운 공간 안에서의 역할 또한 물리적 공간 못지 않게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 밖에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건축사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회는 건축사의 위대함은 물론 생존에도 관심이 없다. 현재의 건축사가 사회적 역할을 하지 못하면, 새로운 부류의 건축사 혹은 다른 전문가들이 자리를 채울 것이다. 현재 건축사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과 시장의 요구의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변화하여야 한다. 현재 세계

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간환경의 문제 해결이 중시되고 있다. 공간환경에서의 환경문제 해결 없이 지구환경 문제 해결은 난망하다. 공간환경 전문가로서 건축사의 입지는 매우 중요해 지고 있으며, 도구적으로 BIM 기술을 이용한 다제 간의 협업이 중요시 여겨지고 있다. BIM을 도구로 한 다제 간의 협업을 통한 고성능 친환경적 건축설계가 중시되고 있다. 또한 효율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조정자의 역할이 중시 되고 있다.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

기술이 건축을 포함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기술 자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건축계에 디지털 기술은 이미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미 제도판과 도구 대신 컴퓨터가 그 자리를 대신하였으며, 종이에 의한 표현 방식을 중심으로 한 2D CAD도 BIM의 강한 도전을 받고 있다.

BIM에 의한 변화

급격한 BIM의 보급은 BIM이 2D CAD에 비하여 기술적 우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다. 친환경 건축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도구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건축은 건축사의 비전만으로 현실화 되기 어렵다. 과거 건축사의 노력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것은 충분한 기술적 뒷받침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거와 같이 건축사 주도의 설계와 이를 기술적으로 풀어가는 상의 하달형 작업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친환경 건축을 위하여는 BIM이라는 도구로 여러 전문가가 협업을 통한 작업 방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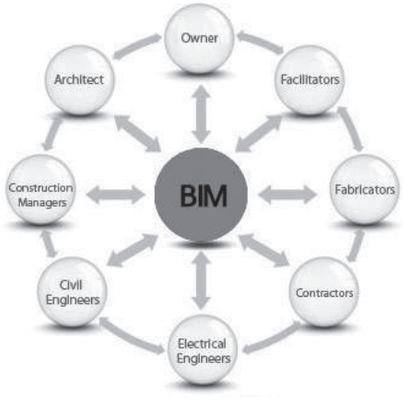
BIM에 의한 설계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친환경 인증을 위하여는 BIM에 의한 설계와 건물 성능 시뮬레이션을 필요로 한다. LEED 인증을 위한 자동 문서 작성 기능으로 작업의 효율화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LEED 인증을 위한 비용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제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직접 전송하여, 인증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식이 실현되고 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예측치와 다른 건물의 성능 문제이다. 이는 시뮬레이션 모델의 부정확성의 가능성과 함께 기타 건물 운영에 따른 데이터의 부족함에 따른 것이다. 친환경 인증에 따른 건물 운영 데이터 제출이 의무화 되고 있다. 이는 BIM 모델과의 연동한 건물운영 정보 수집이 불가피해 지고 있다. BIM과 건물 센서 네트워크를 갖추어 건물의 실제 상황 정보를 수집하고 제어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센서는 온도와 공기의 질 등에 관한 운영정보를 읽는다. 공간에서의 사람의 유무, 컴퓨터, 프린터, 조명, 전화기 등의 존재 여부와 사용 현황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들 정보 분석을 통한 에너지 사용과 낭비 최소화 등의 운영으로 연계되고 있다. 더 나아가 건물의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도구로 확대되고 있다. 즉 BIM이라는 도구를 중심으로 한 건물 데이터를 체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시설물 관리로의 연결이 진행되고 있다.

BIM이 여러 전문가가 함께 작업하기 위한 도구이다. 이 도구를 사용하여 기획단계로부터 설계 시공, 그리고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업을 하는 작업 방식을 IPD(Integrated Project Delivery)라고 이야기 한다. 이와 함께 BIM에 대한 정보를 시간과 공간적 제약 없이 볼 수 있는 정보의 저장 및 처리 유통 방식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함께 주목 받고 있다.

IPD

IPD(Integrated Project Delivery)는 BIM을 중심으로 한 협업 작업 방식을 이야기한다. 즉 BIM이라는 도구에 종합적 정보를 저장하며, 이를 협업을 통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낭비와 중복적 작업을 없애며,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협력을 추구한다. IPD는 전통적인 설계-시공 방식에 비한 효율성을 추구한다. 피드백 과정을 줄일 수 있으며, 빠른 디자인 대안에 대한 평가와 협력을 요구한다. 디자인과 시공 데이터로부터 시설관리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건축사는 프로젝트 진행의 조정자의 역할이 강조된다. 건축사는 다제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어 비용절감과 함께 에너지 분석, 공정, 시설관리 등을 통한 프로젝트 성능 향상과 효율성 증진을 추구한다. 디자인과 시공의 보다 밀접한 통합을 의미한다. 시공 과정에서도 디자인이 바뀔 수 있다. 시공 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디자인 개선의 노력과 건축사의 유연한 사고를 요구한다.



IPD의 개념도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은 BIM을 이용하기 위한 컴퓨팅 환경의 변화이다. 이는 첫째, BIM은 고성능 컴퓨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작업자 모두에게 고성능 컴퓨터를 제공한다는 것은 낭비이자 경제적 부담이다. 소수 고성능 컴퓨터를 중심으로 경제적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컴퓨터 성능이 많이 향상 되었으며, 이제 2D CAD의 활용에는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분석, 랜더링 등의 작업은 고성능 컴퓨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정보의 공유를 위한 것이다. BIM은 하나의 모델을 중심으로 협업으로 진행한다. 여러 작업자들은 하나의 BIM 모델에 작업하여 모델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의 경우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작업을 하여야 한다. 분산된 프로젝트 팀이 마치 한 오피스에서 작업하는 것과 같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식이다.

새로운 기술의 변화

산업 혁명은 대량생산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였다. 제품의 대량생산 기술은 산업과 사회의 일대 변혁을 일으켰다. 건축 분야의 경우 다양성을 추구하는 특성과 함께 개방적 실무 환경에 따른 표준화의 어려움 등으로 프리파브 건축과 같은 대량생산의 노력에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 제조 기술이 반대 방향으로 다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3D 프린터 기술이 변화의 대표적 기술이다. 단일 품목을 마치 대량 생산품처럼 만드는 기술의 개발이다. 공장에서의 대량생산체제 못지 않은 산업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를 한 후, 프린트를 선택하면 기계가 서서히 물체를 만들어 간다. 이 기술은 공장이 필요 없으며, 작은 물체의 경우 일반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다. 현재 플라스틱이나 레진, 그리고 금속 재료를 가공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0.1mm 정밀 가공이 가능하다. 물론 1970년대 컴퓨터와 같이 아직 학계와 실험실에서의 적용 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가 오늘날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듯이 3D 프린터는 빠르게 보급되고 있으며 기술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미 3D로 설계한 제품을 만들어 주는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Ponoko사는 Personal Factory 4 서비스를 통한 사람들이 설계한 물건을 만들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Google사와 손을 잡고 SketchUp을 이용한 제품 설계 공모전을 열고 있다.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3D 프린트가 가능한 무료 3D 파라마트릭 모델링 도구가 등장하였다. MIT 미디어 랩의 Neri Oxman 교수는 콘크리트와 폴리머, 그리고 금속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프린트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프린터 헤드를 로봇의 팔과 연결하여 다양하고 유연한 방식의 활용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utodesk사는 123D를 출시하였다. 현재 이 제품은 무료이다. Ponoko사와 Techshop 등 3D 프린트 서비스를 하여 주는 회사들과 손을 잡고 3D 모델을 만든 후 제품을 만들어 주는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 3D 프린트 기술을 사용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집을 지어주는 서비스를 하여 주는 벤처 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현재 이 기술을 사용하여 건물 벽을 만드는 특수 콘크리트를 만든 후, 이를 연결하여 주택 전체 기초 만들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3D 프린트 기술을 활용할 경우 건축에서의 다양한 장식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지금까지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건축의 산업화에 다양한 적용이 가능

Autodesk사가 시작한 3D 프린트 소프트웨어 123D

결론

기술은 현대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중심적 도구이다. 지금 디지털 기술에 의한 사회의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건축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형태를 넘어 건축의 가능성과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제 건축은 단순히 정적인 존재가 아닌 파사드가 변화하며 인간과 대화를 하는 스마트 환경이라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물리적 공간을 넘어 가상 공간의 개념과의 결합으로 공간의 개념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기술에 의하여 주도되는 변화는 아무도 가 보지 않은 새로운 세상이다. 과거 건축사에게 기술은 다른 전문가의 탄생이자 영역의 축소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은 건축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정형화된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술이자 비정형적 사유를 할 수 있는 건축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변화하는 기술에 마지 못해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를 우리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구상하고 리드해 나아갈 것인가의 마음 먹기에 따라 미래는 변화할 것이다.

문화마케팅과 조명의 역할

The cultural marketing and role of lighting

필자 : 김국선, 김포대학 교수
by Kim, Kook-sun

홍익대학교 미술학사와 산업미술대학원 미술학석사, 연세대학교에서 이학박사를 취득하고, 산학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디자인 개발로 1999년에는 '중소기업 기술지도상'을 수상하였다.
2007년 서울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초청작가로서 참여하였고, 2008년과 2009년 양천구 '디자인거리' MP로서 활동하고, 서울시 디자인닥터로 우수디자인 인증제품 지도를 진행하였다.
현재 서울시 디자인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8년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목 차

1. 문화마케팅과 조명의 역할 **손장복** 동양대 교수
2. 미디어 파사드–건축과 조명의만남 **방선주** 숭실대 석사
3. 도시 공공디자인과 빛환경 **김국선** 김포대 교수
4. 도심 보행자중심가로의 시퀀스 경관과 경관조명 연출 **이지은** 홍익대 석사
5. 조명디자인과 컬러 **서혜옥** 중앙대 교수
6. 도시 빛환경과 조형성 **김영진** 이화여대 석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종합적 체제 하에 변화하는 유기적 시스템의 도시는 다양성과 개성이 중시되는 도시의 경쟁력 구축을 위해 환경개선을 이루고, 그를 통한 거주민의 삶의 가치추구와 직접적인 관계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진행되는 공적인 디자인영역인 공공디자인은 공익창출의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디자인 계획과 사업, 또 그 결과물을 지침하며, 이는 공공의 편의성과 안전성, 쾌적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도시의 빛환경은 야간경관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경관계획 하에 이루어지나, 구현하고자하는 추진방향은 공공성이 중시되는 공공디자인의 목표와 일치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도시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문화산업의 빛환경 개발방안과 거주민의 안전성을 위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시스템의 빛환경, 그리고 개선하고자 실시되는 조명계획이 지니는 빛공해 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논하여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이 야간경관을 통하여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희망을 전달하고자 한다.

3. 도시 공공디자인과 빛환경

3. Urban Public Design and Light Environment

도시 공공디자인과 야간경관의 빛환경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종합적 체제하에 변화하는 유기적 시스템의 도시는 다양성과 개성이 중시되는 도시의 경쟁력 구축을 위해 환경개선을 이루고, 그를 통한 거주민의 삶의 가치추구와 직접적인 관계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진행되는 공적 디자인영역인 공공디자인은 공익창출의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디자인 계획과 사업, 또 그 결과물을 지침하며, 이는 생활환경을 심미적 편리성과 합리적 기능성을 지니는 환경으로 디자인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도시의 빛환경은 야간경관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경관계획 하에 이루어지나, 구현하고자 하는 추진방향은 공공성이 중시되는 공공디자인의 목표와 일치한다.

공공디자인의 범위는 도시 및 지역공간의 공적영역을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이용하기 쉽게 계획하는 통합적 디자인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며, 사적영역이라도 공공적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공공디자인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디자인은 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이해하고, 그 공간을 이용하게 되는 시민의 행태적 문제와 심리적 접근을 통하여 구체화시켜야하며 결과적으로 환경의 미와 기능이 경제성과의 통합적 가치를 지님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구현하는 구체적 조형활동인 것이다. 그동안 빠른 경제성장과정에서 경제와 효율성을 우선하여 공공영역의 디자인은 사적영역의 디자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으며, 비효율적이었다.

공공디자인은 흔히 시행주체, 실행주체, 참여주체의 3자에 의해 작동한다. 공공디자인의 시행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다. 실행주체는 일반적으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나 대학연구소 등을 비롯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의 건축이나 조경분야가 포함되며, 특성에 따라 공사실행과 관련하여 토목과 전기공사 분야가 관여되기도 한다. 아울러 참여주체로는 다양한 이해관계, 즉 지역주민과 공동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를 등을 언급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은 문제의 논의 과정에서 많은 참여주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하는 과정은 매우 의미있고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의 범위를 한정하고 문제해결의 방향의 구축과 디자인의 창의성을 지니는 실질적 디자인을 수행하는 과정은 디자이너의 전문성의 영역이다. 디자인 수행 결과의 실행은 매우 구체적 기반으로 진행되어야하기 때문에 결국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에 따른 결과와 지속적 유지관리라는 측면에서 행정체계 내에서 구현된다.

인천도시축전기념관, 건축 야경

한강청담대교 야간 조명, 도시구조물 야경

뉴델리 바하이템플, 문화재 야경

공공디자인 지원 행정체계인 디자인 서울에서는 2008년 5월 "World for Design Seoul" 디자인 가이드라인 선포에서 공공 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의 5개 영역 외에 "야간 경관"을 포함시켜서 6개 영역으로 확대하고 야간경관은 다시 건축야경, 도시 구조물 야경, 문화재 및 자연야경으로 세분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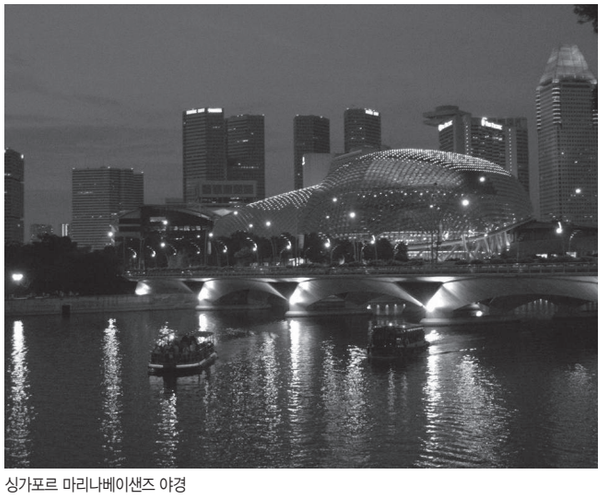
야간 경관이 조성된 도시의 빛환경은 도심을 밝히고 안전하게 하고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야간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시의 품위를 높여 줌으로써 도시문화의 척도가 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역사적인 건조물이나 교량을 조명하거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경관조명디자인에 역점을 두어 도시 문화 경쟁력 확보와 관광자원으로의 아름다운 도시 조성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공공디자인분야에서의 조명의 중요성은 조명디자이너와의 전문적 체제의 협력과정을 거쳐 경관디자인이 이루어져야하며, 불특정다수의 다양한 디자인 수혜자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기존 도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경관법에 따라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이 다루어지고 있으나, 빛과 관련된 야간경관의 정책추진 방향과 원칙만이 언급되기 쉬우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구상이나 야간경관 연출유도 대상 등을 지정하는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보완책으로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

홍콩 야경

인의 한 영역으로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 그러나 신도시의 경우 건설 단계에서 건설 후 관리를 담당하게 될 명확한 지자체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만이 유일한 야간경관 제어수단이나 현실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경관조명 기본 계획으로는 거대 신도시의 세부적인 경관조명 실행이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신도시 계획과 건설에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한 영역으로서의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은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총합적 관계 구축을 위한 수단으로 도시의 맥락에 따른 조닝과 각 조닝에 대한 레벨의 설정, 건축물과의 관계, 기타 공공시설물과의 관계, 식재 등과의 조율, 환경색채와의 종합적 관계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 복합적 설정작업이다.

경관조명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도심의 야간경관 추진방향은 공공디자인이 추구하는 바와 상당부분 일치하며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사항은 첫째, 공공성이다. 구체적으로 사적조명보다는 공적조명을 우선시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거리와 건축물의 맥락에 맞는 조명을 유도함으로써 무모한 밝기와 경쟁을 지양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할 것이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야경

파리샹제리제거리 야경

중국상해 야경

둘째는 조명을 통한 도시안전성의 확보로, 범죄나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빛환경 계획은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제어방법이다. 각종 보행로와 공원의 조명등 설치 및 이의 기준 등이 고려되어야하며, 유지관리의 문제와 주변환경이나 시간 및 계절과의 관계성도 중요한 검토사항이다.

셋째는 에너지효율의 경제성을 고려한 친환경 조명도시의 구현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조명방식과 기구의 사용, 시간대별 조명의 제어, 필요부분에만 빛을 보내는 적정한 배광의 선택, 새로운 조명 신기술의 활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도시 경쟁력확보를 위한 관광산업의 빛환경

이러한 공공디자인의 환경 개선의 빛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이 즐기고 체험하는 조명문화의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고, 현재의 가이드라인 수준을 넘어 도시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도시 빛환경 조성에 대한 많은 논의를 진행하여야할 것이다. 즉 기능과 효율성에 우선한 도시 조명계획이 아닌 조명 연출을 통한 도시이미지 관광자원화로 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 확보도 가능할 것이다.

도시의 빛환경이 조명 연출을 통하여 참신하게 디자인적으로 개선되면 도시를 찾는 방문자는 도시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며, 또 찾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들므로 관광효과가 증대되며 나아가 관광 수입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이유로 18세 초(1802년) 파리의 콩코드 광장에서 탄소아크 가로등을 점등한 인공 광원을 이용한 최초의 대규모 경관조명이 시작 된 후 각 나라가 앞 다투어 도시 빛환경 조성을 시도하고 있다.

야간 도시경관 여행을 위한 빛 환경 연출과 특별 프로그램 개발로 프랑스 파리는 물론이고 홍콩, 싱가포르, 중국 상해 등 도시 브랜드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서울시도 월드컵경기(2002년), 아셈총회 (2009년), 메트로폴리스총회(2009년) 개최에 대비하여 서울의 야경을 국제도시에 걸맞게 관리하기 위하여 1998년 야간경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1999년에는 야간경관조명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건축상에 "야간경관부문"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이때 코스모스타워가 서울시 건축경관 조명상 금상을,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동상을 받았다. 성수대교는 서울시 교량조명 1호가 되었고, 세종문화회관 조명이 서울시 조명건축물 1호가 되었다.

2008년에는 서울시가 국제도시조명 연맹에서 국제조명상 등에 당선되었다. 국제도시조명 연맹은 세계 도시 간 디자인 경관과 도시조명

경회루 야경

그리스파르테논신전 야경

빌바오구겐하임미술관 야경

루브르박물관 야경

발전을 위하여 회원도시간의 경험과 기술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현재 56개 도시와 20여개의 관련 단체가 가입되어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0월 29일 멕시코 산루이스 포토시에서 열린 연례총회에서 청계천 복원 야간 경관으로 수상하게 되었으며 친환경도시 및 시민과의 소통, 지속가능성 등으로 인정받았다.

도시의 랜드마크와 문화재의 빛환경을 조성을 위한 경관 조명 연출은 문화도시 구축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가능하도록할 것이다.

문화재 야경은 그 문화재가 갖는 역사성과 스토리를 감안하여 색상이나 디자인 컨셉을 정하고, 주로 투광조명 방식을 사용하며 가급적 도시공간에서 조명의 수량은 줄이되 효율은 높여 거리의 미관을 향상시키고 연색성이 좋은 조명을 확대하여 가급적 자연스러운 빛을 추구하도록 하여 문화재 자체의 아름다움을 자랑할 수 있게 조명하여야할 것이다. 양적 조명보다는 질적 조명을 지향하여 예술성을 손상하지 않는 램프 사용과 조도 및 휘도의 설정이 각문화재의 특성과 주변 환경에 따라 적절하고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할 것이다.

충무교 수변 산책로

통영대교 수변 산책로 조명

시드니오페라 음악당

시드니오페라음악당 빛축제

관광산업 공공영역으로서의 수변공간은 문화재가 형성하는 도시의 문화적 경쟁력에 버금가는 요소로, 다양한 시설구비와 함께 다목적 활동이 가능하여 지역주민의 친수공간과 생활권 여가공간으로써의 역할 외에 열섬현상을 막아주는 쾌적한 도심환경 개선을 이룰 수 있으며 여행형 여가를 형성하여 관광권 여가공간의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도시의 수변공간 야간조명 연출은 여가문화 구축을 위한 매우 효과적 빛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많은 세계적 국제도시가 수변공간의 장점을 조명계획으로 극대화시킴으로써 도시의 관광자원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빛 축제, 박람회 및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조명 연출 등도 함께 구축하고 있다.

도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빛환경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는 최첨단 범죄 예방 환경설계로, 도시 건설단계에서부터 방어적 디자인을 통해 주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설계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물리적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의 야간조명 계획을 통한 빛환경 조성은 도시의 안전성 확보에 가장 주요한 범죄예방환경 설계가 되는 것이다.

범죄안전 환경 조성을 위하여 균등한 밝기를 확보할 수 있는 조명계획이 필요하며 조명기기의 최대조도 및 최소조도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 밝기를 우선하여 계획된 조명환경은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어두운 공간을 만들어 오히려 범죄자의 은폐 공간을 제공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서 범죄 및 범죄 불안감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조광원의 밝기는 눈부심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하며 균일한 밝기가 유지되고 명암의 차이가 적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진출입 공간, 표지판, 입구와 출구는 조명을 충분히 밝힐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가로등의 확보는 범죄예방의 기초적인 환경 구축으로, 이를 위하여 적절한 가로등의 수량 및 간격의 확보, 주변 보조광원의 위치를 고려한 위치 선정, 보행로의 음영지역 제거, 유지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한다.

야간의 이용도가 떨어지는 경우주택가 주변의 골목, 공터 등에 가로등을 집중 배치할 필요가 있다. 보행로에서 그늘진 곳, 보이지 않는 곳에 조명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계획하며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 등으로 유입되는 공간과 안내 표지판, 인근 주거공간의 입구와 출구는 조명을 충분히 밝히도록 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15m 이상 충분한 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밝기를 유지 하되 낮은 조도의 조명을 많이 설치하여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등에 조명을 설치하고 도로에 설치된 조명은 10m 전방에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조도를 유지해야 하며 조명을 가리지 않도록 조명 주위의 나무 등 식재에 관한 계획도 필요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야간경관 빛환경의 공해

도시는 과학기술의 진보와 다양한 생활 행태에 따라 24시간의 변화하고 살아 움직이는 도시로 변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환경에 있어서 야간 조명의 역할은 점점 더 확대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강한 빛을 발하는 상업시설조명, 옥상광고탑, 건물 자체의 간판, 부적절한 가로등 등이 빛공해를 발생시켜 옥외조명을 저해하고 새로운 야간 도시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빛공해란 야간조명으로 인한 밤하늘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이 용어는 원래 천문학에서 비롯되었다. 즉 빛공해란 양호한 「조명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조명영역을 벗어나는 「새는 빛(spill light)」에 의해 장해를 받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새는 빛이란 조명기구로부터 나오는 빛이 조명을 목적으로 하는 조명대상의 영역 밖으로 비치는 빛을 말하며, 일반적인 빛공해가 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관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상향조명(uplight), 과조명(overlighting) 등의 부적절한 야간조명은 도시의 경관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

둘째, 거주자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야간의 강렬한 옥외 조명광이 주거내부에까지 침투함으로써 거주자의 안면, 프라이버시 등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고, 이는 인체의 질병발생과 정신적장애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셋째, 보행자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가로등이나 투광기의 선정과 설치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도가 얻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 불쾌한 눈부심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교통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도로주변시설교량 등의 과도한 조명은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영향을 미쳐, 교통안전에 방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으로써 주변에 사는 동식물의 육성기능을 교란 시키는 것이나. 곤충의 유층이 발생하는 것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섯째,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야간의 대도시에는 불빛이 넘칠 경우 이로 인한 조명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여 에너지 낭비적 요소가 된다.

이러한 빛공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 조명의 환경 조성은 주위의 사회적 상황 및 자연환경에 적합하면서, 사회적 목적에 알맞도록 조명의 안전성 및 효율성이 확보되고, 쾌적한 경관 및 주변 환경에 공해가 없도록 충분히 배려 되어있는 조명계획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옥외조명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도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조명환경을 실현하기 위해서 빛공해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약 100개 이상의 도시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조명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옥외조명 조례가 제정되었다. 유럽에서도 빛공해에 대한 생활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국제조명위원회(CIE)를 중심으로 빛공해 방지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빛공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1998년 환경청에서 발표한 빛공해 대책 가이드와 더불어 각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양호한 조명환경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도시조명의 빛공해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고 관심있는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으며, 일본에서 1994년부터 빛공해를 정부차원에서 인식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지방자치단체별 조명계획기준과 조례제정을 장려하였듯이, 우리나라도 정부차원의 정책적 접근과 관련 규정 · 기준 · 조례 · 제정 등 법적 접근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와 같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함께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야간 빛환경 조성의 디테일 계획으로서의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은 빛환경이 조성되는 공간을 고려하여 조명연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만이 지니는 문화적 이미지 구축으로 외부지역 여행객 유입을 통한 경제적 가치 형성이 이루어지고, 범죄예방을 위한 구체적 빛환경 구성은 안전한 도시로의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빛환경 조성을 위한 조명 계획은 특정한 범위의 지구 또는 지자체 단위의 도시를 기준으로 총체적 측면에서 빛의 분포도에 따라 도시의 영역을 단위 지역별로 계획하면 도시의 다양한 이야기를 품을 수 있을 것이다. 대개의 경우 도심지역에서는 역동적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빛의 레벨을 중시한 가이드라인이, 부도심지역에서는 고층빌딩 밀집 지역이나 부도심 중심가로에서 연출할 수 있는 입체적인 빛의 효과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을 펼쳐 블루프린트를 만들 때, 앞서 언급한 빛공해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는 사항도 고려하여야 함을 기억하여야할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실무를 위한 도서발간!!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KOREAN ARCHITECTURE 2010」
「건축법령 실무해설 시리즈」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 회원 및 건축 실무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각종 도서를 제작실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건축 업무를 함에 있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건축법령 실무해설 시리즈」를 발간했으며,
반세기 한국건축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그동안 게재된 원고를 발췌해 수록하여 제작한「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현재의 건축문화를 기록하고 다음 세대 건축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KOREA ARCHITECTURE 2009」·「KOREA ARCHITECTURE 2010」을 발간하였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KOREAN ARCHITECTURE 2009」

2009 한국건축문화대상 출품작 및
그린홈 특집 건축작품 사례 등을 수록
면수: 388쪽 / 가격: 35,000원
올컬러

「KOREAN ARCHITECTURE 2010」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 출품작 및
해외진출 건축작품 사례 등을 수록
면수: 468쪽 / 가격: 40,000원
올컬러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45년간 '건축사'誌에 수록된 칼럼,
시론, 논문 등을 엄선하여 집대성
면수: 695쪽 / 가격: 30,000원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KOREAN ARCHITECTURE 2010」
2권 세트 구매 시 60,000원(배송비 포함)

※ 구입문의: 대한건축사협회 홍보편찬팀(02-3415-6862~4)

「건축법령 실무해설 시리즈」

- 건축법 실무해설집, 건축법령 질의회신, 건축관련 소송판례집, 건축법령집 등 총 4권으로 구성
- 건축법해설, 질의회신 및 건축관련 판례를 분석·연구·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 면수: 건축법 실무해설집(992쪽) / 건축법령 질의회신(542쪽)
건축관련 소송판례집(395쪽) / 건축법령집(1013쪽)
가격: 인터넷 신청 회원 70,000원(4권 세트),
비회원 100,000원(4권 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문의: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제도팀(02-3415-6832~4)

ARCHITECTURE
TRAVEL

정병협 나은 건축사사무소
by Chung, Byung-hyup, KIRA

· 홍익대학교 건축과 졸업
· 건축사지편찬T/F 위원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下)

Dreaming that my life is free

1월 18일~1월 19일, 뭄바이(Mumbai)

버스 운전사가 세 번이나 차를 가다서다 하며 말썽을 부린다. 나래가 India lonely planet을 보고 운전사에게 목적지까지 계속 가라고 우겨서 겨우 우리가 바라는 곳에 내릴 수 있었다. 예정대로라면 8시경에 도착해야 하는데 3시간가량 더 걸렸다. 인도 제 1의 경제 도시라 그런지 뭄바이(Mumbai)는 교통량이 많고 시끄러운 경적소리가 정신을 빼 놓는다.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오는데 온통 자동차 물결이다. 가까스로 White pearl hotel에 짐을 풀어 놓는다. 잠시 밖으로 나가 호텔 앞에 있는 바다 풍경을 감상하고 돌아온다. 우리 방이 소음이 심해 나가보니 세탁실 옆이었다. 프론트에 가서 체인지 해달라고 하니 우리가 동양인이라고 얕잡아보는지 까칠하게 굴어서 언성을 높였으나 방을 옮겼다. 점심은 델리도바에서 하기로 하고 택시를 탔다. 사람이 붐벼 금방 맛있는 집임을 알 수 있었다. 프라운도 시키고 커리도 시켜 맛있게 먹었다. prawn은 실컷 먹는다. 식사를 마치고 거리를 걷다가 집사람에게 이끌려 베네통을 잠깐 들렸는데 세일이라고 사람이 많이 붐볐으나 살 것도 없다. 대낮부터 쇼핑하는 여유를 부린다.

릭샤를 타고 성 토마스 성당에 내려 관광을 시작한다. 나래와 집사람은 코코넛을 사서 마신다. 인도 와서 처음 마셔본다. 성 토마스 성당은 밖에서 볼 때는 허술하고 보잘 것 없이 보였는데 내부에 들어서니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특히 천정의 아치구조가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계속 걸어서 뭄바이 대학으로 갔는데 건너편에 운동장이 보인다. 땅덩어리 큰 나라답게 캠퍼스가 상당히 크다. 영국 식민지 시절에 지은 법원도 감상한다. 뭄바이 대학교의 시계탑도 감상한다. 이 건물들은 모두 유럽풍의 고딕양식으로 지어져 있었다. 우리와는 달리 영국 식민지 시절의 건물도 보존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이채롭다. 덕분에 아름다운 고건축물의 멋을 감상할 수 있어 좋다.

인디아게이트의 일출

저녁 후 어두워질 무렵 타지마할 호텔 야경을 감상하러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 혼잡하였다. 연인들이 많았고 호텔 주변 강가를 한바퀴 도는 영업용 백마차도 많았다. 강가에 비치는 반영과 함께 아름다운 타지호텔이 세계적 명성에 맞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얼마 전 폭파사고가 있어서 그런지 경비가 삼엄했지만 호텔 입구는 휘황찬란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Sea place hotel bar에서 밤늦게 까지 오붓하게 맥주잔 부딪치며 즐겁게 마셨다.

1월 19일

뭄바이대학교내의 시계탑

뭄바이 철도역사

혼자 일찍 기상하여 인디아 게이트 앞 해변으로 걸어가 붉게 떠오르는 일출을 감상한다. 갈매기가 수없이 몰려다녀 해변은 더 아름다웠다. 까만 갈매기가 아침 해의 용솟음을 축하하기라도 하듯 신나게 비행을 하고 있다. 한 어부가 그물 낚시를 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다. 어느덧 날이 환하게 밝아온다. 호텔에 들렀다가 호텔 앞에 있는 제과점에서 빵으로 아침을 대신한다. 뭄바이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는 곳이다. 이 제과점은 여러 가지 빵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빵처럼 맛있었다. 출입구에는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서서 출입문도 예의를 갖추고 열어준다.

식사 후 택시를 전세 내어 뭄바이의 유명 관광지인 빨래터로 향한다. 이곳은 인도인의 신분 제도를 확실히 볼 수 있는 곳이다. 천민은 이곳에서 태어나 숙식과 일을 하며 죽을 때까지 머문다고 한다. 뭄바이 시내의 모든 빨래거리는 여기서 처리된다고 한다. 종종 리어카에 커다란 부피의 빨래감을 싣고 가는 모습들을 보면 애처로워 보이기도 한다. 이곳저곳 정신없이 사진 찍느라 또 이산가족이 되었다. 빨래터 안은 돈을 주고 들어가야 하는데 부르는 것이 값이다. 반값으로 흥정하여 들어갔다. 작업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여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다. 웃옷을 거의 다 벗고 땀을 뻘뻘 흘리며 젊은이건 노인이건 모두 섞여서 군말 없이 묵묵히 일만 한다. 사진을 찍고 나오는데 집사람과 나래가 나를 한참 찾았는지 화난 표정이다. 두 사람을 달래고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타고 간디 박물관을 찾아가는데 택시 운전사가 지도를 제대로 볼 줄 몰라 주변 골목을 몇 바퀴 더 돈 후에야 들어갈 수가 있었다. 건물은 소규모의 아담한 규모였는데 패널과 디오라마 형식으로 꾸며져 있었는데 간디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알기 쉽게 표현하였다. 당신은 나를 묶어둘 수도, 고문할 수도, 심지어 죽일 수도 있지만 , 결코 나의 정신을 가둬둘 수는 없다고 말했던 위대한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정신의 위대함을 다시 발견한다.

박물관을 나와 다시 차를 타고 해변 공원으로 갔다. 부산의 해변처럼 높은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날씨가 좋아 관광하기가 아주 좋았다. 매점에서 얼음 주스를 사서 나래가 맛있게 먹고 있어 나도 하나 더 사먹는다. 다시 택시를 몰고 뭄바이 철도역으로 간다. 식민지 시절에 지었는지 역사가 특이하다. 이어서 길거리의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데 수염을 기른 주인장이 물건 파는 과묵한 표정이 인상깊었다. 저녁도 하고 맥주도 마실 겸 유명하다는 호프집에 갔는데 외국인들로 초만원이다. 기분 좋게 마시고 뭄바이의 밤을 걸어본다. 내일은 편안하게 머물며 휴양할 수 있는 고아로 향한다.

1월 20일~1월 24일, 고아 (GOA)

1월 20일 고아로 가는 새벽 열차 안에서 서브웨이 샌드위치로 아침을 해결하고 침낭 속으로 들어가 단잠을 또 잔다. 창밖에 산들이 많이 보인다. 기차를 탈 때 걱정스러운 것은 안내방송을 하지 않아서 목적지가 종착역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가 내려야 하기 때문에 초긴장 상태가 된다. 안내 표지판을 못 보면 영락없이 지나치기 때문이다.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것이 결국 종착역(마르가오역)까지 갔다. 다행히 목적지 고아까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역 밖 광장은 햇볕이 뜨겁고 강렬하여 나무 그늘을 찾아야 했다. 릭샤꾼들이 담합하여 터무니없이 바가지요금을 부르는 통에 할 수없이 큰 길로 나가 지나가는 릭샤를 불러 적당한 값에 고아까지 갈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발생하였다. 릭샤꾼은 고아의 해변 중 하나인 꼴바(Colva) 해변에서 내리라고 한다. 숙소까지 가려면 웃돈을 더 내야한다는 것이다. 결국 웃돈을 주기로 하고 목적지인 가든코티지(Garden-Cottage)까지 힘겹게 숙소에 도착한다.

숙소는 단아한 단층 구조였는데 잔디와 갖가지 꽃나무들, 그리고 키 큰 야자수가 높이 솟아 있다. 나무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무 기척이 없다. 집을 비워놓고 나가도 아무 탈이 없는 모양이다. 옆집에 물어보니 잠깐 저쪽집으로 갔다고 말하며 주인이 미스터 올란도라고 한다. 무작정 미스터 올란도를 찾아 숲속길을 나서야 했다. 한참 만에 그를 찾아 가운데 방을 얻을 수 있었다. 시골풍의 전원적인 방에서 흰셔츠를

고아 해변의 야자수가 있는 노을풍경

빤짐의 시립공원에 있는 동정녀 마리아 성당

빨아 뒷마당 빨래줄에 널어 놓고 보니 시골집에 온 듯 마음이 개운하다. 공기가 맑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자연이라서 그런지 피로가 쉽게 풀어진다. 옷을 갈아입고 좁은 길을 걸어 해변으로 산책을 나간다. 해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즐기고 있었는데 새로운 놀이문화가 눈에 들어온다. 보트에 줄을 매달고 속도를 내면 뜨는 패러글라이딩이 날고 있었는데 하늘 높이 공중에서 재주를 부리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하다. 대단한 담력을 갖고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구경을 하다가 해변 가에 있는 부메랑 레스토랑에서 늦은 점심을 시원한 맥주와 함께 먹는다. 그러고는 선 베드를 하나 빌려 일광욕을 하면서 인도 최고의 휴양지 고아 해변에서 편하게 누워 일몰을 본다. 집사람과 딸내미를 모델로 아름다운 석양 노을을 이리저리 담아보기도 한다. 모델도 힘들고 좋은 앵글을 잡기도 어렵다. 어두워 질 무렵 수박, 오렌지, 바나나 등 과일을 사들고 숙소로 돌아온다. 나무문을 열고 들어와 창 밖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과일을 나눠 먹는다. 모기장이 쳐진 침대에서 다소 헌혈도 하면서 새벽잠을 설쳤지만 그래도 잘 잤다.

1월 21일

새소리, 닭울음소리, 종소리 등 온갖 자연의 소리가 어울린 아침풍경. 고아에서의 이틀째 아침을 맞는다. 숙소 주변을 산책한다. 야자수 나무 사잇길과 이슬이 맺혀있는 좁은 풀길을 걸으니 상쾌하다. 대문 밖에는 새끼돼지가 우리 안에서 꿀꿀대며 놀고 있다. 바나나 등 먹다 남은 과일을 던져주니 신나게 먹는다.

10시경 아침을 먹고 팔로렘으로 갈까 하다가 시간이 너무 흘러 베나울림으로 릭샤를 타고 갔다. 스쿠터를 타고 가자는 나래의 제안은 면허증이 없어 물거품이 되었다. 베나울림 비치는 꼴바 비치보다 한적하고 조용하여 좋았다. 야자수도 멋지게 늘어서 있다. 일단 선베드를 렌탈하고 시원한 맥주로 목을 축인다. 누워서 해변을 보니 그냥 편하다. 파도타기를 하면서 놀기도 한다. 선베드 아래 견공들이 누워 낮잠을 잔다. 소를 모는 견우노인도 해변을 장식한다. 견공, 우공들이 함께하는 백사장은 인도가 아니라면 결코 볼 수 없는 풍경일 것이다. 꼴바까지 걷기로 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1시간 정도 걸었다. 해변을 걸어오는데 어떤 남자가 나래를 보더니 나에게 딸이냐고 묻더니 웃으며 beautiful ~ beautiful한다. 예쁘다는 말에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팔불출 아빠다.

1월 22일

전날 예약한 전세 택시가 9시 30분에 왔다. 우리나라의 다마스보다 조금 작은 차였다. 10시 30분에 팔로렘 비치에 도착, 여기저기 자리를 고르다가 cuba restaurant에서 아침 겸 점심식사를 한다. 기다리는 시간은 길었지만 그런대로 풍성하게 먹은 식사다. 고아 해변 중 가장 아름답다는 명성이 있는 해변에서 오늘도 신나게 파도타기를 즐겨 본다. 조금은 한가한 해변이지만 많은 볼거리가 있다. 이방인의 뫼르소가 태양 때문에 살인했다는 말을 이해할 거 같다고 집사람이 말할 정도로 햇볕이 따갑다. 수영복 차림으로도 땀이 송골송골 맺힌다.우리는 선베드를 얻어 누워 책고 보고 낮잠을 자기도 한다. 이곳저곳 사진을 찍기 위해 해변을 한 바퀴 돈다. 해변 끝까지 가보니 밀림 같은 멋진 곳이 있었는데 사진을 찍으려니 원주민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의 젊은이들이 나와 사나운 표정으로 방해를 해 그냥 이곳을 빠져 나왔다. 그러고는 바위언덕을 올라갔더니 좁은 숙박 시설이 틈틈이 들어서 있었는데 으스스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다시 내려와 조망이 멋진 레스토랑에서 양해를 얻어 사진을 촬영해 보기도 한다.

고아 해변 어느 곳이든 걷거나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운전사와 돌아가기로 약속한 시간이 20시여서 저녁을 코즈눅에서 하기로 하고 사진기를 들고 나왔는데 해변이 어두워지니 어딘지 찾기가 힘들다. 인도의 해변은 밤이 되면 원시림의 숲속처럼 어둡다. 바로 앞의 물체도 희미하게 보인다. 그 어둠 속에서 코즈눅이란 레스토랑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른다. 다행히 낮에 보트를 타라고 끈질지게 따라다니던 노란 셔츠의 사나이가 집사람을 알아보고 “your friend, over there”라고 말해주어서 집사람이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 가까스로 상봉을 하였다. 눈썰미 있는 인도남자 덕분에 집사람을 만나 코즈눅 레스토랑에서 새우와 킹피쉬 등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하고 나니 그 인도남자가 새삼 고맙고 그에게 준 팁도 전혀 아깝지 않았다. 기다리던 있던 택시 운전사의 차를 타고 21시 30분에 가든코티지로 돌아온다.

1월 23일

숙소 주변을 산책하다 보니 고아 꼴바 해변 인근에 숙박시설이 많이 건설되고 있었는데 가까이 가보니 이채로운 풍경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크레인격인 도르레를 골조위에 설치해 놓고 인부 둘이서 줄을 끌고 끙끙거리며 앞으로 나가면서 무거운 건축자재를 상부 층으로 운반을 하는데 더운 날씨에 무척이나 고생을 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이 밝은 표정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기계가 할 일을 아직도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니 원시적이지만 노동이 신성하다는 느낌이 든다

베즈 식당에서 치즈 토마토 샌드위치 등으로 아침을 먹었는데 야채만으로만 조리를 해서인지 -심지어 계란도 사용하지 않는다. - 맛이 밋밋했다. 그러나 처음 가 본 베즈 식당이었으므로 경험했다는 그것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오늘은 포르투갈령 인도 식민지의 수도(1510~1843)였던 고도 올드고아(old goa)를 구경하고 빤짐(Panjim)으로 숙소를 옮기는 바쁜 일정을 보낼 예정이다. 어제 택시기사를 다시 콜(call)해서 , 짐을 싣고 올드고아(old goa)로 출발한다. 가는 길은 숲이 많고 조금 작은 강이 흐르고 있어 경치가 수려해 잠시도 눈길을 놓지 못한다. 올드고아에 도착하니 땡볕에 숨이 찰 정도로 기온이 높다. 아마도 섭씨 40도는 될 성 싶다. 그나마 하늘이 맑고 공기가 좋아 다행

이었다.

1562~1652년에 건축된 성 캐더린 성당을 비롯하여 흰백색의 성당, 붉은 벽돌의 성당 등 고 건축들이 대부분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었다. 이곳 성당들은 역사성을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붐지저스성당(Basilica of Bom Jesus)은 1946년 교황청으로부터 인도 최초로 대성당이라는 칭호를 받은 곳인데 400년이 넘어서도 썩지 않은 시신이 안치돼있어 유명한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들어서면 섬뜩한 느낌을 지워 버릴 수가 없다. 하지만 웅장하고 정교한 아름다운 장식은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성 아우거스틴 타워(St. Augustine Tower)는 대부분 멸실되어 기초와 타워 등 일부분만 남아있었지만 규모가 상당히 커 보인다. 성 카제탄 성당(Church of St. Cajetan)과 수도원은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의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반구형 돔 등 장식이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이어 빤짐(Panjim)으로 다시 이동한다.

빤짐(Panjim)시내에 도착해 운전사가 제일 먼저 내려준 곳은 시립공원 옆에 있는 1954년에 건설된 동정녀 마리아 성당(Ourlady Church)이다. 흰색 건물이라 한눈에 쏙 들어 온다. 시내 중심가에 있어 사진만 남기고 숙소를 잡으러 골목길 안으로 들어간다. 인도100배 즐기기에 나와 있는 Comport Guest House를 찾아 짐을 푼다. 이 골목길은 대부분 중세 유럽풍의 집들로 차분한 분위기이다.

대충 씻고 시가지 구경을 하기 위해 걸어 나온다 무단 횡단도 하며 보도를 따라 조금 가니 항구가 나온다. 선착장인 듯한 곳에서 인도만의 진풍경들을 보았다. 정원보다 2배정도는 더 태우고 떠나는데 내리고 타는 부분을 그대로 열어 놓은 채로 뒷부분에는 오토바이 2대까지 아슬아슬하게 태우고 간다. 물에 빠질 듯 아찔한 광경이다. 자전거를 탄 이는 타려다가 못 타고 떠나는 배를 쳐다보고 있다. 나래와 둘이서 동시에 셔터를 누르고 제목을 붙여 본다. – '떠난 자와 떠나지 못한 자'. 돌아서 찻길로 나오니 꽉 찬 만원 버스에 앞문과 뒷문 모두 차장이 있다. 바닷가의 보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나와 있었고 산기슭에 자리 잡은 초호화 관광호텔과 유람선도 보인다. 사진을 찍으며 인도를 느끼며 다니다 보니 까만 갈매기들이 하늘을 점령하며 수놓는 아름다운 저녁노을도 인상적이었다. 7시 30분경 숙소 근처 호텔 베니프 식당 2층으로 가려는데 음침한 조명이 걸려 망설이고 있는데 한 무리의 외국인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따라 올라갔다. 100배 즐기기에 소개된 곳답게 모양이나 맛이 인도답지 않게 정갈했다. 따뜻한 하드롤, 갈릭소스 새우 등 다양한 메뉴를 시키고 맥주와 함께 오붓한 식사를 한다. 즐거운 밤이었다.

올드고아의 성캐더린성당

올드고아의 성당

1월 24일, 고아에서의 마지막 날

가장 번화하고 상업적인 해변인 칼랑굿(Calangute)으로 가기위해 버스 터미널로 갔다. 아침도 안 먹고 숙소를 나섰더니 허기가 진다. 스탠드에서 파는 samosa와 인도 빵, 짜이 한 잔으로 간단히 아침을 때운다. 버스 앞에는 아무 안내판도 붙여져 있지 않아 어리둥절했는데 버스 차장들이 목적지를 큰 소리로 외친다. "칼랑굿"하고 물으니까 손으로 타라는 시늉을 한다. 일반버스인데도 맨앞자리는 ladies only 숙녀전용이고 그 다음칸은 senior, citizen이라 써있다. 10시30분 출발했는데 차장이 직접 차비를 받으며 다닌다. IT강국이라는 인도는 지극히 아날로그적이다. 몇 번 정차하더니 사람들을 태우고 씽씽 달려 11시30분 칼랑굿 비치에 도착하였다. 관광객들로 붐비고 혼잡한 곳에서 다시 바가(Baga)비치로 가는 버스를 갈아타고 12시경 내렸다.

이곳은 남쪽보다도 훨씬 붐비고 소란스러웠다. 해변 곳곳에서는 소음을 내며 보트를 타고 다닌다. Bistro Bar & Restrant에서 Sun bed를 빌려 선탠했다. 이젠 몸도 갈색으로 변할 만큼 많이 탔다. 서둘러 짐을 챙기고 버스 타는 곳으로 오는데 버스가 떠난다. 나래가 뛰어가서 차를 세운다. 겨우 차를 탔는데도 꽤나 즐거웠다. 버스는 조금 가다가 손을 드는 사람이 있으니 또 멈춰 선다. 추월하면서는 경적을 울리지 않고 서로 넘나들면서도, 직진할 때에는 크게 경적을 울려댄다. 참으로 재미있는 나라다. 6시 5분에 버스가 출발 했는데 6시45분에 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석류와 오렌지 등을 사들고 오는 길에 인도에서 유명한 빵집이라는 Daily Bread에 들려 케익 등 맛있는 빵들을 사들고 나온다.

1월 25일~1월 26일, 뱅갈로우

뱅갈로우로 가는 날이다. 시간을 벌기 위해 비행기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을 택하였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짐을 챙긴다. 이곳 게스트하우스들은 다른 곳하고는 달리 오전 8시30분에 check out를 하기 때문이다. 빤짐에서 30km 떨어져있는 Vasco Da Gama 공항으로 가기위해 시내로 나와 택시를 기다린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택시가 나타났는데. 요금을 터무니없이 불러 처음부터 흥정을 한다. 나중에 보니 자가용이다. 대낮에 시내에서 이런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에서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다. 운전사가 힌두송을 틀어 놓아서 유쾌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오른 쪽 편에 바다를 끼고 구불구불한 길을 돌아가는 길은 오래 머물렀던 고아를 떠나는 기분을 환기시킨다.

9시35분에 공항에 도착한다. 공항 레스토랑에서 갈릭브레드와 샌드위치와 커피로 아침을 먹고 10시30분 공항 대기실로 나온다. 14시분 뱅갈로우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까지 3시간 30분 정도 남았다. 쇼핑도 하고 뱅갈로우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30대 후반 한국인 남자와 이야기도 하며 시간을 보낸다. 어느덧 비행기는 이륙을 한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깨끗한 실내분위기다. 조그만 창안으로 눈부시게 햇살이 들어온다.

3시에 뱅갈로우 공항에 도착한다. 택시를 타고 MG Road로 향한다. 이곳 택시 운전사는 제복을 입었고 내려서 짐도 실어주는 서비스도 해준다. 차안이 엄청 깨끗하고 청결했다. 에어컨 바람도 솔솔 나온다. 인도 와서 처음으로 에어컨 나오는 택시를 탄 것이다. 도심에 있는 엠파이어 호텔에 도착하여 투숙을 한다. 슈퍼디럭스 룸으로 얻었다. 숙박비는 비싸지만 방은 근사하다. 이어 저녁을 먹으러 한국음식점인 '수라상'으로 갔는데 소주 1병에 600루피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15,000원 정도이니 살인적 물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주 두병에 삼겹살, 돼지갈비, 김치, 나물, 빈대떡, 비빔밥, 된장찌개 등 한 달 여 만에 한국 음식을 실컷 시켜먹었다. 수라상을 운영하는 호탕한 여사장은 음식을 듬뿍듬뿍 갖다 주어 우리를 더욱 기분 좋게 했다. 정말 여러 가지로 행복한 밤이었다.

1월 26일

빈둥빈둥 여유 만만하게 시간을 즐겼다. 펄펄 쏟아지는 따끈한 물에 아침 샤워. 정말 오래간만이다. 9시경 룸서비스로 콘티넨탈식 아침을 주문했더니 객실로 배달해 준다. 토스트, 오믈렛, 짜이, 커피, 그리고 워터메론 쥬스로 아침식사를 한다. 집사람은 잠옷 차림으로 침대에 앉아 남편이 가져다 주는 아침식사를 인도에서 할 줄 몰랐다며 좋아한다.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았으니 편안함과 여유를 만끽하며 오후 2시까지 그냥 푹 쉬다가 점심을 먹으러 밖으로 나간다. 자유여행의 특권이다. 거리는 자동차와 사람들로 많이 붐볐다.

인도라고 하기엔 너무 현대적인 뱅갈로우는 마치 서울 명동거리를 걷는 듯하다. 가려던 일식집도, 중국식당도 모두 CLOSED다. 한참을 걸어나가니 차이나 레스토랑이 보인다. 입구에서 소지품 검사를 한다. 이 곳은 큰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검사를 한다. 4층 Aromas china restaurant에서 볶음면, 볶음밥, 오리고기 등을 시켰다. 잔잔한 음악이 실내에 흘러나온다. 따스한 자스민 차를 4잔이나 마셨다. 간이 센 편이었지만 해물이 많아 맛있었다. 간간히 우리나라 노래도 나온다.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다. 다시 거리로 나와 백화점 구경을 한다. 집사람과 나래가 신나게 쇼핑을 한다. 무슬람교도 여인이 지신의 아들과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해서 모델이 되어 주기도 했다. 기다리는 동안 백화점 밖 커피숍에서 이리저리 주변을 돌아보며 커피 한 잔을 먹는다. 날이

뱅갈로우 M.G 로드에 있는 백화점 실내 전경

뱅갈로우 M.G 로드에 있는 상가 전경

어두워졌다. 다시 호텔로 가서 짐을 찾아 에르나꿀람(코친)으로 향하기 위해 뱅갈로우 기차역으로 간다. 밤 10시 차인데 정확하게 열차가 도착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정확하게 도착한 열차가 인도답지 못한 듯했고 현대 문명과 접목된 뱅갈로우가 인도다움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웠다.

1월 27일, 께랄라주의 코친–에르나꿀람

열차에서 또 하루가 지나가고 있다. 1월 27일 아침이다. 이번에 탄 열차 좌석은 출입문 가까이에 있어 고생을 조금 더 했다. 오가는 사람들의 문 여는 소음과 기척으로 잠자리가 불편했다. 일찌감치 침상에서 일어나 인도 사람들과 마주 앉아 있다. 무사히 에르나꿀람(Ernaculam)에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침 대용으로 속이 빨간 바나나를 먹는다. 어느 역인지 한참을 서있다. 처음에 물어봤을 땐 10시에 도착한다고 했었는데 딜레이 되는 모양이다. 고아에서 한 정거장을 지나친 후로 기차를 타면 긴장이 되고 이정표에 신경이 곤두서있다. 12시경 인도의 최남단 에르나꿀람(Ernaculam)역에 무사히 도착한다. 언제부터인가 이동시에는 집사람 것까지 배낭을 앞뒤로 메고 다닌다. 선착장으로 가서 15분을 배를 타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코친항(Kochi)에서 내렸다. (코치는 로마시대부터 향신료 무역 중개지로 이름을 날린 현존하는 인도 최고의 무역항이자 께랄라주의 주요관광지이다.) 다시 릭샤를 타고 네루 어린이공원 입구에서 내린다. 유럽풍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다. 파스텔 톤의 낮은 건물들이 마음을 편하게 한다. 우리가 얻은 호텔은 남인도 풍으로 2층이다. 천장에 팬이 2개나 달려있고 침대가 3개 놓여있다. 길쭉한 방인데 길가 쪽으로 발코니가 있어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커피를 마시거나 흡연하기도 좋다. 발코니로 나갔더니 옆방의 여성 관광객이 쳐다보며 미소를 짓는다. 나도 미소로 화답한다. 마침 담배가 떨어져 1층에 있는 슈퍼에 갔더니 우리 담배 종류는 거의 다 있다. 다른 곳보다도 가격이 조금 싸서 몇 갑 샀다. 짐을 정리하고 쉬다가 3시경 카페에 들려 식사를 하고 맥주를 마셨는데 식당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맥주를 주전자 모양 도자기 단지에 담아온다. 재밌게도 맥주잔이 연두색 머그이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데- 모양은 영 아니었지만- 미지근한 보리차같은 맥주로 갈증을 달래본다. 이런 맥주는 인도가 아니면 맛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달게 마신다. 기다리다가 더 허기가 지고 인내심마저 필요로 했던 추가로 주문한 볶음밥은 30분 이상 기다린 다음에야 먹을 수 있었다. 인도의 실상과 허상을 본다. 허기를 해결하고 해변을 거닐어 본다. 잡은 생선을 길거리에 놓고 파는데 파리들이 많이 붙어있다. 지저분한 생선 구경을 하고 계속 걸어가니 중국식 어망으로 투망을 해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모습이 보인다.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던진다. 내가 사진을 찍자 다가오며 손을 내민다. 돈을 주면 모델을 제대로 해주겠다는 의미다.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나무를 얼기설기 쇠줄로 엮어 바다위에 고기 잡는 도구(어망)를 만들어 곳곳에 설치해 놓은 것이 아라비아해의 바닷가를 이색적인 풍경으로 만든다. 규모도 꽤 커서 여기에 걸터앉아 폼을 잡으며 사진도 찍어본다.

어느덧 해가 넘어간다. 기러기도 아니고 까마귀 같은 새가 무리를 지어 마지막 먹이를 찾아 날아다닌다. 석양은 어디서 봐도 아름답지만 바닷가의 붉은 노을은 더 멋지다. 어두워지며 노을이 깔리는 바닷가가 낭만적이어서 산책을 더 했다. 깜깜해진 해변을 나서는데 부두에서 배가 떠나려는 풍경이 보이는데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이 줄지어 오르고 있다. 빽빽이 싣고는 배는 떠나간다.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보니 어딜 가나 만원이다.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몰라도 삶의 현장은 바쁘게 돌아간다. 돌아서서 보니 오래된 고목들이 긴 터널을 만들고 있다. 오랜 시간동안 버티고 있는 것이 신기하다. 우리나라의 건설현장에서 모조리 베어져 나가는 나무들을 보면 인도의 나무들은 참으로 행복하게 태어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망고와 오렌지, 파인애플을 사가지고 숙소로 돌아온다. 모기에게 헌혈하며 산 망고는 달고 맛있어서 자꾸만 먹고 싶어진다. 베리베리 딜리셔스다.

코치의 거리 풍경

1월 28일~1월 29일, 께랄라주-알라뿌자(Alappuzha)와 꼴람(Kollam)

코치해변의 중국식 어망 풍경

1월28일 새벽, 모기가 극성을 부려 모두 일찍 일어났다. 샤워 후 아침을 먹고 8시에 check out, 하우스보트를 타러 알랍삐(현지발음)(Alappuzha)로 간다. 발걸음이 한결 가볍다. 릭샤를 타고 버스스탠드에 내려 30분 버스를 타고 다시 내려 버스를 타고 1시간15분을 달려 10시경 알랍삐에 도착한다. 거리는 어수선하고 사람들과 차들로 붐빈다. 햇빛은 강렬하고 덥다. 조금 걸어 올라가니 하우스보트 여행사가 있다. 여기서도 흥정을 하는데 4500루피 달라는 것을 나래가 4000루피로 흥정한다. 다시 여행사에서 제공해준 릭샤를 타고 10시 30분 하우스보트 선착장으로 간다. 이제 다음날 9시30분까지 이 배의 주인은 우리다. 우리는 'Narae호'라고 이름 지었다. 방 2개에 욕실이 각각 있고 보트 앞부분에는 조망할 수 있는 거실에 테이블과 안락의자와 소파와 식탁까지 있다. 뱃머리에서 선장 아저씨가 키를 돌리자 배는 미끄러지듯이 나아간다. 바로 옆에는 전날 출발한 하우스보트가 돌아오는데 배에 탄 관광객이 연신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손을 흔들어준다. 우리도 멋진 여행이 될 것이란 예감이 든다.

연꽃 꽃길위를 가로지르며 우리의 보트 Narae호는 유유히 흘러간다. 양쪽 옆에는 야자수가 즐비하고 강 위에는 부레 옥잠같은 수중식물들로 덮여있다. 유유히 흐르는 강처럼 떠가는 보트위에서 모두들 즐거워하며 흡족해 한다. 집사람은 생애 최고의 휴가라고 말한다. 선장의 경적소리는 아이들 장난감처럼 삑삑 소리가 난다. 흰 실로 만든 줄을 당기면 종소리가 난다. 선원들끼리의 의사소통인가 보다. 조금 가다가 배가 멈춰 선다. 오늘은 선장아저씨 지인의 장례가 있는 날이란다. 잠시 후 다시 배가 움직이고 우리는 즐겁게 떠간다. 가다보니 길가에 작은 상점이 있고 prawn을 파는 가게도 있다. 잠시 상점 앞에 정박한다. 선장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한다. 손바닥만한 새우가 1kg에 600루피라고 한다. 결국 사지 못하고 떠났다. 나래가 사온 꽃모양 과자가 파삭파삭 먹을 만 했다. 조금 더 가니 강 위 보트에서 새우를 판다. 1kg조

금 넘는다. 800루피를 줬는데 그야말로 왕새우다. 오늘저녁 새우구이가 무척 기대된다.

1시에 점심이다. 커리와 짜파티 튀긴 것이 느끼해서 가져온 고추장에 비벼 먹는다. 2시30분까지 정박하고 다시 떠난다. 신밧드의 모험 같은 항해다. 눈치 채지 못하게 부드럽게 흐르는 배, 우리의 삶도 강물 흐르듯 평화롭기를... 검은 오리와 물뱀도 보고 백로들도 노닐고 있다. 현대와 완전 분리되어 우리만의 시간 속에 놓인 것 같다. 3시 30분경 짜이와 노란 바나나튀김을 내놓는다. 하얀 백로들의 자유스런 비행과 울음소리를 들으며 눅눅한 바람을 맞으며 오후의 티타임을 즐겼다. 백로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은 처음이다. 지상 낙원이라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망원렌즈가 없어 아쉬웠지만 그나마 표준렌즈로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으니 좋았다.

강바람이 온기를 머금고 피부에 달라붙지만 이런 끈끈함도 우리만의 은밀한 항해에선 액세서리다. 7m수심의 강 너머엔 뚝보다 낮은 논이 있다. 이 강물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한다. 인공 댐을 만들어 관광수입도 올리고 양식거리도 해결하는 셈이다. 대단한 인도인이다. 맘씨 좋게 생긴 선장 아저씨와 요리사 아저씨 덕분에 행복한 항해를 하고 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 강변 둑방길 아줌마들의 나들이 행렬, 염소가 풀을 뜯고, 날씬한 자태로 하늘 높이 솟아 있는 야자수 나무들은 롱다리의 인도 남자들 같다.

여행 후의 나의 삶은 다시 치열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장소를 떠올리면 내 삶의 배터리가 될 것이다. 오후 4시 강물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다. 찰싹찰싹 뱃전에 부딪치는 강물의 이야기가 들려온다. 삶을 너의 색깔과 향기로 살아가라고 어떤 일이 너에게 닥치더라도 웃으며 받아들이라고 인도의 강물이 나를 가르친다.

prawn을 어떻게 요리할까요? 묻는 요리사 아저씨와 나래가 한참을 이야기한다.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 good이다. 있는 그대로 원시를 즐기는 기분이다. 더 어린아이처럼 들뜬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지금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하다. 4시20분 선장은 약간 좁은 길로 우리를 이끈다. 한 눈에 정글 같은 양쪽 전경이 다 들어온다. 4시40분 더 좁은 길로 들어간다. 푸릇푸릇한 벼가 가까이 서 있다. 처음엔 정글 탐험하는 분위기였으나 갈수록 인도인들의 생활풍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돌에 빨래감을 두드리며 빨래하는 여인, 목욕하는 사람들, 물고기를 씻어 냄비에 담는 아낙네, 설거지 하는 여인, 집 앞에 흐드러지게 핀 작약 같은 꽃, 들판에 노니는 닭들의 무리, 빨래줄에 널린 소박한 옷들, 그리고 강물에 비친 풍경과 모습들은 평화롭기만 하다. 꼬불꼬불 야자수, 천둥 번개에 꺾인 야자수도 보인다.

5시 40분 정박한다. 해지는 들녘 쪽에 세워서 노을의 반영은 찍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저녁을 맞는다. 맥주와 왕새우구이, 고추장에 비빈 볶음밥을 맛있게 먹는다. 야자수 나무에 원숭이처럼 올라가며 놀기도 하고 강둑을 오가며 사진도 찍는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침실에 모기향과 선풍기를 틀어 놓고 곤히 잠이 든다.

1월 29일

배 안에서 하루가 밝아 온다. 새 소리가 경쾌하다. 닭소리 그 밖의 여러 동물의 소리, 수탉도 길게 운다. 어김없이 까마귀의 울음이 후렴처럼 곁들여진다. 7시30분 짜이로 오늘 아침을 연다. 8시 잼과 버터를 바른 토스트와 어울리지 않는 인도라면볶음, 파인애플로 아침을 먹고 수로를 따라 처음에 승선했던 곳으로 돌아오기 위해 이 곳을 떠난다. 돌아오는 길은 참 빠르다. 금방 청년이었다가 모르는 사이 어느 새 노년의 황혼길로 접어들게 되는 우리네 인생처럼… 선장님과 요리사 아저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2일 간의 특별한 항해를 마치고 다시 육지로 돌아왔다.

10시30분 릭사를 타고 시내에 있는 KTC guest house에서 휴식을 취한다. 집사람은 배멀미를 해서 많이 지쳐 있어서 쉬라고 하고 홀로 카메라를 들고 걸어서 상점이 많은 중심가로 나왔는데 햇볕이 뜨겁다 못해 따갑다. 남자들도 양산을 쓰고 다니는 모습도 보인다. 버스를 보니 만원이다. 부녀자들이 많이 타고 있다. 예쁜 옷을 입은 아기들이 많다. 자식 사랑은 세계공통이다. 상점 앞에서도 서있는데 직원이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며 포즈를 취해준다. 찍은 화면을 보여주니 해맑게 웃으며 좋아한다. 집사람 말처럼 까무잡잡한 피부에 왕방울만한 눈동자 때문인지 인도남자들의 미소는 유난히 해맑다는 생각이 든다. 배송 운반하는 리어카 꾼은 귀한 바나나를 리어카 바퀴 받침대로 스스럼없이 사용한다.

다시 돌아가 '인도 100배 즐기기' 에 나와 있는 레스토랑을 찾아 점심 식사를 한다. 찾기는 힘들었는데 푸른색으로 인테리어를 해서인지 시원하고 깨끗해서 좋았다. 우리 테이블 옆자리에는 노인 부부가 앉았는데 오랫동안 두 분이서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보며 재미있게 담소한다. 참 보기 좋았다. 우리도 저 부부처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여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이젠 다시 뱅갈로우로 가기 위해 기차역으로 향한다. 저녁 7시20분에 기차가 도착하였는데 인도에서 타는 마지막 기차다.

1월 30일~1월31일, 인도여행의 종착역 뱅갈로우

아침 8시 뱅갈로우역 도착. 배낭을 앞뒤로 메고 역 앞에서 인증샷을 찍었다. 흥정하는 릭샤꾼들이 따라 다녔지만 1루피를 주고 행선지를 말하면 가격을 찍은 종이를 주는 행렬에 끼여 긴 줄을 서서 기다리다 택시를 잡아 탔다. 아침 시각이라 차들로 붐비는 뱅갈로우 시내를 요리조리 잘도 달린다. 바로 옆 차의 뒷좌석의 젊은 남자가 신문을 읽고 가고 있다. 인도에서는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거의 자가용 기사를 채용한다고 나래가 말한다. 언제부턴가 인도도 돈이면 다 통하는 나라가 되었나 보다. 1시간여를 달려 10시경 호텔에 도착했다. 일전에 갔던 한국음식점 '수라상'이 있는 호텔이었다. 우리가 투숙한 방은 옛날 공항 부근이었는데 시설이 깨끗하고 벽에 걸린 그림들도 모던하여 전

혀 인도같지 않았다. 물 걱정 없이 샤워를 하고 피자가 먹고 싶다길래 피자헛까지 릭샤를 타고 갔다. 인도 피자헛 메뉴는 우리 나라와 달랐는데 다른 독특한 향료가 들어간 듯했다. 피자를 먹고 나오는데 입구에 Had a good time ! Ring the bell ! 이라고 쓰여 있어 매달려 있는 종을 잡아 당겼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종업원들이 아주 좋아한다. 잘

알라뿌자(Alappuzha)수로의 주택가 풍경

알라뿌자(Alappuzha)수로의 평화로운 풍경

가라는 인사를 뒤로 하고 숙소를 향해 걸어나오는데 Ladies only 라고 쓰인 미장원이 보인다. 실면도를 하는 곳이라며 집사람과 나래가 하겠다고 한다. 나도 같이 들어가려는데 남성 출입금지라며 밖에서 기다리라 한다. 하는 수 없이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기다려야 했다. 30분쯤 있으니 두 사람이 나온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의 미용사에게 얼굴을 맡기고 누워 있자니 긴장도 되었지만 재미있었고 실을 꼬아 면도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며 집사람이 첫경험을 이야기한다. 남성전용이 없는 것이 많이 아쉬웠다.

7시경 인도에서 나래와 친구처럼 지내는 언니, 오빠들과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수라상'으로 올라갔다. 한국의 젊은이들과 돼지갈비를 소주와 먹으니 한국에 돌아온 듯하고,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며 식사를 하니 식탁이 임금님 수라상보다 더 걸고 훌륭하다. 다들 의젓하고 믿음직하다. 한국의 젊은이들과 함께 한 그날 밤이 지금도 새록새록 떠오른다.

1월 31일, 인도에서의 마지막 날

MG 로드로 와서 기념품과 필요한 물건 등을 골랐다. 공항까지 가는 택시를 8시 40분에 콜해 놓은 상태라서 저녁을 급하게 먹었다. 인도에서의 마지막 밤이었고 나래와 헤어지는 밤이다. 스테이크와 스파게티로 식사를 하고 함께 사진도 찍었다. 공항까지 배웅하겠다는 나래를 먼저 보내고 우리는 택시를 타고 담담히 돌아섰다. 지금의 이별이 훗날 더 아름다운 재회를 하기 위한 잠깐의 헤어짐이라고 믿으며 녀석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기를 속으로 기원하며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2월 1일, 인천공항으로 귀국

한 달 남짓 긴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인천 공항으로 돌아왔다. 큰 처남 내외가 차를 가지고 마중 나와 있다. 헤어짐은 곧 만남이구나. 반갑다. 기쁘다. 이틀 동안 제대로 씻지도 않은 아내의 민낯이 환해 보인다.

집으로 돌아오니 장모님께서 한 상 가득 차려놓으셨다. 3월이면 고3이 되는 작은아이는 여행 떠나는 날에, 모든 순간을 즐기고 오라는 편지를 주더니만, 돌아오는 날에는 엄마아빠의 귀국을 축하한다고 풍선을 벽에 붙여 놓고 케익까지 준비해 놓았다. 그 녀석의 마음 씀씀이에 나는 다시 한 번 팔불출이 되었다.

끝나지 않은 말줄임표

수박 겉 핥기 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도라는 불가사의한 나라에 잠시 몸 담고 왔다는 그 사실이 내게 경이롭고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안겨 주었다. No problem을 외치며 유유자적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태도에 어떤 부분은 공감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이해할 수 없기도 했다. 그러나 죽기 전에 꼭 가 봐야 할 곳 중의 하나라는 인도에서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것 같은 스릴을 맛보면서 내 삶의 무늬와 조각들이 더 늘어났다. 감사하다.

힘듦의 연속이었음에도, 아내와 딸과 함께 했던 이 여정은, 내 생애 가장 자유롭고 멋진 여행으로 반추될 것이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고맙게 기억될 것이다.

이 여행기를 쓸 수 있다는 것까지도….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이끌린다. 다시 인도에 가고 싶다는….

자유롭게 훨훨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다는…. 이건 분명 병이다.

제16차 아시아건축사협의회 포럼 참가보고서

The 16th ARCASIA FORUM

베트남, 다낭 2011. 8. 15 – 20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1. 참가 배경 및 개요

1. 1 아시아건축사협의회 개요

1. 1. 1 배경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hitects Regional Council of ASIA, ARCASIA)는 처음 1967년 뉴델리에서 개최된 CAA(Commonwealth Association Architects, 영연방건축사연합회)에서 논의가 되어 1970년에 6개국으로 시작이 되었다. 지금은 아시아 지역의 17개국이 회원국이 되어 명실공이 아시아 건축을 대표하는 연합단체이다. 우리는 1985년에 가입하여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1999년과 2008년 아카시아 대회를 서울과 부산에 각각 유치하고 2007–2008년의 회장(이근창)을 배출하는 등 주요 국가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

1. 1. 2 설립 목표

아시아 각 국의 건축을 대표하는 단체의 모임으로서의 아카시아는 건축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 협회 차원에서 협조를 하며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을 증진시키고, 각 국의 건축실무 및 교육을 국제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1. 2 제16차 아카시아 포럼

1. 2. 1 행사 개요

아카시아 행사는 매년 개최를 하되 한 해는 포럼 형식(ARCASIA Forum)으로 한해는 건축사대회의 형식(ARCASIA Congress)으로 개최된다. 건축사대회가 있는 해에는 학생잼버리를 동시에 개최하여 각 국의 재능 있는 학생들을 초청하고 국제워크숍 등을 열어 학생 간의 국제교류와 건축사들의 행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규모가 큰 행사인 반면 포럼이 있는 해에는 규모는 작지만 아카시아건축상을 시행하여 완공된 건축물을 통해 우수한 작품을 선발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크게 이사회와 포럼으로 구성되며,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은 제32차 아카시아 이사회(ARCASIA Council Meeting)와 위원회를 열고 18일과 19일의 양일간에는 제16차 아카시아 포럼을 개최하였다.

주최자는 베트남건축사협회(Vietnam Association of Architects, VAA)로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오랜 준비 기간에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였다.

행사 장소는 베트남의 중앙부에 위치한 다낭시의 푸라마 리조트(Furama Resort)로서 대부분의 참가자가 이 호텔에 묵으면서 부속시설인 회의실과 대회의장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였다.

1. 2. 2 참가 개요

이번 행사에는 최근 들어 아카시아 회원 단체에서 가장 많은 임원이 참석하였으며 우리 협회에서는 강성익 회장, 이근창 아카시아 고문, 김성민 국제위원장, 조인숙 국제위원 및 전성호 국제위원 등 5명이 참석하였고, UIA 총회 유치를 위해 UIA유치위원회의 일원으로 김종성 유치위원장, 한종률 유치집행위원(한국건축가협회), 정재욱 유치실무위원(대한건축학회)과 함께 신춘규 국제담당 이사가 유치실무위원(대한건축사협회)으로 참석하고, 한국건축단체연합(FIKA)의 이상림 회장과 한국건축가협회의 이광만 수석부회장, 박제유 기획위원장이 추가로 합류하여 총 12명의 대규모 대표단이 참석하여 아카시아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UIA 유치를 위한 열정을 보여 주었다.

2. 행사별 활동내용

2. 1 제32차 아카시아 이사회

이사회는 8월 16일과 17일에 푸라마 리조트 대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현 회장단과 고문단, 그리고 17개국의 회원국 공식대표단 2명씩 등 약 50여명이 참석하여 각 종 의제를 토론하였다. 우리 협회는 공식대표로 강성익 회장과 김성민 국제위원장이 참석을 하였고 이근창 전임 아

카시아 회장이 아카시아 고문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1) 개회식 : 개회 선언 및 환영사

2) 이사회 : 안건 상정, 직전 회의록 승인, 재무 보고, 회장 및 지역 부회장 보고, 각 국 단체장이 친환경 건축, 건축 실무 및 교육에 대한 자국의 최근 관심사에 대해 짧게 보고 하였다.

3) 아카시아 사업 : 도쿄 UIA 세계대회의 아카시아 전시관 준비, 아카시아에서 출간한 "아카시아 건축유산" 배포, 웹사이트 운영, 아카시아 본부 건립 (2008년 부산 아카시아 대회에서 시작된 부산에 아카시아 본부를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김성민 국제위원장이 그간의 과정과 문제점 및 최근에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는 건립 방안에 대하여 보고), 2개의 새 위원회 설립(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성원이 되어 총괄 및 조정 기능을 하는 Inter-Committee와 장애인 편의공간, 역사적 보존, 사회환경 개선 및 재난 방지에 대한 Social Responsibility Committee)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4) 아카시아 정보 공유 및 건축상 : 말레이시아건축사협회에서 주관하는 「Architecture Asia」 계간지의 온라인 버전 소개, 아카시아와 타 지역건축사협의회 간의 양해각서 체결(AUA/아프리카, ACE/유럽, MASA/유라시아), 2011-2012 아카시아 건축상 발표(이번에 한국에서는 조인숙 건축사와 이상림 건축사가 골드메달 수상), 회칙 개정, 신입 회원단체 승인(이번 이사회에서는 우리 협회와 작년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라오스건축사 구조기술인협회(ALACE)를 18번째 회원 단체로 승인) 등을 토의하였다.

5) 아카시아 대회 및 포럼의 장래 계획 및 평가 : 2012년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아카시아 대회에 대한 인도네시아건축사협회의 보고, 2013년에 홍콩에서 개최 예정인 아카시아 포럼에 대한 보고(홍콩건축사협회에서 2017 아카시아 포럼의 개최를 반려하였고 네팔건축사협회에서 카트만두에 개최를 희망하여 개최지 변경을 승인) 및 토의가 있었다.

6) 위원회 보고 및 승인 : 4개 위원회인 친환경건축위원회, 건축실무위원회, 건축교육위원회 및 고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승인하였다.

7) 회장 선거 : 직전 회장이 2013-2014 아카시아 회장 선거를 주관하여 2명의 후보자인 말레이시아건축사협회의 Tan Pei Ing과 스리랑카건축사협회의 Lalith de Silva의 투표를 진행하여 압도적인 차이로 Tan Pei Ing 후보가 당선되었다.

2. 2 위원회 활동

2. 2. 1 교육위원회(ACAE, ARCASIA Committee for Architectural Education)

– 회의 일시 : 2011년 8월 16일 13:30 ~ 19:00

(TLC 보충회의 : Dr. Chalay, 조인숙 국제위원 8월 17일 10:00 ~ 11:30)

– 장소 : 베트남 다낭 Furama Resort Convention Center "Non Nuac 1&2"

– 참석자 : 위원장 (임기 2011-2012) Prof. Abu Sayeed M. Ahmed(방글라데시, IAB), 부위원장 Dr. Chalay Kunawong(태국, ASA), 서기 Dr. Walaiporn Nakapan(태국, ASA) 및 17개국 대표와 참관국 라오스(ALACE) 대표가 참석하여 총 26명의 출석으로 진행. 참고로 부위원장 Bernard Gomez(스리랑카, SLIA) 및 참석 예정이었던 미얀마 대표가 참석하지 못하였다.

– 한국 대표: 조인숙 국제위원

– 참석자 착석 후 성원되었음을 서기가 선포하고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한 후 환영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 각자의 인사소개가 있었다.

– 주요 안건 및 협의 사항

1) 2010년 26일 라호르에서의 31차 교육위원회 회의록(Minutes of the 31th ACAE)을 서기(書記) Dr. Walaiporn Nakapan이 PPT 발표하고 경미한 철자수정을 거쳐서 참석위원들이 제31차 교육위원회 회의록으로 정식 채택하였다.

2) 2011년 안건 및 협의사항(Agenda)을 서기가 PPT 발표를 했고 참석위원들과 협의하여 약간 수정을 해서 진행하기로 하고 각국 연례활동 보고(Country Report)를 한 후 단체 사진을 찍고 속회하였다.

3) 각국 연례활동 보고(Country Report)는 2011년부터는 인쇄물을 준비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8월 8일까지 서기 및 의장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후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관리하는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으로 사전에 공지되었다. 결과 12개국이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올렸고 회의석상에서 17개국의 각국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예년과는 달리 올해의 교육위원회 보고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할 것과 별도의 인쇄물을 준비하지 말라는 사전요청이 있었다.

1. 건축학교 개요(Architectural School Program)
2. 건축교육의 주요 사안(Key Issues in Architectural Education)
3. 계속교육(CPD PROGRAM)
4. 등록 및 면허 요건(Registration and License Requirement)
5. 학생 교환의 잠재력(Potential for Student Exchange Program)
6. 인증원 및 인증된 학교 목록(Accreditation body and its status, Name and e-mail address of all accredited schools)
7. 학생 실무수련에 관한 상황(Student Internship Program Condition)
8. 아시아 건축학대학 핸드북에 기초한 건축대학 목록(University and Contact List =〉 refer to Handbook of Asian Architectural School)
9. 장래 계획(Future Plans)
10. 기타사항(Other Important Issue)

대한건축사협회 (KIRA)는 대한민국 전반적인 건축교육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객관적으로 보고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대한건축학회와 한국건축가협회 및 새건축사협의회의 협조로 건축교육 및 계속교육 등에 관해 보고서를 구성해서 발표하였다. 인증원의 활

동상황 및 한국건축학교육 협의회에서 만든 2010년 전국대학건축학교육 백서 중 관련내용 등을 다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속교육 및 친환경아카데미에 대해 보고하였다.

(ACAE 각국보고서는 다음 웹페이지를 참고 : http://www.arcasia.org/meet/meet_12_3.asp?BBSNAME=TB_BBS_ARCASIA_3_7)

4) 2010년 라호르 학생잼버리(Student Jamboree 2010 in Lahore)에 대해 S. Akeel Bilgrami(파키스탄, IAP)가 결과보고를 하였다. 주요내용은 학생잼버리 설계경기(주제 : Children Resource Center)에 17개 작품이 출품되었고 공동1등 수상작을 내었다는 것과 학생잼버리 대회는 "건축의 역동성, 아시아의 혼(Dynamism in Architecture, The Asian Spirit)"을 주제로 했으며 성곽도시인 라호르의 구도심을 탐방하고 참가학생들의 발표가 있었고 퀴즈경연대회도 했다고 보고한 후 7분짜리 동영상 보고서를 상영하였다.

결과보고와 함께 제안사항으로 동영상 보고서는 ARCASIA 웹사이트에 올려야하며 Prof. S. Akeel Bilgrami는 학생잼버리 매뉴얼을 제출하겠다고 했고, 2012년 발리에서의 학생잼버리는 사전에 회원국에 미리 알려서 학생들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줘야한다는 것, 그리고 개최국으로부터 학생잼버리 행사를 의뢰받은 건축사들은 전 행사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언급되었다.

5) 2012년 발리 학생잼버리(Student Jamboree 2012 in Bali) 계획안을 Ridwan Kunia(인도네시아 IAI)가 발표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년 ACA-15 대회 및 학생잼버리 조직위원장은 Gede Arista Gunawan이며 학생잼버리 위원장은 인도네시아 발리의 Udayana University 건축학과장이고 장소는 발리, Sanur의 Werdha Pura Complex이다.

2012년 학생잼버리 주제는 ACA-15의 주제인 "모더니즘 챌린지: 새로운 패러다임에서의 아시아의 도시와 건축유산(A Modernism Challenge : Asian cities and Architecture Heritage in A new Paradigm)"을 참고하고자 한다며 잠정적인 주제는 "지역 환경 내에서의 아시아적 맥락: 아시아건축과 문화유산에서의 문제점(Asian Context in Local Setting : Challenges in Asian Architecture and Cultural Heritage)"이며, 잠정적 행사구성은 참가학생들의 발표 및 전시, 워크숍, 워크숍 발표, 공개강의 및 자유행사 등으로 기획하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알리기로 하였다.

학생들은 부주제로 1. 토속건축: 원리와 특징(Vernacular Architecture : principles and character); 2. 생태건축: 시공과 재료(Eco-architecture : construction and material); 3. 아시아의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of Asia); 4. 건축유산 : 유형 및 무형(Building heirtage: the tangible and intangible); 5. 건축표현으로 아시아의 정체성 추구하기(In search for Asian Identity in Architectural Representation) 등에 대해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몇 가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학생잼버리 대회가 주관하는 학생잼버리 설계경기는 말레이시아(PAM)가 주최하는 학생설계경기와 겹치면 안 된다는 것과 발리에서 학생설계경기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Dr. Chalay Kunawong이 학생잼버리와 학생설계경기에 대해 재정리 하였다.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가 학생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한 해는 잼버리를 하고 한 해는 설계경기를 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대회(Congress)를 여는 짝수 해는 학생잼버리(Student Jamboree)를 하고, 포럼(Forum)을 여는 홀수 해는 학생설계경기(Student Competition)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동의하고 포럼을 개최하는 회원국이 학생설계경기를 진행하기로 하는 것과 "아시아건축사협의회 학생설계경기 (ARCASIA Student Competition)"로 명명하는 것을 다음날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학생잼버리 설계경기'란 대회 개최국의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결론을 지었다.

6) 교육위원회 계속사업(Ongoing Project of ACAE)에 대해서 보고 및 논의가 이어졌다. 우선 아시아건축학대학 핸드북과 회원국 연례보고서에 대해서 Dr. Chalay Kunawong의 Google Spread Sheet(이하 GSS) 설명이 있었다. 핸드북의 진행사항과 회원국 연례보고서 진행사항을 GSS 웹 문서로 작성한 것과 서면으로 작성한 것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회원국 연례보고서의 경우 서면작성은 해마다 작성해서 인쇄하지만 GSS의 매트릭스 포맷(matrix format)으로 작성하면 주요한 사항을 웹에 올린 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과 아시아건축학대학 핸드북도 마찬가지로 상세한 내용을 항상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핸드북을 출판하자는 극소수의 의견도 있었다. 인쇄물로 출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의견이 있었고 전자북으로 할 것이 제안되었다(ASA).

핸드북 논의의 결의사항인 자료가 80%이상 보완되면 한 번 정도 아주 경제적인 포맷으로 인쇄할 수도 있겠다는 것과 안전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웹사이트 상에서 웹문서로 출간될 수도 있다(다만 각 학교에 비밀번호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차차 보완하기로 하고 타일랜드(ASA)가 계속해서 담당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참석자들이 동의하였다.

이어서 Nela De Zoysa(스리랑카, SLIA)의 Time Line Chart(TLC) -2nd Edition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출간을 후원하기로 했던 회사가 이유 없이 갑자기 후원을 안 하기로 해서 온라인 출간계획을 해야 하는데 편집자나 웹디자이너를 찾아야 한다는 것과 예산은 약 미화 2,500달러라는 점 및 다음 온라인 편집자의 조건에 대해 언급하였다: 소유권 (Hosting and posting ownership); 저작권 해결(Country must make free of copyright); 아시아건축사협의회 자산(Become property of ARCASIA); 웹문서 출판(Publication to be under web edition); 웹사이트와 연결(Link of ARCASIA web); 스리랑카가 진행의 모델이 되겠다(Make SLIA model of process); 출판을 위한 편집위원회(Editorial board to decide on final material to be published); 저작권(Copyright issues); 저작권 관련 법적 조치(A legal body to deal with the copyright issues); 후원자(Look for sponsor); 웹사이트에 스폰서 로고 게재(To have the Logo of the sponsor on the website) 등이다.

이에 대한 의결사항은 최초의 버전이 대한건축사협회(KIRA) 웹마스터에게 전달되어서 KIRA는 그 내용을 각 회원국이 웹사이트에 올릴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포맷 가이드라인(the format guideline)을 수립해야 하며 편집자는 내용물 가이드라인(content guideline)을 만들어 회원국에 배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참고로 최종버전의 CD를 우리협회 신춘규 이사가 받아와서 우리협회 웹마스터와 협의 중이며 CD의 내용은 조인숙 건축사가 해독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신춘규 이사에게 제공하였다)

7) 버추얼 아시아건축대학(Virtual Asian School of Architecture)에 대해서는 담당자인 Bernard Gomez(스리랑카 SLIA) 와 Dr. Kemas Ridwan(인도네시아, IAI)에 의해 논의사항의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었다. 스리랑카 대표는 Dr. Kemas Ridwan의 자문을 받아서 4개월 이내에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하고 담당인 Bernard Gomez의 불참으로 이 안건은 다음해에 논의하기로 참석자들이 의결하였다.

8) 아시아건축사협의회 학생설계경기(ARCSIA Student Competition)는 "생태-휴양지(Eco-resort)"라는 주제로 말레이시아(PAM)가 주도하여 진행했으나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서만 제출하였다. 그나마 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것이 ARCASIA 설계경기로 인정되지 못했고 말레이시아는 다른 학생 설계경기를 할 것을 제안했으나 ARCASIA 회장이 보류했다고 보고하였다(PAM).

9) 향후 계획(The way forward)에 대해 위원장인 Dr. Abu Sayeed의 발표는: 교육위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Objective of ACAE); 제기된 다양한 의문(Questions asked); 전략(the Strategy); 단기 (Short-term, 1 year), 중기 (mid-term, 5 years) 및 장기(longterm, 10 years)의 장래계획에 대한 제안(the Proposition of Road-map)과 논의가 있었다. 교육위원회의 목적으로는 각국 교육프로그램을 자문하고 리드하며; 코디네이트 하고; 회원 단체를 협조하며; 건축학교에 도움을 주고; 학생교류를 증진시키며; 각국을 대표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되돌아보았다. 아울러 미래의 교육위원회와 미래세대를 대표한다는 "ARCASIA의 혼(the Spirit of ARCASIA)"에 대해 언급했다. 교육위원회의 중요성은 연속성(continuity)과 연결성(connection)이라는 의견이 있었다(prof. S. Akeel Bilgrami).

1개년 단기계획으로는; 수정 보완된 TLC의 전자출판; 아시아 건축대학 핸드북출판(인쇄 및 웹문서); 학생잼버리기간 중 정례적인 "학생 아이디어 설계경기" 계획; 현 아카시아 건축상(ARCASIA Award)에 학술논문 또는 전문연구논문 분야를 추가할 것을 제안; 각국 연례보고서를 웹의 매트릭스 포맷에 올리고 인쇄물 없는 회의할 것 등이다.

5개년 중기계획으로는; 회원국 간의 국경 없는 인턴쉽 교류 프로그램 구축; 회원국 학생들의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능한 상호교류 웹페이지 구축; 연례 우수디자인학생상을 알리기 위해 ARCASIA 웹사이트에 올릴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이다

10개년 장기계획으로는 "아시아건축사협의회 건축사(ARCASIA Architect)"라는 칭호를 부여할 수 있는 인증 위원회(Accreditation council)의 설립; 버추얼 아시아건축대학(Virtual Asian School of Architecture); 웹 문서로 된 "계간 ARCASIA 학생 E-journal" 발간 등이다.

이런 로드맵에 대해서 위원장은 각국이 적어도 한 프로젝트를 자발적으로 담당해줄 것을 권고하였다. 학생교류에 비자 문제 등이 제기(IAB) 되자 Dr. Chalay(ASA)가 각국 연례보고서 내용의 일부이므로 각국은 Google Spread sheet를 채워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교류시 학년 차에 관한 이슈가 제기(IAB) 되었으나 각 학교가 다른 체계를 운영하므로 각 학교의 웹사이트를 참조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필리핀(UAP)이 학생 인턴쉽 프로그램을 위한 MOU에 대해 요청을 하였다. 태국(ASA)은 이미 스리랑카(SLIA), 방글라데시(IAB)와 맺고 있으므로 각 회원협회에 전달하여 같은 양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였고 참석자 모두 동의하였다. 참석자들은 또한 ASA가 주관할 온라인상의 ARCASIA/ACAE 저널에 대한 계획을 장기계획에 넣자는 데 동의하였다.

ASA는 또한 "아카시아 학술 및 연구 저널(ARCASIA Academic and Research Journal)"을 제안 했는데 이는 전적으로 열람용(peer reviewed)이며 온라인출판(online publication)을 전제로 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ASA와 인도(IIA)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초안을 만들어 올해부터라도 착수 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 문제는 이사회의 수락을 얻어야만 할 것으로 모두 이해하였고 회의는 18:20분에 마쳤다.

10) 2011년 8월 17일 10:00 Time Line Chart 및 핸드북에 관해서 부위원장인 Dr, Chalay Kunawong, Nela de Zoysa(SLIA) 및 조인숙(KIRA)은 별도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Nela는 참석하지 않았다. 협의 내용은 인쇄물로 출판하는 것은 출판과 함께 시대에 뒤떨어진 자료가 되므로 웹 베이스로 하자는 의견에 동의했고 그래야만 질적으로는 더 좋게 내용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KIRA에 요청사항은 웹마스터와 협의하여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달라는 것이었다. 웹에 올리는 포맷의 가이드라인과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빠른 시간 안에 회원국에 보내야할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하였다. 당일 추가논의는 위원장과 서기가 이사회보고서 작성을 하는 장소에서 동시에 몇 가지를 확인하면서 진행되었고 11시 30분쯤 회의를 마쳤다.

-기타

십 년이 넘는 긴 시간의 공백을 안고 교육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내용을 빼놓지 않고 전달해야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으나 서기 Dr. Walaiporn의 도움으로 참석자 명단 및 개략 논의 내용의 초안을 받을 수 있어서 필자가 메모한 것과 대조해가면서 보고서를 썼다. 아쉬운 것은 전년도의 자세한 사항 등이 좀 더 객관화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ACAE 보고서 작성자 : 조인숙)

2. 2. 2 실무위원회(ACPP, ARCASIA Committee on Professional Practice)

- 회의 일시 : 2011년 8월 16일 오후 1:30 ~ 6:00
- 참석자 : 위원장 Balvir Burma(인도) 외 각 국 대표 23 명
- 한국 대표 : 신춘규 이사
- 주요 안건 및 협의 사항

1) SEARCH(Students-Architects for Respect to Community & Humanity) 프로그램에 대해 위원장이 보고 :

지난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진 UIA 회의에서 아카시아의 3개 분과위원장의 합동회의를 통해 공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동의를 하였고 앞으로도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2) WTO/GATT, APEC, ASEAN에 대한 최신 동향보고(Esa Mohamed, 말레이시아)

– UIA의 정책은 해당 건축사가 호스트국가에서 실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각 국의 지역성과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호스트국가의 건축사와 협업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 WTO/GATS에서의 요구조건은 거주의무 조항을 삭제한 자유무역의 틀을 준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효성에서 문제가 있고 실제 진척이 없다.

– 지금 말레이시아의 경우 APEC 건축사제도와 아세안 건축사제도에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고 아세안의 경우는 UIA의 권장안에 따라 시행중이다.

아세안 건축사제도의 내용은 〈www.aseanarchitectcouncil.org〉에서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으며 각국 간 MRA는 동등한 조건에서 완전한 상호인증이 될 때까지의 임시 조건으로 간주 되어야 한다.

3) UIA 계속교육 프로그램 권장에 대한 보고

– UIA 계속교육 프로그램의 코어디네이터인 파비안이 UIA CPD 프로그램을 지난 7월23일 서신으로 아카시아에 권장하였다.

– 앞으로 아카시아와 UIA가 공동으로 CPD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협정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UIA동경대회에서 26일 11시에 실무위원회의 PT가 있을 예정이다.

4) 각 국 실무 변화 관련 보고

– 페이퍼리스 회의를 지향하는 이번회의에서 4개국만 각국 연례활동보고서(Country Report)를 제출하였다.

– 특히 한국이 보고한 건축사보수기준의 조정연구, 건축물유지관리법의 제정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며, 싱가포르의 경우는 최소보수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각 국이 유사한 이유로 독과점을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축물의 유지관리법을 통해 건축사들의 업무영역을 넓혀나가려는 협회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였다.

5) 기타사항

– 각 국의 건축실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기로 한국대표가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서 필리핀의 Dinky가 구축해 놓은 웹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www.arcasia-profprac.co.nr)

– 동경 UIA 대회에 참가하는 실무분과위원회 대표단은 26일 11시 UIA PPC의 PT후 같이 만나 필요시 협의를 하기로 하였다.

2. 2. 3 친환경위원회(ACGSB, ARCASIA Committee of Green and Sustainable Building)

– 회의일시 : 2011년 8월 17일 오전 8:30 ~ 12:00

– 참석자 : 위원장 Ashvin Kumar(싱가포르) 외 각 국 대표 20 명

– 한국 대표 : 전성호 위원, 조인숙 위원

– 주요 안건 및 협의 사항

Furma Resort Son Tra 회의실에서 개최된 친환경위원회는 Ashvin Kumar위원장(싱가포르건축사협회, SIA)이 주관하였으나 친환경 분야 권위자인 이와무라 가즈오 교수(일본, JIA)가 전체 주제에 관한 실무 발표를 진행 하였다.

특히 이와무라 가즈오 교수는 최근 아시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 기온에서 기인한 가뭄, 홍수, 지진, 쓰나미 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이에 따른 대책이 절실한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 및 해결책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마련이 아주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였다. 각 나라마다 다른 기후 및 지형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정책을 공유함으로 인하여 신속한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부분 동의 하였다.

각국에서 온 각국의 친환경 관련 현황을 발표한 후 Ashvin위원장은 아카시아 홈페이지에 친환경 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페이지 개설을 제안했고 모두 이에 동참하고 실행 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싱가포르에서 9월 친환경 관련 모임이 있음을 안내하였고 7개국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다고 고지하였다. (일본, 한국은 불참)

2. 3 기타 행사

2. 3. 1 우정의 밤(Friendship Night)

포럼의 마지막 날 만찬에서 열리는 "우정의 밤" 행사는 각 국 대표단이 자국의 문화를 보여주고 소개하는 흥겨운 축제이면서 자국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UIA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대표단은 미리 20장의 UIA 홍보용 티셔츠를 주문해서 당일 11명의 대표단이 입고 9명의 베트남 자원봉사 여대생이 나머지 티셔츠를 같이 입고 출연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화합을 보여주고 미리 노래를 연습하여 "클레멘타인"을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로 열창하여 관객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특히 강성익 회장님의 하모니카 반주가 돋보인 행사였다. 자원봉사 대학생들에게는 우리 티셔츠가 큰 인기를 끌어서 대표단이 티셔츠를 벗어 주고 오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2. 3. 2 건축기행

포럼이 끝난 다음 날의 건축 기행은 다낭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Hue"로서 1802년부터 1945년까지는 베트남(응우옌 왕조)의 수도였고 많은 역사적 기념물과 건축물들을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인 도시이다.

2. 4 제16차 아카시아 포럼

포럼은 "21세기의 아시아 도시 : 그 경향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2일에 걸쳐 열렸으며 베트남건축사협회의 준비와 지원으로 많은 청중이 참석하여 성공적인 행사로 개최되었다. 포럼은 3부로 진행되었다.

2. 4. 1 아시아 도시에 있어서 세계화와 도시화(1부)

Norman Foster 사무소의 영국 건축사 Richard Hawkin의 홍콩 사례에 대한 강연을 필두로 2011 일본 대지진의 경험에 대한 일본 건축사 Noriyuki Okabe의 강연과 국제적 활동 경험이 있는 베트남 건축사의 강연 등이 진행 되었다.

2. 4. 2 아시아 현대 도시의 건축 경향(2부)

중국의 Zhu Wenyi, 인도네시아의 Andy Subijono, 프랑스 출신으로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Michel Cassages 등의 강연이 있었고 특히 대나무를 사용한 수준 높은 작품으로 잘 알려진 베트남 건축사 Vo Trong Nghia의 강연이 인상적이었다.

2. 4. 3 아시아 현대 도시에 있어서 건축적, 도시적 정체성(3부)

3부에서는 주로 역사성과 지역성에 대하여 여러 나라의 건축사 및 예술가의 강연이 이어졌으며 아카시아의 원로 건축사인 파키스탄의 Syed Zaigham Jaffery가 파키스탄 건축 유적의 보존에 대한 견해를 소개하여 눈길을 끌었다.

3. UIA 4지역 회의(UIA Region 4 Meeting)

– 회의일시 : 2011년 8월 15일 오후 2:00 ~ 3:45
– 참석자 : 회장, 4지역 부회장 및 각 국 대표 등 13 명
– 한국대표 : 김성민 위원장, 조인숙 위원, 전성호 위원
– 주요 안건 및 협의 사항

이번 아카시아 행사와는 무관하지만 UIA 4지역 회의를 같은 장소에서 개최하여 아시아 각국의 UIA이사가 참석하기 편리하도록 배려하였다.

루이스 콕스 UIA회장이 배석하고 가즈오 이와무라 UIA 4지역 부회장이 회의를 주관하였으며 4지역 이사 중에 에사 모하메드(말레이시아), 발비어 버마(인도)가 참석하였고 중국의 장 조우, 한국의 심재호 이사는 불참하였으나 해당 회원 단체에서 대신 참석하였으며 UIA 재무관이고 이번 UIA 회장에 출마한 고 청 치아(싱가포르)와 2012년 ARCASIA 대회를 유치하는 인도네시아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였다.

최근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도쿄에서 열리는 "2011 UIA 세계건축대회"의 준비사항에 대하여 이와무라 부회장이 설명하였다.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에 대한 우려를 의식하여 도쿄의 방사능 오염 정도를 수치화해서 보여 주는 등 외국 건축사의 참여가 세계대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아카시아 회원 단체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고 중국은 300명, 한국은 200명, 싱가포르는 20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일본 측 조직위원회(Japan Organizing Board, JOB)의 준비 사항에 대한 자료는 모든 행사에 상세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일본의 성향을 보여 주었으며 추후 서울에서 UIA 세계건축대회를 개최할 때 일본의 자료 및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4. UIA 2017 세계건축대회 서울유치 활동

UIA 2017을 유치하려는 후보도시 3개 중에 서울과 싱가포르가 아카시아 회원국에 포함되어 있어서 아카시아 총회나 포럼에서의 과열된 유치 활동이 아카시아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는 생각에서 회장단에서는 회의 장소에서의 유치 활동 및 선물 증정 등을 삼가해 달라는 각별한 주의사항이 전달되었다.

우리 협회에서는 예년과 같은 일상적인 선물과 협회 홍보물을 배부하였고, UIA유치위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홍보물은 주요 인사 및 회원 단체의 대표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하고 리셉션 및 만찬 등을 이용하여 모든 회원 단체와 다각적으로 접촉하여 지지를 호소하고 반응을 확인하는 등 활발한 유치 활동을 수행하였다. 특히 아카시아 활동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확고한 인맥을 형성한 우리 협회가 주축이 되어 확실한 지지세력 다지기에 주력하였다.

5. 맺는 말

아시아의 주요 17개국(금년부터는 라오스를 포함하여 18개국)의 건축사단체를 대표하는 아카시아(아시아건축사협의회)는 아시아의 약진에 따라 이제 국제적으로 매우 영향력 있는 단체가 되었으며, 주요 행사로서 홀수 년에 열리는 "아카시아 포럼"과 짝수 년에 열리는 "아카시아 대회"가 모두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참여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동안 아카시아 활동이 너무 친교에 치우쳐 있고 원로 중심이라는 비판도 있었으나 현 George Kunihiro 회장(일본, JIA)의 젊은 리더쉽이 아카시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 처음 시도된 "Paperless Conference"는 주최측에서 회의 자료를 USB메모리에 담아서 배부하였고 각자의 노트북 컴퓨터와 회의장의 프로젝터에 의존하여 회의를 진행함으로서 친환경적이고 변화된 아카시아의 분위기를 대변하였다.

또한 2017 UIA 세계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지난 1년간의 유치 활동의 마지막 국제 행사였던 만큼 우리 협회가 주축이 되어 유치위원회의 이름 아래 3단체와 서울시가 일치단결하여 노력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2017 UIA 세계대회 유치라는 목적 이외에 건축계의 단결과 건축단체와 서울시의 협조라는 큰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카시아, UIA 등의 국제기구의 행사 유치 등에 보이는 집중된 관심에 비해 평상시 이런 국제기구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 및 기여가 너무 미비한 것이 옥의 티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한국이 도움 받는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가 되었듯이 개발도상국에 노하우를 전수하고 국제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성숙한 단체가 되어야 하며, 2017 UIA 세계대회가 그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소식
NEWS

협회소식

제9회 이사회

2011년도 제9회 이사회가 지난 9월 21일 오후 2시에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 조직운영의 건, 홍보사업비 집행의 건이 논의됐으며, 부의안건으로 건축사 등록관리업무 준비자금 지원(대여)의 건, 2011 한국건축산업대전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 조직운영의 건
– 건축사등록원 원장은 협회 회장이 겸임하기로 함.
– 건축사등록원 조직(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 · 보완하기로 함.
• 제2호 : 홍보사업비 집행의 건
– 원안대로 집행하기로 함.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건축사 등록관리업무 준비자금 지원(대여)의 건
– 대여조건 변경 및 기타 상환방안에 관한 사항은 의결내용에서 제외하여 참고사항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 건축사 등록관리업무 준비자금 지원방안

구 분	내 용
대여 금액	• 일금 삼억칠천만원(₩370,000,000) –〉 총회 승인액(9억원) 범위내에서 자금소요 시기에 따라 추가 분할 대여예정
용도	• 건축사 등록관리업무 시행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담직원 인건비 등 제반 사업 준비자금 소요경비 충당
대여 재원	• 건축문화발전기금 ('00년이전 입회비 조성기금)
대여(상환) 조건	• 이자율(%) : 년 5% 이자 (대여일부터 이자 발생) • 대여(상환) 조건 : – 이자 : 년납(매년 5.30일). 단, 최초 이자상환은 건축사 등록업무 개시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13.5.30)까지 납입. – 원금 : 등록업무 개시일부터 2년거치 3년이내 분할 상환

• 제2호의안 : 2011 한국건축산업대전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의 건
–회장단에 위임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제6회 문화홍보위원회

제6회 문화홍보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2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1년도 홍보사업계획' 방향의 건
– 2011년도 홍보사업계획 추진분야별 구체적인 계획을 담당위원 책임하에 추진하기로 함.
▷ 교육홍보 매뉴얼 작성
▷ '건축사' 바로알리기

■ 제2회 정관개정추진 TF

제2회 정관개정추진 TF 회의가 지난 9월 22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개정추진 TF 세부추진 계획의 건
– 원안과 같이 협의하고 워크숍에서 공청회 개최 시기와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키로 함.
• 제2호 : 정관개정(안) 검토의 건
– 년도 별 정관개정의 제안 설명 등을 기초로 위원장과 사무처에서 개정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정리한 후 워크숍에서 각 조문별로 심도있게 검토키로 협의함.

■ 제3회 친환경 T/F

제3회 친환경 T/F 회의가 지난 9월 22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친환경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 제안의 건

– 한국그린빌딩협의회에서 친환경 관련 세미나 등 교육을 활발히 하고 있는 바, 우리협회에서 한국그린빌딩협의회가 교육하기 위해 강의자, 강의내용 등이 담긴 교육계획(안)을 권영철 이사가 작성하여 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함.

• 제2호 : 친환경인증기관 설립 추진의 건

– 친환경인증기관 담당이 국토해양부에서 환경부로 바뀌었으므로 담당자와 인증기관 지정 가능여부를 먼저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제3호 : 협회 민간자격제도 도입의 건

– "(가칭)친환경건축설계전문가" 자격을 협회 차원에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다만, 법제화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제9회 법제위원회

제9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2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리모델링 관련 건축법 개정(안) 축조심의의 건

– 설득력 있는 리모델링 관련 건축법령 개정안 작성을 위하여 건축법상 범위가 혼재 · 중첩되어 있는 증축, 개축, 대수선, 수선(인테리어), 용도변경의 정의에 따른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한 후에, 리모델링의 정의 및 그에 따른 업무범위를 재설정 하여야만 법령간에 혼선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층 검토가 필요한 바, 리모델링TF팀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재검토 하고, 기존 두 건의 리모델링 관련 건축법령 개정(안)을 한 개의 안으로 정리한 후에, 법제위원회에서 다시 다룰 수 있도록 함.

• 제2호 : 동일한 설계 해당여부 관련 질의의 건

– 사무처에서 검토한 대로 질의의 건은 동일한 설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무처(안)의 문구 및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회신하는 것이 필요함.

• 제3호 : 기타의 건

①설계품질향상 관련 책자발간 관련

– 설계품질향상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 시도건축사회로부터 현장조사 검사 업무시 발생하는 설계하자 사례 자료를 취합하고 자료정리 · 책자발간을 위한 TF팀 구성안[비용, 기간, 인원 : 서울 특검수행자 2~3인, 법제위원 3인(오동욱, 박준승 등)]에 작성되면 위원장이 검토하기로 함.

② 감리제도 개선 연구 추진 관련 회원 설문조사 관련

– 사무처에서 마련한 회원 설문조사(안)의 내용을 수정 · 보완한 후 위원장이 검토하기로 함.

■ 제3회 정보 · 교육 T/F

제3회 정보 · 교육 T/F 회의가 지난 10월 5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1년도 건축사연수교육의 건

– 2011년도 건축사연수교육을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함.

• 제2호 : 2011년도 건축문화강좌의 건

– 11월 초까지 건축문화강좌 과목을 선정하기로 함.

▲기타사항

• 모바일 홈페이지에 대한 건

– 모바일 홈페이지의 디자인이 타단체에 비해 낮으므로 디자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검토하기로 함.

■ 제2회 인사위원회

제2회 인사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5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감사요청(공제조합 직원징계)의 건

– 자문변호사의 자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제조합에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회장께 건의하고, 아울러, 공제조합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부연하기로 함.

• 제2호 : 수시감사(직원인건비현황) 결과조치의 건

– 수시감사 지적사항 결과조치 사항 중 직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함.

▷ 인사기록카드 작성관리 관련 : 담당직원, 소속실장의 시말서 작성 제출로 정리

▷ 징계관련 : 앞으로는 감사 의견대로 규정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토록 건의함.

▷ 승진자의 추가인상율 적용관련 : 감사의견은 이해하나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아니므로 경고조치는 타당하지 않음.

• 제3호 : 직원 채용 및 전보의 건

– 협회 건축사등록업무 및 결원보충에 따른 채용 및 전보는 회장이 인력운용 방침에 따라 임용토록 함.

– 건축직 직원의 부족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상근이사 인건비를 목내전용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협의토록 요청함.

■ 제8회 건축영화제TF

제8회 건축영화제TF 회의가 지난 10월 5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제3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시행의 건

– 제3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함.

▷ 트레일러 제작

▷ HAF, GV인사 확정

▷ 개 · 폐막식&리셉션

▷ 기념품 제작

▷ Photo Wall 제작

▷ 홍보대사

■ 제9회 건축영화제TF

제9회 건축영화제TF 회의가 지난 10월 1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제3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시행의 건
– 제3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함.
▷ 영상지원프로그램 트레일러 제작
▷ 홍보대사
▷ 개 · 폐막식&리셉션
▷ Photo Wall 제작
▷ HAF, GV

■ 제5회 건축사등록업무준비위원회

제5회 건축사등록업무준비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등록비 및 수수료 징수의 건
– 정보교육 TF의 의견을 참조하여 건축사와 실무수련자의 등록비 및 갱신비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로 함.
▷ 사무처에서는 실무수련자 수수료 산정을 위한 자료 조사
▷ 실무수련자 관리비는 년 2만5천원으로 하여 위원회(안)을 정리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 실무교육 운영방안의 건
– 각 위원들이 필수 교육시간과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면 사무처에서 정리하여 차기 회의시 재논의 하고 이를 정보교육TF에 회부한 후 이사회에 상정하여 정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사 윤리선언서 작성의 건
– 정태복, 박인석, 강철희, 조인숙 위원이 초안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8회 사업위원회

제8회 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KAFF2011 최종점검의 건
– 부스규모 : 총210부스
▷ 유료부스 150부스
▷ 무료부스 61부스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품전 및 미술전 등]
• 제2호 우수건축자재추천제 심사의 건
– 협의된 의견을 소위원회에서 최종 협의키로 함.
– 우수건축자재추천제 심사 : 신청업체 28개사, 총37품목

■ 제1회 건축사연금추진TF

제1회 건축사연금추진TF 회의가 지난 10월 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 연금추진 TF위원장 선출의 건
– 건축사 연금추진 TF 위원 중 김청권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함
• 제2호 : 건축사 연금추진 방안의 건
– '건축사 연금추진 방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타단체(변호사회 등) 연금제도 운영 사례(조사)와 종전 '건축사 연금규정'등의 검토를 통해 차기 회의부터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협의키로 함.

■ 제8회 국제위원회

제8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방글라데시건축사협회 초청
– 참가 회원명단을 송부토록 요청한 후 공식 초청장을 발송하기로 함.
• 제2호 : 제15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참가
– 회장과 임원 1인을 포함하여 7인이 초과될 시, 분담금을 부담하여 참가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 제3호 : 주한덴마크대사관 교류행사 추진
– 친환경T/F 또는 정보교육T/F가 업무를 주관하여 진행토록 건의하기로 함.

▲기타사항

• 지난 국제위원회에서 논의된 업무분담에 관해 본인의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국제행사는 성격에 따라 타 위원회와 업무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6년 후의 2017 UIA 세계건축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효율적인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심재호 자문위원)
• 제7회 국제위원회 회의록 중 ARCASIA Heritage Book 배포에 관해서는 안창모 교수에게 한 권 증정하기로 협의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회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

제5회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1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한중일 건축사 협의회의 시 APEC 보고안건에 관한 건
– 조인숙 간사를 발표자로 하고 발표 자료(대한민국의 APEC 등록건축사 현황, 주요현안 등)를 준비하기로 함.
• 제2호 : 2011년 후반기 계속교육에 관한 건
– 덴마크 친환경건축 강연회는 APEC등록건축사 계속교육(2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캐나다주택청(CMHC) 교육은 대한민국 APEC 등록

건축사위원회가 주관하기로 협의.
• 제3호 : 2012년도 계속교육 프로그램 및 사업 계획에 관한 건
– 차기회의에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협의
• 제4호 : APEC 등록건축사 제도 안내문 제작에 관한 건
– 안내문 초안을 수정 및 보완하여 APEC등록건축사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함.
• 제5호 : 회원인증 기준 및 교육시간 인정에 관한 건
– 차기회의에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협의.
• 제6호 : 등록증 및 등록카드 변경 에 관한 건
– 중앙이사회 사무국에서 수정 · 변경한 등록증 및 등록카드를 사용키로 협의.

▲기타사항
• 제1기 APEC 등록건축사 2차 등록갱신 2차 심사 결과
– 등록갱신 가능시간(2년 간 36시간)보다 3시간미만이 부족한 4인에 대해서는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하여 재심사하기로 협의.
• MRA 추진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활동 및 국제 네트워크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
• 패시브하우스 세미나에 관한 건은 좀 더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위해 정보교육T/F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차기 위원회에서 상세사항을 논의하기로 함.

서울시건축사회, 2011 회원친목체육대회 개최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강석후)는 지난 10월 12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2011 회원친목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오전 10시부터 개최된 행사는 360여명의 회원과 후원업체,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4개 권역별 대항 축구경기 및 16개 구건축사회가 참가한 족구경기, 고리던지기, 훌라후프, 제자리멀리뛰기, 800m계주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전북건축사회, 수해성금 전달 및 지능형 건축행정 적법성검토 시스템 사용자교육 참여

전라북도건축사회(회장 이성엽)와 정읍지역건축사회(회장 이영교)는 지난 8월 31일 정읍시를 방문하여 전라북도건축사회 임원들과 정읍지역건축사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을 김생기 정읍시장에게 전달하였다.
또 전북건축사회는 지난 9월 2일 전라북도청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국토해양부 산하 건축행정정보화추진기획단에서 주최 '지능형 건축행정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도내 건축사 및 건축사사무소 소속직원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 교육은 7월부터 11월까지 지능형 건축행정 시스템을 확산 보급하기 위한 교육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시행하고 있다.

안양지역건축사회, 과천시와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 협약

안양지역건축사회(회장 황규태)는 과천시와 지난 10월 7일 소규모 건축물이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과천 · 안양 · 의왕 · 군포 등을 관할 지역으로 맡고 있는 안양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은 과천 소재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주요 공정 현장 검측 · 상담 등의 기술지도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등 건축 시공 단계에서 사용 · 승인까지 1대1로 품질을 관리하게 된다.
시는 민원인이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을 희망하면 건축사회 건축사를 순번제로 지정, 운영해 도움을 줄 계획이다.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전달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회장 이석규)는 지난 10월 12일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제7회 전국대한건축사축구대회가 열린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이뤄졌으며, 대한건축사축구연합회도 화성시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춘천지역건축사회, 공지천 환경정화 봉사

춘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전영석) 회원과 가족은 지난 9월 24일 춘천시 공지천 일원에서 '1사 1문화재지킴이'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1사 1문화재지킴이'운동은 소중한 문화유산인 '숭례문'과 '낙산사' 소실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막고자 '1社'가 '1文化財'를 맡아 안전점검은 물론 환경정비, 전문지식과 기술도 제공하는 활동이다.

서울 · 인천건축사회마라톤동호회, 제2회 국토사랑 건설경제 하프마라톤대회 참가

서울특별시건축사회마라톤동호회와 인천광역시건축사회마라톤동호회는 지난 9월 4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된 '제2회 국토사랑 건설경제 하프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마라톤대회는 건설관련 기업 및 단체 회원 오천여명이 참가한 대회로 우리협회 양 마라톤동호회 회원들은 전원이 완주하며 협회와 건축사를 홍보하고 회원 간에 우의를 다졌다.

• 문의 : 건축사마라톤, cafe.daum.net/GunDAL

2011 추계 서울건축사축구대회 개최

서울특별시건축사축구동호회는 회원들의 건강증진과 친목도모를 위해 지난 9월 22일 송파구 마천동 천마공원 축구장에서 '2011 추계 서울건축사축구대회'를 개최했다.

강남구 · 관악구 · 마포구 · 서초구 · 송파구 5개구 축구동호회에서 100여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우승은 서초구축구동호회가, 준우승은 송파구축구동호회가 차지했다.

건축사마라톤동호회, 마라톤대회 참가 및 박용길 회원 회장 선출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마라톤동호회는 지난 10월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 영동대로에서 개최된 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마라톤 대회에는 전국 회원과 가족 50여명이 참가했으며, 대회 종료 후 개최된 건축사마라톤동호회 정기총회에서는 박용길(인석 건축사사무소) 회원이 차기(2012년~2013년) 회장으로 선출됐다.

건축계소식

'2017 UIA 세계건축대회' 서울 유치 확정

2017년 UIA 세계건축대회 개최지로 서울이 확정됐다.

지난 10월 1일 동경에서 개최된 UIA 총회에서 서울은 싱가포르와 멕시코시티를 제치고 '2017년도 UIA 세계건축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싱가포르, 한국, 멕시코시티 순으로 진행된 이 날 프레젠테이션에서 한국은 가야금과 일렉트로닉 기타의 조화로운 선율을 배경으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와 다이내믹한 현대의 이미지를 가진 한국의 정체성을 표현했다. 또한 지하철 자유이용권, 한옥민박 무료제공, 한식상차림과 맥도날드 햄버거의 국내가격비교 등의 현실적인 접근으로 차별화 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투표는 1, 2차로 진행됐는데, 1차에선 서울 125표, 싱가포르 85표, 멕시코시티 44표로 서울과 싱가포르가 2차 경합을 펼치게 됐다. 2차 투표 결과 서울 146표, 싱가포르 106표로 서울이 최종 확정됐다. 서울의 이번 도전은 3번째로, 지난 1993년과 2002년에 대회 유치에 도전했었으나, 각각 영국과 일본에 패했었다. 유치단에 참석한 한 건축사는 "총회 전부터 서울의 유치가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였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서울이 압도적인 표차로 이겨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유치를 위해 한국건축단체총연합(대한건축사협회 · 한국건축가협회 · 대한건축학회)는 MOU를 체결하는 등 서울시와 다각적인 협조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김종성 건축사(서울건축대표 · 전 일리노이공대 교수)를 유치위원장으로 선임,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했으며, 해외 주재 대사관의 협조를 얻기도 했다.

UIA는 1948년 프랑스 파리에서 창립돼 전세계 123개국, 130만 건축사를 대표하는 세계 유일의 국제 건축사 연합단체로, 3년마다 대륙별로 개최되는 총회에는 건축사 및 학생 등 3만여 명이 참석한다. 차기 UIA 세계건축대회는 2014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며,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준비위원회는 '보고 싶은 한국, 가고 싶은 한국, 다시 찾고 싶은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 참가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7년 UIA 세계건축대회가 약 4,000억원 안팎의 경제파급 효과와 5,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7 UIA 서울세계건축대회 유치 축하 기념식 개최

한국건축단체총연합(FIKA)는 지난 10월 13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2017 UIA 서울세계건축대회 유치 축하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강성익 회장과 임직원이 참석했으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상정 위원장,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 김종성 UIA 서울세계건축대회유치위원장, 대한건축학회 이언구 회장 등 정부관계자 및 건축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2011 건축의 날 개최

대한건축사협회 · 한국건축가협회 · 대한건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국토해양부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2011 건축의 날' 행사가 10월 4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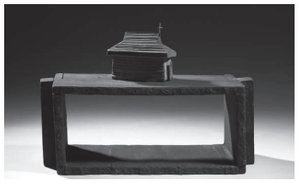
'녹색성장 속의 건축'이란 주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이상정 국가건축정책위원장, 대한건축사협회 강성익 회장을 비롯한 건축계인사 등 5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올 해는 지난 10월 1일 '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 유치 확정을 축하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기도 했다.

올해 건축의 날에서는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3명을 포함해 총 39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영예의 대통령 표창은 최동규 건축사(주.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제해성 교수(아주대학교), 김영수 건축사(주.민영 종합건축사사무소)가 수상했다. 또한 국무총리상은 김석윤 건축사(건축사사무소 김건축), 김형우 교수(홍익대학교), 장양순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창건축)가 수상했다. 이밖에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표창에 9명, 국토해양부장관 표창에 15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에 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들은 국가 녹색 성장 동력으로서 건축의 비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정부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올 건축의 날에는 친환경 건축 · 수해양 건축 관련 전시가 동시에 열렸으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장렬 본부장이 'Vertical Farm(수직농장) 융합기술개발사업으로서의 가능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류정곤 실장이 'Vertical Aquaculture(빌딩양식) 산업화 방향'이란 주제로 각각 강연을 펼쳤다.

최승원 회원, 목인갤러리 초대개인전



최승원 회원(앙가주망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이 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목인갤러리(박물관)에서 '기도의 집(Imaging Cross)'을 주제로 초대개인전을 연다. 최승원 건축사는 건축설계를 하면서 스케치와 조형작업을 꾸준히 해와 건축개인전과 아티그램에서 2인전을 하였고, 작년 봄에는 목인박물관 갤러리초대전으로 개인전 '목우(木宇Imaging House)'를 전시하여 집의 원초성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건축, 조각, 설치, 그림, 스케치, 사진 등 종합전시이며, 오프닝행사는 10월 19일 17시에 동 장소에서 개최된다.

서울시건축사회「청년건축사 유니온」출범

서울지역 젊은 건축사들을 위한 모임인 '청년건축사 유니온' 출범식이 지난 10월 6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청년건축사 유니온은 사무소를 개업한 청년건축사들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사항들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마련 조직이다.

청년건축사 유니온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70년대 이후 출생 회원 중 단체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고등학교 OECD의 CELE 선정

이용선 건축사(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선기획)의 '인천국제고등학교'가 OECD의 CELE(Centre for Effective Learning Environments)에서 선정한 2011 선진교육시설의 모범사례 학교시설에 선정되어 OECD홈페이지 게시되었으며, 책으로도 출판된다. 'OECD의 CELE'는 교육시설의 질을 개선하여 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계획, 운영 최대한의 교육적 효과를 올리기 위한 조사연구, 정보교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OECD에 있는 조직으로 1990년대부터 세계 선진적인 교육시설의 좋은 사례를 선정, 소개하는 사업을 시작하여 1996년(1판), 2001년(2판), 2006년(3판), 그리고 4판이 2011년 후반에 출판된다.

KCC, 건축학과 전공 대학생 대상으로 기술 및 제품 세미나 실시

KCC는 미래 건축업계를 이끌어 나갈 건축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KCC의 친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 및 제품들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6월 한양대학교와 영남대학교에서는 제품 세미나를,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KCC 건축환경연구센터 견학을 실시했다. 이 같은 기술 및 제품 세미나는 지난 9월 고려대와 이화여대, 부경대에서도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는 건축학과 학생들에게 KCC의 친환경 건축자재를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KCC의 친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집약된 KCC 건축환경연구센터 견학을 통해 KCC의 앞선 기술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체험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 같은 세미나가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장학사업 및 산학 협력에 늘 앞장서 온 KCC의 인재양성을 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실천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9월 21일 KCC는 부경대에서 '친환경 건축 디자인 트렌드'라는 주제로 KCC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과 친환경 제품에 대한 세미나를 열어 부경대 공과대학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150여명의 학생들과 교수진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KCC는 세미나를 통해 BIPV 등 KCC가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전방수 석고보드, 진공단열재 등의 건식 INFILL 시스템, 친환경 건축 디자인 트렌드 등을 소개하였고, 참가자들은 KCC의 앞선 기술력과 우수한 제품에 많은 질문을 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부경대 건축학과 교수는 "건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건축 재료를 접하는 기회가 매우 중요함에도 그러한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국내 건축자재 대표 기업인 KCC에서 세미나를 통해 학생들에게 생생한 지식을 전달해 줘 감사드린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KCC가 보유한 우수한 친환경 제품은 물론, 앞선 기술력을 접하게 돼 KCC가 친환경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기업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세미나 소감을 전했다. 더불어 학생들에게는 물론 사회 전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뜻 깊은 행사인 이 같은 세미나가 향후에도 지속되길 바란다는 희망을 밝혔다.

• 문의 : KCC 고객상담실 080-022-8200, www.kccworld.co.kr

김은미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조교수 I Kim, Eunmee I

뉴욕 교통부 소유 부지를 지상에는 공원으로, 지하를 건물로 계획하려는 NYU

Aerial rendering showing NYU's expansion plans

로버트 모제스의 암울한 Lower Manhattan Expressway 계획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들이, 그가 구획들을 꿰맞추어서 만든, 지금은 뉴욕 교통부서(DOT) 소관인 맨해튼의 "빌리지"에 지속적이며 광범위 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워싱턴 광장 남단의 두 슈퍼 블록의 경계를 따라 위치한 잔여 부분 중 일부는 현재 인기 있는 녹색공간이다. 뉴욕 대학(NYU)이 워싱턴 스퀘어 빌리지 다층의 교실을 만들기 위해 땅을 사는 것을 시도했을 때, 지역사회는 이 후에 이 계획이 지상의 개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항의하였다. 대학은 한발 물러서서, 지금의 지역을 다시 맵핑하고 두 최북단 "좁고 긴 땅"인 구역(strip)을 공원으로써 지정하고, 그 지하 공간은 교실 건물이 들어서는 안을 제시 하였다. 또한 그 구역의 땅을 공원관리부서의 통제 안에 두어서 지역주민들에게는 그 공간을 그 들이 원하는 오픈 스페이스로서 유지될 수 있는 행정적 보장 장치가 될 수 있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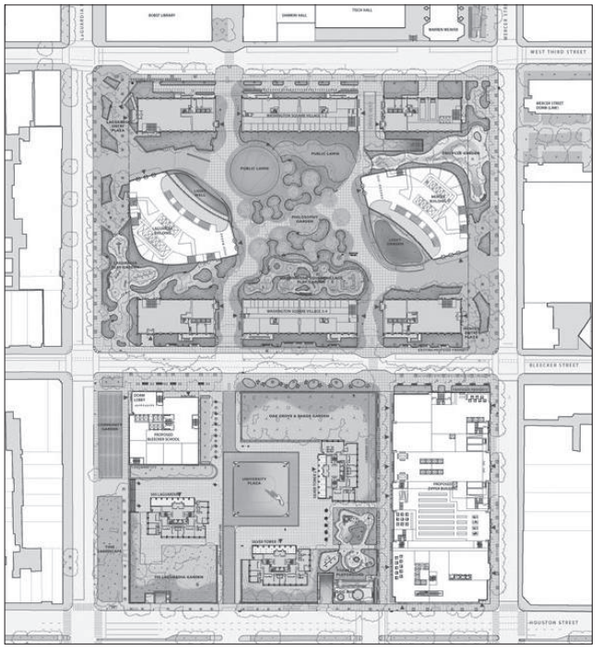
"이 공간들을 소유한 이 도, 그것을 이용하려고 한 경우도, 또한 돌보는 책임을 지어야만 하는 사람 중 누구도 투명하고 명확하게 이것을 알고 있지 못했다." 뉴욕 정부 업무 부사장인 엘리시아 헐리는 이 구역에 대해 말하며. " 우리의 계획은 이 지역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보여 줍니다"라고 밝혔다.

LaGuardia, Mercer, West Fourth, 그리고 Houston에 의해 경계 지어지는 지역 안의 다섯 개의 DOT 구역중 NYU는 4가지 변화들을 찾고 있다. 워싱턴 스퀘어 빌리지 북부의 슈퍼블록에 Grimshaw Architects와 Toshiko Mori 그리고 Michael Van Valkenburgh Associates(MVVA)에 의해 설계된 두 개의 제안된 건물은 구역에 위치하지 않도록 이동 하였고, NYU는 그 공간을 공원지정 할 계획이다. 가장 최근의 제안 또한 한 개의 빌딩, 머서 빌딩을 서쪽으로 15피트 이동하여 DOT 소유 스트립으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요청은 공원아래 건물을 위해 지역권을 찾고 있는 Universal Land Use Review Procedure (ULURP) application 산하로 접수 될 것이다.

실버타워의 남부 슈퍼블록에서 NYU는 Grimshaw와 Mori에 의해 디자인된 Zipper Building이 30피트 동쪽인 DOT 구역으로 옮기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건물과 실버타워 사이에 중정 산책로를 10피트에서 40피트로 넓히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다른 모든 부분과 마찬가지로 Michael Van Valkenburgh Associates 에 의해 조경 계획이 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NYU는 여전히 Mercer를 따라 슈퍼블록의 북쪽에 면해 있는 DOT 소유인 "strip"을 구입할 것을 원한다. 대학 관계자들은 용적률 또는 공중권을 염두에 두지 않으며, 기계실을 위치하기 위한 30ft X 400ft 크기의 임대 종료되는 곳을 찾는 중이라고 말한다.

그 구역 "strip"은 공원으로 유지할 것이다. 대학은 실버타워블록의 서쪽 가장자리 5번 구역을 따라 나 있는 커뮤니티 가든이 영향을 받



Site plan showing DOT strips as parks and wider courtyard w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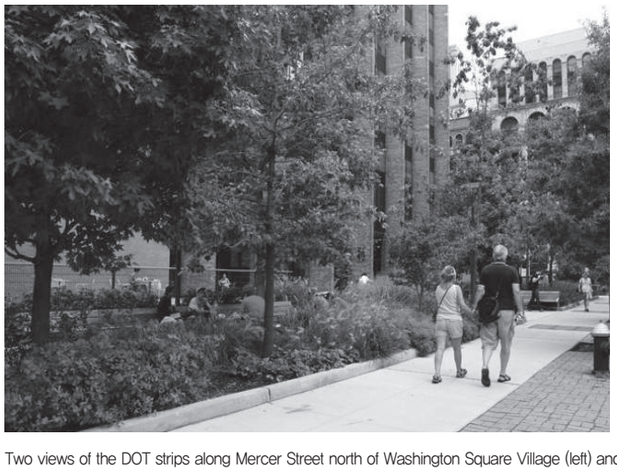
지 않은 채 남을 것이라고 말한다.

MVVA의 조경건축가 Matt Urbanski는 이러한 변화가 특히 Zipper Building 와Silver Towers 사이에 중요한 디자인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고 말한다. "새로운 건물을 이동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공간을 증폭시키는 것이 가능했고, 그리고 대중과 고통스럽게 강요를 하지 않고 부드럽고 우아하게 소통하게 되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것은 실버타워에게 좋은 대응이다. 이 공간은 분명하게 사람들을 소호로부터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며, Ubanski는 추가된 북쪽 슈퍼블록의 동쪽 모서리 15피트는 "입구의 표현"을 형성 하는 것을 돕는다. 라며 덧붙였다.

Greenwich Village Society for Historic Preservation 의 Andrew Berman은 최근의 제안들에 대해 전혀 다른 방향의 제스처로 이해하였다. 그는 "이것을 타이타닉에서 갑판위의 의자를 재배열하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이것은 엄청난 규모의 언저리에서 단지 작은 부분이 수정되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Robert Moses 계획의 잔재이어서, 이것은 도시에게 과거로의 회귀하는 슬픈 아이러니가 될 수 있고, NYU에게는 게걸스러운 개발을 허용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NYU 관계자는 공원 관할권 구역을 이동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행정 변화일 것이라고 말하며, 이것은 초기 2012년 시작할 것이고 몇 개월의 과정을 통해 밖으로 재생될 그들의 ULURP과정과 병렬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했다. 공원 지정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도시와 주 의회의 검토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무리 지을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 중 하나는 공원을 다른 어떤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라고 NYU 수석 부사장 Lynne Brown은 말했다. "공원은 다른 어떤 분류보다 매우 다른 방식 안에서 개발로부터 땅에게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한다."라고 그 는 전했다.

* 윗글은 Architect's Newspaper 기사의 일부를 발췌 번역, 인용했습니다.



Two views of the DOT strips along Mercer Street north of Washington Square Village (left) and LaGuardia Place (right)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1년 8월말

구분 / 건축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1인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434	5,434	95	190	8	24	5,537	5,648	1,626	1,626	230	460	53	159	26	104	22	145	1,957	2,494	7,494	8,142
서울	852	852	23	46	2	6	877	904	828	828	133	266	36	108	10	40	14	84	1,021	1,326	1,898	2,230
부산	473	473	15	30	2	6	490	509	102	102	17	34	2	6	2	8	2	15	125	125	615	674
대구	457	457	19	38	4	12	480	507	67	67	18	36	2	6	2	8	2	10	91	127	571	634
인천	273	273	3	6	0	0	276	279	69	69	6	12	1	3	0	0	0	0	76	84	352	363
광주	201	201	1	2	0	0	202	203	39	39	8	16	2	6	2	8	0	0	51	69	253	272
대전	247	247	5	10	0	0	252	257	37	37	5	10	4	12	1	4	1	15	48	78	300	335
울산	179	179	5	10	0	0	184	189	19	19	2	4	1	3	0	0	0	0	22	26	206	215
경기	761	761	1	2	0	0	762	763	236	236	20	40	2	6	3	12	1	5	262	299	1,024	1,062
강원	176	176	2	4	0	0	178	180	25	25	2	4	0	0	1	4	0	0	28	33	206	213
충북	215	215	3	6	0	0	218	221	34	34	4	8	1	3	2	8	1	9	42	62	260	283
충남	252	252	1	2	0	0	253	254	50	50	4	8	1	3	2	8	0	0	57	69	310	323
전북	247	247	4	8	0	0	251	255	22	22	2	4	1	3	1	4	0	0	26	33	277	288
전남	201	201	1	2	0	0	202	203	18	18	2	4	0	0	0	0	1	7	21	29	223	232
경북	370	370	5	10	0	0	375	380	37	37	4	8	0	0	0	0	0	0	41	45	416	425
경남	411	411	6	12	0	0	417	423	29	29	2	4	0	0	0	0	0	0	31	33	448	456
제주	119	1119	1	2	0	0	120	121	14	14	1	2	0	0	0	0	0	0	15	16	135	137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분 / 건축사회	회원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비율	
합계	8,142	10	8,152	100%	23
서울	2,230	3	2,233	33.9%	10
부산	674	1	675	7.9%	9
대구	634	0	600	7.7%	0
인천	363	0	356	3.8%	0
광주	272	0	275	3.7%	0
대전	335	1	336	3.7%	0
울산	215	0	212	2.6%	0
경기	1,062	2	1,064	12.2%	2
강원	213	0	208	2.6%	0
충북	283	0	279	3.0%	0
충남	323	3	326	3.1%	0
전북	288	0	278	3.0%	0
전남	232	0	220	1.9%	0
경북	425	0	407	4.6%	1
경남	456	0	452	5.0%	1
제주	137	0	125	1.3%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전입미처리	합계	비고
회원수	5,648	2,494	–	8,142	
비율	69.37%	30.63%	–	100%	
사무소수	5,537	1,957	–	7,494	
비율	73.89%	26.11%	–	100%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건축허가** 현황 통계는「국토해양 통계누리(http://stat.mltm.go.kr)」에서 자세히 열람할 수 있습니다.